

구주 강성 일천구백칠년

신약전서

대한광무십일년영미

THE NEW TESTAMENT IN KOREAN 1907.

MASSACHUSETTS BIBLE SOCIETY

Printed for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which represents the Board of Christian Missions in Korea, by the American Baptist Press, Seoul, Korea.

신약 전서 목록

마태 복음	二十八章	일장
마가 복음	十六章	십이장
누가 복음	二十四章	십육십오장
요한 복음	二十一章	이십칠십소장
사도행전	二十八章	삼십육십일장
로마	十六章	소십육십소장
고린도전	十六章	오십삼삼장
고린도후	十二章	오십오십구장
갈나디아	十六章	오십구십장
에베소	十六章	륙십륙장

빌립보	四章	륙십이십이장
골로새	四章	륙십삼십삼장
데살로니가전	五章	륙십소십소장
데살로니가후	三章	륙십오십소장
디모데전	六章	륙십오십구장
디모데후	四章	륙십칠십일장
디도	三章	륙십팔십장
빌네몬	一章	륙십팔십오장
히브리	十二章	륙십팔십팔장
야고보	五章	칠십이십삼장
베드로전	五章	칠십삼십소장

신약 전서 목록

신약 전서 목록

신약 전서 목록

THE NEW TESTAMENT IN KOREAN.

1907.

311301033AM  
YF1103

Printed for the Bible Committee of Korea, which represents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The American Bible Society  
and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by  
The Fukuin Printing Company, Yokohama, Japan.



三 나코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나코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나코 아비훗은  
 二 엘니아김을 나코 엘니아김은 아소르를 나코 아소르는 사독을 나코 사  
 一 독은 아김을 나코 아김은 엘니웃을 나코 엘니웃은 엘니아사를 나코 엘  
 二 니아사는 맛단을 나코 맛단은 야곱을 나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三 을 나눴스니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마리아의게서 나시니라 ○ 그런즉  
 四 모든 디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디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  
 五 혀갈 때까지 열네 디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디  
 六 라 ○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七 평온하고 성례하기 전에 성신으로 잉태함이 되었더니 그 남편 요셉은  
 八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만히 생각하여 이 일을 생각할  
 九 때에 주의 스자가 현몽하여 글으되 다윗의 조손 요셉아 네 안히 마리아  
 一 〇 다려오기를 무서워하라 너의게 잉태한 거시 성신으로 되었스니 아들을  
 二 낳거든 일홈을 예수라 할라 이는 주의 밋심으로 되엿스나 아들을  
 三 라 할지라도 이러함 모든 거슨 주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일우려 하심이니

그런즉

三 볼지이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일홈은 임마누엘  
 二 이라 할리라  
 一 하시니 번역한즉 하는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쳐  
 二 여 나려나서 주의 스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안히를 다려왔스나 아들을  
 三 낳지 아니하고 동침치 아니하니 나흐매 일홈을 예수라 하니라  
 四 헤롯왕 때에 예수가 유대 벧을네hem에서 나시니 박스들이 동방으로부터  
 五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뇨  
 六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너의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  
 七 과 원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할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  
 八 관을 모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낳겠뇨 무르니 글으되 유대 벧을네  
 九 hem이오니 선지자로 이레게 기록하였스니  
 一 유대사 벧을네hem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그 장적지 아니함도다 네  
 二 게서 남군이 나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리라

七 ㅎ섯느이다<sup>七</sup> 이에 헤롯이<sup>七</sup> ㅁ만히 박스를 불너 별이 나탄날 때를 ㅈ세히  
 八 ㅁ고 벵을네험으로 보내며 빌너 글으되 가셔 아기를 ㅈ세히 차자 맛나  
 九 ㅁ든내게 고하라나도 가셔 그의게 경비하리라 박스가 왕의 말을 듯고  
 十 ㅁ갈식 동방에서 보이던 별이 문득 압흐로 인도하야 아기 잇는 곳까지  
 十一 니르러 그우에 ㅁ처는지라 별을 보고 ㅁ장 크게 깃브고 깃버하더라 집  
 十二 에 드러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보고 업되여 아기씩 경비하코 보비  
 十三 합을 열어 레물을 드리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 ㅁ꿈에 헤롯의게  
 十四 로 도라가지말나 지시하시니 다른 길노 고국에 도라가니라 ㅁ박스가  
 十五 ㅈ난 후에 ㅈ유의 스자가 요셉의게 현몽하야 글으되 헤롯이 아기를 차자  
 十六 ㅈ죽이려하니 니러나 아기와 그 모친을 다리고 애굽으로 피하야 내가네  
 十七 게 빌으기까지 거과 잇스라 하시니 요셉이 니러나셔 밤에 아기와 그  
 十八 모친을 드리코 애굽으로 ㅈ어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과 잇섯스니 이는  
 十九 ㅈ유가 선지자로 ㅎ신 말씀을 일우려 ㅎ심이니 빌넷스디  
 二十 ㅁ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넛다

十六 ㅎ섯느니라 이에 헤롯이 박스의게 속은줄을 알고 심히 노하야 사름을  
 十七 보내여 벵을네험과 그 모든 디경 안에 잇는 사나희를 박스의게 때를  
 十八 ㅈ세히 무른대로 두설브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리미야  
 十九 로 ㅎ신 말씀이 일우엇느니 빌넷스디  
 二十 ㅁ라마에서 올며 크게 설워하는 소리가 들니니 라헬이 그 ㅈ식을  
 二十一 인하야 올며 ㅈ식이 업는고로 위로를 받지 아니흐다  
 二十二 ㅎ섯느니라 ㅁ헤롯이 죽은 후에 ㅈ유의 스자가 애굽에서 요셉의게 현몽하  
 二十三 야 글으되 니러나 아기와 그 모친을 다리고 이스라엘싸으로 가라 아기의  
 二十四 목숨을 ㅎ려하던 사름들이 죽엇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니러나 아기와  
 二十五 그 모친을 다리고 이스라엘싸으로 도라오니라 그러나 아켄나오가  
 二十六 그 부친 헤롯을 니어 유대 님군 됨을 듯고 거과로 가기를 무셔워하더니  
 二十七 ㅁ꿈에 ㅎ님의 지시 ㅎ심을 받아 갈닐니 디경으로 ㅈ어나가 나사렛이란  
 二十八 동리에 와셔 사니 이는 선지자로 ㅎ신 말씀에 나사렛 사름이라 칭하리  
 二十九 라 ㅎ심을 일우려 ㅎ심이라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이르러 전파하야 글으되 회개하라  
 려국이 갓가오니라 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쟈니 닐넛스되  
 광야에 소리 잇서 웨쳐 글으되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첩경을  
 곧게 하라

흠이러라 이 요한은 약 되 열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  
 썩이와 석청이러라 이 때에 예루살렘과 원 유대와 요단 강 스방에서 다  
 나아와 각각 제 죄를 즈복하고 요단 강에서 요한의게 세례를 받으  
 나 바리새교인과 사두기교인이 세례를 받으러 만히 오음을 보고 닐네 글으되 독  
 샤의 종류들아 누가 너희를 구려쳐 장리의 노릇심을 피하라 하더냐 그런  
 고로 회개함에 합당할 열미를 밋고 믿음에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나 내가 너희게 닐노니 하늘이 능히 이 돌노도 아브  
 라함의 조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독과를 나무 썩리에 노릇스니 돌노  
 열미 밋지아니 하는 나무는 다 썩여 불에 던지리라 나는 물노 세례를 주어  
 너희로 회개하게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하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신과 불노 세례를 주시리  
 니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샤 알곡은 모화 곡간에 드리코  
 죽정이는 새지안는 불에 터오시리라 ○ 이 때에 예수가 갈닐니로셔 요  
 단 강에 이르러 요한의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되 요한이 스양하야 글으되  
 내가 맛당히 그대의게 세례를 받으리니 당신이 내게로 오시는 잇가 예  
 수니 대답하야 글으샤 당신이 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행  
 하는 거시 합당하니라 하시되 이에 요한이 허락하거늘 예수가 세례를 받  
 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신이 비둘기 모양  
 으로 내려 그 위에 림심음을 보시더니 하늘노서 소리가 잇서 말씀하샤 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깃버하는 자라 하시더라  
 그 때에 예수가 성신의게 잇살니여 광야에 가샤 마귀의게 시험을 받으실  
 시 스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시더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외셔 글으되 네가 만일 하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야 썩이 되게  
 하라 하니 예수니 대답하야 글으샤 되 기록하였스되 사람이 썩으로만 살

거시 아나오 오직 <sup>六</sup>하는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시라 <sup>五</sup>하  
 었느니라 <sup>六</sup>하시거늘 이에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다려다가 성년 석달이  
 세우고 <sup>六</sup>골으디 네가 만일 <sup>六</sup>하는님의 아들이어든 켜여느리라 <sup>六</sup>대개 <sup>六</sup>괴롭  
 혀스디

하는님이 너를 위하야 그 스자들의게 분부하샤 손으로 너를 <sup>七</sup>밧드  
 러 밧이 돌에 부딪치지안케 하시리라

하엿다 <sup>七</sup>하니 예수ㅣ <sup>七</sup>닐으샤디 또 괴롭하엿스디 <sup>七</sup>쥬너의 <sup>七</sup>하는님을 시험치  
 말나 <sup>七</sup>하엿다 <sup>七</sup>하신디 <sup>七</sup>마귀가 또 다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 <sup>七</sup>던하 만국  
 과 그 영광을 보이며 <sup>七</sup>골으디 만일 내게 업디여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하니 이에 예수ㅣ <sup>七</sup>말씀하샤디 <sup>七</sup>사단아 물너가라 <sup>七</sup>괴롭하엿스디 <sup>七</sup>쥬너의  
 하는님의 경박하고 홀노 그를 섬기라 <sup>七</sup>하엿다 <sup>七</sup>하시니 이에 마귀는 예수  
 를 썩나고 <sup>七</sup>던스는 <sup>七</sup>니르러 <sup>七</sup>슈종드더라 <sup>七</sup>○ <sup>七</sup>예수가 <sup>七</sup>요한의 <sup>七</sup>가침을 드르시  
 고 <sup>七</sup>갈닐니로 <sup>七</sup>도라가샤 <sup>七</sup>나사렛을 썩나가 <sup>七</sup>버나움에 <sup>七</sup>니르러 <sup>七</sup>사시니 <sup>七</sup>그썩  
 는 <sup>七</sup>히변이오 <sup>七</sup>스블논과 <sup>七</sup>납달니 <sup>七</sup>디경이라 <sup>七</sup>이는 <sup>七</sup>선지자 <sup>七</sup>이사야로 <sup>七</sup>하신 말

삼을 일우려 <sup>八</sup>하심이니 <sup>八</sup>닐넛스디

히변에 잇는 <sup>八</sup>스블논 <sup>八</sup>썩와 <sup>八</sup>납달니 <sup>八</sup>썩와 <sup>八</sup>요단강 <sup>八</sup>건너편 <sup>八</sup>이방 <sup>八</sup>사람의  
 갈닐니여 <sup>八</sup>어두은디 <sup>八</sup>안즌 <sup>八</sup>빛성이 <sup>八</sup>큰 <sup>八</sup>빛출 <sup>八</sup>보았고 <sup>八</sup>죽을 <sup>八</sup>디경과 <sup>八</sup>그늘에  
 안즌 <sup>八</sup>자의 <sup>八</sup>게 <sup>八</sup>밧치 <sup>八</sup>밧치엿도다

하엿느니라 <sup>九</sup>○ <sup>九</sup>이 <sup>九</sup>새 <sup>九</sup>부터 <sup>九</sup>예수가 <sup>九</sup>비로소 <sup>九</sup>전파하야 <sup>九</sup>골으샤디 <sup>九</sup>회기 <sup>九</sup>하라 <sup>九</sup>던  
 국이 <sup>九</sup>갓가 <sup>九</sup>오니라 <sup>九</sup>○ <sup>九</sup>갈닐니 <sup>九</sup>히변에 <sup>九</sup>든니 <sup>九</sup>사다가 <sup>九</sup>두 <sup>九</sup>형대를 <sup>九</sup>보시니 <sup>九</sup>베드로  
 라 <sup>九</sup>하느 <sup>九</sup>시몬과 <sup>九</sup>그 <sup>九</sup>동생 <sup>九</sup>안드레라 <sup>九</sup>더희가 <sup>九</sup>바다에 <sup>九</sup>그 <sup>九</sup>물을 <sup>九</sup>던지니 <sup>九</sup>곳 <sup>九</sup>어부  
 라 <sup>九</sup>말씀하샤디 <sup>九</sup>나를 <sup>九</sup>썩라 <sup>九</sup>오니라 <sup>九</sup>내가 <sup>九</sup>너희로 <sup>九</sup>사람을 <sup>九</sup>낚는 <sup>九</sup>어부가 <sup>九</sup>되게  
 하리라 <sup>九</sup>하시니 <sup>九</sup>곳 <sup>九</sup>그 <sup>九</sup>물을 <sup>九</sup>브리고 <sup>九</sup>썩치니라 <sup>九</sup>거기서 <sup>九</sup>더 <sup>九</sup>가시다가 <sup>九</sup>다른 <sup>九</sup>두  
 형대를 <sup>九</sup>보시니 <sup>九</sup>세 <sup>九</sup>베대의 <sup>九</sup>아들 <sup>九</sup>야고보와 <sup>九</sup>그 <sup>九</sup>동생 <sup>九</sup>요한이라 <sup>九</sup>더는 <sup>九</sup>그 <sup>九</sup>부친  
 세 <sup>九</sup>베대와 <sup>九</sup>함가지 <sup>九</sup>로 <sup>九</sup>비에서 <sup>九</sup>그 <sup>九</sup>물을 <sup>九</sup>김는 <sup>九</sup>지라 <sup>九</sup>부르시니 <sup>九</sup>곳 <sup>九</sup>비를 <sup>九</sup>썩나 <sup>九</sup>부친  
 을 <sup>九</sup>작 <sup>九</sup>별 <sup>九</sup>하교 <sup>九</sup>썩치니라 <sup>九</sup>○ <sup>九</sup>예수가 <sup>九</sup>원 <sup>九</sup>갈닐니에 <sup>九</sup>두루 <sup>九</sup>든니 <sup>九</sup>샤 <sup>九</sup>더희 <sup>九</sup>회당에서  
 무르치시며 <sup>九</sup>던 <sup>九</sup>국 <sup>九</sup>복음을 <sup>九</sup>전 <sup>九</sup>파 <sup>九</sup>하시고 <sup>九</sup>빅성 <sup>九</sup>중에 <sup>九</sup>모든 <sup>九</sup>병과 <sup>九</sup>약 <sup>九</sup>흔 <sup>九</sup>거 <sup>九</sup>슬 <sup>九</sup>곳 <sup>九</sup>치  
 시니 <sup>九</sup>소 <sup>九</sup>문이 <sup>九</sup>수 <sup>九</sup>리아 <sup>九</sup>원 <sup>九</sup>디 <sup>九</sup>방 <sup>九</sup>에 <sup>九</sup>퍼 <sup>九</sup>진 <sup>九</sup>지라 <sup>九</sup>모든 <sup>九</sup>알 <sup>九</sup>는 <sup>九</sup>자 <sup>九</sup>를 <sup>九</sup>예 <sup>九</sup>수 <sup>九</sup>썩 <sup>九</sup>다 <sup>九</sup>려 <sup>九</sup>오 <sup>九</sup>니

이 는 온갓 병드러 고통하는 자와 사귀들닌자와 간절하는 자와 풍중은자  
라 너희를 곳치시더라 <sup>三五</sup>갈닐니와 데가볼니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좃치니라

예수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데즈들이 나아오거늘  
입을 열어 이르러 이르시되 <sup>삼</sup>므음이 간난한자는 복이 있느니라 <sup>四</sup>던국이 너희  
거시오 <sup>四</sup>이동하는자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가 위로함을 받았을 거시오 <sup>五</sup>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가 싸를 차지할 거시오 <sup>六</sup>의스모하기를 주리고 목  
마른것 곳치하는자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가 비부를 거시오 <sup>七</sup>즈비하는자  
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가 즈비함을 받았을 거시오 <sup>八</sup>므음이 청결한자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가 하는님을 불 거시오 <sup>九</sup>화목케 하는자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를  
하는님의 아들이라 <sup>十</sup>닐코를 거시오 <sup>十一</sup>의를 위하야 <sup>十二</sup>핍박을 받는자는 복이 있  
느니라 <sup>十三</sup>던국이 너희 거시오 <sup>十四</sup>나를 인하야 너희를 욕하고 <sup>十五</sup>핍박하고 모든 악  
하다 하는 거짓 말도 <sup>十六</sup>비방하면 너희게 복이 있느니라 <sup>十七</sup>깃버하고 즐겨 위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상받을 거시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sup>十八</sup>곳치

십 〇 너희는 세상의 소품이나 소품이 만일 그 맛을 일흐면  
핍박하였느니라

十一 엇지 다사 짜게 하리 오 후에는 쓸데 업서 <sup>十二</sup>빛의 버려 사람의 <sup>十三</sup>흠함이 되리  
라 너희는 세상의 <sup>十四</sup>빛치니 산우에 세운성이 숨기지 못할 거시오 <sup>十五</sup>사람이

十二 등불을 꺼서 말아래 두지아나 하고 오직 <sup>十三</sup>등경우에 두어 <sup>十四</sup>원 집안 사람의  
게 빛최는 나 <sup>十五</sup>이 곳치 너희 <sup>十六</sup>빛출사름 압해 <sup>十七</sup>빛최게 하라 그 <sup>十八</sup>사람들이 너희

十三 착한 <sup>十四</sup>행실을 보고 하늘에 <sup>十五</sup>게신 너희 <sup>十六</sup>아바지를 <sup>十七</sup>영화롭게 올리라 <sup>十八</sup>〇 내가  
를 법이나 선지자나 <sup>十九</sup>폐하러 온 줄도 알지 말나 <sup>二十</sup>폐하러 온 거시 아니오 <sup>二十一</sup>완전

十四 케 하려 왔노라 <sup>十五</sup>진실노 너희게 <sup>十六</sup>닐으노니 <sup>十七</sup>던디가 <sup>十八</sup>폐하거 <sup>十九</sup>전에는 <sup>二十</sup>틀법의  
일 <sup>二十一</sup>덤일 회이라도 능히 <sup>二十二</sup>폐하지 못하교 <sup>二十三</sup>만드시 <sup>二十四</sup>다 일우리라 <sup>二十五</sup>그럼으로 누

十五 구던지 이 <sup>十六</sup>게명중에 <sup>十七</sup>지극히 적은 것하나 <sup>十八</sup>이라도 <sup>十九</sup>범하고 <sup>二十</sup>또 그 <sup>二十一</sup>곳치 사름  
을 <sup>二十二</sup>마르치는자는 <sup>二十三</sup>던국에서 <sup>二十四</sup>지극히 적다 <sup>二十五</sup>닐코를 거시오 <sup>二十六</sup>오직 <sup>二十七</sup>누구던지 이

十六 게명을 <sup>十七</sup>준행하며 <sup>十八</sup>마르치면 이 <sup>十九</sup>사람은 <sup>二十</sup>던국에서 <sup>二十一</sup>크다 <sup>二十二</sup>닐코르리라 <sup>二十三</sup>내가 너  
희게 <sup>二十四</sup>닐으노니 너희의가 <sup>二十五</sup>서기관과 <sup>二十六</sup>바리새교인보다 <sup>二十七</sup>낫지 못하면 <sup>二十八</sup>결단코

十七 던국에 <sup>十八</sup>드러가지 못하리라 <sup>十九</sup>〇 <sup>二十</sup>넷 사람의게 <sup>二十一</sup>하신 말씀을 너희가 <sup>二十二</sup>드렸느니



三 살인치말나 누구던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으나 오직 나는  
 너희게 빌으노니 형대의게 노여워하는 자마다 재판을 밟고 또 형대를 미  
 二 련호느니라 하였는자는 맛당히 공회에 잡히고 또 밋친놈이라 하는자는  
 三 다옥 불에 드러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레물을 제단에 드리랴고 거기 잇슬  
 二 째 네 형대가 너를 인하여 원망하는 거시 생각나거든 레물을 제단 압해  
 二 두고 몬져 가서 형대의 화복하고 그 후에 와서 레물을 드리라 너를 송스  
 二 하는 사람과 함께 길에 잇슬 때에 급히 소화하라 그 송스하는 자가 너를  
 二 법관의게 내어주고 법관이 관예의게 내어 주어 옥에 가돌가 넘려하라 전  
 二 실노네게 빌으노니 네가 호리라도 감기 전에는 절단코 거괴셔 나오지 못  
 二 하라 ○ 또 호신 말을 너희가 드렸는니 간음치말나 하였스나 오직 나  
 二 는 너희게 빌으노니 너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믿음에 임의 간  
 二 음을 하였는니라 만일 네 올흔 눈이 너로 범죄케 하는 것보다 배여브리라 네  
 二 빚데중에 하나를 일흔 거시 원 몸이 디옥에 빠지는 것보다 유익하고 또  
 二 할 만일 네 올흔 손이 너로 범죄케 하는 것보다 버혀브리라 네 빚데중에 하나를

六

三 일흔 거시 원 몸이 디옥에 빠지는 것보다 유익하라 ○ 또 말슴이 잇스되  
 三 누구던지 안히를 브리거든 휴셔를 주라 하였스나 나는 너희게 빌으노니  
 三 누구던지 음행하면 연고 업시 안히를 브리면 이는 더로 간음을 하게 함이오  
 三 또 누구던지 브린 너인의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을 범함이니라 ○ 또 넷사  
 三 롬의게 호신 말슴을 너희가 드렸는니 밍세를 저브리지 말고 네 밍세호너  
 三 슬 반드시 주압해서 작히라 하였스나 오직 나는 너희게 빌으노니 도모지  
 三 밍세하지 말지니 하늘노도 밍세치말나 이는 하는님의 보좌요 ○ 또 밍세  
 三 밍세치말나 이는 하는님의 밍세상이 오예루살렘으로도 밍세치말나 이는  
 三 큰 님군의 성이 오네머리로도 밍세치말나 이는 할터력도 능히 하고 겸게  
 三 못함이라 오직 너희 말이 올흔 거스 올타 하고 아닌 거스 아니라 만하라  
 三 무어시던지 이에서 지나면 악으로 좃차 나는니라 ○ 또 호신 말슴을 너희  
 三 가 드렸는니 눈은 눈으로 감고 나는 너로 감하라 하였스나 오직 나는 너  
 三 희게 빌으노니 악한 사람을 뒤덕지마라 누구던지 네 올흔 편쌈을 치거든  
 三 원 편셔지 돌너 향하며 또 사름어 너를 송스하여 속 옷을 가지고져하거

四二 든것 옷까지 가지게 하며 四一 또 누구던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져 하거든  
 四三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여든 주며 네게 꾸고져 하는 자  
 四四 여든 물니치지말나 〇 또 四三 호신 말슴을 너희가 드렸느니 네 리웃을 사랑하고  
 四五 네 원슈를 위워하라 하였스나 오직 나는 너희게 빌으노니 너희 원슈를  
 四六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야 기도하라 이 四五 및 처흔즉 너희가  
 四七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대개 하는 남이 허를 악인과 선인의  
 四八 계 빛에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혼자의게 주시느니라 너희가 너  
 四九 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슴 상급이 잇스리오 세리도 이 및 처하  
 五〇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의게만 문안하면 무어시늌보다 지나리오  
 五一 이방 사람도 이 및 처하느냐 그럼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五二 온전하심과 및 처하 너희도 온전하라  
 五三 삼가 남의게 보이라 고 사람 압해서 의를 행하지말나 그리하면 하늘에  
 五四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급을 엿지못하는니라 〇 五三 그리고로 구제할 때에 외  
 五五 식하는 자가 남의게 영광을 엿으라고 회당파 거리에셔 하는 것 및 처하  
 五六

六

三 합해라 받을 불지말나 진실노 너희게 빌으노니 너희는 제 상급을 임의  
 四 밧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올흔 손이 하는 거슬 원손이 모르게 하라  
 五 〇 四 이러케 하야 네 구제함이 은밀할지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六 가 갹하시리라 〇 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및 처하지말나  
 七 너희는 사람의게 보이라 고 회당파 거리에 구에서셔 기도하기를 도화하  
 八 는니라 내가 진실노 너희게 빌으노니 너희는 제 상급을 임의 밧았느니라  
 九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드러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  
 一〇 〇 九 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갹하시리라 또 기도할  
 一一 때에 외방 사람과 및 처 중언부언하지말나 너희는 말을 만히 하야 드르  
 一二 실줄아느니 그럼으로 너희를 본밧지말나 구하기 전에 너희 쓸 거슬 너희  
 一三 아바지가 아시느니라 〇 一〇 그리고로 이러케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一四 일흠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이 림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운것  
 一五 〇 一四 및 처 따에서셔도 일우어지이다 〇 一五 오늘날 우리의게 일용할 량식을 주옵시고  
 一六 〇 一六 우리가 우리의게 죄 지은자를 사하야준 것 및 처 우리 죄를 사하야 주옵

三 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四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스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남의  
 五 죄를 면하여 주면 너희 천부가 너희 죄도 사하여 주시려니와 너희가 남의  
 六 죄를 면하여 주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  
 七 리라 ○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실심하는 모양을 하지 말  
 八 나 너희는 얼굴을 변하여 금식하는 것을 남의게 보이려고 하는 내가 진실  
 九 노 너희게 빌노니 너희는 제 상급을 임의 밧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는  
 十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것을 남의게 보이라  
 十一 고흘이 아니오 다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임이니 은밀한 중  
 十二 에 보시느니라 아버지가 갓으시리라 ○ 보물을 썩에 싸 두지 말나 썩이 먹  
 十三 고 동록이 슬고 도적이 구멍을 뚫코 도적질하는 곳이니 오직 보물을 하  
 十四 늘에 싸 두어라 이는 썩도 못 먹고 동록도 못 슬고 도적도 구멍을 뚫코  
 十五 도적질 못하는 곳이라 대개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  
 十六 은 몸의 등불이니 그런고로 네 눈이 성하면 원뎀이 밝을 거시오 눈이 흐

一 라면 원뎀이 어두을 거시니 그런고로 네게 있는 빛치어 두면 그 어두은 거시  
 二 열마나 어둡겠느뇨 한 사람이 두 쥬인을 섬기지 못할 거시니 혹이를 뒤워  
 三 으며 더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녀이며 더를 경히 녀임이라 너희도 하  
 四 느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고로 내가 너희게 빌노니  
 五 목숨을 위하여 무어슬 먹을까 무어슬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어슬 입을까  
 六 녀려하지 말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  
 七 니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오지도 안코 거두지도 안코 곡간에 모화  
 八 드리지도 아니하되 천부가 가르치느니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九 너희 중에 누가 녀려함으로 목숨을 일각이나 더하겠느냐 또 너희가 었지  
 十 의복을 위하여 녀려함이나 들에 밧합화가 었더케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  
 十一 아라 슈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게 말하노  
 十二 니 솔노몬의 지극한 영광으로도 남은 거시이 썩으나만 다시 못하였느니  
 十三 라 적게 밧는 이들이 아 온을 잇다가 리알 아궁에 던지는 들 풀도 하느님이  
 十四 이러케 낱히서 거둔 것들며 너희야 더욱 낱히지 아니하시랴 그런고로 녀



三 려야 날으기를 무어슬 먹을까 무어슬 마실까 무어슬 입을가 하지말나  
 三 이는다 의방사람이 구하는 거시오 이 모든 거슬 너희 턴부가 너희 쓸  
 三 거신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묻져 그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또호이 모  
 三 든 거슬 너희게 더하시리니 그런교로 리일 일을 위하야 넘려하지말나  
 三 리일 일은 리일 넘려할 거시오 혼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三 평론을 밧지 아니하라거든 눈을 평론치말나 눈을 평론하는 평론으로 너희  
 三 도 평론을 밧을 거시오 눈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밧을  
 三 거시니라 엇지 하야 동성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네 눈속에 있는 들보  
 三 는 씨앗지 못하느냐 네 눈속에 는 들보가 있는 티 엇지 하야 동성드려 말  
 三 하기를 네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네 눈에서  
 三 들보를 먼저 빼여라 그 후에야 분명히 보고 동성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三 거룩한 거슬 개게 주지말며 너희 진쥬를 도야지 압헤 던지지말나 너희가  
 三 그 거슬 밧고 도리켜 너희를 물어 씨줄가 넘려하라 구하라 또호 주실  
 三 거시오 차자보아라 또호 맛날 거시오 문을 두드리라 또호 열어 주실 거시

八 니 구하는 이마다 엇을 거시오 차자보논이가 맛날 거시오 두드리는이의게  
 九 열어 주시리라 너희 중에 아들이 석을 달나 흥면 들을 주며 성션을 달나 흥  
 九 면 비암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또호 거스로 조  
 九 식의게 줄줄 알거든 흥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의게 더  
 九 옥 또호 거스로 주시지 안겠느냐 그런교로 무어하던 자의게 티점을 밧  
 九 고져하는 대로 너희도 눈을 티점하야 라는 룰법과 선지자의 대지니라  
 九 좁은 문으로 드러가라 스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九 드러가는 사람이 만코 성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야 찾논이  
 九 가 적으니라 거죽 선지자들을 삼갈지어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게 나아  
 九 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라는 일희라 그 밧친 열리로 너희를 알지너가시  
 九 나무에서 엇지 포도를 따며 엉성귀에서 엇지 무화과를 따겟느냐 이와  
 九 처 또호 나무가 악한 열미를 밧지 못하코 못된 나무가 악한 열미를 밧지  
 九 못하느니라 아름다운 열미를 밧지 아니하느냐 나무마다 씩어 불에 던지리

一 니 이련교로 그 밋천 열미로 너희를 아느니라 나드려 주여 주여 하는자  
 二 마다 텃국에 다 드러갈 거시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바지의 뜻대  
 三 로 행하는 자라야 드러가리라 그 날에 여러 사람이 나드려 빌으되 주여  
 四 주여 우리가 주의 일홈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일홈으로 사귀를 쫓치  
 五 며 주의 일홈으로 여러 가지 능한 일을 행치 아니하였는잇가 하시니 그  
 六 때에 내가 너희드려 부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모지 아니못하는니 불법  
 七 할 일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라 그런교로 내 말을 듯고 행하는  
 八 자들은 마치 지혜 잇는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 같고 호리니 비가  
 九 리고 장마물이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디치되 문허져지 아니하는  
 一〇 거슨 반석 위에 세운 연교요 내 말을 듯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은 마치 어리  
 一一 석은 사람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 같고 호리니 비가 내리고 장마물이 나  
 一二 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디치매 문허져지리니 그 문허짐이 대단하니라  
 一三 맛춤 예수가 이 말씀을 곳치시매 무리들이 그 마르침을 이상히 녀임은  
 一四 그 마르치시는 거시 권세 잇는 자와 같고 서괴관파 같지 아니함일너라

一 예수가 산에서 내려 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좃는지라 한 문동이 나아와  
 二 절하고 글으되 주가 만일 하고저 하시면 능히 저를 섹 곳하게 하시리이다  
 三 하시거늘 예수가 손을 펴서 문지시며 글으샤 되 내가 하고저 하는니 섹 곳함  
 四 을 받으라 하시되 즉시 문동병이 섹 곳하여 전지라 예수니 빌으샤 되 삼가  
 五 사람의게 빌으지 말고 다만 가서 제스장의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함  
 六 레물을 드러 못 사람의게 증거하라 하시더라 ○ 예수가 가버나움에 드러  
 七 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군구하야 글으되 주여 내 종이 반신불슈병  
 八 으로 집에 누어 몹서 괴로와하는이다 글으샤 되 내가 가서 곳쳐주리라 하  
 九 신되 백부장이 되 답하야 글으되 주여 제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스오  
 一〇 니 다만 말씀만 하시도 제 종이 낫겠습는이다 대개 저도 남의 슈하에 잇  
 一一 고 제 아래도 군수가 잇스니 이드려 가라 하면 가고 드려 오라 하면 오  
 一二 고 제 좃는 자드려 빌으샤 되 내가 진실도 너희게 빌으노니 이스라엘 사람 중  
 一三 에 한번도 이 같흔 밋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너희게 쓰 빌으노니 동

一 편서셔편서지혀다흐사람은니르러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二 국에안거니와 나라의 본조손들은 밧겻어두은디 쫓겨나거의셔슬피울  
 三 고너를갈니라 예수가 밧부장드려닐으샤디가라네 밧은대로되리라  
 四 시니곳그시로 좋이나으니라 ○ 예수가 베드로의 집에 드러가샤그장  
 五 모가 열병으로알아누은거슬보시고 그손을문지시니 열병이물너가  
 六 는지라 니러나셔 예수씨 슈종드더라 저녀이되매 샤귀들닌여러사람을  
 七 드리고 예수씨 오거늘 예수가 말씀으로 샤귀들을 쫓차내시고 병든자를  
 八 다곳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하신말씀을일우려함이니 닐넛스디  
 九 우리 연약한 거슬 천히 담당하시교 우리 병을 질머지섯다

一 〇 예수가 허다흐 무리가 에워쌌을 보시고 명하샤 더편으로건  
 二 너가라 하시니라 흐셔괴관이 나와 예수씨 말씀하디 선성님이여어디  
 三 로가시던지저는 좃치리이다 예수니 닐으샤디 여호도굴이 잇고 공중에  
 四 는새도집이 잇스되 오직 인자는 머리들곳이업다 하시더라 데즈중  
 五 에또홍나이글으디 주여나를 용납하야 몬져가셔 부천을장스하게하

一 야주옵쇼셔 하니 예수니 글으샤디 죽은자로더희 죽은자를 장스하게하  
 二 고너는나를 좃치라 하시더라 ○ 빈에오르시매 데즈들이 좃찾더니 바다  
 三 에큰놀이니라 물결이 빈에덥히되 예수는 줌으시니라 그데즈들이  
 四 나와셔우며 글으디 주여 구원쇼셔 우리들이 죽겟는이다 예수니 닐으  
 五 샤디적게 밧는샤여엇지 무셔위하느냐 하시고 곳니러나샤 바람과 바다  
 六 를썩지지신디 아주 잔잔하거늘 사람들을이 괴이히녀여 글으디 어엇더흐  
 七 사람이완대바람과바다도 순종하느고하더라 ○ 또 예수가 건너편가다라  
 八 짜으로드러가시니 샤귀들닌사람들이 잇서 심히 사오나와 사람이 능히  
 九 그길노 지나가지못하더니 무덤에서나와 예수를맛나매 소리질너 글으  
 一〇 티하느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너와 무슴 상관이 잇는뇨 샤가 너르기 전에  
 一一 우리를 괴롭게하라고여괴왔는뇨 하더니 맛춤얼니셔 만흔도야지샤가  
 一二 먹는지라 샤귀들이 예수씨 곤구하야 글으디 만일 우리를 쫓차내실진대  
 一三 도야지샤에 드러보내쇼셔 흐디 더희드려가라 하샤니 샤귀들이 나와셔도  
 一四 야지샤에 드러가느니라 도야지샤가 다 비탈노 급하느리다라 바다에

九

드러가셔 물에서 물스 항거늘 도야지 치던자가 다라나 읊되에 드러가 이  
모든 일과 샬귀들닌자의 당흔 일을 말하니 일읍이 다 예수를 맛나라고 나  
가 보고 그 디경에서 썬나 시기를 곤구 항거더라  
예수가 비에 올으샤 건너가 보옵에 이르시니 사름들이 반신불슈 병으로  
상에 누은 사름을 다려 오거늘 예수가 그 사름들의 밋음을 보시고 반신불  
슈드려닐으샤되 쇼조야 안심하라 네 죄를 샬엇는나라셔 괴관 몇사름  
이 모음에닐으되 이 사름이 촌람호도다 예수가 그 생각을 알으시고 글  
으샤되 너희가 엿지 모음에 악흔 생각을 항는나 네 죄를 샬엇다 항는  
말과 니러나 둔나라 항는 말이 어는 거시 쉽겠는뇨 너희로 인조가 세샬  
에서 죄를 샬는 권세가 잇는줄을 알게 항리라 항시고 병든이 드러 말슴  
항샤되 니러나 상을 가지코 짐으로 가라 항시니 그 사름이 니러나 집으로  
도라가거늘 무리들이 보고 놀납게 녀이며 이런 권세를 사름의게 주신  
하는님씩 영광을 돌려 보내더라 ○ 예수가 거괴셔 썬나가시다 마태라 항는  
사름이 세관에 안즌 거슬 보시고닐으샤되 나를 좃치라 항시니 니러나

+ 좃치나라 ○ 맛춤 예수가 마태의 집에서 안져 음식을 잡수실시 여러 제리  
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데즈들노 함씩 안젓더니 바리새교인들이 보  
고 그 데즈드려닐으되 엿지 항야 너희 선성은 제리와 죄인들노 더 브러 잡  
수시느냐 항거늘 예수가 드르시고닐으샤되 성흔 사름은 의원이 쓸되업  
고 병든 사름이라야 쓰는니라 나는 조비함을 즐겨호고 제스는 즐겨야니  
항노라 항신 뜻을 가셔 비호라 대개 내가 올흔 사름을 부르러 온 거시 아  
니오 다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항시더라 ○ 그 때에 요한의 데즈들이 예  
수께 나아와 글으되 우리와 바리새교인은 자조 금식호되 그대의 데즈는  
금식을 아나호니 엿지함이니 잇가 항니 예주가 더희드려닐으샤되 혼인 처  
하호려 간 사름이 선량과 함씩 잇슬 때에 엿지 숨허호리 오 선량이 리별함  
날이 니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지니라 새가 음으로 현웃을 깡는자가 업  
는 거손 기운 거시 그 웃을 당괴여 희여짐이 더함이 오 새술을 헌가 족부  
뒤에 넋치안는 거손 부뒤가 썬여져 술이 싹아 지고 부뒤를 보릴가 두려워  
흠이 니 새술은 새 부뒤에 너혀야 들이 다 보전호는니라 ○ 예수가 이 말

십을 호실 때에 호 관원이 와서 절하고 글으되 내 딸이 방장 죽었스오나  
 오서셔 그 몸에 손만 디히시면 살겠는이다 호니 예수자 나러나 좃차가  
 시고 데즈가 또 가더니 열두 히를 혈루증으로 알는 녀인이 예수 뒤를 좃  
 차와셔 그 옷가를 문지니 제 믿음에 그 옷만 문져도 낫겟다 흠이라 예수가  
 도라보시며 글으샤 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호시니  
 그 시로 낫더라 예수가 그 관원의 집에 드러가샤 피리부는 자들과 무리가  
 헌화함을 보시고 글으샤 디 물너가라 이 회가 죽은 거시 아니라 잔다 호  
 시니 더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여 보낸 후에 예수가 드러가샤 그 회손  
 을 잡으시매 못나 러나는지라 그 소문이 원디경에 퍼지더라 예수가 거  
 괴셔셔 나가실식 두 쇼경이 또 오며 소리질너 글으되 다윗의 조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녀이 쇼셔 호더니 예수가 집에 드러가시매 쇼경들이 나아  
 오거늘 예수 일닐샤 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디 답호되 주여  
 그러호오이다 호니 예수가 더희 눈을 문지시며 글으샤 디 너희 믿는대로  
 되라 호신디 그 눈들이 밝은지라 예수가 엄히 경계호샤 디 삼가 사름들노



알게 호지 말나 호섯더니 더희가 나가셔 그 소문을 원디방에 전파호다  
 라 더희가 나갈 때에 사귀들녀 병어리 된 자를 예수씨 다려오매 사귀가  
 좃겨나니 병어리가 말호거늘 무리들이 괴이히 녀여 글으되 이스라엘 가온  
 디셔는 이런 일을 처음 본다 호되 바리새교인은 글으되 더가 사귀 왕을  
 빙자호야 사귀를 좃는다 호더라 예수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큰치사 려국 복음을 반포호시고 빅성의 모든 병과 약혼 거슬  
 못치시니라 무리들이 목자업는 양과 못치고 성호며 류리호는 거슬 보시  
 고 민망히 녀이 사이에 데즈드러닐샤 디 추슈호는 거슨 만호되 일군은 적  
 으니 그럼으로 추슈호는 유인의게 군구호야 일군을 보내여 추슈호게 호  
 야 주쇼셔 호라 호시더라 예수가 열두 데즈를 부르샤 더러온 귀신을 좃치며 모든 병과 약호거슬  
 못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데즈의 일흠은 이러호니 첫째는 베드로  
 라 호는 시몬이오 밋그 동성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야 고보와 밋그 동  
 성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도마와 세리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야 고보



와 다대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밋예수를 잡아준 가롯 유다라 예수가  
 이 열들을 내여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되 외방 길노도가 지말고 사마리  
 아 고을에도 드러가지 말고 출하리 이스라엘 집에 일허브린 양의게로 가  
 라 가면서 반포하여 말하되 천국이 갓가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세겟하게 하며 사귀를 쫓아내되 너희가 그져 밧았  
 스니 그져 주어라 너희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치지 말고 길에  
 서 쓸 전디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집행이를 가지지 말나 대개 일군이 제  
 먹을 것 밧는 거슨 맛당하니라 야모성이나 촌에 드러가던지 합당흔 사람  
 을 차자 너희 썩나기 썩지 거괴셔 머물고 드러가면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나 그 집이 합당하거든 평안함이 림하게 하고 합당치아나 하거든 평안  
 함이 너희게 도라오게 하라 누구던지 너희를 영접치아나 하거든 너희 말  
 도 뜻지아나 하거든 그 집이나 성이나 썩날적에 너희 말에 몬지를 썩러 보  
 리라 내가 실노 너희게 빌으노니 심판날에 서돔과 고모라 싸의 형벌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히 가온디 보냄과

못흐니 그런고로 지혜는 비암 못치고 순음은 비름이 못치고 흘거시오  
 사람들삼가라 너희가 너희를 공회에 잡아가고 너희 회당에서 치직절  
 할리라 또 너희가 장축 나를 인하여 감스와 님군의게 잡혀가셔 너희와  
 외방 사람들의게 증거하리니 너희를 잡을 때에 엿더케 말하며 무슨 말을  
 할가 녀려치말나 못그 시에 무슨 말을 거슬 주시리니 말하느이는 너희가  
 아니라 오직 너희 아바지의 성신이시니 못 너희속에서 말삼하시느자라  
 장축 형제가 형대를 죽노디 내여주며 아비가 조식을 그러케 하며 조식들  
 이 부모를 더덕하야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일음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게  
 위위함을 밧을거시나 나 좋사지 견디느이는 구원을 엿으리라 이 성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더 성으로 피하라 내가 진실노 너희게 빌으노니 이스라  
 엘 모든 성을 다 든나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 대조가 선성보다 돕지  
 못하고 종의 상던보다 돕지 못하느니 대조가 선성 못고 종이 상던 못흐  
 이 족할지라 집주인을 바알세뵘이라 하엿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그런즉 너희를 두려워하지말나 금초인 거슬 드러내지 못할 거시 업고 숨

一 은 거슬 알지 못할 거시 업는 나라 내가 너희게 어두은 되셔 빌은 거슬 광  
 二 명혼 되셔 말함며 너희가 귀속으로 드른 거슬 집 우에서 퍼치라 몸은 죽  
 三 여도 령혼을 능히 죽이 지 못함 자를 두려워함 지 말고 오직 몸과 령혼을 능  
 四 히 더욱에 멸함시는 자를 더욱 두려워함라 참새 두마리가 혼편에 팔나는  
 五 거시 아니냐 너희 아바지가 허락지 아니함사면 그 중에 하나도 싸에 썩러  
 六 지지 아니함고 너희 머리털도 다 헤시니 그런고로 두려워함지 말나 너  
 七 희가 참새 여러 마리보다 귀함이라 누구던지 사름 압헤서 나를 아노라  
 八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바지 압헤서 더를 아노라 할 거시오 누구던  
 九 지 사름 압헤서 나를 아지 못함노라 함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바지 압  
 一〇 헤서 더를 아지 못함노라 함리라 내가 세상을 화평케 함려 온 줄노 알지  
 一一 말나 화평케 함려 온 거시 아니오 병과를 나르키러 왔노라 내가 온 거슨  
 一二 아들이 아비와 불화함며 딸이 어미와 불화함며 너희가 식어미와 불화  
 一三 함게 함이니 사름의 원슈가 그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 사랑함기를  
 一四 나보다 더함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함고 아들이나 딸 사랑함기를 나보다

一 더함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함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좃지안는 자도 내게  
 二 합당치 아니함고 제 목숨을 앗기는 자는 장축 일허브라 하고 나를 위함야 목  
 三 숨을 일허브리는 자는 장축 차지리라 너희를 영접함는 자는 나를 영접  
 四 함는 거시오 나를 영접함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는 거시니라 선  
 五 지자의 일흠으로 선지자를 영접함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시오 의  
 六 인의 일흠으로 의인을 영접함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거시오 썩 누구  
 七 던지 데즈의 일흠으로 이 쇼즈중 하나 의게 링슈함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八 내가 진살노 너희게 빌노니 그 사름은 결단코 상을 일허브리지 아니함리  
 九 라 함시더라  
 一〇 예수가 열두 데즈의게 명함 심을 밋초시고 거긔 썩나샤 무르치시며 반  
 一一 포함시라고 각 성에 가시더라 요한이 옥에 잇서 그리스도의 형함 심을  
 一二 듯고 그 데즈들을 보내여 예수께 영조와 글으되 맛당하 오실이가 션함  
 一三 님이 오닛가 우리가 다른 이를 기도리 올릿가 예수ㅣ 되답함야 글으샤되  
 一四 너희가 가서 듯고 보는 거스로 요한의게 고함되 쇼경이 보며 안즌방이가

거르며 문동이 가 색긋하며 귀먹어리가 드르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간난  
 한이 의게 복음을 전한다 하라 누구던지 나를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잇도다 하시고 너희가 떠나며 무리들의게 요한을 이르러 말습  
 하샤 더 너희가 무어슬 보랴고 들에 나갓더냐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냐  
 또 너희가 무어슬 보랴고 나갓더냐 아름다운 옷님은 사름이냐 아름다운  
 옷을 님은 사름은 대철에 잇는 나라 너희가 었지 나갓더냐 선지자를 보랴  
 더냐 올라 내가 너희게 빌노니 이 사름은 선지자보다 나으니라 이 사름을  
 이르러 기록하였스되

볼지어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압해 보내노니 더가 네 길을 내 압해  
 예비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노 너희게 빌노니 녀인이 나흔 사름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이가 나라남이 업스나 그러나 텃국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라도 더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올 때 브터 지금까지 텃국은 험습  
 으로 었느니라 힘쓰는 자는 빼앗는 나라 모든 선지자와 틀범에 미리 말하

三

거시 요한까지 이르렀스니 만일 너희가 그 거슬 즐겨 밧을진대 오리라  
 엘니야가 이 사름이 나라 귀 잇서 드를자는 드를지어다 이 세티를 무어스로  
 비유할고 비유컨대 너희가 장터에 안져 제 동모를 불너 글으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안코 우리가 슬픈 소리를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흠과 구하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안코 마시지도 아니할 때 너희가 말하기를 샴귀가 들녘다 하더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또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름  
 이 오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다만 지혜는 그 험한 일노 의를 나타  
 내는 나라 예수가 권능을 자랑 만히 베프신 고을이 회기치 아니하거늘  
 그 때에 쓰저져 글으샤 더 회가 잇슬진대 고라 신아 화가 잇슬진대 뱃새다  
 야 너희게서 험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험하였더면 너희가 말서  
 뱃 옷을 님고 저를 무릅쓰고 회기하였스리라 내가 너희게 빌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의 형벌이 너희보다 험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오를듯 심하냐 음부에 찌러지리라 내게서 험한 모든 권능을 서돔

二四 에서 행하였더면 그 성이 이 날까지 있섯스리라 내가 너희게 낚으노니  
 二五 심판 날에 서돔 사람의 형벌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 그 때에 예수  
 二六 글으샤 디 아바지여 런던의 주저시니 이 일을 지혜 잇고 동달흔 사람의  
 二七 보시기에 이거시 합의를 니이다 모든 거슬 아바지가 내게 주섯스니 아바지  
 二八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업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지시흔 자 외에는  
 二九 아바지를 아는 자가 업느니라 슈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다 내게로  
 三〇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三一 명을 메고 나를 비호라 곳 너희 마음이 편히 쉬기를 었으리니 내 명  
 三二 是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시더라  
 三三 안식일에 예수가 밀밭 스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야 이삭을 잘라  
 三四 먹더니 바리새교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디 션성님의 데즈가 안식일에  
 三五 당치못흔 일을 행하는도다 하거늘 예수 글으샤 디 다윗과 밋그 동행흔  
 三六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흔 일을 너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는님의 덕에 드러

三

三七 가서 친설흔 떡을 먹었스니 그 떡은 다윗과 그 흠씩 간 사를들이 먹기가  
 三八 합당치 아니흔 거시오 제사장들만 먹을 거시라 또 율법에 제사장들이 성년  
 三九 안에서 안식일 규식을 범하여도 무죄하다 흠을 범지 못하였느냐 내가  
 四〇 너희게 낚으노니 성년보다 더 큰이 가여과 하나 이 잇느니라 나는 조비 흠  
 四一 을 깃버하고 제스는 깃버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앗더면  
 四二 무죄한 자를 죄로 덩치 아니하였스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四三 ○ 거기를 찌나 회당에 드러가시니 환편손 무른 자가 잇는디 못 사람이  
 四四 예수께 무려 글으디 안식일에 병 곳치는 거시 합당하나 잇가 하니 이는  
 四五 예수를 침잡아 송스하려 흠이라 예수 글으샤 디 너희 중에 누가 양흔 마  
 四六 리가 잇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스면 붓잡아 내지 안겟느냐 사람이 양  
 四七 보다 열마나 더 귀하냐 그럼으로 안식일에 착흔 일흠이 합당하니라 하시교  
 四八 그 사를 드러 낚으샤 디 손을 펴라 하시니 펴매 곳 다른 손과 곳치 성하더  
 四九 라 바리새교인이나 가서 었더케 예수를 죽일교 의론하거늘 예수 가 알으  
 五〇 시고 거기를 찌나시니 사를이 만히 좃는지라 예수가 병을 다 곳치 시고

경계하시되 소문을 내지 말나 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일우려 하시니라 빌넷스되

나의 덕은 좋은 보라 나의 사랑은 자요 내 믿음에 미우 깃버하는  
자라 내가 내 성신을 줄터히니 더가 심관함을 의방 사람의게 알게  
할지라 그가 다도지도 아니하며 들네지도 아니하니 아모 사람도 길

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흔 갈대도 색지아니하고 색지는  
등불도 쓰지아니하기를 심판하야 이길 때 쓰지 너르리니 쏘흔 이방

사람이 그 일음을 바라리라  
하시니라 ○ 그때에 사귀들녀 눈 멀고 병어리된 자를 다리고 오거늘 예수

가 꺾쳐주시매 그 병어리가 말도 하고 보기도 하니 무리들이 다 놀나 곧  
이디 이 사람이 다윗의 조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교인은 듯고 곧 이디 이

사람이 귀왕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면 사귀를 쏘쳐내지 못하리라 하시거늘  
예수가 그 뜻을 알으시고 곧 이디 나라마다 스스로 분칭하면 멸망할  
거시오 성이나 집이나 스스로 분칭하면서 지못하는 사단이 사단을 쏘

쳐내면 이는 스스로 분칭함이니 그리하고야 더의 나라이 엇더케 서겠는  
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납어 사귀를 쏘쳐내면 너희 조대들은 누구를

힘납어 사귀를 쏘쳐내느냐 그럼으로 너희가 너희 법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는 너의 성신을 힘납어 사귀를 쏘쳐내엿스면 꺾치는 너의 나라이

너희게 림하였스리라 힘센 사람을 몬져 결박하지안코야 엇더케 그 힘센  
사람의 집에 드러가 그 제간을 룽탈하겠느냐 결박하여야 그 집을 룽탈하

리라 나와 흡씨 아니하는 자는 나를 거역하고 나와 흡씨 거두지아니하는  
자는 헛치는 나라 그럼으로 내가 너희게 빌노니 모든 죄와 훼방하는

거슬 사람의게 사하시려니와 성신을 훼방하는 거슨 사하시려아니할 거시오  
또 누구던지 말노 인즈를 거역하면 사하시려니와 오직 누구던지 말노

성신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도 사하시려아니하리라 실과를  
도라 하시거든 나무도 도라 하고 나무를 도치안타 하시거든 실과도 도치안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야는 나라 독사의 종류들아 너희는 악하니 엇더케  
도흔 말을 하겠느냐 믿음에 두드흔 거시 입으로 나와서 말하는 거시니

<sup>三五</sup>선호 사람은 선호 거슬싸 혼디셔 선호 거슬내고 악혼 사람은 악혼 거슬싸  
<sup>三六</sup>혼디셔 악혼 거슬내는 니라 내가 너희게 빌으노니 사람들이 무슴 망녕된 말  
<sup>三七</sup>을 호던지 심판 날에 이로 인호야 힐문을 밧으리니 네 말노너를 의롭다  
<sup>三八</sup>호시고 네 말노너의 죄를 영호리라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교인 중에 서  
<sup>三九</sup>누가 말호디 선성님이여 우리가 이적을 보고져호는 이다 예수 디답호야  
<sup>四〇</sup>글으샤 디 악호고 음란호 세디가 이적을 구호니 선지자 요나의 이적 밧게  
<sup>四一</sup>는 퇴일 거시 업느니라 요나가 밤낫 사흘을 큰 고기 비속에 잇섯던 것  
<sup>四二</sup>긋치 인즈도 밤낫 사흘을 싸 속에 잇스리라 심판할 제 니느웨 사람이  
<sup>四三</sup>니러나 이세디 사람을 영죄호리니 이는 너희가 요나의 전도를 듯고 회기함  
<sup>四四</sup>이어나와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괴 잇스며 심판할 제 남방 여왕이 니러나  
<sup>四五</sup>이세디 사람을 영죄호리니 이는 그 여왕이 싸 뉘헤셔 와셔 솔노몬의  
<sup>四六</sup>지혜로운 말을 드름이어나와 솔노몬보다 더 큰이가 여괴 잇느니라 더러  
<sup>四七</sup>온 귀신이 사람의게서 나가 물 업는 싸으로 든니다가 쉬기를 구호되  
<sup>四八</sup>엇지 못호고 이에 글으디 내가 나온 짐으로 도로 드러가리라 호고와 보니

三

<sup>四九</sup>그 집이 고요 호고 쓸고 슈리호엿거늘 곳가셔 저보다 더욱 악혼 귀신닐  
<sup>五〇</sup>곱을 다리고 드러가셔 거호니 그 사람의 후환이 전보다 더욱 심혼지라이  
<sup>五一</sup>악혼 세디가 호호 이레게 되리라 ○예수가 무리들의게 말호실 때에 그  
<sup>五二</sup>모친과 동생들이 밧게 서셔 예수씨 말호려호디 호 사람이 예수씨 엿조와  
<sup>五三</sup>글으디 선성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밧게 서셔 선성님씨 말호려호다 호니  
<sup>五四</sup>말호던 사람의게 디답호야 글으샤 디 내 모친이 누구며 내 동생들이 누구  
<sup>五五</sup>나 호시고 손을 퍼샤 데즈들을 그르쳐 글으샤 디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sup>五六</sup>보라 누구던지 하늘에 게 신내 아바지 뜻대로 호는 자가 내 형데요 내  
<sup>五七</sup>누의요 내 모친이 니라 호시더라  
<sup>五八</sup>그 날에 예수가 집에서 나가샤 바다가에 안즈시매 허다호 무리가 와셔  
<sup>五九</sup>모히거늘 예수가 비에 올라가 안즈시고 모든 무리는 언덕에 섰는지라  
<sup>六〇</sup>예수가 여러 가지 비유로 말호호야 글으샤 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리러  
<sup>六一</sup>나가셔 뿌릴식 더러는 길가에 썩러지매 새가 와서 주어먹고 더러는 흙  
<sup>六二</sup>이 얹은 돌작 밧헤 썩러지매 흙이 기압지아니함으로 썩이 곳나오나 희가

七 뭇아 썬인즉 썬리가 업서 므르고 더러는 가시 덤불 속에 썬러지매 가시가  
 八 자라셔 괴운이 막히고 더러는 뎡흔 썬에 썬러지매 결실홈이 후빅빅도  
 九 되고 룩십빅도 되고 삼십빅도 되느니라 귀 잇는자는 드르라 하시더라 ○  
 十 데즈들이 예수 썬나아와 글으되 엿지 그 사람의게 비유로 말씀하시느릿  
 十一 가 예수 - 되 답하야 글으샤 되던국의 오묘흔 거슬 너희게는 알게 하되  
 十二 오직 너희게는 주지 아니하느니라 므릇 잇는 사람의게는 주어 너너하게 하되  
 十三 므릇 업는 사람의게는 잇는 것도 빼앗느니라 그럼으로 내가 너희게 비유  
 十四 로 말하기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드러도 듯지 못하며 썬듯지 못함  
 十五 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게 일우엇스니 빌녓스되  
 十六 너희가 뭇기는 드러도 도모지 썬듯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모지  
 十七 아지 못하느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저희 귀가 막히  
 十八 고 눈이 감겼스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썬드라 회기 하야  
 十九 나의 꾀침을 밧을가 두려워흐다  
 二十 흥엿스되 너희 눈이 복이 잇슴은 복이 오귀가 복이 잇슴은 드름이니라

十七 내가 전살노 너희게 빌으노니 여러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十八 보고져 하여도 보지 못하엿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듯고져 하여도 듯지 못하엿  
 十九 느니라 그런즉 썬 썬리는 비유를 드르라 아모나던국 말씀은 듯고 썬듯지  
 二十 못하매 악훈자가 와서 믿음 속에 썬린 거슬 썬아가느니라 이 거시 꾀길  
 二十一 가에 썬린 거시오 돌작 밧해 썬린 거슨 사람이 도를 듯고 주시 기쁨으로  
 二十二 밧으되 속에 썬리가 업서 잠시 견디다가 도의 연고로 환란이나 꾀박을  
 二十三 당하흔즉 꾀슬허 버리는 거시오 가시 덤불 가운데 썬린 거슨 사람이 도를  
 二十四 드르나 세상에 넘려와 지리의 욕심이 도를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함이오 뎡흔  
 二十五 썬에 썬린 거슨 사람이 도를 듯고 썬드름이니 결실이 후빅빅도 되고 룩십  
 二十六 빅도 되고 삼십빅도 되느니라 하시더라 ○ 예수가 그 들 압해 썬 비유를  
 二十七 배프러 글으샤 되던국은 맞치 사람이 뎡흔 썬를 제 밧해 썬림과 갓흐니  
 二十八 사름들이 잘 썬에 제 원슈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썬리고 갓더니  
 二十九 썬이 나고 결실할 썬에 가라지도 보이기늘 집썬인의 썬들이 와서 말하되  
 三十 썬인이여 밧해 뎡흔 썬를 심으시지 아니하엿느릿가 그러면 가라지가 어

三六 뒤서 성겼는 잇가 주인이 골으 디 원수가 이러케 하였고 나하니 종들이 말  
 三九 하디 가서 썩으리 잇가 하거늘 주인이 골으 디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썩다  
 三九 가 곡식 서지 썩을가 넘려하노라 둘다 추슈하거 서지 흠씩 자라게 두엇다  
 三九 단으로 묵거 불노살오고 곡식은 거두어 내 곡간에 너흐라 하리라 ○ 또  
 三九 비유를 베프러 골으 샤디 락국은 맛치 사름이 게즈 썩 할 알을 가져다가  
 三九 제 밭해 심은 것 못하니 이는 모든 씨 중에 데일 적은 거시 되되 자란 후에  
 三九 는 나물 중에 데일 커져 나무가 되매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三九 깃드리는 니라 ○ 또 비유로 말씀하샤 디 락국은 맛치 녀인이 누룩을 가지  
 三九 고 가로 서물 속에 너허 누룩이 다 퍼지게 하는 것 못하니라 ○ 이거 서  
 三九 다 예수가 무리들의 게 비유로 말씀하심이 오 비유가 아니면 더 회게 말습  
 三九 을 아니 하섯스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일우려 하심이니 닐넛스 디  
 三九 모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제상 창조함으로 브터 금초인 거슬  
 三九 드려 내리라

三六 하였는 니라 ○ 그 때에 예수가 무리들을 써 나사 집에 드러가시니 데즈들이  
 三七 나아와 골으 디 밭해 가라지로 비유하심을 풀어 닐으 쇼셔 하니 디답하야  
 三六 골으 샤디 토흔 씨를 뿌리는 이는 인조요 밭촌 제상이 오 토흔 씨는 락국의  
 三九 지식이 오 가라지는 악한자의 지식이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오  
 三九 추슈할 때는 제상 뜻치 오 추슈하는 자들은 락스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三九 불에 살오는 거슨 제상 뜻해도 이러케 되리니 인조가 장춧그 락스들을  
 三九 보내여 그 나라에서 모든 범죄케 하는 자들과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거두어  
 三九 내여 풀무 불에 던지리니 거괴서 슬피 울며 나를 갈나라 그 때에 의로운  
 三九 자들이 저희 아바지 나라에서 회와 못치 밧최리니 귀 잇는 자는 드르라 ○  
 三九 락국은 맛치 밭해 금초인 보화를 사름이 맛나매 숨기고 깃버하야 도라가  
 三九 셔 제 잇는 거슬 다 팔아 그 밭출 삼과 못하니라 ○ 또 락국은 맛치 토흔  
 三九 진주를 구하는 장스가 극히 갑진 진주 하나를 맛나매 가서 제 잇는 거슬  
 三九 다 팔아 그 진주를 삼과 못하니라 ○ 또 락국은 맛치 그물을 바다에 처고  
 三九 모든 물고기를 몰아서 그물에 그득할 때 언덕으로 선을 어내고 안져서



四九  도흔 거슨 그릇에 담고 못된 거슨 버림 又호니 제상 뜻해도 이레케 되리니  
 五〇  던스가 와서 의로운 자 중에서 악한 자를 갈나내여 풀무 불에 던지리니  
 五一  거의셔 슬피 울며 나를 갈니라 ○ 이 모든 거슬 쳐드랴나 호시니 디답  
 五二  호디 쳐드랴는 이다 호거늘 예수ㅣ 글으샤 디그런코로 던국의 데즈된셔의  
 五三  관마다 맛치 집 주인이 그 고간에서 새 것과 옛 거슬 내어옴과 又호니라 ○  
 五四  예수가 이 모든 비유를 못초신 후에 거의를 떠나서 고향으로 도라가샤  
 五五  더희 회당에서 그르치시니 사름들이 이상히 녀여 글으디 이 사름은 이  
 五五  지혜와 권능을 어디셔 얻었는뇨 이는 목슈의 아들이 아니며 그 모친은 이  
 五六  마리아라 호는이가 아니며 그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五七  아니며 그 누의들은 우리와 리웃이 아니냐 그런즉 이 사름이 이 모든  
 五八  거슬 어디셔 얻었는뇨 호고 예수를 슬허 버리거늘 예수ㅣ 글으샤 디 선지자  
 五九  가 제 고향과 집 외에는 존경함을 받지아님이 업는니라 호시고 거의셔  
 六〇  권능을 만히 행치아니 호심은 더희가 밋지아닐너라  
 六一  그 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듯고 그 신하드려 빌으디 이는 세

一  레 요한이 죽은가온디셔 니러났스니 그런코로 이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  
 二  호도다 호니 대개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안히 헤로디아의 일노 요한을  
 三  잡아 결박하야 옥에 가도기는 요한이 헤롯의게 말하디 그 녀인을 취호는  
 四  거시 올치안타 흠이라 헤롯이 죽이려호되 무리를 무셔워호기는 요한을  
 五  선지자로 녀임일너니 맛참 헤롯의 성일이 도라오매 헤로디아의 딸이  
 六  연석가온디셔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호니 밍세로 허락하디 그 녀자가  
 七  무어슬 달나호던지 주갓다 호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식함을 듯고 글으디  
 八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주소셔호니 님군이 근심호나 제 밍세와  
 九  연석에 흠씩 안즌 여러 사름을 인하야 주라 명호고 사름을 보내여 요한을  
 一〇  옥에서 목버혀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녀자의게 주니 그가 제  
 一一  어미의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데즈들이 와서 시체를 거두어 장스호고 가서  
 一二  예수께 고호니라 ○ 예수가 드르시고 베틀을 두고 썬샤로 들에 가시니  
 一三  무리들이 듯고 여러 고을노브터 거러셔 좃거늘 예수가 나오샤 허다호  
 一四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녀이샤 그 중에 잇는 병인을 골쳐주시니라 저녀이

16 되매 데즈들이 나와와 글으되 이 곳은 흰들이 오셔도 저물었스니 무리  
 17 들을 보내여 마을에 드러가 먹을 거슬 사 먹게 호쇼셔 예수ㅣ 글으샤되  
 18 갈 것 업다 너희가 먹을 거슬 주어라 하시되 데즈들이 글으되 여의셔  
 19 다스키와 물고기 두 마리만 잇는이다 하니 글으샤되 내게 가져오라  
 20 하시고 무리를 명하야 풀에 안치시고 썩다스키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  
 21 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썩을 썩여 데즈를 주시매 데즈들이 무리  
 22 들의게 주나 다 빈불내 먹고 부스럭이를 주는 거시 열두 광주리에 초고  
 23 먹은 사람은 네 연파 어린 회 외에 오천명이나 되더라 예수가 무리  
 24 들을 보내라고 즉시 데즈들을 치축하샤 비를 두고 압서 건너편으로 가게  
 25 하시고 무리들을 보낸 후에 예수가 싸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저녁  
 26 이 되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리가 바다 가운데 잇서 물결에 요동함은  
 27 바람이 거슬님이라 밤 스경에 예수가 바다 위로 거러서 데즈의게  
 28 오시니 데즈들이 바다 위로 거러오심을 보고 놀나 글으되 요물이라 하며  
 29 무서워하야 소리 지르거늘 예수가 즉시 날샤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30 말나 하시되 베드로가 대답하야 글으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샤  
 31 물우으로 오라 호쇼셔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비에서 내려 예수께  
 32 가라고 물우으로 거러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매 불너 글으되  
 33 주여 나를 구원호쇼셔 하니 예수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글으샤  
 34 되 저게 밋는자여 웨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비에 오르시매 바람이 곳치  
 35 논지라 비에 잇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글으되 진실노 하는님의 아들이  
 36 이로소이다 하시더라 ○ 건너가샤 케네사렛짜에 이르신되 그곳 사람들이  
 37 예수신줄을 알고 스방에 보내여 모든 병든 사람을 예수께 다려오니 너희  
 38 가 다만 예수의 옷가이라도 문지기들 연구하야 문지자는 다 낫더라  
 39 그 때에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브러 예수께 나아와  
 40 글으되 선생님의 데즈들이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야 장로의 유전호 말  
 41 을 엿지 범하노요 하거늘 대답하야 글으샤되 너희는 엿지 너희 유전호  
 42 말을 인하여 하는님의 계명을 범하노요 하신대 너희 부모를  
 43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날으섯스되 아버나 어미를 휘방하는자는 반드시 죽이

5 리라 하였거늘 오직 너희는 글으되 누구던지 아비의게나 어미의게 말  
 6 하되 내가 부모의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는 남씨 드렸다 할즉 그 부모를  
 7 공경할 것이 업다 하였 너희 유전할 말도 하는 남의 말씀을 폐함이니라  
 8 외식하는 자들이 이사야가 너희를 마르쳐 말한 것이 을도다 빌립스되  
 9 이 빌립들이 입설노는 나를 공경하되 믿음으로는 나를 멀리 하도다  
 10 다만 사람의 명훈 거스로 도를 삼아 마르쳐니 헛되히 나를 경배하는  
 11 거시라  
 12 하시니라 예수가 무리를 불러 빌립 사디 듯고 세드르라 입에 드러가는  
 13 거손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14 라 이에 데즈들이 나와 글으되 바리새교인들이 이 말씀을 듯고 슬허함  
 15 을 알으시는 잇가 예수 - 되 답하야 글으샤 되 나무마다 내 턴부가 심으시  
 16 지아닌 거손 썩힐 거시니 그냥 두어라 너희는 소경이 되어 인도하는 자니  
 17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되 베드로  
 18 가 되 답하야 글으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마르쳐 주옵쇼셔 예수 - 글으샤 되

19 너희들이 아직도 세듯지 못하느나 입으로 드러가는 모든 거손 비로 드러가  
 20 셔 뒤로 내여 버리는 줄을 아지 못하느나 입에서 나오는 거손 믿음에서  
 21 나오느나 이 거시 사람을 더럽게 할지라 대개 믿음에서 나오는 거손 악할  
 22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거시  
 23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시오 오직 손을 씻지 안코 먹는 거손 사람을  
 24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 또 예수가 거괴셔 나가샤 두로와 시돈 디경에  
 25 드러가시니 가나안 여인이 호나여 그 디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너 글으되 주  
 26 님의 조손이여 나를 불쌍히 녀이쇼셔 내 딸이 흉악히 사귀를 들녘느이  
 27 다 예수가 흔 말씀도 되 답지 아니하시니 데즈들이 와서 청하야 말하되 그  
 28 녀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쇼셔 예수 - 되 답하야 글으샤  
 29 디나를 다른디 보내신 거시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일취미린 양의게 보내  
 30 심이라 하시되 여인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글으되 주여 저를 도으쇼셔  
 31 하시니 되 답하야 글으샤 되 너희들의 떡을 취하야 개게 던짐이 맞당치안타  
 32 하시니 여인이 글으되 주여 을 소이다 마는 개도 제 주인 의 상아래 썩려

三九 저는 부스럭이를 먹는다이다 하니 그제야 예수니 대답하야 골으샤디 녀인  
 三九 아네 밋음이 크도다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브러 그의 쌀이  
 三九 나오니라 ○ 예수가 거기서 썬나야 갈릴니 바다 갓가히 니르러 산에 올라  
 三九 가 거기 앉으시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 나아올새 안즌방이와 소경과  
 三九 병어리와 상흔자와 또 다른 병든자 여러슬 드리고 와서 예수의 말 압헤  
 三九 두매 곳쳐주시니 병어리가 말하고 상흔자가 낮고 안즌방이가 거르며 소경  
 三九 이 보는 거슬 무리가 보고 괴이히 녀여 영화를 이스라엘의 하는 님께 돌녀  
 三九 보내더라 ○ 예수가 데즈를 불러 콜으샤디 무리가 나와 흠뻑 잇슨지 사흘  
 三九 에 먹을 거시 업스니 내가 민망하도다 길에서 곧비홀가 하야 굶겨 보내지  
 三九 못하겟노라 데즈들이 골으디 들에 잇스니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비  
 三九 부를 만콴 썬을 엮으리 잇가 예수니 골으샤디 너희게 썬이 몇 덩이나 잇  
 三九 는나 골으디 닐콴 덩이와 적은 성션 두어 마리가 잇는다 예수가 무리  
 三九 를 명하샤 썬에 안치시고 썬 닐콴 덩이와 그 성션을 가지샤 샤례하시교  
 三九 썬여 데즈의게 주시니 데즈들이 무리들의게 주매 다 비불녀 먹고 남은부



三九 스럭이를 주은 거시 닐콴 바구미에 초고 먹은자가 녀인과 회외에 초천  
 三九 사름일너라 예수가 무리들을 호호시고 비에 오르샤 마가단 디경에 니르  
 三九 시니라  
 三九 바리새 교인과 사두키 교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야 하느노브러 나타나  
 三九 는 징조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니 대답하야 골으샤디 너희가 저녁에 하느  
 三九 이 굶으면 날이 끼겟다 하고 일은 아침에 하느이 굶고 흐리면 오늘날은 날  
 三九 이 굶겟다 하느니 너희가 령고는 엇더한지 분별하면셔 썬의 징조는 분별  
 三九 처 못하느도다 악하고 음란한 썬디가 징조를 보고져하나 요나의 징조 밋  
 三九 게는 보일 징조가 업느니라 하시교 썬나가시다 ○ 데즈들이 건녀 편에  
 三九 니를 썬에 썬 가져오기를 니젼더니 예수니 닐으샤디 바리새 교인과 사두키  
 三九 교인의 누룩을 삼가 막으라 하신디 데즈들이 서로 의론하야 골으디 이는  
 三九 썬을 가져오지 아님이로다 하거늘 예수가 알으시고 골으샤디 적게 밋는  
 三九 자들아 엇지 썬이 엇음으로 서로 의론하느나 너희가 아적도 썬듯지 못하  
 三九 는나 썬다섯 덩이로 오천 사름을 먹이고 주은 거시 몇 광유리며 썬 닐콴

11 영이로 스천 사름을 먹이고 주은 거시 몇 바구미를 생각지 못하느냐 옛지  
 12 내 말을 거시 썩을 위함이 아난 줄을 썩듯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 교인 과  
 13 사 두리 교인의 누룩을 삼가라 하시니 그제야 데즈들이 석의 누룩이 아니  
 14 오 바리새 교인 과 사 두리 교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썩듯더라  
 15 예수가 가이사라 빌립 보 디경에 이르러 데즈들의게 무려 글썽샤 디 사름  
 16 들이 인즈를 뒤라 하더냐 하시니 글썽 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교  
 17 더러는 엘니야라 하교 또 다른이 는 예리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18 하더이다 하니 글썽샤 디 너희는 나를 뒤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디 답하야  
 19 글썽 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디  
 20 답하야 글썽샤 디 시몬 바요나야 네가 복이 잇도다 육신이 이 거슬 네게  
 21 알게 할 거시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심이라 나도 네게  
 22 빌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  
 23 계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싸에서 무어시  
 24 던 지 미면 하늘에서 도미일 거시오 네가 싸에서 무어시던 지 풀면 하늘에

25 서도 풀너리라 하시고 이에 데즈들의게 경계하샤 내가 그리스도라 빌노  
 26 지 말나 하시더라 ○ 이때로 브터 예수 궤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  
 27 가 장로와 제사장 과 서기관들의게 고난을 만히 밧고 또 죽었다가 데삼  
 28 일에 살아날 거슬 데즈의게 비로소 큰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밧들고  
 29 간하야 글썽 디 주여 이런 일을 멀니 하쇼셔 이 거시 주의게 밧치지 아니  
 30 하리이다 예수가 몸을 도리키시며 베드로로 더러 빌샤 디 사단아 물너가라  
 31 네가 나를 너머지게 하느자로다 대개 네가 하는 너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교  
 32 사름의 또 만 생각하느다 하시고 그 때에 예수가 데즈의게 빌샤 디 아  
 33 모던 자 나를 쓰라 오려 하거든 궤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좃치  
 34 라 누구던 지 제 목숨을 살 나려 하면 일흔 거시오 또 누구던 지 나를 위하  
 35 야 제 목숨을 일흐면 차즐 거시니 사름이 만일 원한하를 엇고도 제 목숨을  
 36 일흐면 무어시 유익하리오 사름이 무어슬 주고 제 목숨을 밧고겟느냐  
 37 인즈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런스들과 혼가지로 오겟스니 그 때에 사름  
 38 마다 힐할 때로 갑흐리라 내가 진실노 너희게 빌노니 여괴섯는 사름 중에

ㅎ

죽지 아니하여서 인자가 그 나라로 림하는 것을 볼 자가 잇는 나라  
 엿쳐 후에 예수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동행 요한을 다 리시고 싸로 놓은  
 산에 올라가 사 더히 앉혀서 형상을 변화하시니 그 얼굴이 희고 처 빛나며  
 옷이 희여 광채가 나더라 세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사를 의게 나타나  
 예수로 더 브러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엿저와 글으되 주여 우리가  
 여의 잇는 거시 뜻스오니 주가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의져 장막 세울지어  
 하 나는 주를 계시게 하고 하 나는 모세를 계시게 하고 하 나는 엘리야를  
 계시게 하리이다 하니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무리우며 또 소리  
 가 구름 속에서 나서 글으샤 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오 나를 깃브게  
 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드르라 하시거늘 데즈들이 듯고 엿되여 심히  
 두려워 하니 예수가 나와와 더회를 문지시며 글으샤 되 두려워 말고 니러  
 나라 하시니 데즈들이 눈을 들고 보매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  
 썸이 실니라 산에서 내려 오실시 예수 분부하야 글으샤 되 인자가 죽은  
 가온 되서 살아나기 전에 본 거슬 아모 사람의게 빌으지 말나 하시니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데즈들이 못즈와 글으되 서괴관이 엿지 엘니야가 문져 온다 하엿는 잇가  
 예수이 답하야 글으샤 되 엘니야가 과연 문져와 세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오직 내가 네게 말하노니 엘니야가 임의 왔스되 더회가 아지 못하고 임의  
 로 더 접하엿스니 인자도 또 그들의게 이와 못치 해를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데즈들이 예수이 말씀하신 거시 세례 요한 인자를 쳐듯더라  
 무리의 깨나르시매 한 사람이 예수께와서 물어 엿되 글으되 주여 내 아들  
 을 불쌍히 녀이쇼셔 더가 관질노 심히 고심하야 여러 번 불에 도너머지며  
 물에도 너머지니 내가 주의 데즈의게 다리고 왔스나 능히 못치 못하더  
 이다 예수이 답하야 글으샤 되 밋음이 업고 패역한 세되여 내가 열마나  
 너희와 못치 잇스며 열마나 너희를 참으리 오내 아들들을 다려 오라 하시고  
 예수가 쉬지 지시니 사귀가 나가고 회가 그 때 브러 나온지라 이에 데즈  
 들이 예수께 나와와 좃용히 글으되 우리는 엿지 이 사귀를 쫓지 못하엿는  
 잇가 예수이 글으샤 되 너희 밋음이 적은 여고니라 내가 진실노 너희게 빌으  
 노니 너희가 만일 밋음이 한게즈 세 만치 잇스면 이 산드려 명하되 여의

三 二 一 十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三 서 더기로 음기라 하여도 음길 거시오 또 너희가 못할 거시 업스리라 ○  
 三 갈닐니애 머물 때에 예수가 데즈드려 빌너 글으샤 디 인즈를 장차 사람의  
 三 손에 잡아 주어 너희가 죽이매 데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데즈들이 심히  
 三 근심하더라 ○ 가버나움에 이르니 성던 제 밧는샤가 베드로의게 나와  
 三 三 글으디 네 스승이 성던 제를 내지 아니하느냐 글으디 내신다 하고 집에  
 三 드러가니 예수가 묻져 글으샤 디 세몬아 네 칭각은 엇더하뇨 제상 남군들  
 三 이 뉘게 관제와 덩제를 밧느냐 조과 아들의게냐 혹 외인의게냐 베드로  
 三 글으디 외인이 니이다 예수 글으샤 디 그러하면 아들은 제를 면하리라  
 三 그러나 우리가 너희를 거리게 할가 녀려하노니 네가 바다에 가서 닢시  
 三 를 던져 묻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일월을 엇을 거시니 가져  
 三 다가 나와 너를 위하야 주라 하시더라

六

三 그 때에 데즈들이 예수께 나와와 글으디 련국에서는 뉘가 크리잇가 예수  
 三 가 흠어 린으희를 불너 그 가온디 세우시고 글으샤 디 내가 진실노 너희  
 三 닢으노니 너희가 도리켜 어 린으희들파 아니냐 하면 결단코 련국에

四 드러가지 못하느니라 그런고로 어 린으희와 못치 조과를 조초는차는 련  
 三 三 국에서 크니라 또 누구던지 내 일흠으로 이련어 린으희 하나를 영접하면  
 三 三 못나를 영접함이니 오직 나를 밧는쇼조 하나를 범죄케 하는차는 출하리  
 三 三 큰 돌미를 그 목에 들코 기쁜 바다에 빠지는 거시 나으니라 사람을 범죄  
 三 三 케 흠으로 이 제상이 앙화를 밧으리니 사람을 범죄케 하는 거슨 업슬수  
 三 三 업스나 늠을 범죄케 하는차는 앙화를 밧으리라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나  
 三 三 너를 범죄케 하는 거든 썩어 버리라 상하고 절며 영성하느디 드러가는 거시  
 三 三 두 손과 두 발이 잇서 영원히 불에 빠지는 것보다 요흐니라 만일 네 눈이  
 三 三 너를 범죄케 하는 거든 썩여 버리라 상하고 절며 영성하느디 드러가는 거시  
 三 三 두 눈이 잇서 더욱 불에 빠지는 것보다 요흐니라 삼가 이 쇼조 중에 하나  
 三 三 도 업수히 녀이지 말나 내가 너희게 말하노니 너희 련스들의 하늘에서  
 三 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외 얼굴을 향 상뵈옵느니라 너희 칭각에는 엇더  
 三 三 는뇨 만일 엇던 사람이 양 일빅 마리가 잇는디 그 중에 하나 이 길을 일헛  
 三 三 스면 아흔 아홉 마리를 두고 산에 가서 길 일흔 양을 찾지 안갠느냐 내가

十 전설노 너희게 빌노 노니 만일 차즈면 일치 아니하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 더  
 十一 깃버하리니 이와 못치 이쇼즈 중에 하나라도 일허브 리는 거시 하늘에 계  
 十二 신 너희 아버지 의 뜻이 아니니라 ○ 후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가  
 十三 셔 그 사람이 나와 홀노 잇슬 때에 책망하라 만일 드르면 네가 네 형대를  
 十四 엇은 거시오 만일 듯지 안거든 홀두 사람을 다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  
 十五 로서 말마다 증찰하라 만일 그 말도 듯기 슬허하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十六 의 말도 듯기 슬허하거든 이방 사람과 세리와 못치 녀이라 내가 전설노 너  
 十七 희게 빌노 노니 무어시던지 너희가 싸에서 미면 하늘에서 도 미일 거시오  
 十八 무어시던지 싸에서 풀면 하늘에서 도 풀니라 내가 다시 너희게 빌노 노니  
 十九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싸에서 합심하라 무어시던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二十 내 아버지 가 너희를 위하야 일우게 하시리니 대개 어디던지 두세 사람이  
 二十一 내 일심으로 모히면 나도 그 중에 잇스리라 ○ 그 때에 베드로가 나와  
 二十二 글으 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야 주리잇가 빌곱  
 二十三 번까지 하오리잇가 예수 글으 사 디 내가 네게 빌노 노니 빌곱 번썸 아

三 니라 오직 빌흔 번식 빌곱 번이라 도 할지니라 이런 교로 텨국은 엇던 님  
 四 군이 종과 회개하는 것 못치 이 회개 할 때에 금 만량중 빚진 자 하나를 다려  
 五 오매 깃을 거시 업는지라 주인이 분부하야 그 몸과 처와 조식들과 잇는  
 六 거슬 다 팔아 갑게 하라 하디 그 종이 업디여 절하고 글으 디 주여 내게 참  
 七 으쇼셔 다 갑흐리이다 하거늘 그 주인이 불쌍히 녀 노하 보내며 그 빚슬  
 八 탕감하야 주엇더니 그 종이 나가다가 제게 빚량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곳  
 九 붓드러 목을 잡고 글으 디 빚슬 갑흐라 하매 그 동관이 업디여 군구하야  
 十 글으 디 나를 참아 주소셔 갑흐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十一 빚슬 갑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 하는 거슬 보고 심히 민망  
 十二 하야 주인 의게 가서 그 하던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 다  
 十三 가 글으 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슬 탕감하야 주엇거늘 네 동  
 十四 관을 불쌍히 녀 이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녀 임과 못치 함이 맛당치 아니  
 十五 하냐 하교 주인이 노하야 빚슬 다 갑도록 옥졸의게 붓쳤스니 너희 각 사람  
 十六 이 참으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텨부도 이와 못치 너희



三 직히엿스오니 아직도 부족함이 무어시 잇는잇가 예수ㅣ 글으샤 디 네가  
 온전함 사람이 되고져할진대 가서 잇는 거슬 팔아 간난흔이를 주라 그  
 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잇슬 거시오 또 와서 나를 좃치라 하시니 젊은  
 三 사람이 저물이 만흔고로 말씀을 듯고 근심함며 가니라 ○ 예수가 데즈  
 三 드려 날으샤 디 내가 진실노 너희게 날으노니 부자는 텃국에 드러가기가 어려  
 二 오리라 다시 너희게 말함노니 약디가 바늘 구멍으로 나가난 거시 부자가  
 二 하느님의 나라에 드러가난 것보다 쉬오리라 하시되 데즈들이 듯고  
 二 심히 놀나와 글으 디 그런즉 누가 능히 구원을 엿으리잇가 예수가 보시  
 二 고 글으샤 디 사람은으로는 능히 못함되 하느님씩셔는 능치못함 일이업는  
 二 니라 이에 베드로ㅣ 디 답함야 글으 디 우리가 모든 거슬 다 버리고 주를  
 二 좃치오니 우리가 무어슬 엿으리잇가 예수ㅣ 글으샤 디 내가 진실노 너희게  
 二 날으노니 나를 좃치는 너희들은 언저가 중흥함야 영화로운 보좌에 앉을 때  
 二 에 너희들도 열두 보좌에 안져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함리라 또 내  
 二 일홈을 위함야 집이나 형제나 누의나 부모나 조식이나 텃도를 버린자 마

루

三 다 박비나 밧고 또 영성을 유업으로 엿으리라 그러나 몬져 잇는자가 나 좃  
 二 되고 나 좃 잇는자가 몬져 될자 만흐리라  
 二 대개 텃국은 집 주인이 일은 아춤에 나가 품군을 엿어 포도원에 드러보  
 二 내과 못흐니 품군과 함로 온흐 품식 주마 작덩함야 포도원에 드러보내코  
 二 스시초에 나가 장터에 섰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 드러 날으 디 너희도 포도  
 二 원에 드러가면 내가 삭을 맛당함게 주리라 하시니 그 사람들을 이 가고 오시  
 二 중과 신시초에 또나가 그와 못치 함고 유시초에 나가 또 섰는 사람들을  
 二 보고 글으 디 너희는 엿지 종일도록 한가히 여괴 섰노 디 답함 디 우리를  
 二 품군으로 쓰는이가 업는이다 하시니 주인이 글으 디 너희도 포도원에 드러  
 二 가라 함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이 드러 날너 글으 디 품군들을 불너  
 二 나 좋은자로 브러 시작함야 몬져 온자 서지 삭을 주라 하시니 유시초에 온자  
 二 들도 각각 온흐 품식 밧거늘 몬져 온자들이 와서 더 밧을 줄 알앗더니 더  
 二 희도 흐 품식 밧은지라 밧으매 집 주인을 원망함야 글으 디 우리는 종일 슈  
 二 고 함고 더위를 밧앗는디 엿지 나 좃에 와서 반시 일흐 사람과 못치 주는

十三 노하니 <sup>十三</sup>쥬인이 그 중에 혼 사름드려 날으 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 혼  
 十四 거시 업노라 네가 나와 은 혼 혼식 작덩치 아니 혼였느냐 <sup>十四</sup>네 삭이나 가지고  
 十五 가라 나 좋에 온 사름을 너와 <sup>十五</sup>긋치 주는 거시 내 삭이니라 내 물건을 내  
 十六 뜻대로 쓰는 거시 을 처 아니 혼냐 내가 착함으로 내가 악함게 보느냐 이와  
 十七 <sup>十六</sup>긋치 나 좋 잇는 자가 몬져 되고 몬져 잇는 자가 나 좋 되리라 ○ 예수가  
 十八 예루살렘에 올라 가시다가 길에서 싸로 열두 데즈를 다리고 날너 <sup>十八</sup>골으샤 디  
 十九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 가서 인즈가 제스장들과 서괴관의게 잡아준바  
 二十 되매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 사름의게 내여 주어 <sup>十九</sup>릉육하며 채씩질 혼며  
 二十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다리고 예수씨와 서 절 혼며 무어슬 구하 니 예수가  
 二十二 <sup>二十</sup>골으샤 디 무어슬 원 혼느뇨 골으 디 내 두 아들을 쥬의 나라에서 혼나는  
 二十三 쥬의 을 혼 편에 안치고 혼나는 쥬의 원 편에 안치쇼셔 예수가 디 답 혼야  
 二十四 <sup>二十三</sup>골으샤 디 너희 구 혼느 거슬 너희가 야지 못 혼느도다 내 마실 잔을 너희도  
 二十五 능히 마시겟느뇨 하시 니 디 답 혼 디 능히 혼 겟느이다 예수가 <sup>二十四</sup>골으샤 디 너희

二十六 가 과연 내 잔을 마시되 내 을 혼 편과 원 편에 안치기는 내가 즐 거시  
 二十七 아니라 내 아바지가 누구를 위 혼야 예비 혼 션던저 그가 었을 거시 니라  
 二十八 <sup>二十七</sup>열 데즈가 듯고 그 형데 두 사름을 분히 녀이 거늘 예수가 데즈들을 불너 다가  
 二十九 <sup>二十八</sup>골으샤 디 이방 님군이 너희를 억지로 쥬관 혼고 대인들이 권세를 잡느 줄  
 三十 은 너희가 알 거니와 너희 중에 은 그러치 아니 흘치 니 너희 중에 누구던저  
 三十一 크고져 혼는자는 너희를 섬기느자가 될 거시오 <sup>三十一</sup>웃듬이 되고져 혼는자는  
 三十二 너희 좋이 되리라 <sup>三十二</sup>인즈가 온 거슨 섬김을 바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혼고  
 三十三 만 혼 사름을 위 혼야 목숨을 버려 속죄 혼야 <sup>三十三</sup>쥬려 함이 니라 ○ 예리고에서  
 三十四 <sup>三十三</sup>셔나가 실석 허다 혼 무리가 예수를 좇더니 소경 둘이 길가에 안 졌다가  
 三十五 예수가 지나가 신다 혼을 듯고 소리 질너 <sup>三十四</sup>골으 디 쥬다윗의 즈손이여 우리  
 三十六 를 불상히 녀이 쇼셔 혼니 무리가 쥬저져 <sup>三十五</sup>좀 좀 혼라 혼 되 소경이 더욱 소리  
 三十七 질너 <sup>三十六</sup>골으 디 쥬다윗의 즈손이여 우리를 불상히 녀이 쇼셔 혼 거늘 예수가  
 三十八 <sup>三十六</sup>머물너 서시고 불너 <sup>三十七</sup>골으샤 디 너희가 내게 무어슬 구 혼려 혼느냐 <sup>三十八</sup>골으 디  
 三十九 <sup>三十八</sup>쥬여 우리 눈을 보게 혼야 주옵쇼셔 예수가 <sup>三十九</sup>민망히 녀이샤 너희 눈을

로

1 문지시니 눈이 못보는지라 두사람이 예수를 좃더라  
 2 예루살렘에 갓가히 와서 감람산 벧바게에 이르러 예수가 두 데즈를  
 3 보내시며 빌<sup>二</sup>샤디 너희압해보이는마을에가서미인라귀와라귀삭가를  
 4 맛날거시니풀어내게로쓰을어오라 만일누가말하거든주가쓰시겟다  
 5 하라그리하면즉시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일우  
 6 려함심이라 빌<sup>三</sup>넛스디

시온의녀즈의게 빌<sup>四</sup>기를네왕이네게립하디 온유하야라귀를  
 7 두니적은라귀곳라귀삭기로다

8 하였느니라 데즈들이가서예수의분부하신대로행하야라귀와라귀삭  
 9 기를쓰을고와셔제옷을그우에안즈매예수가그우에안즈시니무리가  
 10 거의다길에옷을퍼며다른이는나무가지를썩어길에퍼코압과뒤로  
 11 쓰라오는무리들이소리질너글<sup>五</sup>디다윗의즈손이여호산나로다주의  
 12 일함으로오시는이가복이잇슬지어다 지극히높은디셔도호산나라  
 13 하리로다 예수가 예루살렘에드러가시니원성이소동하야글<sup>六</sup>디이는

14 누구뇨하거늘무리들이글<sup>七</sup>디갈닐나사렛에서나온선지자예수라  
 15 하더라 예수가하<sup>八</sup>남의면에드러가샤던안에서팔고사는사람을  
 16 내여쫓치시고돈밭고는사람의상과비더이파는사람의교의를들너업호  
 17 시고더히드러빌<sup>九</sup>샤디 기록하엿스디내집은기도하는집이어늘오직  
 18 너희가강도의굴혈을문든다 하엿느니라 소경과저는자가성면에서  
 19 예수씩나아오거늘못쳐주시니제스제장파서기관들이예수가하시니이상  
 20 환일과<sup>十</sup>회들이성면에서소리질너다윗의즈손이여호산나로다함을  
 21 보고분하야예수씩말하디 너희의하는말을드렸느냐 예수<sup>十一</sup>글<sup>十一</sup>샤디  
 22 그러타어린<sup>十二</sup>회와젖먹는자들의입으로나오는찬미를온전케하신다  
 23 함을너희가늠지못하엿느냐 하시고그사람들을쳐나성밧게벧아려에  
 24 니르러거의셔좁으시니라 일은아침에성으로드러오실셔예수가시장  
 25 하시거늘길가에잇는무화과나무하나를보시고나아가샤아모것도  
 26 엿지못하시고다만남사귀썩이어늘나무드러빌<sup>十三</sup>샤디이제후로는네가  
 27 열미를영원히밋지못하리라 하시니 나무가곳<sup>十四</sup>므르느니라 데즈들이

三 보고 이상히 녀여 글으되 무화과 나무가 었지야 곳 모르느 잇가 예수  
 二 디답호야 글으샤되 내가 진실노 너희게 빌노니 만일 너희가 맺음에 잇고 의심  
 三 치아니호면이 무화과 나무의게 행흔 일만 흘뿐아니라 이 산드려 썩셔  
 三 바다에 빠지라 호여도 될 거시오 너희가 무어시던지 기도호야 구할 때에  
 三 밋으면 다 잇으리라 호시더라 ○ 예수가 성전에 드러가 무치실시 제사  
 二 제창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글으되 내가 무삼 권세로 이 일을 행호며  
 二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엇느냐 예수 디답호샤되 나도 또 할 할 말을 너희  
 二 게 무를 거시니 너희가 디답호면 나도 무삼 권세로 이 일 행음을 빌으리라  
 二 요한의 제례가 어디로셔 왔느냐 하늘노 좃차 왔느냐 사람의게로 좃차  
 二 왔느냐 너희가 서로 의론호야 글으되 하늘노 좃차 왔다 호면 었지 밋지  
 二 안느냐 할 거시오 사롬으로 좃차 왔다 호면 사롬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二 녀인즉 백성들이 무섭다 호야 예수 디답호되 우리가 알지못호노라  
 二 예수 글으샤되 나도 무삼 권세로 이 일 행음을 너희게 빌으지아니호리라  
 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었더호요 할 사롬이 두 아들이 잇는디 맛아들의게

二 가서 빌으되 아들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호라 호니 디답호야 글으되  
 二 술소이다 호더니 그 후에 뉘웃쳐가 거늘 들재 아들의게 가서 또 이 곳치  
 二 말호니 디답호야 글으되 가겠느이다 호고 가지아니호엿스니 그 들 중에  
 二 뉘가 아비 뜻을 행호엿노 호사니 글으되 맛아들이니이다 예수가 너희  
 二 의게 빌으샤되 내가 진실노 너희게 빌노니 세리들과 창기들도 너희보다  
 二 몬져 하느니라 에 드러가리라 요한이 의로운 도로 너희게 왔거늘 너희  
 二 는 밋지아니호되 세리와 창기는 밋고 너희는 이 거슬 보고도 종시 회기  
 二 호야 밋지아니호엿도다 ○ 다른 비유를 드르라 호 집주인이 포도원을  
 二 문들고 산을 노 두루고 그 속에 즈짜는 들을 두고 망디를 짓고 농부의게 세  
 二 로 주고 타국에 갔다가 실과 때가 갖가오매 종들을 농부의게 보내여 그  
 二 실과를 밋으려호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호나는 썩리고 호나는 죽이고  
 二 호나는 돌노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만히 보내니 농부가 또  
 二 그러케 호는지라 후에 아들을 보내며 글으되 내 아들은 공경호리라 호엿  
 二 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호되 이는 유업을 었을차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지 않고 잡아 포도원 밭에 내어 쫓아 죽였는지라 포도원 주인이 을 때에 농부들을 엮더케 하였는도 여러 사람이 곧 다투어 악한 사를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의게 세로 주어 제 때마다 실과를 드리게 할지니이다 예수 곧 사디 성경에 빌 기를

장인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니 이 거슨 쥬가 일우신 거시오 우리 눈에 괴이함이라

함을 너희가 한번도 넘지 아니하였는나 그런고로 내가 너희게 빌 노니 하는나라를 너희게 배아사 열미 밋는 비성의게 주시리라 이 돌우에 썩러지는자는 썩여지고 이 돌이 그 우에 썩러지는자는 가로가 되여 훗혀 지리라 하시니 제스제장과 바리새교인들이 이 비유를 드르매 저희를 무르쳐 말씀하신것을 알고 잡고져하나 무리들을 무셔워함은 너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라라

예수가 다시 비유로 말씀하야 곧 사디 련국이 었던 님군과 또호니그 아들을 위하야 혼인 잔치를 베풀고 그 종을 보내여 청혼 사를들을 혼인

죽

三

四六

四五

四四

四三

三三

三二

三九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지 아니하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곧 다투어 가셔 청혼 사를의게 빌 다투어 내가 임의 음식을 장만하야 노코 소와 살진 즙성을 잡고 또 모든 거슬 및 초앗스니 혼인 잔치에 오쇼셔 하라 하되 너희가 도라보지도 안코 가디 하나는 제 밭해 가고 하나는 저즈에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룹육하고 죽이니 님군이 노하야 군스를 보내여 그 살인 혼자를 멸하고 성을 불살오고 이에 종드려 빌 다투어 혼인 잔치는 예비하였 스나 청혼 사를들은 합당치아니하니 곧 길거리에서 가셔 아모 사를이던지 맛나는대로 혼인 잔치에 청혼하야 오니라 하되 종이 길에 나가 악한자나 선한자나 맛나는대로 모도 다려오니 손이 혼인 자리에 그 득흔지라 님군이 손을 보러 드러올서 혼 사를이 레복을 넘지아니흔 거슬보고 곧 다투어 친구 여 었지 레복을 넘지안코 여가 드러왔는나 하니 손이 유구무언이 어늘 님군이 스환의게 말하되 그 슈족을 결박하야 밧겼 어 두은 디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고 나를 말나라 하니 대개 청혼을 밧은자는 만흐되 텃함을 넘은자는 적으니라 ○ 이에 바리새교인들이 가셔 서로 의론하되 었더케

四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六 예수의 말을 취잡을고 하고 더히 데즈들과 헤롯의 당을 예수씨 보내여  
 七 글으 디 션성님은 춤되시고 하는님의 춤 도를 무르치시며 눈을 편벽되히  
 八 보지아니 하는줄 우리가 아는 거슨 사람을 모양으로 취하지아니 함심이니  
 九 우리게 빌으 쇼셔 션성님 생각에는 엇다 호오닛가 가이사의게 세를 받치는  
 十 거사 맛당 호오닛가 맛당지아니 호오닛가 흠디 예수가 더히의 악함을  
 十一 아서고 글으 샤디 외식 하는 자들아 엇지 나를 시험하느냐 세 돈을 내게  
 十二 보이라 하시니 돈 호흔을 가져오거늘 예수 | 말씀 호샤디 이 거시 뒤 화상과  
 十三 글이나 디답 호디 가이사의 거시니이다 예수 | 글으 샤디 그런즉 가이사  
 十四 의 거슨 가이사의게로 돌려 보내고 하는님의 거슨 하는님씨로 돌려 보낼  
 十五 지니라 그 사를들이 이 말씀을 듯고 괴히 녀여 썬나가니라 ○ 부활이  
 十六 엇다 하는 사 두교인들이 그 날에 예수씨 외셔 무려 글으 디 션성님이여  
 十七 모세 | 빌넷스 디 사를이 만일 지식 이 업서 죽으면 동성이 그 안희의게 장  
 十八 가 드려 형을 위하야 지식 을 나흐라 호였스니 우리 중에 칠형데가 잇는디  
 十九 맛이 장가 들고 지식 이 업서 죽거늘 그의 안희가 그 아오의 안희가 되여

二十 그 들재와 셋재로 빌곱재까지 그러케 하다가 나중애 그 녀인도 썬호 죽  
 二十一 엇는지라 그런즉 다 장가 드렸스니 부활할 때에 빌곱 사를 중에 뒤 안희  
 二十二 가 되리잇가 예수 | 디답 호야 글으 샤디 너희가 성경과 하는님의 권능을  
 二十三 아지 못 하는 고로 그릇 알앗도다 부활할 때에 는 장가도 아니 들고 식집도  
 二十四 아니 감이 하늘에 잇는 던스와 호호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론할 전대  
 二十五 하는님이 너희게 호신 말씀을 넘지아니 호였느뇨 아 브라함의 하는님이 오  
 二十六 이삭의 하는님이 오 야곱의 하는님이라 호였스니 하는님은 죽은 자의  
 二十七 하는님이 아니 오 산자의 하는님이라 하시니 무리들이 듯고 무르치심을  
 二十八 괴히 녀어더라 ○ 예수가 사 두교인들 노 하여곰 디답 할 수 업게 호섯다  
 二十九 함을 바리시 교인들이 듯고 모힐식 그 중에 룬법 학스가 예수를 시험하야  
 三十 무려 글으 디 션성님이여 룬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잇가 예수 | 글으 샤  
 三十一 디 네 모음을 다 호교 성품을 다 호교 뜻을 다 하야 주 너의 하는님을 사랑  
 三十二 하라 호섯스니 이 거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오 둘재는 그와 호호니  
 三十三 라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호치 하라 호섯스니 이 두가지 계명이 룬법과

四一

四二

四三

四四

四五

四六

三

三

四

五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 바리새 교인이 모혈 썸에 예수가 그 사람의 게  
 무려 글으샤 디 너희 생각에는 그리스도가 었더함이며 뉘 조손이나 하시니  
 디 답하 디 다윗의 조손이니이다 예수ㅣ 글으샤 디 그러면 다윗이 성신에  
 감동하야 었지 그리스도를 유라 칭하야 말하 디

발아래 두기 쓰지 기 드리라 하 션다  
 유가 내 유씨 빌으샤 디 네가 내 을흔 편에 안져 내가 네 원슈를 네

하엿스니 임의 다윗이 그리스도를 유라 하엿스즉 었지 그리스도가 다윗  
 의 조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훈 말도 능히 디 답하 는 사람이 업고 그 날  
 브러 아모 말도 감히 못는 자가 업더라

썸에 예수가 무리들과 데즈들의 게 말슴하야 글으샤 디 서괴관과 바리새  
 교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안젼스니 그런고로 무어시던지 너희게 명하거  
 든 형하고 직히되 너희 하 는 거 손 본받지마라 너희가 말만 하고 형치  
 안코 쏘 무겁고 지기 어려온 짐을 목 거 님의 었기에 지우되 너희는 훈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려하며 너희 모든 일을 님의 게 보이 고져하야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그 차는 경문을 크게 하며 옷 단을 넓게 하고 전처에 상좌와 회당에  
 놓흔 자리와 처소에서 문안받는 것과 선성이라 칭하 는 거 슬 깃버하 는 니  
 그러나 너희는 선성이라 칭하 는 거 슬 받지마라 대개 너희 선성은 하나 썸이  
 니 곳 그리스도요 너희는 다 형데니라 썸에 잇는 자를 아비라 하지마라  
 너희 아바지는 하나 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썸스승이라 칭함을  
 받지마라 너희 스승은 하나 이니 곳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자는 너희  
 하인이 될 거시오 썸 누구던지 스스로 높히는 자는 는 저지고 썸 누구던지  
 스스로 낮초는 자는 높하지리라 ○ 화 잇슬 진디 의식하 는 서괴관과 바리새  
 교인이여 천국 문을 사를 들 압혀서 닷고 너희도 드러가지 안코 드러가려  
 하 는 자도 드러가지 못하게 하 는 도다 ○ 화 잇슬 진디 의식하 는 서괴관과  
 바리새 교인이여 너희가 바다와 룩디로 든 니며 교우 하나 를 었어 서 그가  
 교에 드러오면 너희보다 비나 더 디옥 조식이 되게 하 는 도다 ○ 화 잇슬  
 진디 소경이 되여 님을 인도하 는 자여 너희가 말하 디 누구던지 성현을  
 가르쳐 훈 밍세는 허수하 거니와 성현의 글을 가르쳐 밍세 훈 즉 직철지라

十七 하니 너희는 우렁이오 소경이로다 었던 거시 크뇨 그 금이나 금을 거룩  
 十八 하게 하는 성년이나 또 글으되 누구던지 제단을 무르쳐 흐 밉세는 허수  
 十九 향거니와 그 우에 있는 레물을 무르쳐 밉세는즉 직할지라 하니 너희는  
 二十 소경이로다 었던 거시 크뇨 그 레물이나 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二十一 그런고로 제단을 무르쳐 밉세는자는 제단과 그 우에 있는 모든 거슬  
 二十二 무르쳐 밉세함이오 또 성년을 무르쳐 밉세는자는 성년과 그 안에 계신  
 二十三 이를 무르쳐 밉세함이오 또 하늘을 무르쳐 밉세는자는 하늘의 보좌  
 二十四 와 그 우에 안스신이를 무르쳐 밉세함이니라 ○ 화 잇슬진더 외식하는  
 二十五 서기관과 바리새교인들이여 너희가 막하와 회향과 근처는 십일토를 드리  
 二十六 되 룰법의 중한 의와 인과 신은 헛치 아니하니 이 거슬 헛할 거시오 더 것  
 二十七 도 버리지 말거시니라 소경이 되여 눈을 인도하는 자여 갈새 귀는 열녀 먹  
 二十八 교 약되는 삼키는도다 ○ 화 잇슬진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교인들  
 二十九 이여 잔과 소반의 거족은 새긋시 향되 그 안에는 도식함과 불의함으로  
 三十 무득하게 하는도다 소경 된 바리새교인아 잔과 소반의 안을 새긋시 향여

三十一 야 거족이 또 흔 새긋하리라 ○ 화 잇슬진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교  
 三十二 인들이여 회철할 무덤 못흐니 밉그로 보기는 아름답다오나 그 안에는 죽은  
 三十三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거시 무득하도다 이와 못치 너희도 또 흔 밉그  
 三十四 로는 사람의 게을흔 거슬 보이되 안으로는 간사와 악독이 무득하도다 ○  
 三十五 화 잇슬진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교인들이여 너희가 선지자의  
 三十六 무덤을 짓고 의인의 무덤을 씌이며 글으되 만일 우리가 조상 뼈에 잇섯  
 三十七 더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니기를 흠씩 새기지 아니하였스리라 하니  
 三十八 그럼으로 너희가 선지자 죽인자의 즈손 됴을 스스로 증거함이니 너희  
 三十九 가 너희 조상의 악한 량을 처워라 너희 비압과 독사의 종류들아 었더케  
 四十 디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럼으로 내가 너희게 선지자와 지혜 잇는자  
 四十一 와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죽이기도 하고 심조가에 못박기  
 四十二 도 하고 그 중에 너희 회당에서 채씩 절하기도 하고 이 성에서 더 성으로  
 四十三 펴박하기도 하니 새 우에 의인의 피를 흘넌 죄가 다 너희게 도라가되  
 四十四 의인 아벨의 피로브러 성년과 제단 스이에서 죽인 바라야 아달사 가라의



三六 피서지니라 내가 진실노 너희게 빌노니 이 거시 다 이 세 뒤에 도라오리

三七 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선지자를 죽이며 네게 보낸 이들을 돌

三九 노치는도다 내가 너희 죄녀 모호기를 암암이 병의 리를 놀키 아래 모호

三九 못치 여러 번 호려호되 너희가 원치 아니하니 너희 집이 터만 남으리라

三九 내가 너희게 말호노니 이제 브러 너희가 빌으되 주의 일홈으로 오시노이

三九 가 복이 잇슬지어다 호기서지 나를 보지 못호리라 호시더라

三九 예수가 성년에서 나와서 가실적 데즈들이 나와 성년 집들을 그르쳐

三九 보이거늘 디답호야 글으샤 디이 모든 거슬 보지 못호는나 내가 진실노 너희게

三九 빌노니 돌호나도 돌우에 텨노히지안코 다 문혀지리라 예수가

三九 감람산에 안져계실 때에 데즈들이 종용히 와서 글으되 우리게 빌쇼셔

三九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잇스며 쥬가 림호심과 세상 썩헤 무슴 징조가 잇스

三九 오리잇가 하니 예수 디답호야 글으샤 디 조심호야 남의게 미혹호지마

三九 라 대개 여러 사람이 내 일홈으로 와서 빌으되 나는 그리스도라 호야

三九 여러 사람을 미혹케 호리라 썩싸호과 썩호된다는 소문을 드러도 두려워

三九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잇스되 썩촌 아직 못되었는나라

三九 빌성이 너러나

三九 이 모든 거시 다 지란의 시작이 나라 그 때에 사람이 너희를 잡아 주어 환난

三九 에 썩지게 호를 거시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일홈을 위호야 모든

三九 빌성들의게 위호를 받으리라 그 때에 여러 사람이 나를 슬허호야 서로 잡아

三九 주교서로 위워호를 거시오 거죽 선자자가 만히 너러나 여러 사람을 미혹

三九 호게 호를 거시오 악호를 거시오 성호으로 만흔 사람의 스랑이 점점 식으되 썩사

三九 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텨국 복음을 원 세상에 전호야 모든

三九 빌성의게 증거호를 후에 썩치 너러라

三九 그럼으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

三九 의 말호바 멸망 식힐 위운 물건이 거룩호 곳에 섰는 거슬 보거든 그 글 너

三九 는 사름은 조세히 알지이다 그 때에 유대에 잇는 사름은 산으로 도망호고

三九 집웅우에 잇는 사름은 집안에 잇는 물건을 가질너 느려오지말고

三九 밧헤 잇는 사름은 옷을 가질너 도라오지말지어다 그 날에 호희 밧 사름과

三九 져 먹이논 녀인들의게 화가 잇스리니 너희가 겨울과 안식일에 도망호를 면

三九

三九

三九

三九

三九

三九

三九



三六 피서지니라 내가 진실노 너희게 빌노니 이 거시 다 이 세 뒤에 도라오리
三七 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선지자를 죽이며 네게 보낸 이들을 돌
三九 노치는도다 내가 너희 죄녀 모호기를 암암이 병의 리를 놀키 아래 모호
三九 못치 여러 번 호려호되 너희가 원치 아니하니 너희 집이 터만 남으리라
三九 내가 너희게 말호노니 이제 브러 너희가 빌으되 주의 일홈으로 오시노이
三九 예수가 성년에서 나와서 가실적 데즈들이 나와 성년 집들을 그르쳐
三九 보이거늘 디답호야 글으샤 디이 모든 거슬 보지 못호는나 내가 진실노 너희게
三九 빌노니 돌호나도 돌우에 텨노히지안코 다 문혀지리라 예수가
三九 감람산에 안져계실 때에 데즈들이 종용히 와서 글으되 우리게 빌쇼셔
三九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잇스며 쥬가 림호심과 세상 썩헤 무슴 징조가 잇스
三九 오리잇가 하니 예수 디답호야 글으샤 디 조심호야 남의게 미혹호지마
三九 라 대개 여러 사람이 내 일홈으로 와서 빌으되 나는 그리스도라 호야
三九 여러 사람을 미혹케 호리라 썩싸호과 썩호된다는 소문을 드러도 두려워
三九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잇스되 썩촌 아직 못되었는나라
三九 빌성이 너러나
三九 이 모든 거시 다 지란의 시작이 나라 그 때에 사람이 너희를 잡아 주어 환난
三九 에 썩지게 호를 거시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일홈을 위호야 모든
三九 빌성들의게 위호를 받으리라 그 때에 여러 사람이 나를 슬허호야 서로 잡아
三九 주교서로 위워호를 거시오 거죽 선자자가 만히 너러나 여러 사람을 미혹
三九 호게 호를 거시오 악호를 거시오 성호으로 만흔 사람의 스랑이 점점 식으되 썩사
三九 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텨국 복음을 원 세상에 전호야 모든
三九 빌성의게 증거호를 후에 썩치 너러라
三九 그럼으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
三九 의 말호바 멸망 식힐 위운 물건이 거룩호 곳에 섰는 거슬 보거든 그 글 너
三九 는 사름은 조세히 알지이다 그 때에 유대에 잇는 사름은 산으로 도망호고
三九 집웅우에 잇는 사름은 집안에 잇는 물건을 가질너 느려오지말고
三九 밧헤 잇는 사름은 옷을 가질너 도라오지말지어다 그 날에 호희 밧 사름과
三九 져 먹이논 녀인들의게 화가 잇스리니 너희가 겨울과 안식일에 도망호를 면
三九

三 함께 기도할지어다 그 때에 큰 환난이 잇슬지니 이런 거시 세상 시작 함으  
 三 로부터 지금까지 업섯고 또 후에도 업스리라 그 날들을 감흥지 아니 하였  
 三 더면 구원을 잇을 육신이 업슬 거시로되 오직 텃함신 사름들을 위함야 그  
 三 날들을 감흥리라 그 때에 아모 사름이 너희게 말하디 불지어다 그리스도  
 三 가 여의 잇다 더의 잇다 함여도 믿지 마라 대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三 션 자들이 나려나 큰 징조와 이상한 일을 보이여 텃함신자의게도 마혹하게 할  
 三 수만 잇스면 함리니 불지어다 내가 너희게 미리 널으노니 사름들이 너희  
 三 게 말하디 불지어다 그리스도 가 들에 잇다 함여도 나가지 말고 은밀한 방  
 三 에 잇다 함여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셔서 편서지 보이니 인자  
 三 의 림함이 이와 호리라 어디던지 죽음이 잇스면 거기 독슈리들이 모힐  
 三 지니라 ○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히가 어둡고 들이 빛출 내지 안코 별이  
 三 하늘노서 썩러지고 하늘 권제들이 흔들리니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  
 三 에서 보이고 싸에 잇는 빙성들이 다 이동하고 또 인자가 권제와 큰 영광  
 三 으로 구름을 두고 림함을 보리니 텃스들을 보내여 라 말을 크게 불어 스방

三 에셔 텃함신자를 모호디 하님이 편으로부터 더 편서지 함리라 ○ 무화과  
 三 나무의 비유를 비흥지니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갓가 온줄  
 三 을 알지라 이와 같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갓가히 문에 나른 줄  
 三 알나 내가 진실노 너희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우  
 三 리라 텃디는 업서 질지언딩 내 말은 업서 지지 아니 함리니 다만 그 날과 그  
 三 시는 아는 사름이 업고 텃스도 아지 못함고 아들도 아지 못함되 아바지만  
 三 아시는니라 노아의 날과 같이 인자의 림함도 또한 그러함리니 홍슈 전에  
 三 사름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식집가기를 노아가 비에 드러가던 날서 지  
 三 흥였스되 홍슈가 나르러 그 무리를 다 멸함출을 세듯지 못함였스니 인자  
 三 의 림함도 이와 호리라 그 때에 두 사름이 바해 잇스매 하나는 다려가  
 三 고 하나는 브려두며 두녀인이 밭을 갈매 하나는 다려가고 하나는 브려두  
 三 리니 그런고로 맛당히 썰지어다 어느 날에 너희 유가 림함출을 너희가  
 三 아지 못함나라 만일 짐쥬인이 어느 경덤에 도적이 올출을 알앗더면 세여  
 三 제 집을 썰치 못함게 함였스리니 이 거스 너희도 알지니라 이 림으로 너희

도또호예비호여라 대개성각지못호예 인조가 오리라 누가 신실호고  
 지혜잇는 종이 되여 저의 주인이 그 집 사름들을 맛기고 예로 량식을  
 는 화주라 호겟는도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러케 함을 보면 종이 복이  
 잇스리라 내가 진실노 너희게 닐으노니 주인이 그 잇는 거슬 다 그 종의  
 맛길 거시오 만일 그 악호 종의 믿음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호야 제 동모  
 들을 찌리며 유익으로 더브러 먹고 마시다 가 뜻호지 아난 날과 아지 못호  
 예에 그 종의 주인이 니르러 심히 찌리고 외식호는 자와 못치 두리니  
 거괴셔 슬피 울며 니를 갈니라  
 그 때에 련국은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마즈러 나감파 호호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호고 다섯은 슬피 잇는 자라 미련호자는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호고 슬피 잇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예비호고 등불을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오거늘 다 졸며 잘셔 밤중에 소리 질으되 신랑이  
 오니 나와셔 마즈라 호매 그 처녀들이 다니러나 등불을 준비호셔 미련호  
 자가 슬피 잇는 자의게 닐으되 우리 등불이 썩지겟스니 너희 기름을 좀

三

九 是화달나호거늘 슬피 잇는 자가 더답호야 글으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十 부족할가 호노니 출하리 파는 자의게 가서 너희 쓸 거슬 사라 호니 사러간  
 十一 동안에 신랑이 왔거늘 예비호던 자들은 흠씩 호인 잔치에 드러가고 문  
 十二 을 닫앗는지라 그 후에 다른 처녀들이 호호 와서 글으되 주여 주여 우리  
 十三 의게 열어주소셔 더답호야 글으되 진실노 너희게 닐으노니 내가 너희를 아  
 十四 지 못호노라 호니 그런고로 셀지어 다녀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아지 못호니  
 十五 니라 ○ 련국은 호호 사름이 다른 디방에 갈제 그 종들을 불너 잇는 거슬  
 十六 맛김파 호호니 각각 그 저간대로 호나는 금 닷량중을 주고 호나는 두량  
 十七 중을 주고 호나는 호량중을 주고 호호너니 금 닷량중 바트는 사름은 바로  
 十八 가져 장스 호야 호 닷량중을 넘기고 두량중 바트는 사름도 그 모양으로  
 十九 호야 호 두량중을 넘겟스되 호량중 바트는 사름은 가서 싸를 파고 그 주인  
 二十 의 돈을 넘초앗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도라와 그 종들과 함씩  
 二十一 회계호셔 닷량중 바앗던자는 닷량중을 더 가지고 와서 글으되 주여 내게  
 二十二 금 닷량중을 주섯는디 내가 호 닷량중을 넘겟스옵는이다 호거늘 그 주인

이닐<sup>三三</sup> 디 잘<sup>三三</sup> 흥<sup>三三</sup>였도다 착<sup>三三</sup>하고 신<sup>三三</sup>실<sup>三三</sup>흔<sup>三三</sup> 좋아<sup>三三</sup> 네가<sup>三三</sup> 적은<sup>三三</sup> 일에<sup>三三</sup> 신<sup>三三</sup>실<sup>三三</sup> 흥<sup>三三</sup>였스<sup>三三</sup>매  
 내가<sup>三三</sup> 만<sup>三三</sup>흔<sup>三三</sup> 거<sup>三三</sup>스<sup>三三</sup>로<sup>三三</sup> 네가<sup>三三</sup> 맛<sup>三三</sup>기<sup>三三</sup>리<sup>三三</sup>니<sup>三三</sup> 드<sup>三三</sup>러<sup>三三</sup>와<sup>三三</sup>네<sup>三三</sup> 주<sup>三三</sup>인<sup>三三</sup>의<sup>三三</sup> 즐<sup>三三</sup>거<sup>三三</sup>음<sup>三三</sup>을<sup>三三</sup> 누<sup>三三</sup>릴<sup>三三</sup>지<sup>三三</sup>어<sup>三三</sup>다  
 내가<sup>三三</sup> 또<sup>三三</sup> 두<sup>三三</sup>량<sup>三三</sup>중<sup>三三</sup> 밋<sup>三三</sup>앗<sup>三三</sup>던<sup>三三</sup>자<sup>三三</sup>도<sup>三三</sup> 와<sup>三三</sup>서<sup>三三</sup> 글<sup>三三</sup>으<sup>三三</sup> 디<sup>三三</sup> 주<sup>三三</sup>여<sup>三三</sup> 내<sup>三三</sup>게<sup>三三</sup> 금<sup>三三</sup> 두<sup>三三</sup>량<sup>三三</sup> 중<sup>三三</sup>을<sup>三三</sup> 주<sup>三三</sup>섯<sup>三三</sup>는<sup>三三</sup>디  
 착<sup>三三</sup>하고 신<sup>三三</sup>실<sup>三三</sup>흔<sup>三三</sup> 좋아<sup>三三</sup> 네가<sup>三三</sup> 적은<sup>三三</sup> 일에<sup>三三</sup> 신<sup>三三</sup>실<sup>三三</sup> 흥<sup>三三</sup>였스<sup>三三</sup>매<sup>三三</sup> 내가<sup>三三</sup> 만<sup>三三</sup>흔<sup>三三</sup> 거<sup>三三</sup>스<sup>三三</sup>로<sup>三三</sup> 네  
 게<sup>三三</sup> 맛<sup>三三</sup>기<sup>三三</sup>리<sup>三三</sup>니<sup>三三</sup> 드<sup>三三</sup>러<sup>三三</sup>와<sup>三三</sup>네<sup>三三</sup> 주<sup>三三</sup>인<sup>三三</sup>의<sup>三三</sup> 즐<sup>三三</sup>거<sup>三三</sup>음<sup>三三</sup>을<sup>三三</sup> 누<sup>三三</sup>릴<sup>三三</sup>지<sup>三三</sup>어<sup>三三</sup>다<sup>三三</sup> 흥<sup>三三</sup>고<sup>三三</sup> 흥<sup>三三</sup>량<sup>三三</sup>중<sup>三三</sup> 밋<sup>三三</sup>앗<sup>三三</sup>던  
 자<sup>三三</sup>도<sup>三三</sup> 와<sup>三三</sup>서<sup>三三</sup> 글<sup>三三</sup>으<sup>三三</sup> 디<sup>三三</sup> 주<sup>三三</sup>여<sup>三三</sup> 그<sup>三三</sup> 디<sup>三三</sup>는<sup>三三</sup> 곳<sup>三三</sup>은<sup>三三</sup> 사<sup>三三</sup>름<sup>三三</sup>이<sup>三三</sup>라<sup>三三</sup> 심<sup>三三</sup>으<sup>三三</sup>지<sup>三三</sup>아<sup>三三</sup>닌<sup>三三</sup> 디<sup>三三</sup>서<sup>三三</sup> 거<sup>三三</sup>두<sup>三三</sup>고<sup>三三</sup> 헛  
 처<sup>三三</sup>지<sup>三三</sup>아<sup>三三</sup>닌<sup>三三</sup> 디<sup>三三</sup>서<sup>三三</sup> 모<sup>三三</sup>호<sup>三三</sup>는<sup>三三</sup> 줄<sup>三三</sup>을<sup>三三</sup> 내<sup>三三</sup>가<sup>三三</sup> 알<sup>三三</sup>았<sup>三三</sup>스<sup>三三</sup>니<sup>三三</sup> 이<sup>三三</sup>럼<sup>三三</sup>으<sup>三三</sup>로<sup>三三</sup> 내<sup>三三</sup>가<sup>三三</sup> 두<sup>三三</sup>러<sup>三三</sup>워<sup>三三</sup>야<sup>三三</sup>나  
 가<sup>三三</sup>서<sup>三三</sup> 주<sup>三三</sup>의<sup>三三</sup> 금<sup>三三</sup>을<sup>三三</sup> 싸<sup>三三</sup>에<sup>三三</sup> 금<sup>三三</sup>초<sup>三三</sup>았<sup>三三</sup>스<sup>三三</sup>매<sup>三三</sup> 본<sup>三三</sup>전<sup>三三</sup>을<sup>三三</sup> 밋<sup>三三</sup>으<sup>三三</sup>쇼<sup>三三</sup>서<sup>三三</sup> 흥<sup>三三</sup>거<sup>三三</sup>늘<sup>三三</sup> 그<sup>三三</sup> 주<sup>三三</sup>인<sup>三三</sup>이<sup>三三</sup> 디<sup>三三</sup>답  
 흥<sup>三三</sup>야<sup>三三</sup> 글<sup>三三</sup>으<sup>三三</sup> 디<sup>三三</sup> 악<sup>三三</sup> 흥<sup>三三</sup>고<sup>三三</sup> 게<sup>三三</sup>으<sup>三三</sup>른<sup>三三</sup> 좋아<sup>三三</sup> 나는<sup>三三</sup> 심<sup>三三</sup>으<sup>三三</sup>지<sup>三三</sup>아<sup>三三</sup>닌<sup>三三</sup> 디<sup>三三</sup>서<sup>三三</sup> 거<sup>三三</sup>두<sup>三三</sup>고<sup>三三</sup> 헛<sup>三三</sup>치<sup>三三</sup>지<sup>三三</sup>아  
 닌<sup>三三</sup> 디<sup>三三</sup>서<sup>三三</sup> 모<sup>三三</sup>호<sup>三三</sup>는<sup>三三</sup> 줄<sup>三三</sup>노<sup>三三</sup> 내가<sup>三三</sup> 알<sup>三三</sup>았<sup>三三</sup>스<sup>三三</sup>즉<sup>三三</sup> 내가<sup>三三</sup> 맛<sup>三三</sup>당<sup>三三</sup>히<sup>三三</sup> 내<sup>三三</sup> 돈<sup>三三</sup>을<sup>三三</sup> 취<sup>三三</sup>리<sup>三三</sup> 흥<sup>三三</sup>는<sup>三三</sup> 사<sup>三三</sup>름<sup>三三</sup>의  
 께<sup>三三</sup>나<sup>三三</sup> 두<sup>三三</sup>엇<sup>三三</sup>다<sup>三三</sup>가<sup>三三</sup> 내<sup>三三</sup>가<sup>三三</sup> 도<sup>三三</sup>라<sup>三三</sup>을<sup>三三</sup> 싸<sup>三三</sup>에<sup>三三</sup> 내<sup>三三</sup> 본<sup>三三</sup>전<sup>三三</sup>과<sup>三三</sup> 변<sup>三三</sup>리<sup>三三</sup>를<sup>三三</sup> 밋<sup>三三</sup>게<sup>三三</sup> 흥<sup>三三</sup>거<sup>三三</sup>시<sup>三三</sup>니<sup>三三</sup>라  
 흥<sup>三三</sup>고<sup>三三</sup> 그<sup>三三</sup> 종<sup>三三</sup>의<sup>三三</sup> 게<sup>三三</sup>서<sup>三三</sup> 금<sup>三三</sup> 흥<sup>三三</sup>량<sup>三三</sup>중<sup>三三</sup>을<sup>三三</sup> 빼<sup>三三</sup>아<sup>三三</sup>서<sup>三三</sup> 열<sup>三三</sup>량<sup>三三</sup>중<sup>三三</sup>가<sup>三三</sup>진<sup>三三</sup> 사<sup>三三</sup>름<sup>三三</sup>의<sup>三三</sup> 게<sup>三三</sup> 주<sup>三三</sup>어<sup>三三</sup>라<sup>三三</sup> 대<sup>三三</sup>개  
 아<sup>三三</sup>모<sup>三三</sup> 사<sup>三三</sup>름<sup>三三</sup>이<sup>三三</sup>던<sup>三三</sup>지<sup>三三</sup> 잇<sup>三三</sup>는<sup>三三</sup> 자<sup>三三</sup>의<sup>三三</sup> 게<sup>三三</sup>는<sup>三三</sup> 더<sup>三三</sup> 주<sup>三三</sup>어<sup>三三</sup> 흥<sup>三三</sup>족<sup>三三</sup> 흥<sup>三三</sup>게<sup>三三</sup> 흥<sup>三三</sup>고<sup>三三</sup> 업<sup>三三</sup>는<sup>三三</sup> 자<sup>三三</sup>의<sup>三三</sup> 게<sup>三三</sup>는<sup>三三</sup> 잇

는<sup>三三</sup> 것<sup>三三</sup>사<sup>三三</sup>지<sup>三三</sup> 빼<sup>三三</sup>아<sup>三三</sup>스<sup>三三</sup>리<sup>三三</sup>라<sup>三三</sup> 쓸<sup>三三</sup>타<sup>三三</sup> 업<sup>三三</sup>는<sup>三三</sup> 종<sup>三三</sup>을<sup>三三</sup> 밋<sup>三三</sup>것<sup>三三</sup>어<sup>三三</sup> 두<sup>三三</sup>은<sup>三三</sup> 디<sup>三三</sup>로<sup>三三</sup> 내<sup>三三</sup>여<sup>三三</sup> 쫓<sup>三三</sup>치<sup>三三</sup>라<sup>三三</sup> 거<sup>三三</sup>기  
 서<sup>三三</sup>슬<sup>三三</sup>피<sup>三三</sup>을<sup>三三</sup> 흥<sup>三三</sup>고<sup>三三</sup>니<sup>三三</sup>를<sup>三三</sup> 갈<sup>三三</sup>나<sup>三三</sup>라<sup>三三</sup> 인<sup>三三</sup>저<sup>三三</sup>가<sup>三三</sup> 저<sup>三三</sup>기<sup>三三</sup> 영<sup>三三</sup>광<sup>三三</sup>으<sup>三三</sup>로<sup>三三</sup> 모<sup>三三</sup>든<sup>三三</sup> 텨<sup>三三</sup>스<sup>三三</sup>와<sup>三三</sup> 굿<sup>三三</sup>치<sup>三三</sup>을  
 싸<sup>三三</sup>에<sup>三三</sup> 영<sup>三三</sup>광<sup>三三</sup>스<sup>三三</sup>러<sup>三三</sup>온<sup>三三</sup> 보<sup>三三</sup>좌<sup>三三</sup>에<sup>三三</sup> 안<sup>三三</sup>즈<sup>三三</sup>매<sup>三三</sup> 모<sup>三三</sup>든<sup>三三</sup> 빅<sup>三三</sup>성<sup>三三</sup>을<sup>三三</sup> 그<sup>三三</sup> 압<sup>三三</sup>해<sup>三三</sup> 모<sup>三三</sup>호<sup>三三</sup>고<sup>三三</sup> 각<sup>三三</sup>각<sup>三三</sup> 분<sup>三三</sup>별  
 흥<sup>三三</sup>거<sup>三三</sup>를<sup>三三</sup> 목<sup>三三</sup>자<sup>三三</sup>가<sup>三三</sup> 양<sup>三三</sup>과<sup>三三</sup> 염<sup>三三</sup>소<sup>三三</sup>를<sup>三三</sup> 논<sup>三三</sup>화<sup>三三</sup>논<sup>三三</sup> 것<sup>三三</sup> 굿<sup>三三</sup>치<sup>三三</sup>야<sup>三三</sup> 양<sup>三三</sup>은<sup>三三</sup> 그<sup>三三</sup> 올<sup>三三</sup>흔<sup>三三</sup> 편<sup>三三</sup>에<sup>三三</sup> 두<sup>三三</sup>고  
 염<sup>三三</sup>소는<sup>三三</sup> 원<sup>三三</sup> 편<sup>三三</sup>에<sup>三三</sup> 두<sup>三三</sup>리<sup>三三</sup>니<sup>三三</sup> 그<sup>三三</sup> 싸<sup>三三</sup>에<sup>三三</sup> 님<sup>三三</sup>군<sup>三三</sup>이<sup>三三</sup> 올<sup>三三</sup>흔<sup>三三</sup> 편<sup>三三</sup>에<sup>三三</sup> 잇<sup>三三</sup>는<sup>三三</sup> 자<sup>三三</sup>드<sup>三三</sup>려<sup>三三</sup> 님<sup>三三</sup>의<sup>三三</sup> 사  
 디<sup>三三</sup>내<sup>三三</sup> 아<sup>三三</sup>바<sup>三三</sup>지<sup>三三</sup>싸<sup>三三</sup> 복<sup>三三</sup>을<sup>三三</sup> 밋<sup>三三</sup>는<sup>三三</sup> 너<sup>三三</sup>희<sup>三三</sup>는<sup>三三</sup> 나<sup>三三</sup>아<sup>三三</sup>와<sup>三三</sup>이<sup>三三</sup> 세<sup>三三</sup>상<sup>三三</sup> 창<sup>三三</sup>조<sup>三三</sup>흥<sup>三三</sup> 싸<sup>三三</sup>브<sup>三三</sup>터<sup>三三</sup> 너<sup>三三</sup>희<sup>三三</sup>를  
 위<sup>三三</sup>흥<sup>三三</sup>야<sup>三三</sup> 예<sup>三三</sup>비<sup>三三</sup>흥<sup>三三</sup>였던<sup>三三</sup> 나<sup>三三</sup>라<sup>三三</sup>를<sup>三三</sup> 유<sup>三三</sup>업<sup>三三</sup>으<sup>三三</sup>로<sup>三三</sup> 밋<sup>三三</sup>으<sup>三三</sup>라<sup>三三</sup> 내<sup>三三</sup>가<sup>三三</sup> 주<sup>三三</sup>릴<sup>三三</sup> 싸<sup>三三</sup>에<sup>三三</sup> 너<sup>三三</sup>희<sup>三三</sup>가<sup>三三</sup> 먹<sup>三三</sup>을<sup>三三</sup> 거<sup>三三</sup>슬  
 주<sup>三三</sup>코<sup>三三</sup> 목<sup>三三</sup>모<sup>三三</sup>를<sup>三三</sup> 싸<sup>三三</sup>에<sup>三三</sup> 마<sup>三三</sup>실<sup>三三</sup> 거<sup>三三</sup>슬<sup>三三</sup> 주<sup>三三</sup>고<sup>三三</sup> 나<sup>三三</sup>그<sup>三三</sup>내<sup>三三</sup> 되<sup>三三</sup>엿<sup>三三</sup>슬<sup>三三</sup> 싸<sup>三三</sup>에<sup>三三</sup> 디<sup>三三</sup>접<sup>三三</sup>흥<sup>三三</sup>고<sup>三三</sup> 버<sup>三三</sup>섯<sup>三三</sup>  
 슬<sup>三三</sup>싸<sup>三三</sup>에<sup>三三</sup> 옷<sup>三三</sup>을<sup>三三</sup> 남<sup>三三</sup>히<sup>三三</sup>고<sup>三三</sup> 병<sup>三三</sup> 드<sup>三三</sup>렸<sup>三三</sup>슬<sup>三三</sup> 싸<sup>三三</sup>에<sup>三三</sup> 도<sup>三三</sup>라<sup>三三</sup>보<sup>三三</sup>고<sup>三三</sup> 옥<sup>三三</sup>에<sup>三三</sup> 가<sup>三三</sup>쳤<sup>三三</sup>슬<sup>三三</sup> 싸<sup>三三</sup>에<sup>三三</sup> 와<sup>三三</sup>서<sup>三三</sup> 보  
 앓<sup>三三</sup>는<sup>三三</sup> 나<sup>三三</sup>라<sup>三三</sup> 그<sup>三三</sup> 의<sup>三三</sup>인<sup>三三</sup>들<sup>三三</sup>이<sup>三三</sup> 디<sup>三三</sup>답<sup>三三</sup>흥<sup>三三</sup>디<sup>三三</sup> 주<sup>三三</sup>여<sup>三三</sup> 우<sup>三三</sup>리<sup>三三</sup>가<sup>三三</sup> 어<sup>三三</sup>는<sup>三三</sup> 싸<sup>三三</sup>에<sup>三三</sup> 주<sup>三三</sup>씩<sup>三三</sup>서<sup>三三</sup> 주<sup>三三</sup>리<sup>三三</sup>매<sup>三三</sup> 공  
 궤<sup>三三</sup>흥<sup>三三</sup>엿<sup>三三</sup>스<sup>三三</sup>며<sup>三三</sup> 목<sup>三三</sup>모<sup>三三</sup>르<sup>三三</sup>매<sup>三三</sup> 마<sup>三三</sup>실<sup>三三</sup> 거<sup>三三</sup>슬<sup>三三</sup> 드<sup>三三</sup>렸<sup>三三</sup>스<sup>三三</sup>며<sup>三三</sup> 어<sup>三三</sup>는<sup>三三</sup> 싸<sup>三三</sup>에<sup>三三</sup> 나<sup>三三</sup>그<sup>三三</sup>내<sup>三三</sup> 되<sup>三三</sup>매<sup>三三</sup> 디<sup>三三</sup>접<sup>三三</sup>흥  
 엿<sup>三三</sup>스<sup>三三</sup>며<sup>三三</sup> 버<sup>三三</sup>섯<sup>三三</sup>스<sup>三三</sup>매<sup>三三</sup> 옷<sup>三三</sup> 남<sup>三三</sup>혔<sup>三三</sup>스<sup>三三</sup>며<sup>三三</sup> 병<sup>三三</sup> 드<sup>三三</sup>렸<sup>三三</sup>슬<sup>三三</sup> 싸<sup>三三</sup>와<sup>三三</sup> 옥<sup>三三</sup>에<sup>三三</sup> 가<sup>三三</sup>쳤<sup>三三</sup>슬<sup>三三</sup> 싸<sup>三三</sup>에<sup>三三</sup> 가<sup>三三</sup>서<sup>三三</sup> 보  
 엿<sup>三三</sup>는<sup>三三</sup> 잇<sup>三三</sup>가<sup>三三</sup> 흥<sup>三三</sup>나<sup>三三</sup> 또<sup>三三</sup> 님<sup>三三</sup>군<sup>三三</sup>이<sup>三三</sup> 디<sup>三三</sup>답<sup>三三</sup>흥<sup>三三</sup>야<sup>三三</sup> 글<sup>三三</sup>으<sup>三三</sup>사<sup>三三</sup>디<sup>三三</sup> 내<sup>三三</sup>가<sup>三三</sup> 진<sup>三三</sup>실<sup>三三</sup>노<sup>三三</sup> 너<sup>三三</sup>희<sup>三三</sup>드<sup>三三</sup>려<sup>三三</sup> 님<sup>三三</sup>의<sup>三三</sup> 노  
 니<sup>三三</sup>너<sup>三三</sup>희<sup>三三</sup>가<sup>三三</sup> 내<sup>三三</sup> 동<sup>三三</sup>성<sup>三三</sup>중<sup>三三</sup>에<sup>三三</sup> 지<sup>三三</sup>극<sup>三三</sup>히<sup>三三</sup> 적은<sup>三三</sup>이<sup>三三</sup> 흥<sup>三三</sup>나<sup>三三</sup>의<sup>三三</sup>게<sup>三三</sup> 흥<sup>三三</sup>흥<sup>三三</sup>거<sup>三三</sup>시<sup>三三</sup> 곳<sup>三三</sup>내<sup>三三</sup>게<sup>三三</sup> 흥<sup>三三</sup>흥<sup>三三</sup>

이라 하시고 또 원편에 있는 자의게 <sup>四</sup>닐으샤 디저주를 밧을 너희여 나를  
 쎄나 마귀와 그 스쟈를 위하야 예비호엿던 영영호 불에 드러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거슬 주지 아니호엿고 목무를 쎄에 마실 거슬 주지  
 아니호엿고 나그내 되엿을 때에 디접지 아니호엿고 버섯슬 쎄에 옷납히  
 지아니호엿고 병드러를 쎄와 옥에 가쳤을 때에 와서 보지아니호엿느니  
 라 하시니 너희도 디답호야 글으 디주여 우리가 어는 때에 주가 주리섯거  
 나 목무르섯거나 나그내 되섯거나 버스섯거나 병드섯거나 옥에 갓치섯  
 슬 때에 공양치아니호더 잇가 <sup>四</sup>님군이 디답호야 글으샤 디내가 전실노 너희  
 드려닐으노니 이 지극히 적은자 하나 의게 <sup>四</sup>헝치아니호 거시 곳내게 <sup>四</sup>헝  
 치아니호이라 하시니 너희는 영벌을 밧고 오직 의인들은 영칭을 얻으리  
 라

예수가 이 말씀을 다 못초시고 데즈들의게 <sup>二</sup>닐으샤 디이호을을 지나면 유월  
 절인 줄은 너희가 아느니 인즈가 잡혀가 십즈가에 못박히리라 하시더라  
 그 때에 제스제장과 비성의 장로들이 대제스장 가야바라 호는 자의 야문에

말

모히 예수를 께게로 잡아 죽이라 고 의론호야 <sup>五</sup>말호기를 민요가 날가호노  
 니 절귀에는 못호다 호더라 ○ 예수가 벳아나에서 문동이 시몬의 집에 계  
 시다가 잡수실시 호너인의 옥합에 디우 귀호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데즈들이 보고 호호야 글으 디무숨 의스로 이 거슬  
 허비호는뇨 이 기름을 담은 갑세 파라 간난호 사람을 구제호 거시라 호거늘  
 예수가 알으시고 너희드려 <sup>九</sup>닐으샤 디 너희가 엿지 이 녀인을 께롭게 호  
 느냐 더가 내게 호호 일을 헝호엿느니라 간난호 사람은 호상 너희와 호씨  
 잇스려니와 나는 호상 호씨 잇지아니호리니 <sup>十二</sup>그녀인이 내 몸에 이 기름을  
 붓는 거손 내 장스를 위하야 호이 아니라 내가 전실노 너희게 <sup>十三</sup>닐으노니 원던  
 하에 어더셔던지 이 복음을 전호제 이 녀인의 호호 일도 말호야 더를 께  
 의호리라 하시더라 ○ 그 때에 열둘 중에 가롯 유다라 호는 자가 제스제장  
 의게 말호 디 내가 예수를 너희게 잡아 보내리니 얼마나 주랴느냐 그들이  
 은 삼십을 다라 주거늘 그 때 브터 예수를 잡아 보낼 기회를 찾더라 ○  
 누룩 업는 썩 먹는 첫날에 데즈들이 예수씨 나아와서 글으 디어더셔우리

가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시리라 가라 이르시되 열흘이 지나서 유월절을  
 18 선성님 말씀이 내 뼈가 갖다왔스니 내 데즈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  
 19 에서 지킴이 좋겠다 하시니 내가 이르되 예수의 식히신대로 하야 유월절을  
 20 예비하였는지라 저물 때에 예수가 열두 데즈와 함께 잡수신지라 음식  
 21 잡수실 때에 빌사디내가 진실로 너희게 빌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22 나를 잡아주리라 하시니 너희가 심히 근심하야 각각 무려 이르되 주여 내  
 23 잇가 대답하야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곧 나를 잡아  
 24 주리라 인자는 괴롭힘대로 가려니와 인자를 잡아주는 자가 곧 나를 잡아  
 25 나그 사람이 나치아니 하였더면 도울변하였느니라 예수를 잡아주는 유다  
 26 가 대답하되 선성님이여 내니 잇가 하거늘 대답하사디 내가 말하였도다  
 27 하시고 음식 먹을 때에 예수가 떡을 가지샤 축사하시고 떼여 데즈들을  
 28 주시며 이르되 사디 밤아 먹으라 이거시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가지샤  
 29 축사하시고 너희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거를 마시라 이거슨  
 30 언약 خون내 피니 여러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야 흘림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게 빌노니 이 포도즙을 내 아버지 나라에서 재 거스로 너희와  
 31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 또 찬미하고  
 32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 때에 예수가 데즈들을 데리 빌사디 오를 밤에 너  
 33 희가 다 나를 슬허브리리니 괴롭혔스디 내가 목자를 치매 양의 뼈가  
 34 스면으로 훑히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35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야 이르되 다 주를 슬허브릴지라  
 36 도 나는 종리 슬허브리지 안켓느이다 하니 예수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네  
 37 게 빌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 하시리라 하시되  
 38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 언딩 모른다 하시니 안켓습느이다  
 39 하고 모든 데즈들도 또 호이와 같이 말하더라 ○ 때에 예수가 데즈들과  
 40 함께 겐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데즈들의게 빌노니 사디 너희는 여러 안젓  
 41 스라 내가 너희 가서 기도하시리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42 다리시고 가실지 민망하고 슬퍼하샤 말씀하시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야  
 43 죽게 되었스니 너희는 여러 머물러 나와 함께 서여 잇스라 하시고 조곰

四八 四九 四六 四五 四四 四三 四二 四一 四〇  
 압흐로 나아가샤 열골을 싸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야 골으샤되 내 아바  
 지여 만일 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떠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三九 三八 三七 三六 三五 三四 三三 三二 三一 三〇  
 상교저는 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 데즈들의게  
 오샤 자는 거슬 보시고 베드로도 말함하샤되 너희가 나와 흠씩히시  
 二九 二八 二七 二六 二五 二四 二三 二二 二一 二〇  
 동안을 썬여 잊지 못하느냐 썬여 기도하야 시험에 들지 안케 하여라 무음  
 一九 一八 一七 一六 一五 一四 一三 一二 一一 一〇  
 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번째 나아가 기도하야  
 〇九 〇八 〇七 〇六 〇五 〇四 〇三 〇二 〇一 〇〇  
 골으샤되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일우어 지이다 하시고 다시 오샤 데즈들의 자는  
 거슬 보시니 너희 눈이 피곤할일너라 너희를 두시고 다시 나아가 세번째  
 기도하야 말함하시기를 전과 같치 하시고 데즈들의게 오샤 널으샤되  
 이제는 자고 싶지어다 썬여 갓가왔스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잡혀가리라  
 四六 四七 四八 四九 四〇 四一 四二 四三 四四 四五 四六 四七 四八 四九  
 니러나 흠씩 가자나를 잡아줄자가 갓가히 왔느니라 〇 말함하실 때에 열두  
 데즈중에 유다가 환도와 몽치 가진 허다한 무리를 다리고 제스제장과  
 四八 四九 四〇 四一 四二 四三 四四 四五 四六 四七 四八 四九  
 빌성의 장로의게로셔 왔는지라 예수를 잡아줄자가 군호를 싸 골으되 누구

四九 五〇 五一 五二 五三 五四 五五 五六 五七 五八 五九  
 던지 내가 입맛초는이가 못그 사람이니 잡아라 혼지라 못 예수씩 나아  
 四九 五〇 五一 五二 五三 五四 五五 五六 五七 五八 五九  
 와 골으되 선성님이여 안녕하옵시닛가 하고 입을 맛초니 예수 골으샤  
 五〇 五一 五二 五三 五四 五五 五六 五七 五八 五九  
 되 천구여 네가 무어슬 하랴고 왔는지 하하라 하시니 이에 너희들이나  
 五二 五三 五四 五五 五六 五七 五八 五九  
 아와 예수씩 손을 대여 잡거늘 예수와 같치 있던이 중에 하나 이 손을 펴  
 五三 五四 五五 五六 五七 五八 五九  
 환도를 빼여 대제스장의 종을 쳐그 귀를 썬그니 예수 날으샤되 네 환  
 五四 五五 五六 五七 五八 五九  
 도를 도로 집에 썬지라 환도 쓰는 자를 들은 환도로 망하느니라 네 무음에  
 五五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는 내가 내 아버지의 구하면 지금이라도 열두영더 되는 언스를 보내지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아니실 줄도 아느냐 만일 그러케 하면 성경에 이런일이 잇스리라 흠을 잊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더케 일우리 오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가 무리들의게 말함하샤되 너희가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강도를 잡는 것 같치 환도와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마다 성면에 안져 큰치되 너희가 잡지아니 하였스나 그러나 이 모든 일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이 이리케 됨은 선자자의 기록음을 일움이라 하시니 그때에 데즈들이 다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떠나다라 너라 〇 예수를 잡은자들이 손을고 대제스장이 아버지의게로 가나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五六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히지라 오직 베드로가 멀나 좃차 대제스장

의 아문에 드러가 관속과 又치 안져서 ㅅ나는 거슬 보고져 하더라 제스  
 제창과 원공회가 거긔 증거로 예수를 죽이고져 하나 거긔 증거는 자  
 만히 왔셔도 엇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글으되 이 사람이 전에  
 말하되 내가 하는님의 성덜을 헐고 사흘만에 능히 짓겟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 이 나라셔 예수드려 부르되 아모되 답도 업는나 이 사람의 증거  
 하는 거시 무어시뇨 하니 예수가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글으되 내가  
 너를 살아 깨신하는님 압헤 밍제하게 하노니 과연 하는님의 아들 그리스  
 도여든 우리의게 말하라 예수이 글으샤되 내가 말하였는니라 그러나  
 내가 널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 잇는자의 우편에 앉음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심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제 옷을 찢으며 글으되 이  
 사람이 참람한 말을 하였스니 엇지 다른 증인을 쓰리오 너희도 이 참람한  
 말을 드렸거니와 생각이 엇더하뇨 되 답하야 글으되 죽임이 당연하니라  
 하고 예수의 얼굴에 참비앗으며 썩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썩  
 을 찌리며 글으되 그리스도야 네가 선지자라 하니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五九 六二 六三 六四 六五 六六 六七 六八

하더라 ○ ㅅ에 베드로가 밧겟썩에 안졌더니 혼비조가 나와 글으되 너  
 도 말닐니 예수와 함께 든나던 사람이로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압  
 헤서 모른다 하야 글으되 내 말하는 거시 무어신지 나는 아지 못하겠다 하고  
 나와서 압문에 나르니 다른 비조가 보고 썩 괴이 잇는 사람드려 말하되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든나던 자로다 하니 베드로가 썩 모른다  
 하고 밍제하야 글으되 그 사람을 내가 아지 못하노라 하더니 조곰 후에 께해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의게 널으되 너도 진실노 그 당이니 네  
 말 소리가 너를 부히 표현다 하거늘 저주하며 밍제하야 글으되 나는 그  
 사람을 아지 못한다 하니 들이 곳우는지라 그제야 베드로가 예수의 말슴에  
 들을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하심을 괴억하고 밧게 나  
 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시벽에 모든 제스창과 빌성의 장로들이 함께 예수를 죽이기로 의론하고  
 결박하야 ㅅ을어 감스 빌나도의게 내여주더라 ○ ㅅ에 예수를 잡아 죽  
 유다가 그 덩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밧앗던 은삼십을 제스제창과 장로

六九 七十 七一 七二 七三 七四 七五 七六 七七 七八 七九 八〇 八一 八二 八三 八四 八五 八六 八七 八八 八九



1 의게 도로 갔다 주며 <sup>四</sup>골으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스니 죄가 있도다  
 2 하거늘 너희가 <sup>五</sup>골으되 그 거시 우리의게 무슴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랴  
 3 하거늘 유다가 <sup>六</sup>은을 성면에 내여 던지고 물너 가서 스스로 목미여 죽으니  
 4 제스제장이 그 <sup>七</sup>은을 거두며 <sup>八</sup>골으되 이 거슨 피 갑시라고에 너희들이 합  
 5 당치안타 하고 의론하야 질그릇 굽는 사람의 밧출사셔나 그내 장스지내  
 6 는 <sup>九</sup>싸를 삼으니 <sup>八</sup>그럼으로 오늘날까지 그 밧출 피밧치라 날밧는지라  
 7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일우엇스니 <sup>九</sup>닐넛스되 너희가은 삼십을 가지니 이는  
 8 팔년자의 갑시오 이스라엘 조손들이 갑슬 <sup>十</sup>덩혼자라 그 거슬 주고 그릇 굽  
 9 는 사람의 밧출 사는 거시 <sup>十一</sup>쥬가 내게 명하신대로 되리라 <sup>十二</sup>하엿더라  
 10 예수가 갑스 압헤 섰스니 갑스가 무려 <sup>十三</sup>골으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나 예수가  
 11 되답하샤되 네 말이 올도다 <sup>十四</sup>하시고 제스제장과 장로들이 <sup>十五</sup>송스하되 되답  
 12 지아니 하시는지라 <sup>十六</sup>빌나도 <sup>十七</sup>닐으되 너희가 여러 선들로 너를 증거함을  
 13 듯지못하느냐 <sup>十八</sup>하되 <sup>十九</sup>하온 마되도 되답지아니 하시니 <sup>二十</sup>그럼으로 갑스가 심  
 21 히 괴이히 녀이다라 <sup>二十一</sup>이 절기를 당하면 갑스가 여러 무리의 소원대로 죄인

22 하나를 노하주는 전례가 잇더니 <sup>二十二</sup>그 때에 바라바라 <sup>二十三</sup>하는 유명혼 죄인이가  
 23 첫는되 여러 사람이 모혔슬 때에 <sup>二十四</sup>빌나도가 무려 <sup>二十五</sup>골으되 너희가 누구를 노  
 24 하달나하느냐 <sup>二十六</sup>바라바나 <sup>二十七</sup>그리스도라 <sup>二十八</sup>하는 예수가 <sup>二十九</sup>함은 그 사람들이 예수  
 30 를 식고하야 잡아 온 줄을 알미러라 <sup>三十一</sup>갑스가 재판 자리에 안줄시 그 안하가  
 31 사름을 보내여 <sup>三十二</sup>골으되 더 <sup>三十三</sup>은은 사름의게 아모 상관도 하지마옵쇼셔 오늘  
 32 씬에 내가 그 사름을 인하야 이를 만히 썼는이다 <sup>三十四</sup>하더라 제스제장과 장로  
 33 들이 무리들을 <sup>三十五</sup>충동하야 바라바는 노하주고 예수를 <sup>三十六</sup>멸하자 하니 <sup>三十七</sup>갑스가  
 34 되답하야 <sup>三十八</sup>골으되 두 사람이 중에 누구를 노하달나하느냐 <sup>三十九</sup>골으되 바라바로 소  
 35 이다 <sup>四十</sup>하거늘 <sup>四十一</sup>빌나도 <sup>四十二</sup>골으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sup>四十三</sup>하는 예수를 내가 엿더  
 36 케 하리오 <sup>四十四</sup>하되 너희가 다 <sup>四十五</sup>골으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쇼셔 <sup>四十六</sup>갑스 <sup>四十七</sup>골으되  
 37 엿지함이요 무슴 악한 일을 <sup>四十八</sup>하엿느냐 <sup>四十九</sup>여러히 더욱 소리 질너 <sup>五十</sup>골으되 십자  
 38 가에 못박게 하쇼셔 <sup>五十一</sup>하거늘 <sup>五十二</sup>빌나도가 말하야도 무익할쌔더라 더욱 <sup>五十三</sup>민란  
 39 이 니러나는 거슬 보고 물을 <sup>五十四</sup>가져다가 무리 압헤서 손을 써서 <sup>五十五</sup>골으되 이  
 40 을 혼 사름의 피를 흘림이 내 죄는 아니니 너희가 당하랴 <sup>五十六</sup>하되 <sup>五十七</sup>백성이 다

二六 디답 하야 글으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조손의게 돌려 보낼지어다 하거늘  
 二七 이에 바라바는 노하주교 예수를 채찍질하고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박게  
 二八 하니라 ○ 감스의 군스들이 예수를 잇살고 공회에 이르니 원영문이 모혀  
 二九 예수 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남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거 그 머리에 씌우고  
 三〇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니고 그 압헤서 무릅을 꿇고 희롱하야 글으되  
 三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하며 춤비웃고 갈대를 가지고 그 머리를 치며  
 三二 희롱하기를 다함매 홍포를 벗기고 그 옷을 남히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쓰  
 三三 을어 가니라 ○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을 만나니 일흠은 시몬이라 억지로  
 三四 그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니 번역하면 희골 곳이라  
 三五 술에 쓸기를 두셔 예수를 마시운디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에  
 三六 못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논호고 군졸이 거기 안져 직힐시 명패를  
 三七 그 우에 두었스니 쓰기를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였더라 썩 강도들  
 三八 이 흠씩 십자가에 못박힐시 하나는 우편에 잇고 하나는 좌편에 잇더라  
 三九 지나가는 사름들도 괴롱하고 머리를 흔들며 글으되 성연을 헐고 사흘만

五二 五十一 四九 四八 四七 四六 四五 四四 四三 四二 四一

四〇 에 짓밟다 흥던차여 네가 너를 구원할 거시오 하는님의 아들이어든 십자  
 四一 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제스제장과 셔괴관과 장로들도 희롱  
 四二 하야 글으되 더가 다른 사름은 구원하였스되 제 몸은 구원치못하는도다 그  
 四三 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밋껏노라  
 四四 제가 하는님의 아들이라 하야 하는님을 밋으니 만일 하는님이 깃버하시면  
 四五 구원하시리라 하고 십자가에 흠씩 못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  
 四六 오시중으로 보러 미시말까지 원짜이 어둡더니 미시말에 예수가 크게 소리  
 四七 질너 글으샤되 엘니 엘니 라마 사박다의 하시니 번역하면 곳나의  
 四八 하는님이여 나의 하는님이여 잊지나를 버리시는잇가 흠이라 꺾헤섯던 몇  
 四九 사름들이 듣고 글으되 이 사름이 엘니야를 부른다 한디 그중에 한 사름이  
 五〇 썰니 가서 희용을 초에 적서서 갈대에 꿰여 마시우려하거늘 그 남은 사름  
 五一 들이 글으되 아직 그만두어라 엘니야가 와서 구원하나 아니하나 보자  
 五二 하더라 예수가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썩나서니 성면 휘장이 우으  
 五三 로 보러 아래까지 썩여져 들이 되고 썩이 진동하며 바회가 터지고 무덤이

열니며 자던 성인의 몸이 만히 나리나디 예수가 살아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드러가 여러 사람의게 보이니라 <sup>五三</sup>릭부장과 밧 흠씩  
 예수를 직히던자들이 싸이 진동흠과 지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야  
 굴으되 더가 진실노 하늘의 아들이로다 하더라 <sup>五五</sup>갈닐니로브러 예수를  
 좇치며 섬기던 녀인들이 거긔와셔 멀니셔 보니 그 중에 <sup>五六</sup>막달나 마리아  
 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더라  
<sup>五七</sup>○  
<sup>五八</sup>저물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오니 그는 예수의 데즈라  
<sup>五九</sup>이 사람이 빌나도의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나하니 빌나도가 내여 주라  
<sup>六〇</sup>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뵈로 싸서 반석 가온디 판즈긔  
<sup>六一</sup>재 무덤에 너히 두고 큰 돌을 구을녀 무덤 문에 노코 가니 <sup>六二</sup>또 막달나 마리아  
<sup>六三</sup>와 다른 마리아가 거긔서 무덤을 디하야 안젧더라 ○ <sup>六四</sup>그 잇흔날은 절  
<sup>六五</sup>일을 예비하논 다음 날이라 제스제장과 바리새교인이 흠씩 빌나도의게  
<sup>六六</sup>모혀 굴으디 주여 더 유혹하던쟈가 살앗슬 때에 말하디 사흘 후에 다시  
<sup>六七</sup>살아나리라 함을 우리가 <sup>六八</sup>괴역하노니 <sup>六九</sup>그런고로 <sup>七〇</sup>분부하야 <sup>七一</sup>그 무덤을 사흘

사지 곳에 직히라 함쇼셔 그의 데즈들이와셔 시체를 도적하야 가고 립성  
 의게 말하디 그가 죽은 가온디셔 살아났다 함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가하노이다 하니 <sup>六五</sup>빌나도 굴으디 너희게 슈직하논 군스가 잇스나  
 가셔 함대로곳게하라 하거늘 너희가 가셔 무덤을 곳에 함고 돌을 인봉홀서  
 군스가 흠씩하니라  
 안식일 잇흔날 새벽에 막달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랴고 왔  
 더니 <sup>六六</sup>크게 디동하며 주의 띠스가 하늘노셔 내려와 돌을 구을니고 그우에  
 안젧는디 <sup>六七</sup>얼굴이 번키긔고 옷의 희기가 눈과긔거늘 슈직하던쟈가 띠스  
 의 연교를 인하야 무셔워 떨며 죽은 사람과긔게 되는지라 띠스가 녀인들  
 드려달너 굴으디 무셔워 마라 심즈가에 못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sup>六八</sup>그가 여긔계시지 안코 전에 말씀하시던대로 살아나셨스니와  
 셔쥬의 누으섯던 곳을 보고 또 <sup>六九</sup>떨너가셔 그의 데즈들의게 날으디 그가  
 죽은 가온디셔 살아나셔 너희보다 먼저 갈닐니로 가셨스니 거긔셔 너희  
 가 그를 봐오리라 하라 내가 임의 너희드려 날넛느니라 하거늘 <sup>七〇</sup>그녀인들

이 무서운 중에 크게 깃버하며 무덤에서 쉼이 없나 데즈들의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다름질용시 예수가 너희를 맞나 골으샤디 평안하노 하시거늘 여인들이 나아가 그 말을 못잡고 경비하니 예수 골으샤디 무서워말고 가서 내 동성들의게 날으디 갈닐니로 가면 거긔서 나를 보리라 하라 ○ 여인들이 갈제 슈직하던 군스 중 몇치 성에 드러가 모든 지낸 거슬 제스 제장의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흠씩 모혀 의론하고 군스들의게 돈을 만히 주며 골으디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잘싸에 그의 데즈들이 밤에 와서 그 시대를 도적하야 갓다 하라 만일 이 말이 감스의 귀에 들날자라도 우리가 권하야 너희를 무스하게 하리라 하니 군스들이 돈을 밧고 크르치는대로 하니 이 말이 이 날까지 유대인 가온디 두루 퍼지니라 ○ 열흔 데즈가 갈닐니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비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잇거늘 예수가 나아가 날너 골으샤디 하날과 싸에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스니 그럼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데즈를 삼아 아바지와 아들파 성신의 일홈으로 제례를 주고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무어시던지 내가 너희게 분부한 거슬 다 크르치히게 하라 또 나는 세상 모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크치 잇스리라 하시더라

마태이십팔장

구십팔

# 마가 복음

마가의 기록한 대로 쓴 거서라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한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스자를 네 압헤 보내리니 더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소리 잇서 웨쳐 글으되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첩경을 곧게 할라

함파 및 처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세례를 줄시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 할야 죄 사함을 얻게 하니 원 유대 사와 예루살렘 사름이 다 나아가 각 각 제 죄를 조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의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디 델을 넘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전파 할야 글으되 내 뒤에 오시니 내가 보다 능력이 만흐시니 굽혀 그의 신들메를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지라 나는 너희게 물노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신 으로 너희게 세례를 주시리라 ○ 그 때에 예수가 갈릴니 나사렛으로 부르

三 四 五 六 七 八 九

오사 요단강에서 세례를 요한의게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시 하느님 갈나 짐과 성신이 비답이 모양으로 내려 그 우에 림심을 보시더니 하늘노져 소리가 잇서 글으샤 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깃버하는 자라 하시더라 ○ 성신이 곧 예수를 모라 광야에 나가게 하시니 광야에서 스십일을 계서셔 사단의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으로 혼가지 거처하시는지라 텨스가 슈종드더라 ○ 이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가 갈릴니에 이르러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 할야 글으샤 되 귀약의 임의 니르릿고 하느님 나라이 갓가 왔스니 회개 할야 복음을 밋으라 ○ 갈릴니 회변에 행하시 다가 시몬이 그 동생 안드레로 더브러 그물을 바다에 던짐을 보시니 더희는 어부라 예수 글으샤 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들노 사름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리고 좃치니라 조곰더 가시 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보시니 더희도 비에 잇서 그물을 갑논디 곳부르시거늘 그 아버지 세베대와 작은들을 비에 두고 예수를 좃치니라 ○ 더희가 가버나움에 드러가니 안식일에 예수가 회당에

三 四 五 六 七 八 九

三 드러가샤 마르치시매 <sup>三三</sup>무사람이 그 마르치심을 이상히 녀임은 그 마르치는  
 三二 거시 권세 있는자와 <sup>三二</sup>고 서기관과 <sup>三三</sup>마르치아니 흠일너라 <sup>三三</sup>맛춤 회당에서  
 三二 너로 더브러 <sup>三二</sup>무삼 상관이 있는 노우리를 멸하려 왔노니 네가 누구인  
 三二 줄을 아노니 이에 하는님의 거룩한 자니라 하거늘 <sup>三五</sup>예수가 썩지저 글으샤 디  
 三二 입을 봉하고 그 사람의 게서 나오니라 하시니 <sup>三六</sup>더러온 귀신이 그 사람을  
 三二 오그러러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거늘 <sup>三七</sup>무 사람이 이상히 녀여 서로  
 三二 무러 글으디 이는 엇짐이뇨 새도로 다 권세로 더러온 <sup>三七</sup>귀신들을 명함매  
 三二 너희가 순종할다 하니 <sup>三八</sup>예수의 소문이 <sup>三九</sup>곳원 갈닐니 스방에 퍼지더라  
 三二 〇 <sup>四〇</sup>회당에서 나와 <sup>四一</sup>곳야고보와 <sup>四二</sup>요한으로 더브러 <sup>四三</sup>시몬과 <sup>四四</sup>안드레의 집에  
 三二 드러가시니 <sup>四五</sup>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엇는지라 <sup>四六</sup>혹이 <sup>四七</sup>곳 예수씩  
 三二 엇것은디 <sup>四八</sup>예수가 오샤 그 손을 잡아 나르키시니 열병이 <sup>四九</sup>곳물너가고 녀인이  
 三二 그들의게 <sup>五〇</sup>순종드더라 〇 <sup>五一</sup>저물어 히절 때에 <sup>五二</sup>모든 병든자와 <sup>五三</sup>샤귀들난자를  
 三二 다리고 예수씩 <sup>五四</sup>나아오니 <sup>五五</sup>원성이 <sup>五六</sup>문압해 <sup>五七</sup>모히거늘 <sup>五八</sup>예수가 <sup>五九</sup>각석 병든

三六 허다흔 사람을 <sup>三七</sup>곳치시며 <sup>三八</sup>허다흔 샤귀를 내여 <sup>三九</sup>쫓치시디 <sup>四〇</sup>샤귀의 말하는 거슬  
 三六 허락치아니 <sup>四一</sup>심은 <sup>四二</sup>즈그리를 알미러라 〇 <sup>四三</sup>새벽 <sup>四四</sup>오히려 <sup>四五</sup>미명에 <sup>四六</sup>예수가 <sup>四七</sup>나러나서  
 三六 한적한 <sup>四八</sup>곳에 <sup>四九</sup>나가샤 <sup>五〇</sup>거기셔 <sup>五一</sup>기도하시더니 <sup>五二</sup>시몬과 <sup>五三</sup>한가지 <sup>五四</sup>있는 <sup>五五</sup>사람이 <sup>五六</sup>뒤  
 三六 를 <sup>五七</sup>싸라가 <sup>五八</sup>맞나셔 <sup>五九</sup>글으디 <sup>六〇</sup>모든 <sup>六一</sup>사람이 <sup>六二</sup>쥬를 <sup>六三</sup>찾는 <sup>六四</sup>이다 <sup>六五</sup>하니 <sup>六六</sup>닐으샤 <sup>六七</sup>디우리  
 三六 가 <sup>六八</sup>다른 <sup>六九</sup>갓가온 <sup>七〇</sup>마을에 <sup>七一</sup>가자 <sup>七二</sup>거기셔도 <sup>七三</sup>도를 <sup>七四</sup>전파하시니 <sup>七五</sup>내가 <sup>七六</sup>오기는  
 三六 이를 <sup>七七</sup>위함이로다 <sup>七八</sup>이에 <sup>七九</sup>원 <sup>八〇</sup>갈닐니에 <sup>八一</sup>든나시며 <sup>八二</sup>그 <sup>八三</sup>회당에 <sup>八四</sup>드러가샤 <sup>八五</sup>도를  
 三六 전파하시고 <sup>八六</sup>또 <sup>八七</sup>샤귀를 <sup>八八</sup>내여 <sup>八九</sup>쫓치시더라 〇 <sup>九〇</sup>문동병든 <sup>九一</sup>자가 <sup>九二</sup>예수씩 <sup>九三</sup>나아와  
 三六 쫓아업디여 <sup>九四</sup>근구하야 <sup>九五</sup>글으디 <sup>九六</sup>쥬가 <sup>九七</sup>만일 <sup>九八</sup>호고져하시면 <sup>九九</sup>능히 <sup>一〇〇</sup>저를 <sup>一〇一</sup>쫓곳하게  
 三六 하시리이다 <sup>一〇二</sup>하거늘 <sup>一〇三</sup>예수가 <sup>一〇四</sup>민망히 <sup>一〇五</sup>녀이샤 <sup>一〇六</sup>손을 <sup>一〇七</sup>퍼셔 <sup>一〇八</sup>문지시며 <sup>一〇九</sup>글으샤 <sup>一一〇</sup>디  
 三六 내가 <sup>一一一</sup>호고져하노니 <sup>一一二</sup>쫓곳함을 <sup>一一三</sup>받으라 <sup>一一四</sup>하신디 <sup>一一五</sup>곳문동병이 <sup>一一六</sup>셔나 <sup>一一七</sup>가고 <sup>一一八</sup>그 <sup>一一九</sup>사람  
 三六 이 <sup>一二〇</sup>쫓곳하리라 <sup>一二一</sup>엄히 <sup>一二二</sup>경계하샤 <sup>一二三</sup>곳보내시며 <sup>一二四</sup>글으샤 <sup>一二五</sup>디 <sup>一二六</sup>삼가 <sup>一二七</sup>아모 <sup>一二八</sup>사람의 <sup>一二九</sup>게도  
 三六 말하지말고 <sup>一三〇</sup>다만 <sup>一三一</sup>나가셔 <sup>一三二</sup>제스장의 <sup>一三三</sup>게 <sup>一三四</sup>몸을 <sup>一三五</sup>보이고 <sup>一三六</sup>쫓곳함을 <sup>一三七</sup>인하야  
 三六 모세의 <sup>一三八</sup>명훈 <sup>一三九</sup>례물을 <sup>一四〇</sup>드려 <sup>一四一</sup>무사람의 <sup>一四二</sup>게 <sup>一四三</sup>증거하라 <sup>一四四</sup>하섯더니 <sup>一四五</sup>그러나 <sup>一四六</sup>그 <sup>一四七</sup>사람이  
 三六 나가 <sup>一四八</sup>만히 <sup>一四九</sup>전파하야 <sup>一五〇</sup>닐니 <sup>一五一</sup>퍼지게 <sup>一五二</sup>하니 <sup>一五三</sup>그럼으로 <sup>一五四</sup>예수가 <sup>一五五</sup>완전히 <sup>一五六</sup>성에 <sup>一五七</sup>드러

가 지 못 하시고 밧겻 황무디에 거처 하시나 스방에서 예수 띄로 나아오더라  
 수일을 지나 예수가 다시 가버나움에 드러가 집에 계신 소문이 들니 매  
 사람이 만히 모혀들어 아모 용신할 틈이 업고 문압이라도 용신할 수가  
 더욱 업는디 예수가 더회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반신불슈병든 사람 하나  
 를 내서 매고 와서 사람이 만흠으로 갖가히 하지 못하니 그 계신 우에 짐을  
 을 싣고 구멍을 낸 후에 병든 자의 누은 상을 달아느리니 예수가 더회의  
 밧음을 보시고 반신불슈드려 날으샤 디 쇼즈야 네 죄를 사하였다 하시니  
 셔괴관 몇척 거과 안져셔 믿음에 의논하야 글으디 이 사람이 엇지 이  
 못치 말하느뇨 츄람하도다 오직 혼분 하는 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  
 하겟느냐 더회 속에 이러케 의논하는 줄을 예수가 곳 중심에 아시고 날너  
 글으샤 디 엇지 이 거슬 믿음에 의논하느냐 반신불슈드려 네 죄를 사하였다  
 하는 말과 나러나 네 상을 가지고 든니라 하는 말이 어느 거시 쉽겠느냐  
 인츠가 싸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잇는 줄을 너희게 알게 하리라 하시고  
 반신불슈드려 말씀하샤 디 내가 네게 날으노니 나러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모든 사람 압혀서 나러나 곳을 가지고  
 나가거늘 더회가 다 놀나 영광을 하는 님씩 돌려 보내며 글으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 예수가 다시 바다가에 나가시니  
 무리가 다 나아오거늘 예수가 무르치시더라 또 지나가실새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거슬 보시고 더드려 날으샤 디 나를 좃치라  
 하시니 나러나 좃더라 맛츄레위의 집에서 음식 잡수실 때에 여러 제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데즈들과 함씩 먹음은 사람이 만히 잇서셔 예수를  
 좃침이라 바리새교인의 셔괴관들이 예수가 죄인과 제리들노 더브러  
 잡수시는 거슬 보고 그 데즈드려 날으디 제리와 죄인들노 더브러 먹고  
 마시는도다 하거늘 예수가 드르시고 더회드려 날으샤 디 성한 사람은 의원  
 이 쓸디 업고 병든 사람이야 쓰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시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더라 ○ 또 요한의 데즈와 바리새교인들이  
 금식하거늘 와서 말하디 엇지 요한의 데즈들과 바리새교인의 데즈는  
 금식하되 선성님의 데즈는 금식하지 아니하느뇨 하니 예수가 더회드려

三十一 날은 사디 혼인 치하 간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잇슬 때에 었지 금식 하리 오  
 三十二 신랑이 잇슬 동안에는 금식 하지 못하니 신랑이 리별할 날이 니를 터이니  
 三十三 그 날에는 금식 할지니라 새가 음으로 혼 옷을 껴는 이가 었는 거슨 새로  
 三十四 기운 거시 혼 옷을 당피여 히여 짐이 더함이 오 또 새 술을 헌 가죽 부대에  
 三十五 녀는 이가 었는 니 그러케 하면 새 술이 부대를 터쳐 술과 부대를 버림이니  
 三十六 오직 새 술은 새 부대에 녀는 니라 하시더라 ○ 안식일에 예수가 밀 밭흐  
 三十七 로 가실적 그 데즈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으니 바리새 교인이 예수씨  
 三十八 날은 뒤 보쇼셔 너희가 었지 안식일에 맛당치 못혼 일을 행하는 잇가 하시  
 三十九 예수 글은 사디 다윗과 밋그 함께 혼 사람들이 쓸 거시 었고 시장할 때에  
 四十 혼 일을 녀리지 못하였는 노 그가 아비아다 대제사장 때에 하는 님의 면에  
 四十一 드러 가서 진설한 떡을 먹고 또 함께 혼 자를 주엇는 디 이 떡은 제사장 외에  
 四十二 다른 사람은 먹기가 합당치 아니하다 하고 또 글은 사디 안식일은 사람을  
 四十三 위하야 잇는 거시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야 잇는 거시 아니니 이럼으로  
 四十四 인즈는 또 혼 안식일의 주인이 되느니라

三十一 또 예수가 다시 회당에 드러가시니 혼 편 손 므른 사람이 거과 잇거늘  
 三十二 못사람이 안식일에 예수가 그 사람을 곳치니 었보아 척잡아 송스 하라 하는  
 三十三 지라 예수가 손 므른 사람을 드러 날은 사디 한 가온디 니려서라 하시고  
 三十四 못사람의게 날은 사디 안식일에 션을 행하겠는 나 악을 행하겠는 나 성명을  
 三十五 구하겠는 나 죽이겠는 나 어는 거시 맛당하냐 하시니 못사람이 잠잠하거늘  
 三十六 그 므은들이 완악함을 근심하샤 노함심으로 돌너보시고 병든 자 드러  
 三十七 날은 사디 네 손을 펴라 하시니 이에 펴매 그 손이 다시 완전하더라 바리  
 三十八 세 교인이 나와서 곳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었더케 죽일고 의론하더라 ○  
 三十九 예수가 데즈들과 함께 가지 바다로 떠나가시니 허다한 사람이 갈닐니로  
 四十 브러 좃치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 두매와 요단 건너와 또 두로와 시돈 근  
 四十一 처에서 허다한 사람이 그 었더케 큰 일 행함을 듯고 나와 오거늘 데즈들  
 四十二 의게 말삼하샤 적은 비를 예비하야 기드리라 하시니 사람은 만하 지의를  
 四十三 에 위쌌을 면코져 하심이라 대개 여러 사람을 임의 곳치신고로 병든  
 四十四 사람들을 예수를 만나고져 하야 꺾근히 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어는 때던져



마가 삼장

백십

十三 예수를 보면 압해 업디여 소리 질너 콜으되 너는 하는님의 아들이라 하니  
 十二 예수가 여러번 경계하시어 알게 하지말나 하시더라 ○ 또 산에 오르샤 즈기  
 十一 믿음대로 사름을 부르시니 나야오거늘 열두 사름을 세우샤 즈기와 흙씩  
 十 잇게도 하시고 보내여 전과도 하게 하시며 샤귀를 내여 쫓는 권제도 잇게  
 九 하신지라 베드로라 일흠 주신 시몬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八 의 동생 요한이 잇스매 이 두 사름은 보아너게라 일흠을 주시니 번역하면  
 七 우뢰의 아들이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  
 六 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와 가나안 사름 시몬이 잇고 또 가롯 유다니 이  
 五 는 예수를 잡아준 자라 ○ 임의 집에 드러가시매 무리가 다시 모혀 썩  
 四 먹을 거를도 업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듯고 붓들너 나감은 너희 말이 그  
 三 가 밋쳤다 흠일너라 예루살렘으로브러 느려온 서기관이 콜으되 더가  
 二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고 모든 샤귀의 왕을 힘넘어 샤귀를 내여 쫓는다 하니  
 一 예수가 부르샤 비유를 베프러 콜으샤 되 사단이 었지 능히 사단을 내여 쫓  
 二 겿느냐 또 만일 나라히 스스로 분정하면 그 나라이 능히 서지못하고

三〇 만일 집이 스스로 분정하면 그 집이 능히 서지못하고 만일 사단이 나라나  
 二九 스스로 분정하면 능히 서지못하고 만드시 망하리니 사름이 몬져 힘센 사름을  
 二八 결박치안코는 그 힘센 사름의 집에 드러가 계간을 룩탈치못하리니 더를  
 二七 결박한 후에야 계간을 룩탈하느니라 내가 진실노 너희게 널으노니 모든 죄  
 二六 악과 훼방하는 말노 무어슬 훼방하던지 다 사름의게 샤하야 주시려니와  
 二五 오직 누구던지 성신을 훼방하는 자는 샤하야 줌을 었지못하고 만드시 영영  
 二四 혼 죄에 빠치느니라 하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더러온 귀신이 들녔다 하니  
 二三 이르라 ○ 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밋게 서서 사름을 보내여  
 二二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돌너안젧다가 예수씩 엿조와 콜으되 성령님의  
 二一 모친과 동생들이 밋게서 찾는다 하시니 대답하샤 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二〇 동생이나 하시고 돌너안즌 사름들을 돌너보시며 콜으샤 되 모친과 내  
 一九 동생들을 보라 누구던지 하는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동생이오 내 누의  
 一 오 내 모친이 나라

오르샤 바다에 쳐 안즈시매 모든 무리는 바다 것 싸에 섰는지라 예수가  
 여러 가지 일을 비유로 마르치시니 마르치실 때에 날으샤 디 드를지어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뿌릴식 더러는 길가에 쳐러지매 새가  
 와서 주어먹고 더러는 흙이 적은 돌작밭해 쳐러지매 흙이 깊지아니 흙  
 으로 곳씩이나 오나 허가 뜻아 썩인즉 썩히가 업서 마르고 더러는 가시덤  
 불속에 쳐러지매 가시가 자람으로 괴운이 막혀 열미를 밋지못하고 더러  
 는 도흔 싸에 쳐러져 자라매 풍성하니 결실함이 혹 삼십배도 되고 륭십배  
 도 되고 백배도 되는니라 하시고 또 날으샤 디 귀 잇서 드를차는 드를지어  
 다 ○ 예수가 홀노 제실 때에 흙씩 잇는 사를들과 열두 데즈가 그 여러  
 비유를 못조오니 날으샤 디 하는님 나라의 오묘한 거슬 너희게는 주되 외인  
 의게는 모든 거슬 비유로 흙은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아지못하고 뜻기는  
 드러도 서듯지 못하게 흙이니 너희는 도리켜 죄 사함을 얻을까 두려워  
 하시니라 하시고 또 글으샤 디 너희가 이 비유를 서듯지 못홀진대 엇더케  
 모든 비유를 알겠노 썩리는자는 도를 뿌리는 거시니 도 뿌린 길가에

잇는자는 도를 드르매 사단이 꽃와서 믿음에 뿌린 도를 빼앗는 거시오  
 또 이와 같이 돌작밭해 뿌린 곳에 잇는자는 도를 뜻고 곳 깃브게 밧으나  
 속에 뿌리가 업서 잠간 견디다가 도의 연교로 환난이나 꺾박을 당홀즉  
 꽃 슬허비림이 오 가시덤불 가온디 뿌린 곳에 잇는자는 도를 드르되  
 세상의 넘어와 지리의 욕심과 다른 물욕이 드러와 그 도를 막아 결실치 못  
 하게 됨이 오 도흔 싸에 뿌린 곳에 잇는자는 도를 뜻고 밧아 결실하기를  
 혹 삼십배도 되고 륭십배도 되고 백배도 됨이니라 하시더라 ○ 또 글으샤 디  
 사람이 등불을 갖다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겟느냐 등경 우에 두  
 지안겟느냐 대개 숨은 거시 드러나지아님이 업고 곱초인 거시 나타나지  
 아님이 업는니 귀가 잇서 드를차는 드를지어다 또 글으샤 디 뜻는 거슬 삼  
 가라 너희가 눈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밧을 거시니라  
 또 너희게 더 주리니 대개 잇는 사를의게는 더 주고 업는 사를의게는  
 잇는 것도 빼아스리라 ○ 또 글으샤 디 하는님의 나라는 사를이 씨를 싸에  
 던질과 못흐니 밤에 자코 나제 나러나 매 씨가 나셔 자라되 엇더케 될줄은

三九 아 지 못 하 느 지 라 싸이 스 스 로 열 미 를 미 지 때 처음 에는 싸이 나 며 다음 에는  
 三九 이 삭 이 되 고 그 후 에는 이 삭 에 원 전 호 곡 식 을 일 우 는 나 열 미 나 을 싸 에 는  
 三九 곳 나 트 을 쓰 는 거 손 거 들 싸 가 나 름 이 나 라 ○ 또 그 들 이 우리 가 하 는 님 의  
 三九 나 라 를 엮 더 케 비 하 며 또 무 슝 비 유 로 써 비 유 할 고 맛 치 제 조 싸 혼 알 과  
 三九 그 후 에는 자 라 셔 모 든 나 물 중 에 크 고 또 혼 큰 가 지 가 나 셔 공 중 에 는 는 재  
 三九 들 이 그 그 들 에 기 드 리 는 나 라 ○ 예 수 가 또 이 그 혼 여 러 비 유 로 더 회 가  
 三九 알 아 듯 는 대 로 도 를 말 습 하 시 고 또 비 유 가 아 니 면 말 습 을 아 니 하 시 고 다 만  
 三九 혼 자 제 실 때 에 는 그 대 조 의 게 모 든 거 슬 푸 러 님 이 시 더 라 ○ 그 날 이 저 물 때  
 三九 예 수 가 데 조 드 러 님 이 사 디 우리 가 건 너 편 으 로 가 자 하 시 니 더 회 가  
 三九 무 리 를 떠 나 때 예 수 가 그 저 비 에 제 신 대 로 되 시 고 가 니 또 다 른 비 들 이  
 三九 잇 서 못 처 히 할 서 광 풍 이 크 게 나 러 나 며 불 열 이 썩 여 비 에 드 러 오 니 비 에  
 三九 마 두 하 야 지 더 라 예 수 가 고 물 에 서 버 키 하 시 고 줌 으 시 더 니 데 조 들 이 세 우  
 三九 며 그 들 이 디 선 성 님 이 여 우리 가 죽 게 된 거 슬 도 라 보 지 아 니 시 는 잇 가 하 니

三

三九 예 수 가 썩 여 바 람 을 썩 지 지 시 며 바 다 드 러 님 이 사 디 줌 줌 하 고 고 요 하 라  
 三九 하 시 나 바 람 이 못 처 고 아 조 찬 잔 하 거 늘 이 에 데 조 의 게 님 이 사 디 엮 더  
 三九 너 회 가 무 셔 위 하 는 나 너 회 가 아 직 도 밋 음 이 엮 는 나 더 회 가 심 히 두 려 워  
 三九 서로 말 하 야 고 들 이 더 더 가 뒤 기 에 바 람 과 바 다 라 도 슝 좋 하 는 나 하 더 라  
 三九 또 바 다 건 너 편 으 로 와 셔 거 라 사 사 람 의 싸 에 나 르 니 예 수 가 비 에 서 나 오  
 三九 시 때 더 러 온 귀 신 들 님 사 람 이 무 덤 으 로 브 러 나 와 셔 맛 난 지 라 그 사 람 이  
 三九 무 덤 스 이 에 살 때 이 제 는 능 히 밀 사 람 이 도 모 지 엮 고 쇠 사 슬 노 도 못 함 은  
 三九 여 러 번 고 랑 파 쇠 사 슬 노 미 엮 서 도 쇠 사 슬 이 싣 혀 지 고 고 랑 도 썩 여 셔  
 三九 밋 촌 내 제 어 흘 힘 잇 는 사 람 이 엮 습 이 오 또 흥 상 밤 낮 무 덤 과 산 에 잇 서  
 三九 소 리 지 르 며 돌 노 제 몸 을 상 하 더 니 말 니 셔 예 수 를 보 고 다 라 와 절 하 고  
 三九 크 게 소 리 질 너 고 들 이 디 지 극 히 높 호 신 하 는 님 의 아 들 예 수 여 내 가 너 와  
 三九 무 슝 상 관 이 잇 는 나 내 가 너 를 하 는 님 압 해 밍 제 케 하 노 니 나 를 괴 롭 게  
 三九 마 읍 쇼 셔 함 은 예 수 가 임 의 더 드 러 님 이 시 기 를 더 러 온 귀 신 아 그 사 람 의  
 三九 게 서 나 오 라 하 십 아 라 이 에 무 러 그 들 이 사 디 네 일 함 이 무 어 시 나 하 서 나

十 곧은디 내 일홈은 군디니 우리가 만흠이니이다 하고 예수씨 근절히 구하디  
 十一 이 싸에 내여 쫓지 마옵쇼셔 하디니 맞춤 거괴 도야지의 큰 씨가 산 것해서  
 十二 먹거늘 사귀들이 군구하야 곧은디 우리를 도야지 씨에 보내여 드러  
 十三 가게 하쇼셔 하니 허락하신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도야지의 게로  
 十四 드러가니 거진이 천마라 되는 도야지 씨가 비탈노느리다라 바다로 드러가  
 十五 몰스하거늘 처던자가 다라나 읍닉외 촌에 고하니 여러 사름이 무어슬  
 十六 하엿는가 보러 나와서 예수씨 니르니 이왕 사귀들녘던자는 곳군디가 집혔  
 十七 던 사름이라 더가 옷을 남교 정신이 성하야 안젓스매 무리가 보고 곳  
 十八 두러워하디니 본자가 사귀들녘던 사름의 맛난 것과 못 도야지의 일노  
 十九 고하디 그 사름들이 드디여 그디경에서 썬나 시기를 군구하디라 예수가 비  
 二十 에 오르실 씨에 사귀들녘던 사름이 흠씨 잇기를 군구하거늘 예수가 허락  
 二十一 지아니하시고 오직 더드려 날으샤디 집으로 도라가 쥬가 네게 었더케 큰  
 二十二 일행하심과 너를 불쌍히 녀이심을 네 친속의게 고하라 하시니 그 사름이  
 二十三 가서 예수가 제게 었더케 큰 일행하심을 데가 불나에 전파하니 사름들이

一 다 괴이히 녀이더라 ○ 예수가 비를 두사고 다사 더 편으로 건너가시매 허다  
 二 혼 무리가 모히거늘 이에 바다가에 계시더니 회당 어룬야이로라 하느흔  
 三 사름이 와서 예수를 보고 말 아래 엽디여 여러번 군구하야 곧은디 내  
 四 어린 딸이 죽게 되엿스오니 오샤 그 우에 손을 대여 나와서 살게 하쇼셔 하거  
 五 늘 예수가 흔가지로 가실씨 허다흔 무리가 또 응위하야 좃더라 ○ 또 열두  
 六 히를 혈루증 잇는 녀인 하나 이 잇스니 여러 의원의게 심히 괴로움을  
 七 밧앗고 또 혼 잇던 거슬 다 허비하엿스되 나음이 엽고 증제가 도로혀 중하던  
 八 초이라 예수의 행하신 일을 듯고 무리 가온디 셔겨 와서 뒤로 그 옷을  
 九 든지기는 제 생각에 내가 다만 그 옷만 먼저 도성하리라 흠일너니 혈루근  
 十 원이 곳 모르매 제 몸에 병이 나으줄을 세듯는지라 예수가 그 능력이  
 十一 즈괴로 보터 나간 줄을 곳 아시고 무리가 온디셔 도라보아 곧으샤디 누가 내  
 十二 옷을 문졌느냐 하시니 데즈들이 엿조오디 무리가 응위흔 거슬 보시며  
 十三 누가 나를 문졌느냐 무르시는 잇가 하되 예수가 이 일행하녀인을 보라고  
 十四 들너보시니 녀인이 제게 하신 일을 알교 두러워하야 썰며 압헤 나와

업디여 <sup>三六</sup>실상으로 었즈오니 예수 <sup>三六</sup> | 글 <sup>三六</sup> 샤디 <sup>三六</sup> 설아 <sup>三六</sup> 네 <sup>三六</sup> 밋음 <sup>三六</sup> 이 <sup>三六</sup> 너 <sup>三六</sup> 를 <sup>三六</sup> 성 <sup>三六</sup> 하 <sup>三六</sup> 게  
<sup>三五</sup> 하엿스니 <sup>三五</sup> 평안 <sup>三五</sup> 히 <sup>三五</sup> 가 <sup>三五</sup> 라 <sup>三五</sup> 네 <sup>三五</sup> 병 <sup>三五</sup> 이 <sup>三五</sup> 나 <sup>三五</sup> 을 <sup>三五</sup> 지 <sup>三五</sup> 어 <sup>三五</sup> 다 ○ <sup>三五</sup> 밋음 <sup>三五</sup> 말 <sup>三五</sup> 숨 <sup>三五</sup> 흥 <sup>三五</sup> 실 <sup>三五</sup> 때 <sup>三五</sup> 에 <sup>三五</sup> 회 <sup>三五</sup> 당  
<sup>三五</sup> 어 <sup>三五</sup> 른 <sup>三五</sup> 의 <sup>三五</sup> 집 <sup>三五</sup> 에 <sup>三五</sup> 서 <sup>三五</sup> 사 <sup>三五</sup> 람 <sup>三五</sup> 이 <sup>三五</sup> 와 <sup>三五</sup> 서 <sup>三五</sup> 글 <sup>三五</sup> 으 <sup>三五</sup> 디 <sup>三五</sup> 설 <sup>三五</sup> 이 <sup>三五</sup> 죽 <sup>三五</sup> 은 <sup>三五</sup> 지 <sup>三五</sup> 라 <sup>三五</sup> 엿 <sup>三五</sup> 지 <sup>三五</sup> 선 <sup>三五</sup> 성 <sup>三五</sup> 님 <sup>三五</sup> 을 <sup>三五</sup> 괴 <sup>三五</sup> 롭 <sup>三五</sup> 게  
<sup>三五</sup> 하 <sup>三五</sup> 느 <sup>三五</sup> 뇨 <sup>三五</sup> 흥 <sup>三五</sup> 거 <sup>三五</sup> 늘 <sup>三五</sup> 예 <sup>三五</sup> 수 <sup>三五</sup> 가 <sup>三五</sup> 꺾 <sup>三五</sup> 헤 <sup>三五</sup> 서 <sup>三五</sup> 이 <sup>三五</sup> 말 <sup>三五</sup> 을 <sup>三五</sup> 드 <sup>三五</sup> 르 <sup>三五</sup> 시 <sup>三五</sup> 고 <sup>三五</sup> 곳 <sup>三五</sup> 회 <sup>三五</sup> 당 <sup>三五</sup> 어 <sup>三五</sup> 른 <sup>三五</sup> 드 <sup>三五</sup> 러 <sup>三五</sup> 닐 <sup>三五</sup> 으  
<sup>三五</sup> 샤 <sup>三五</sup> 디 <sup>三五</sup> 두 <sup>三五</sup> 러 <sup>三五</sup> 위 <sup>三五</sup> 말 <sup>三五</sup> 고 <sup>三五</sup> 밋 <sup>三五</sup> 가 <sup>三五</sup> 만 <sup>三五</sup> 하 <sup>三五</sup> 라 <sup>三五</sup> 흥 <sup>三五</sup> 시 <sup>三五</sup> 고 <sup>三五</sup> 베 <sup>三五</sup> 드 <sup>三五</sup> 로 <sup>三五</sup> 와 <sup>三五</sup> 야 <sup>三五</sup> 고 <sup>三五</sup> 보 <sup>三五</sup> 의 <sup>三五</sup> 동 <sup>三五</sup> 성  
<sup>三五</sup> 요 <sup>三五</sup> 한 <sup>三五</sup> 외 <sup>三五</sup> 에 <sup>三五</sup> 쓰 <sup>三五</sup> 라 <sup>三五</sup> 음 <sup>三五</sup> 을 <sup>三五</sup> 허 <sup>三五</sup> 락 <sup>三五</sup> 지 <sup>三五</sup> 아 <sup>三五</sup> 니 <sup>三五</sup> 흥 <sup>三五</sup> 시 <sup>三五</sup> 고 <sup>三五</sup> 회 <sup>三五</sup> 당 <sup>三五</sup> 어 <sup>三五</sup> 른 <sup>三五</sup> 의 <sup>三五</sup> 집 <sup>三五</sup> 에 <sup>三五</sup> 나 <sup>三五</sup> 르 <sup>三五</sup> 시 <sup>三五</sup> 매 <sup>三五</sup> 현 <sup>三五</sup> 화  
<sup>三五</sup> 함 <sup>三五</sup> 과 <sup>三五</sup> 여 <sup>三五</sup> 러 <sup>三五</sup> 히 <sup>三五</sup> 울 <sup>三五</sup> 며 <sup>三五</sup> 심 <sup>三五</sup> 히 <sup>三五</sup> 통 <sup>三五</sup> 곡 <sup>三五</sup> 함 <sup>三五</sup> 을 <sup>三五</sup> 보 <sup>三五</sup> 시 <sup>三五</sup> 고 <sup>三五</sup> 드 <sup>三五</sup> 러 <sup>三五</sup> 가 <sup>三五</sup> 설 <sup>三五</sup> 제 <sup>三五</sup> 글 <sup>三五</sup> 으 <sup>三五</sup> 샤 <sup>三五</sup> 디 <sup>三五</sup> 너 <sup>三五</sup> 희 <sup>三五</sup> 가  
<sup>三五</sup> 엿 <sup>三五</sup> 지 <sup>三五</sup> 현 <sup>三五</sup> 화 <sup>三五</sup> 흥 <sup>三五</sup> 며 <sup>三五</sup> 우 <sup>三五</sup> 느 <sup>三五</sup> 나 <sup>三五</sup> 이 <sup>三五</sup> 으 <sup>三五</sup> 희 <sup>三五</sup> 가 <sup>三五</sup> 죽 <sup>三五</sup> 은 <sup>三五</sup> 거 <sup>三五</sup> 시 <sup>三五</sup> 아 <sup>三五</sup> 니 <sup>三五</sup> 라 <sup>三五</sup> 잔 <sup>三五</sup> 다 <sup>三五</sup> 흥 <sup>三五</sup> 시 <sup>三五</sup> 니 <sup>三五</sup> 더 <sup>三五</sup> 희 <sup>三五</sup> 가  
<sup>三五</sup> 비 <sup>三五</sup> 웃 <sup>三五</sup> 더 <sup>三五</sup> 라 <sup>三五</sup> 예 <sup>三五</sup> 수 <sup>三五</sup> 가 <sup>三五</sup> 더 <sup>三五</sup> 희 <sup>三五</sup> 를 <sup>三五</sup> 다 <sup>三五</sup> 내 <sup>三五</sup> 여 <sup>三五</sup> 보 <sup>三五</sup> 내 <sup>三五</sup> 신 <sup>三五</sup> 후 <sup>三五</sup> 에 <sup>三五</sup> 으 <sup>三五</sup> 희 <sup>三五</sup> 의 <sup>三五</sup> 부 <sup>三五</sup> 모 <sup>三五</sup> 와 <sup>三五</sup> 쓰 <sup>三五</sup> 라 <sup>三五</sup> 간 <sup>三五</sup> 데 <sup>三五</sup> 즈 <sup>三五</sup> 들  
<sup>三五</sup> 만 <sup>三五</sup> 다 <sup>三五</sup> 리 <sup>三五</sup> 시 <sup>三五</sup> 고 <sup>三五</sup> 으 <sup>三五</sup> 희 <sup>三五</sup> 잇 <sup>三五</sup> 는 <sup>三五</sup> 곳 <sup>三五</sup> 에 <sup>三五</sup> 드 <sup>三五</sup> 러 <sup>三五</sup> 가 <sup>三五</sup> 샤 <sup>三五</sup> 그 <sup>三五</sup> 으 <sup>三五</sup> 희 <sup>三五</sup> 의 <sup>三五</sup> 손 <sup>三五</sup> 을 <sup>三五</sup> 잡 <sup>三五</sup> 고 <sup>三五</sup> 글 <sup>三五</sup> 으 <sup>三五</sup> 샤 <sup>三五</sup> 디  
<sup>三五</sup> 달 <sup>三五</sup> 나 <sup>三五</sup> 다 <sup>三五</sup> 구 <sup>三五</sup> 미 <sup>三五</sup> 라 <sup>三五</sup> 흥 <sup>三五</sup> 시 <sup>三五</sup> 니 <sup>三五</sup> 번 <sup>三五</sup> 역 <sup>三五</sup> 흥 <sup>三五</sup> 면 <sup>三五</sup> 곳 <sup>三五</sup> 설 <sup>三五</sup> 아 <sup>三五</sup> 내 <sup>三五</sup> 가 <sup>三五</sup> 네 <sup>三五</sup> 게 <sup>三五</sup> 말 <sup>三五</sup> 흥 <sup>三五</sup> 노 <sup>三五</sup> 니 <sup>三五</sup> 나 <sup>三五</sup> 러 <sup>三五</sup> 나 <sup>三五</sup> 라 <sup>三五</sup> 흥 <sup>三五</sup> 시 <sup>三五</sup> 니  
<sup>三五</sup> 이 <sup>三五</sup> 라 <sup>三五</sup> 제 <sup>三五</sup> 집 <sup>三五</sup> 으 <sup>三五</sup> 희 <sup>三五</sup> 가 <sup>三五</sup> 곳 <sup>三五</sup> 나 <sup>三五</sup> 러 <sup>三五</sup> 나 <sup>三五</sup> 거 <sup>三五</sup> 르 <sup>三五</sup> 니 <sup>三五</sup> 때 <sup>三五</sup> 에 <sup>三五</sup> 나 <sup>三五</sup> 이 <sup>三五</sup> 열 <sup>三五</sup> 두 <sup>三五</sup> 설 <sup>三五</sup> 이 <sup>三五</sup> 라 <sup>三五</sup> 못 <sup>三五</sup> 사 <sup>三五</sup> 람 <sup>三五</sup> 이 <sup>三五</sup> 곳  
<sup>三五</sup> 놀 <sup>三五</sup> 나 <sup>三五</sup> 고 <sup>三五</sup> 심 <sup>三五</sup> 히 <sup>三五</sup> 이 <sup>三五</sup> 상 <sup>三五</sup> 히 <sup>三五</sup> 녀 <sup>三五</sup> 이 <sup>三五</sup> 거 <sup>三五</sup> 늘 <sup>三五</sup> 예 <sup>三五</sup> 수 <sup>三五</sup> 가 <sup>三五</sup> 더 <sup>三五</sup> 희 <sup>三五</sup> 의 <sup>三五</sup> 게 <sup>三五</sup> 여 <sup>三五</sup> 러 <sup>三五</sup> 번 <sup>三五</sup> 경 <sup>三五</sup> 계 <sup>三五</sup> 흥 <sup>三五</sup> 샤 <sup>三五</sup> 사 <sup>三五</sup> 람 <sup>三五</sup> 으  
<sup>三五</sup> 로 <sup>三五</sup> 알 <sup>三五</sup> 게 <sup>三五</sup> 흥 <sup>三五</sup> 지 <sup>三五</sup> 말 <sup>三五</sup> 나 <sup>三五</sup> 흥 <sup>三五</sup> 시 <sup>三五</sup> 고 <sup>三五</sup> 이 <sup>三五</sup> 에 <sup>三五</sup> 명 <sup>三五</sup> 흥 <sup>三五</sup> 샤 <sup>三五</sup> 으 <sup>三五</sup> 희 <sup>三五</sup> 게 <sup>三五</sup> 먹 <sup>三五</sup> 을 <sup>三五</sup> 거 <sup>三五</sup> 슬 <sup>三五</sup> 주 <sup>三五</sup> 라 <sup>三五</sup> 흥 <sup>三五</sup> 시 <sup>三五</sup> 더 <sup>三五</sup> 라

六

예수가 거기를 떠나샤 고향으로 도라가실식 데즈들이 좃더라 안식일이  
 니르매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여러히 듯고 이상히 녀여 글으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러함을 엿엇느뇨 또 이 사람의 밧은 지혜가 엿더뇨 그 손으로  
 행할 이런 권능이 엿더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녀며 야고보  
 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며 그 누의들이 우리와 함씩 여의  
 잇지아나냐 흥고 슬허브리거늘 예수 | 글으샤디 선지자도 제 고향과  
 친척과 집안 외에는 존경치아님이 업느니라 거의셔는 권능을 행할수가  
 업스되 다만 손으로 두어 병인을 문져 곳치시고 또 더희들이 밋지아님을  
 괴이히 녀어시더라 ○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 예수가  
 열두 데즈를 불러 들식 들식 보내실식 더러온 귀신을 내여 쫓는 권능을 주시  
 고 명흥샤디 로즈도 가지말고 오직 집행이만 가지며 양식도 말고 전디  
 도 말고 주머니에 돈도 넣치말며 십만 들메고 가디 두벌 옷은 남지말나  
 흥시고 또 글으샤디 어디셔던지 뉘집에 드러가거든 거의를 썬나기셔지  
 류하여라 너희를 디접지아나 흥며 뜻지안는 곳이 잇거든 거의셔 썬날 때에

三 발아래 몬지도 썩러브러 여러 사람의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데즈들이  
 三 나가서 맛당히 회기홀 거슬 전파하고 여러 샹귀를 내여 썩치며 여러 병인을  
 三 기름으로 말나 곳치더라 ○ 이에 예수의 성명이 파다홀지라 헤롯왕이 듯  
 三 고 글으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가온디서 다시 살아나 이 권능을 행함  
 三 이로다 하고 었던 이는 글으되 이가 엘니야라 하고 또 다른 이는 글으되  
 三 이는 선지자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듯고 글으되 이는 내가  
 三 목버헌 요한이니 더가 다시 살았다 하더라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안히  
 三 헤로디아의 일노 사람을 보내여 요한을 잡아 옥에 가도니라 헤롯이 그  
 三 녀인의게 장가들었다니 요한이 헤롯의게 간하여 글으되 동생의 안히를  
 三 취하는 거시 을치안타 함으로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망하여 죽이고져 하되  
 三 하지못할 거슨 헤롯이 요한을 을코 기록한 사람인 줄노 알고 두려워하여  
 三 보호하며 그 말을듯고 미우 답답하되 듯기를 즐거워함일너니 맛춤 귀회  
 三 를 맛나니 헤롯이 제 탄일에 모든 대부와 천부장과 가닐니의 귀인들노  
 三 잔치홀시 헤로디아의 천설이 드러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씩 안즌

三 사름들을 잇브게 하니 왕이 그 녀즈드려 닐으되 무어시던지 너 원호는  
 三 거슬 내게 달나호면 주리라 하고 또 밍제하되 무어시던지 달나는 거슨 비록  
 三 내나라 반을 달날지라도 너를 주리라 하거늘 녀즈가 나가서 그 어미드려  
 三 닐으되 내가 무어슬 달나리잇가 그 어미가 글으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三 달나라 하니 그 녀즈가 곧 왕의게 급히 드러가 구하여 글으되 세례 요한  
 三 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곳내게 주기를 원함옵는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  
 三 하나 임의 밍제를 호였고 또 함씩 안즌 사름들이 잇슴으로 가히 저버  
 三 리지 못홀지라 이에 왕이 곳시위병 하나를 보내여 요한의 머리를 가져  
 三 오라 하니 그 사름이 나가 옥에서 머리를 버혀 소반에 담아다가 녀즈를  
 三 주니 녀즈가 그 어미의게 준지라 요한의 데즈들이 듯고 와서 시례를 가져다  
 三 가 장스하니라 ○ 데즈들이 예수께 모혀저 회행할 것파 마르친 거슬 낫낫치  
 三 고 하니 닐으샤되 너희는 사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여라 호심은  
 三 거기 오고 가는 사름이 만하 음식 먹을 겨를도 업슴이라 이에 비를 두고  
 三 사로 한적한 곳에 가니 사름이 그 가는 거슬 보고 아논이가 만흔지라

마가 륭장

모든 고을도 좃차 거러 달녀와 가는 곳으로 몬져 나오거늘 예수가 나오샤  
 허다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녀이심은 너희가 목자 업는 양과 흠이 니이에  
 여러 가지로 그러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데즈들이 예수께 두루 촌과  
 엿조오되 이 곳이 황무디오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여 두루 촌과  
 마을노 가서 무어슬 사먹게 호을쇼셔 예수니 디 답하야 글으샤되 너희가  
 먹을 거슬 주어라 하시니 엿조오되 우리가 가서 먹이 비량 앓치를 사다  
 먹이 리잇가 빌으샤되 너희게 썩 몇 덩이나 잇는냐 가 보라 하시니 알아  
 보코 글으되 썩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잇디이다 하거늘 데즈들  
 명하샤 그 사름들을 썩 지어 푸른 풀에 안치라 하시니 썩로 안찰쳐 빝식도  
 안코 오십석도 안천지라 예수가 썩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샤  
 하늘을 우러러 축샤하시코 썩을 썩여 데즈를 주어 여러 사름 압헤  
 배플게 하시코 썩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름의게는 화 주시매 먹고 빝부  
 른지라 남겨져 부스럭이와 물고기를 주으니 열두 광쥬리에 마득하코  
 썩을 먹은 사나히가 오천명이더라 ○ 예수가 무리를 보내시라고 죽시 데즈

빝이 십삼

를 저축하야 비 두고 압서 건너편 벵새대로 가게 하시코 무리를 작별호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임의 저물매 비는 바다 가온디 잇고 예수는  
 홀노 못해 계신지라 데즈들이 로젓기를 피로히 흠을 보시니 대개 바람이  
 거스림이라 밤스경 즈음에 예수가 바다 우으로 거러 오심을 보고 요물인가  
 지나갈것이 하시니 데즈들이 바다 우으로 그 거러 오심을 보고 요물인가  
 하야 소리 지르니 너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남이라 이에 예수가 곳 더브  
 러 말씀하야 글으샤되 안심하여라 내니 두려워말나 하시코 비에 올라너  
 희게 가시니 바람이 극치는지라 데즈들이 무음에 심히 놀나 이상히 녀임  
 은 너희 무음이 둔하야 썩 썩여 주시던 일을 썩듯지 못함이러라 ○  
 임의 건너 계네사렛사에 니르러 언덕에 대이고 비에서 느리니 빝성들이  
 곳에 수를 아는지라 너희가 스방으로 두루 든니며 상으로 병자를 메고 예수  
 가 어디 계시단 말을 듯고 나아오니 아모되나 예수가 드러가시는 마을이  
 나 성이나 촌에서 병자를 저저에 두코 그 옷단이라도든지기를 건구하야  
 든지는 이는 다 성함을 엿더라

빝이 십삼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 몇치 예루살렘으로브러  
 그데즈 두어 사람이 부정흐 손으로씩 먹는 거슬 보니 부정하 함은 곳 씻지  
 아님이라 대개 바리새 교인과 유대인들이 다 장로의 유전함을 직히여 그  
 손을 씻스디 팔독까지 씻지 아니면 먹지안코 또 저즈로브러 도라와서  
 씻지 아니면 먹지안코 또 여러 가지 직히여 온 거시 잇스니 잔과 주발과  
 늦그릇을 씻슴이러라 이에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조오디  
 엇지야 선성님의 데즈는 장로의 유전을 준히치아니고 부정흐 손으로  
 식을 먹는뇨 하거늘 그르샤디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를 무르쳐 미리  
 말흐 거시 올토다 기록하엿스디  
 이 백성들이 입설노는 나를 공경하되 오직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  
 하도다 다만 사람의 명흐 거스로 도를 삼아 무르쳐니 헛되히 나를  
 경배하는 거시라  
 하엿는 나라 너희가 하는님의 계명은 바리새 사람의 유전을 직히다 하시고  
 또 그르샤디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직히라코 전설노 하는님의 계명을

저버리도다 대개 모세가 그르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코 또 그르디  
 아비나 어미를 휘방하는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엿거늘 오직 너희는  
 그르디 사람이 아비의게나 어미의게나 말하디 부모가 내게서 밧아 유익흐  
 거시 고르반 되엿다 하니 이는 하는님씩 드렸다는 말이라 그 후에는 제  
 아비나 어미의게아모거시라도 하여서 드리기를 허락지아니하니 이는 너  
 희가 전흐 유전으로 하는님의 도를 폐함이라 또흐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만히 행하느니라 하시코 무리를 다시 불너샤디 너희는 다 내 말을  
 듯고 세드르라 무릇 사람의 밧그로브러 드러가는 거스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못하되 오직 안으로브러나오는 거스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코  
 무리를 썬나 짐으로 드러가시니 예즈들이 비유를 못조오디 예수  
 그르샤디 너희도 이러케 미련하냐 무어시던지 밧그로브러 드러가는 거시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못함을 아지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드러가  
 지아니하고 비로 드러가매 뒤로내여 버림이나라 함심은 먹는 거시 다 깨끗  
 하다 함심이라 또 그르샤디 사람의게서 나오는 거시 곳 사람을 더럽게



三 상느니 대개 속 곳 사람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슨 악한 생각과 음란과  
 二 三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투기와 훼방과 교만  
 二 三 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거시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니  
 二 三 라 ○ 예수가 내려나샤 거기서 두로와 시돈 디경으로 떠나 혼 집에 드러  
 二 三 가샤 아모도 모르게 하시려하나 숨길수 업더라 맛참 혼녀인이 잇서 그  
 二 三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말 아래  
 二 三 업더니 그 녀인은 헬나 사람이오 수로보니께 족속이라 제 딸의게서  
 二 三 샤귀 쫓차주시기를 예수께 요구할티 예수 닐샤 되녀로몬져 비불니  
 二 三 먹게 할지니 조녀의 석을 취하야 개게 던짐이 맛당치아니 하시니라 녀인이  
 二 三 디답하야 글으되 주여 을소이다 마는 개도 상 아래서 조녀의게서 썩러지  
 二 三 는 부스럼이 틀먹는이다 예수 글샤 되 이 말을 인하야 샤귀가 임의  
 二 三 네 딸의게서 썩앗스니 도라가라 하시니 녀인이 집에 도라가 본즉 딸이  
 二 三 요에 누엇고 샤귀가 임의 나갓더라 ○ 예수가 다시 두로 디경을 떠나 시돈  
 二 三 으로서 데가 불니 디경 가온뒤로 말리암아 갈닐니 바다에 나르시매 귀먹

八

二 三 고 말이 어늘흔 사람을 드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으로 문져주시기를 요구  
 二 三 하거늘 예수가 그 사람을 드리고 무리를 썩나샤 조용한 곳에 나르러 손  
 二 三 가락을 그 귀에 녀코 촛비얏하 혀를 문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야  
 二 三 글으샤 되에 바다라 하시니 이는 곳 열니라 함이라 귀가 열니고 혀의 밋친  
 二 三 거시 풀녀 말이 분명흔지라 예수가 더희드려 경계하샤 아모 사람의게라  
 二 三 도 닐지 말나 하시되 경계할수록 더욱 넌니 전파하니 여러 사람이  
 二 三 심히 놀나 글으되 그의 행하신 거슬 다 잘 하였도다 귀먹여 리도 듣게 하고  
 二 三 병어 리도 말하게 하신다 하시니라  
 二 三 그 때에 허다한 무리가 다시 모혀서 먹을 거시 업스니 예수가 데즈를  
 二 三 불너서 글으샤 되 내가 무리를 만망히 녀이노니 너희가 사흘을 나와 흠씩  
 二 三 하였스나 먹을 거시 업스니 만일 내가 너희를 굶겨 짐으로 보내면 길에서  
 二 三 곤비하시니 그 중에 멀니셔 온 사람도 잇다 하시되 데즈들이 디답하되 광  
 二 三 야에 잇셔 어디셔 썩을 엇어 이 사람들을 능히 비부르게 하시리라 잇가  
 二 三 예수 무르시되 너희게 썩 몇덩이나 잇느냐 하시니 글으되 일곱이로소이

다 할거늘 예수가 무리를 명함샤 싸에 안치시고 썩 날곱덩이를 가지샤  
 샤례하시코 썩여 데즈의게 주어 그 압해 노흐라 하시니 데즈들이 무리 압해  
 늦거늘 썩 적은 성션 두마리가 잇는지라 썩호츠향하시코 명함샤 이 것도  
 그 압해 노흐라 하시니 먹고 비부른지라 그 늑은부스럭이를 주으니 날곱  
 광쥬리오 사름은 스천명이나 되는지라 예수가 다 호호보내시고 궂 데즈  
 들과 함씨 비에 오르샤 달마누다 디경에 나르시니라 ○ 바리시 교인이나  
 와 예수씨 혈난하야 하늘노 나온 징조를 보여달나고 시험하거늘 예수가  
 믿음속에 김히 탄식하야 글으샤디 엇지하야 이 세디의게 징조를 보여주지아나리라  
 하느냐 내가 전설노 너희게 날노니 이 세디의게 징조를 보여주지아나리라  
 하시고 그 사름들을 썩나샤 다시 비에 올라 거너편으로 가시더라 ○  
 데즈들이 썩 가져오기를 니젓스매 비에 썩호덩이 외에는 업는지라 예수가  
 경계하야 글으샤디 바리시 교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 막으라  
 하시니라 ○ 데즈들이 서로 의론하야 글으디 이는 우리게 썩이 업슴인가 하시니  
 예수가 아시고 글으샤디 너희가 엇지 썩이 업슴으로써 의론하느냐 지금

사지아지못하며 세듯지못하느냐 너희 믿음이 완악하냐 너희가 눈이 잇  
 서도 보지못하며 귀가 잇서도 듣지못하며 썩 괴역지도 못하느냐 내가 썩  
 다숫덩이를 썩여 오천명의게는 호매부스럭이를 주어 몇광쥬리에 담았  
 더나 글으디 열들이나이다 썩 날곱덩이를 스천명의게는 호매부스럭이를  
 주어 몇바구미에 담았더나 글으디 날곱이니다 글으샤디 아직도 세듯  
 지못하느냐 하시더라 ○ 썩 벧새다에 나르매 소경 하나를 다리고 예수씨  
 나아와 묻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가 소경의 손을 붓드시코 마을 밧그로  
 나가샤 눈에 충을 비앗호시며 손을 대시코 무르시디 무어시 보이느냐  
 하시니 우러러 보며 글으디 내가 사름의 거러가는 거슬보니 나무와 못흐니  
 이다 할거늘 그 눈에 다시 손을 대시매 더가 호참 우러러 보더니 나아샤  
 만물을 다 보히 보는지라 예수가 그 사름을 집으로 보내며 글으샤디  
 마을노 드러가지말나 하시더라 ○ 예수가 데즈들과 함씨 가이사라 빌립보  
 모든 마을에 드러가실셔 로중에서 데즈드러 무러 글으샤디 사름이나를  
 뒤라코 하시니 엇저와 글으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니야라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 다 하니 또 무리 곧 샤틀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하나 베드로가 대답하야 곧 디 유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거늘 경계하시 아모 사람의게도 말하지 말나 하시고 또 그르치시되 인지가  
 받드시 고난을 만히 밧고 장로와 제스제장파 서기관들의게 보림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다시 살리라 하야 이 말씀을 명백히 하시매  
 베드로가 예수를 붓들고 간하거늘 예수가 도리키사 데즈를 보시며 베드로  
 를 썩지져 곧 샤틀니 사단아 물너가라 내가 하는 너의 뜻을 생각지아나 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데즈들을 불너서 곧 샤틀니  
 아모던지 나를 쓰라오라거든 지귀를 이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좃치라  
 대개 누구던지 제 목숨을 구원코져 하는 자는 일흔겨서 오 누구던지 나와  
 밧복음을 위하야 제 목숨을 일흔 자는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련하를  
 엇고도 그 목숨을 일흐면 무어세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어슬 주고 그 목숨  
 을 밧고갓는나 대개 이 음란하고 죄 만흔 세대에 잇서 나와 내 도를 붓그  
 러워하는 자는 인지도 아바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흠씨 너러울

九

세에 그 사람을 붓그러워하리라  
 또 곧 샤틀니 내가 진실노 너희게 빌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지아니  
 하야서 하는 너의 나라이 권제로 림하는 거슬 볼 사람이 잇는 나라 하시더  
 라 ○ 엇시 후에 예수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드리시고 따로 놓흔  
 산에 올라가사 그 사람들을 앉혀서 형상을 변화하시니 그 옷이 심히 희여  
 광채가 나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레게 희게 할수가 업슬너라  
 또 엘니야와 밧모세가 너희게 나타나 예수로 더브러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를 디하야 곧 디 선성님이여 우리가 여기 잇는 거시 뜻스오나 우리가  
 장막 세슬 지어 하나는 유를 계시게 하고 하나는 모세를 계시게 하고  
 하나는 엘니야를 계시게 하니 다 하니 대개 더가 합당히 할 말을 아지 못함  
 은 더희가 심히 무셔워함일너라 맞춤 구름이 와서 그리우며 또 소리가  
 구름 속에서 나셔 곧 샤틀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드르라 하시거늘 문득 들너보니 아모 사람도 보지 못하고 예수 만 더희와  
 흠씨 계시더라 ○ 산에서 너러울 때에 예수가 경계하시 인지가 죽은 가온

十 디셔 다시 살아날 때 까지 너희 본 거슬 아모 사람의게도 말지 말나  
 九 하시니 데즈들이 이 말씀을 믿음에 두며 서로 의논하디 죽은가 온디셔 다시  
 八 살아난다 흠은 무슴 뜻이뇨 하고 예수씨 못즈와 글으 디셔 과관이 말하거  
 七 를 엘니야가 묻져 와야 더가 오시리라 하는 말이 엇짐이뇨 하거늘  
 六 글으샤디 엘니야가 과연 묻져와셔 모른거슬 회복하리니 엇지 성경에 인조  
 五 가 고난을 만히 밧고 업수히녀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냐 오직 내가 너희게  
 四 날은노니 엘니야가 왔스되 사람이 임의로 디점하기를 성경에 기록한말  
 三 과 못치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 너희가 이에 데즈들의게와 보니 허다한  
 二 무리가 들넷고 쏜셔 과관이 더 브러 힐난하더니 모든 무리가 곳예수를  
 一 보고 심히 놀나며 달녀와 문안하거늘 예수가 무려 글으샤디 너희가 무어슬  
 十 九 힐난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이 디답하디 선성님이여 제 아들을 다리고  
 十 八 선성님씨 왓스오니 더는 병여리 귀신이 들녀셔 어디셔던지 귀신이 더를  
 十 七 잡으면 곳거구러져 춤을 흘리며 니를 갈아 책골이 된지라 내가 선성의  
 十 六 데즈드려 내여쭈차 달나하였더니 너희가 능히 하지못하더이다 하거늘

十 九 예수 디답하야 글으샤디 밋지안는 제디여 내가 열마나 너희와 못치 잇스  
 十 八 며 열마나 너희를 춤으리오 그 회를 내게로 다려오라 하시니 다리고와  
 十 七 예수씨 보이며 귀신이 곳 그 회를 크게 오그러려리니 싸에 업드려져 구  
 十 六 을며 춤을 흘나거늘 예수가 그 아비드려 무르샤디 병든자가 열마나 되었  
 十 五 으나 하시니 디답하디 어릴 때 브러 그러하옵고 귀신이 더를 죽이랴고 불  
 十 四 과물에 자조던젧스오니 오직 선성님이 혹 무어슬 하실수 잇거든 우리  
 十 三 를 불상히녀이샤 도아주옵쇼셔 하거늘 예수 니일샤디 할수 잇거든 이  
 十 二 무슴말이나 밋는자의게는 능치못할일이 업느니라 하시니 곳 그 회의  
 十 一 아비가 소리를 질너 글으디 내가 밋스오니 내 밋음의 부족함을 도아주쇼  
 十 〇 셔 예수가 무리들이 달녀와셔 모히는 거슬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썩  
 九 지져 글으샤디 병여리와 귀먹여리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회게  
 八 서나 오고 다시 드러가자 마라 하시니 샤귀가 소리 지르며 회를 심히  
 七 오그러려리코나 가니 그 회가 죽은 것 못치되매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六 죽엇다 하거늘 오직 예수가 그 손을 잡아 니르키시니 드디여 내려서더라

마가 구장

집에 드러가시매 데즈들이 조용히 못조와 글으되 우리는 엿지하야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 잇가 예수ㅣ 날으샤되 기도하니 영역서는  
 이런 류를 나가게 할수 업는 니라 ○ 이에 그 곳을 쫓나 갈닐니로 히향하야  
 지날석 예수가 아모 사람도 알니고져 아니하샤 데즈들의게 보여 글으샤되  
 인지가 사람의 손에 내여 주어 죽임을 당하고 죽었기를 무셔워하더라  
 살니라 하시니 데즈들이 이 말슴을 섰듯 못하고 또 못기를 무셔워하더라  
 ○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폐실시 데즈들이 잠잠함은 너희가 로중에서  
 중에서 서로 다툰 거시 무어시나 예수가 안즈샤 열두 데즈를 불러서  
 서로 다툰 거시 되고져 하는 이는 못 사람의 뜻치 될거시오 못 사람을 섬기  
 널으샤되 머리가 되고져 하는 이는 못 사람의 뜻치 될거시오 못 사람을 섬기  
 날으샤되 머리가 되고져 하는 이는 못 사람의 뜻치 될거시오 못 사람을 섬기  
 안으시며 너희들려 날으샤되 누구던지 내일함으로 이런 어린 회하나  
 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시더라 ○ 요한이 예수께  
 함이 아니오 오직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시더라 ○ 요한이 예수께

엿조오되 선성님이여 우리가 보니 혼 사람이 주의 일함으로 샤귀를 내  
 여 쫓거늘 더가 우리를 쓰르지 아니하 혼 연교로 우리가 금하였는 이다 예수ㅣ  
 글으샤되 금하지 마라 대개 내 일함은 의탁하야 능호 일을 행하고 영혼히  
 나를 비방함이 가 업는 니 우리를 거역지 안는 사람은 곧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 대개 너희가 그리스도의게 속함으로 누구던지 너희게 물흔 잔을  
 주면 내가 전설노 너희게 넘호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급을 일처아 나리라  
 또 누구던지 나를 밋는 쇼조 하나를 범죄케 하는 자는 출하리 큰 돌미를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짐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는 거든  
 썩어 버리라 상하고 영성에 드러가는 거시 두 손이 잇서 디옥 새지 안는  
 불에 드러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는 거든 썩어  
 버리라 절며 영성에 드러가는 거시 두 발이 잇서 디옥에 드러가는 것보다  
 나흐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는 거든 빼여 버리라 흐 눈으로 하는  
 의 나라에 드러가는 거시 두 눈이 잇서 디옥에 빠지는 것보다 나흐니라  
 더기는 버래도 죽지 안코 불도 새지 안는 것이니라 대개 각 사람을

마가 심장

만드시 불노써 소곰 치듯하시니 <sup>五</sup>소곰이 도흔 거시로되 만일 소곰이 그  
 맛을 일흐면 엇지써 짜게 하시오 너희 속에도 소곰을 치고 서로 화목  
 하라 하시더라  
 예수가 거괴셔 떠나 유대 디경과 요단강 밧그로 드러가서나 무리들이  
 다시 모혀들거늘 예수가 다시 그 규례대로 그르치시더니 <sup>三</sup>바리새 교인이  
 예수께 나아와 시험하야 무려 <sup>四</sup>글으되 사름이 그 안희를 브리논 거시  
 을흐니 잇가 디답하야 <sup>三</sup>글으샤되 모세가 엇더케 너희게 명하엿느냐 <sup>四</sup>글으되  
 모세가 휴셔를 써 주어 브리기를 허락하엿는이다 하거늘 예수가 더히드려  
<sup>五</sup>닐으샤되 너희 모음이 완악함을 인하야 이 명령을 기록하엿거니와  
 다만 래초로브터 남녀를 문드섯스니 사름이 이 연교로 그 부모를 써나그안  
 히와 합하야 들이 혼몸이 되느니 이럼으로 이에 들이 아니오 혼 몸이  
 그런즉 하는님이 짜지어 주신 거슬 사름이 논호지못을지니라 하시더라  
 그집에서 데즈들이 다시 이 일을 못즈온디 <sup>六</sup>닐으샤되 누구던지 그 안희를  
 브리고 다른디 장가드논이는 본쳐의게 간음을 행함이오 안희가 자아비를

三 十 九 八 六 五 三

브리고 다른디로 식집가논이도 <sup>七</sup>또 혼 간음을 행함이니라 ○ <sup>三</sup>또 사름이  
 어린으희들을 다리고 예수께 와서 단지시기를 청하니 데즈들이 썩젓거늘  
 예수가 보시고 분히녀어 <sup>四</sup>닐으샤되 어린으희 내게 오는 거슬 용납하야  
 금하지마라 대개 하는님 나라에 잇는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가 실노너희게  
<sup>五</sup>닐으노니 누구던지 하는님 나라 밧들기를 어린으희와 같치 밧들지안는  
 자는 결단코 드러가지못하시라 하시고 이에 어린으희들을 팔노안고 복  
 을 비시며 손으로 그 머리우에 연지시더라 ○ <sup>六</sup>길에 나가시더니 혼 사름  
 이 예수께 달녀와 물어 업디어 못즈와 <sup>七</sup>글으되 착흔 선성님이여 제가 무슴  
 일을 능여야 영성을 엇으리잇가 하니 <sup>八</sup>예수닐으샤되 네가 엇지하야  
 나를 착하다 닐코느냐 하는님 외에는 착한이가 하나도 업느니라 <sup>九</sup>네가 께명  
 을 아느니 살인하지말며 간음하지말며 도적질말며 거짓 증거말며 속이  
 지말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엿는니라 <sup>十</sup>엿즈오디 선성님이여 이 거슨  
 내가 어려셔브터 다 직히엿는이다 하시니 예수가 그 사름을 보시고 사랑하샤  
<sup>十一</sup>또 글으샤되 네가 오히려 혼가지 부족함이 잇스니 가서 잇는 거슬 팔아

三 二 一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간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잇슬 거시오 또 와서 나를 좃치  
 라 하시니 그 사람이 저물이 만흔 교로 이 말슴을 인하여 열물이 변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 예수가 들너 보시며 데즈드려 닐으샤되 저물이 잇는  
 차는 하늘의 나라에 드러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데즈들이 그 말  
 슴을 이상히 여기거늘 예수가 다시 되 답하여 글으샤되 쇼즈들아 저물을  
 의 지는 사람은 하늘의 나라에 드러가기가 어려울진대 약디가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거시 부자가 하는 닐의 나라에 드러가는 것보다 쉬우리  
 라 하시되 데즈들이 더욱 놀나 글으되 그런즉 누가 능히 구원을 얻으리  
 잇가 예수가 너희를 보시고 글으샤되 사람으로는 능히 못하거니와 오직  
 하늘의 나라에 드러가니 대개 하늘의 나라에 드러가기는 능치 못하  
 는이 다 예수가 글으샤되 내가 진실로 너희게 닐노니 나와 밋 복음을 위  
 하여 집을 나형데나 죽이나 어미나 아비나 죽식이나 던답을 버린자는  
 지금 이 제상에 잇서 집과 형데와 죽기와 모친과 죽식과 던답을 버린자

밭자 아닐이 가 업스되 핏박을 겸하여 밧을 거시오 오는 제상에 영성을 얻으  
 라라 ○ 그러나 먼저 잇는이가 나종 되고 나종 잇는이가 먼저 될자가 만흐  
 라라 ○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가 압서 칭하시더니 데즈들은  
 이상히 여기고 좃치는 이는 두려워하는지라 다시 열두 데즈를 다리시고  
 장차즈고 당할 일을 닐너 글으샤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조를  
 제스제장과 서고 관들의게 내여주리니 너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  
 사람의게 내여준즉 통욕하며 춤비앗으며 채씩질하고 죽일 거시오 또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더라 ○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갓가히 나아와 엿즈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어슬 구하던지 우리를  
 위하야 칭하시기를 원하옵는이다 닐으샤되 너희를 위하야 칭하기를 원하는  
 거시 무어시냐 엿즈와 글으되 주께서 영광으로 제실사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안치시고 하나는 좌편에 안쳐주옵쇼셔 예수 글으샤되  
 너희 구하는 거슬 너희가 아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능히  
 마시며 내가 밧는 세례도 너희가 능히 밧겠느냐 하시니 닐으되 우리가

능히 하겠는이다 예수 | 날으샤 디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도 마실 거시오  
 네가 밝는 세례는 너희도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안치기는 내가 줄  
 거시 아니라 누구를 위하야 예비하였던지 그가 었을 거시니라 열 데즈가  
 들고 야고보와 요한을 분히 녀이거늘 예수가 불너다가 날으샤 디 이방  
 님군이 더들을 억지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권세를 잡는줄을 너희가 알거니  
 와 너희 중에는 그러차아니 할지니 너희 중에 높히려는자는 너희를  
 섬기는자가 될 거시오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는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니 대개 인자가 온거슨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하고 무리를  
 위하야 목숨을 버려 속죄하야 주려함이니라 ○ 여기고에 니르렀다가  
 예수가 데즈와 또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기고에서 나가실식 디매오의  
 아들 소경 된 거지 바티매오가 길가에 안젓다가 나사렛 예수신줄을 알고  
 불너 곁으 디 다윗의 즈손 예수여 나를 불상히 녀이쇼셔 하거늘 여러 사람이  
 썩지져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너 곁으 디 다윗의 즈손  
 이여 나를 불상히 녀이쇼셔 하니 예수가 머물너 서서 곁으샤 디 부르라

十一

하시니 너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날너 곁으 디 안심하고 니러나라 부르신다  
 하니 소경이 옷을 버리고 급히 니러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 | 날너  
 곁으샤 디 네가 날드려 무어슬 하야 달나느냐 소경이 디 답하디 주여 보게  
 하야 주쇼셔 예수 | 날으샤 디 도라가라 네 밋음이 너를 성하게 하엿다  
 하시니 그 사람이 곳보게 되여 예수를 길에서 좃더라  
 예루살렘에 갓가히 와서 감람산 벧바게와 벧아니에 니르러 예수가 두  
 데즈를 보내시며 날으샤 디 너희압해 보이는 마을에 가서 드러갈 때에 곳  
 디인라귀 삭기를 만나리니 아직 아모도 든 사람이 엽스리라 풀어 선을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엇하려느냐 못거든 주씩셔 쓰시겟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데즈들이 가 본즉 라귀 삭기가 문압거리  
 에 미엿거늘 곳푸니 첫해 첫년 두어 사람이 곁으 디 라귀 삭기를 풀어  
 무어슬 하랴느냐 데즈들이 예수의 명하신대로 디 답하니 이에 허락하느니라  
 라귀를 선을고 예수께 나아와서 저희 옷을 그 우에 두매 예수가 두시니  
 여러 사람은 옷을 길에 퍼고 다름이는 밧해셔 버헌 나무 가지를 퍼더라



九 압해 가고 뒤 썩라 오논 이들이 소리 질너 글으되 호산나 주의 일홈으로  
 + 오시논이의게 복이 잇슬지어다 오논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이 복이  
 十 잇슬지어다 지극히 높흔뒤셔도 호산나라 향리로다 향더라 ○ 예수가  
 十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면에 드러가샤 모든 거슬 들너보시고 임의 저물 썩에  
 十二 열두 데즈를 다리시고 벳야니에 나가시다 ○ 잇흔날 벳야니에서 썩나매  
 十三 예수가 시장하셔 거늘 멀니셔 남사귀 잇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곧 나아  
 十四 가샤 후 그 우에 잇을 거시 잇슬가 향섯더니 나아가시매 남사귀 외에 아모  
 十五 것도 찾지 못하니 열미 녀을 썩가 되지 못함이라 예수가 나무드려 날너  
 十六 글으샤 되 이제 후로는 네 열미를 썩 먹을 사람이 영원히 업스리라 향시니  
 十七 데즈들이 듯더라 ○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가 성면에 드러가샤 단 안에  
 十八 셔 팔고 사는 사름을 내여 쫓치시고 돈 밧고는 사름의 상과 벼룩이 파는  
 十九 사름의 교의를 들너 업흐시고 그릇을 가지고 성면 안으로 든 님을 허락치  
 二十 아니시고 이에 마르쳐 날으샤 되 성면에 내 집은 만국 빙성의 기도하논 집  
 二十一 이라 칭하리라 고 기록지 아니 하엿느냐 오직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문드

一 릿도다 제스제장과 셔괴관들이 듯고 예수를 엿더케 멸홀고 썩음은 무리가  
 二 다 그 마르치심을 괴이히 녀임으로 그를 두려워 함일너라 ○ 미양 저물  
 三 매성 밧게 나가시더라 ○ 더들이 아침에 지날식 무화과 나무가 부리로 보터  
 四 모른 거슬 보고 베드로가 괴억하고 엿저와 글으되 선성님이여 보쇼셔  
 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밧셔 물났는이다 예수니 되 답하야 글으샤 되  
 六 하느님을 밧으라 내가 진실노 너희게 날으노니 누구던지 이 산드려 썩셔  
 七 바다에 빠지라 하고 믿음에 의심치 아니 하고 반드시 일을 줄 밧논 이는 곳  
 八 엿으리라 그럼으로 내가 너희게 말하노니 무어시던지 밧고 구하논 거슬  
 九 임의 밧은 줄노 밧으라 그리하면 밧으리라 서셔 기도할 썩에 사름으로  
 十 더 브러 혈의가 잇거든 풀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十一 또 혼 너희 허물을 풀어 주시리라 ○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가 성면  
 十二 에 거러 든니 시더니 제스제장과 셔괴관과 장로들이 나와 글으되 무슨  
 十三 권세로 이 일을 행하며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어 이 일을 행하게 하더냐  
 十四 예수니 글으샤 되 나도 혼 말을 너희게 무를 거시니 되 답하면 나도 무슨

권제로 이 일 형함을 너희게 낼리라 요한의 제례가 하늘노 좃차 왔느냐  
 三 사람으로 좃차 왔느냐 디답하라 호신디 너희가 서로 의론하야 글으디  
 二 하늘노 좃차 왔다 호면 엇지 더를 밋지 안느냐 흘거시오 사름으로 좃차  
 三 왔다 호면 사름이 다 진실노 요한을 션지자로 녀이니 백성이 무섭다 호고  
 三 예수씨 디답하디 우리가 아지못호노라 하니 예수 글으샤 디나도 무슴  
 三 권제로 이 일 형함을 너희게 낼지 아니호리라 호시더라

예수가 비유로 무리의게 말씀호샤 디 호 사름이 포도원을 문들고 산을노  
 一 두루고 즈믄 짜는 들자리를 파고 망당을 짓고 농부의게 세로 주고 이에  
 二 타국에 갖다가 과약이니 르매 호 종을 농부의게 보내여 포도원 실과를 밋고  
 三 저호니 너희가 종을 잡아 쓰리고 그저 보내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二 농부가 돌노쳐 머리를 상호고 룹육호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농부가  
 一 그 종을 죽이거늘 또 종들을 만히 보내니 혹 쓰리기도 호고 혹 죽이기도  
 二 호노지라 오히려 사랑호는 외 아들이 잇스니 맛츄내 보내며 글으디 내  
 一 아들은 공경호리라 호엿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디 이는 유업을 엇을

자니 죽이자 그 유업이 우리 거시 되리라 호고 잡아 죽여 포도원 밋게  
 一 내여 던지니 포도원 주인이 엿더케 호리오 반드시 니르려 농부를 진멸호고  
 二 포도원을 다른 사름의게 밋기리라 이 성경 말씀도 너지 아니호엿느냐  
 三 장인의 바린 돌이 집 모퉁이에 요긴호 돌이 되니 이 거슨 쥬가  
 一 일우신 거시오 우리 눈에 괴이함이라  
 二 호시니라 너희가 예수 이 비유로 즈그를 무르치신줄을 알고 잡고저  
 三 호되 그저 썬아가기는 무리를 두려워함이라 ○ 바리새 교인과 헤롯의 당  
 二 중에서 두어 사름을 보내여 말노써 침잡으려호시 나아와 글으디 션싱남  
 一 이여 출되시고 사름을 편벽되히 보지아니호시느줄 우리가 아노니 모양  
 二 으로 사름을 취치안코 오직 출됨으로 하는님의 도를 무르치심이라 가이사  
 一 의게 세를 밋치는 거시 맛당호오닛가 맛당치아니호오닛가 우리가 밋  
 二 치리잇가 말나잇가 호디 예수가 그 외식함을 아시고 닐으샤 디 엇지 나를  
 一 시험호느냐 돈 호품을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호시니 가져왔거늘 예수  
 二 글으샤 디 이 화상과 글이 뉘 거시냐 글으디 가이사의 거시니이다

17 이에 예수 께 글으샤디 가이사 의 거슨 가이사 의 게로 돌녀 보내고 하는 님 의  
 거슨 하는 님 씨로 돌녀 보내지 니라 하시 니 그 사 람 들 이 심 히 괴 이 히 녀 이  
 18 다라 ○ 부 활 이 었 다 하는 사 두 기 교 인 들 이 예 수 씨 와 서 무 러 글으 디  
 19 션 성 님 이 예 모 세 가 글 노 우 리 의 게 보 였 스 디 사 람 의 형 이 죽 고 안 히 는  
 20 잇 스 되 조 식 이 었 거 든 그 동 성 이 고 안 히 를 취 하 야 형 을 위 하 야 조 식 을  
 21 나 흐 라 하 였 스 니 철 형 대 가 잇 는 디 맛 이 안 히 를 취 하 야 조 식 이 었 시 죽 고  
 22 들 재 가 그 안 히 를 취 하 야 또 조 식 이 었 시 죽 고 셋 재 가 또 한 그 러 케 하 야  
 23 널 곱 이 다 조 식 이 었 셧 고 그 후 에 녀 인 이 또 한 죽 었 는 지 라 널 곱 사 람 이  
 24 안 히 로 취 하 였 스 니 부 활 할 때 에 그 중 에 뉘 안 히 가 되 리 잇 가 예 수 께 글으  
 25 샤 디 니 희 가 성 경 과 하는 님 의 권 능 을 아 지 못 함 으 로 이 러 케 그 룯 성 각 함 이  
 26 아 니 나 대 개 죽 었 다 가 다 시 살 때 에 는 장 가 도 아 니 가 고 식 집 도 아 니 감 이  
 27 하 늘 에 잇 는 런 스 와 같 호 니 라 오 직 죽 은 자 가 다 시 살 들 의 론 할 진 디 너 희  
 28 가 모 세 의 책 중 형 극 편 에 서 하는 님 이 모 세 드 러 말 슌 호 신 거 슬 넓 지 아 니  
 29 하 였 는 나 글으 샤 디 나는 아 브 라 함 의 하는 님 이 오 이 삭 의 하는 님 이 오

30 야 곱 의 하는 님 이 라 하 셧 스 니 이 하는 님 은 죽 은 자 의 하는 님 이 아 니 오  
 31 산 자 의 하는 님 이 니 너 희 그 룯 성 각 함 이 크 도 다 ○ 또 서 괴 관 한 사 람 이 와 서  
 32 이 변 론 함 을 듯 고 예 수 가 디 답 잘 호 신 줄 을 알 고 무 러 글으 디 모든 계 명  
 33 중 에 첫 재 가 무 어 시 니 잇 가 하 거 늘 예 수 께 디 답 호 샤 디 첫 재 는 이 스 라 엘 아  
 34 드 르 라 주 는 곳 우 리 하는 님 이 시 니 주 가 호 분 이 시 라 네 모 음 을 다 하 며 성 품  
 35 을 다 하 며 쫓 을 다 하 며 힘 을 다 하 야 주 너 의 하는 님 을 스 랑 하 라 하 셧 고  
 36 들 재 는 이 거 시 니 리 웃 스 랑 하 기 를 네 몸 과 같 처 하 라 하 셧 스 니 다 른  
 37 계 명 이 이 에 서 더 큼 이 었 는 니 라 서 괴 관 이 글으 디 션 성 님 이 예 말 슌 이  
 38 을 소 이 다 하는 님 은 호 나 이 라 호 신 말 슌 이 참 말 슌 이 니 이 다 또 그 외 에 는  
 39 다 른 이 가 었 스 니 모 음 을 다 하 며 쫓 을 다 하 며 힘 을 다 하 야 하는 님 을  
 40 스 랑 호 고 또 리 웃 스 랑 하 기 를 제 몸 과 같 처 하는 거 시 희 성 전 태 를 살 오 는  
 41 모 든 제 스 보 다 나 흐 니 이 다 하 거 늘 예 수 가 그 지 헤 잇 게 디 답 함 을 보 시 고  
 42 널으 샤 디 네 가 하는 님 의 나 라 에 서 멀 지 안 라 하시 니 그 후 에 감 히 못 는  
 43 사 람 이 었 디 라 ○ 예 수 가 성 던 에 서 사 람 을 마 르 치 실 쯔 말 슌 호 야 글으 샤 디

三六

엇지 하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조손이라 하는도 다윗은 성신에  
감동하야 말하되

三七

모든 유가 내 주씨 날은 사되 내가 내 올흔 편에 안져 내가 네 원슈를 네 발  
등상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다

三八

하엿스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유라 하엿스즉 엿지 그 조손이 되겟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듯기를 즐기더라 ○ 예수 **그르치실 때에** 글은 사되

三九

서기관을 삼가라 더희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저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에 상좌와 잔치에 놓흔 자리를 원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거짓

四〇

거스로 길게 괴도하니 **죄** 덩함이 더욱 중하리라 ○ 예수가 연보개를

四一

되 하야 안즈샤 무리가 연보개에 돈 던지는 거슬 보실시 여러 부자가 만히  
던지고 **간난한** 과부도 나르러 적은 돈 두푼을 던지니 **곳** 엮 흘푼이라

四二

예수가 데즈를 불러서 **글은** 사되 내가 진실노 너희게 날은 노니 이 간난한  
과부가 연보개에 던진 거시 여러 사람보다 더욱 만하니 **대개** 다른 사람은  
쓰고 남은 중에서 던졌거니와 오직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저의 잇는

三

거슬 다 던졌스니 **곳** 련명할 거시라 하시더라

四三

예수가 성연에서 나가실시 **흔** 데즈 **글은** 되 셴성남이여 보쇼셔 이 돌이  
엇더 하며 이 집이 엿더 하오니 잇가 예수 **닐은** 사되 내가 이 큰 집들을

四四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우에 텨도 하지 안코 다 문혀지리라 하시니라 ○  
예수가 **감람산**에서 성연을 되 하야 안즈시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四五

안드레가 **종용**히 못즈오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잇스오며 이 모든 일이 일을  
때에 무슴 징조가 잇스오리잇가 우리게 날은 쇼셔 예수 **닐은** 사되 **조심**

四六

하야 **사람**의 미혹에 들지마라 **대개** 여러 사람이 내 일함으로 와서  
닐은 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야 여러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또** **한** 라리와 **란** 리

四七

소문을 드러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잇스되 오직 **뜻** 촌 아직  
되지 아니하니라 **백성**이 니러나 **백성**을 치며 나라이 니러나 나라를 치고

四八

각처에 **디동**이 잇고 **또** **흔** 흉년이 잇스리니 이는 **저** 난의 시작이니라 ○  
너희는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잡아 공회에 줄 거시오 너희를 회당에서

四九

철 거시오 **또** 나를 인하야 너희가 감스와 **님** 군 압해 서서 **종** 거하시니

十 오직 복음은 반드시 먼저 만국에 전파할지라 사람이 너희를 식을고 가돌  
 十一 때에 엇더케 말할지니 너희가 아니오 오직 성신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十二 형대를 죽는디 내여 주며 아버지가 조식을 또 그레케 하며 조식들이 부모를  
 十三 디덕하야 죽게 할리라 너희가 내 일음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게 위워 함을  
 十四 밧을 거시나 나 좃사지 권되는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 멸망 식할 위운  
 十五 물건이 맛당히 서지 아니할 곳에 선 거슬 보거든 그 글을 버는자는 쉼  
 十六 를 진디 그 때에 유대에 잇는 사람은 맛당히 산으로 도망고 집응 우에  
 十七 잇는 사람은 무어슬 가질너 느려 오지도 말며 집에 드러가지도 말며  
 十八 밧해 잇는 사람은 옷을 가질너 도라가지 말지어다 그 날에 의회된 사람과 쉼  
 十九 먹이는 너인들의게 화가 잇스리로다 겨울에 이 일이 나지 안케 기도하라  
 二十 대개 그 여러 날은 환난의 날이니 이런 거시 하는님이 만물을 창조하심  
 二十一 으로부터 지금까지 업섯고 후에도 또 혼 업스리라 만일 유가가 그 날을  
 二十二 감하지 아니하셨더면 곳 구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업슬 거시로되 다만

三 유가 그 회하야 쉼신 사람을 위하야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그 때에 아모  
 四 사람이 너희게 말하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더과 있다 하여도  
 五 밋지마라 대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六 괴스를 보여 만일 너희가 신자라도 미혹할수만 잇스면 곳 미혹하라 너희는  
 七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드려 먼저 말하엿노라 ○ 그 여러 날에 그  
 八 환난 후에 회가 어둡고 들이 빗출 내지 안코 별이 하늘노서 쉼러지고 하늘  
 九 권제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가 큰 권제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十 림함을 보리니 또 그 때에 락스를 보내여 그 회하신 사람을 쉼 쉼스로 보르  
 十一 하느 쉼사지 스방에서 모호리라 ○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베풀지니 그  
 十二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갖가 온 줄을 알지라 이와 못치 너희  
 十三 가 이런 일 나는 거슬 보거든 인자가 갖가히 와서 곳문 압해 나른 줄을  
 十四 알나 내가 진실노 너희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  
 十五 우리라 락디는 업서 질지 언딩 내 말은 업서 지지 아니 할리니 다만 그 날과  
 十六 그 때는 아는 자가 업고 하늘에 잇는 락스도 아지 못하코 아들도 아지 못

<sup>三三</sup>홍되 오직 아바지만 아시느니라 <sup>三三</sup>너희는 조심하고 써여 기도하라 대개 그  
<sup>三三</sup>새가 언제 너를을 아지 못함이니라 <sup>三三</sup>비유한대 할 사람이 집을 써나 다른  
<sup>三三</sup>나라에 류출되 권세를 종의게 주어 각각 그 일을 맡기고 또 문직이 들  
<sup>三三</sup>명하여 써여잇스라 <sup>三三</sup>홍과 <sup>三三</sup>호니 <sup>三三</sup>그런고로 너희도 써여잇스라 대개 짐주인  
<sup>三三</sup>이 혹 저물게나 혹 밤중에나 혹 <sup>三三</sup>툭이 올때나 혹 <sup>三三</sup>복을 써나 어는 <sup>三三</sup>새에  
<sup>三三</sup>을년지 너희가 아지 못하느니 <sup>三三</sup>그가 홀연이 와서 너희 자는 거슬 불가 두려  
<sup>三三</sup>위하라 내가 너희게 말하느니 <sup>三三</sup>거시 <sup>三三</sup>곳 모든 사람의게 말함이니 써여잇스라  
<sup>三三</sup>하시더라

<sup>三三</sup>잇흘을 지나면 유월절이니 <sup>三三</sup>곳 <sup>三三</sup>누룩 업는 떡 먹는 절이라 제스제장과  
<sup>三三</sup>서기관들이 궤계로 엮더케 예수를 잡아 죽이고져하나 <sup>三三</sup>골으되 절기에는  
<sup>三三</sup>못할거시니 <sup>三三</sup>홍 민요가 날가 두려위하노라 <sup>三三</sup>홍더라 ○ <sup>三三</sup>예수가 벳아니아에서  
<sup>三三</sup>문동이 시몬의 집에 음식 잡수실때에 <sup>三三</sup>너인이 유합에 디우 갑진 향기로  
<sup>三三</sup>온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와서 그 <sup>三三</sup>유합을 써치고 <sup>三三</sup>기름을 예수의 머리에  
<sup>三三</sup>부으니 <sup>三三</sup>두어 사람이 분내여 서로 <sup>三三</sup>골으되 엮지 이 <sup>三三</sup>기름을 허비하느나

四

<sup>三三</sup>이 기름을 팔았더면 삼백량이 넘으리니 <sup>三三</sup>간난한 사람을 구제할거시라 <sup>三三</sup>홍고  
<sup>三三</sup>그녀인을 원망하느니 <sup>三三</sup>예수 <sup>三三</sup>골으샤디 <sup>三三</sup>그만 두어라 <sup>三三</sup>너희가 엮지 이 <sup>三三</sup>녀인을  
<sup>三三</sup>괴롭게 하느나 <sup>三三</sup>더가 내게 착한 일을 행하엿느니라 <sup>三三</sup>대개 <sup>三三</sup>간난한 사람은  
<sup>三三</sup>홍상 너희와 흠이잇스니 <sup>三三</sup>아모새라도 너희가 <sup>三三</sup>홍고져하면 능히 도와주려나  
<sup>三三</sup>와 나는 너희와 <sup>三三</sup>홍상 흠이잇지 아니하리라 <sup>三三</sup>이 <sup>三三</sup>녀인이 힘을 다하야 그  
<sup>三三</sup>향기름으로 내 몸에 부어 머리 내 장수를 예비함이니라 <sup>三三</sup>내가 진실노 너희게  
<sup>三三</sup>닐으노니 <sup>三三</sup>원뎨하에 <sup>三三</sup>어디서던지 <sup>三三</sup>복음을 <sup>三三</sup>전할제 <sup>三三</sup>이 <sup>三三</sup>녀인의 <sup>三三</sup>행한 일도  
<sup>三三</sup>말하야 <sup>三三</sup>괴역하게 하리라 <sup>三三</sup>하시더라 ○ <sup>三三</sup>열둘 중에 <sup>三三</sup>가롯 유다가 <sup>三三</sup>예수를 잡아  
<sup>三三</sup>주교져하야 <sup>三三</sup>제스제장의게 갔더니 <sup>三三</sup>더희가 <sup>三三</sup>듯고 <sup>三三</sup>깃버하야 <sup>三三</sup>돈 주기로 허락  
<sup>三三</sup>하거늘 <sup>三三</sup>유다가 <sup>三三</sup>엇더케 <sup>三三</sup>잡아 <sup>三三</sup>졸괴회를 <sup>三三</sup>찾더라 ○ <sup>三三</sup>누룩업는 떡 먹는 <sup>三三</sup>첫날 <sup>三三</sup>곳  
<sup>三三</sup>유월절 양잡는 날에 <sup>三三</sup>데즈들이 <sup>三三</sup>예수씩 <sup>三三</sup>엮조디 <sup>三三</sup>우리가 <sup>三三</sup>어디로 <sup>三三</sup>가져서  
<sup>三三</sup>성님으로 <sup>三三</sup>유월절을 <sup>三三</sup>잡수시게 <sup>三三</sup>예비하리잇가 <sup>三三</sup>하니 <sup>三三</sup>예수가 <sup>三三</sup>데즈 중에 <sup>三三</sup>두  
<sup>三三</sup>사람을 <sup>三三</sup>보내며 <sup>三三</sup>골으샤디 <sup>三三</sup>성에 <sup>三三</sup>드러가서 <sup>三三</sup>물 흔하느니 <sup>三三</sup>가지고 <sup>三三</sup>가는 <sup>三三</sup>사람  
<sup>三三</sup>하나를 <sup>三三</sup>맞나리니 <sup>三三</sup>즉시 <sup>三三</sup>쓰라 <sup>三三</sup>어디던지 <sup>三三</sup>드러가거든 <sup>三三</sup>그 <sup>三三</sup>짐 <sup>三三</sup>주인 <sup>三三</sup>드려 <sup>三三</sup>닐으되

十五 쥬의 말씀이 내가 데즈와 함께 유월절을 먹을 샤처방이 어디잇는뇨 하라  
 十六 그리하면 더가 큰 다락 방에 자리를 베풀고 예비한 거슬 보이리니 거의  
 十七 서우리를 위하야 예비하라 하시되 데즈들이 나가 성으로 드러가 예수의  
 十八 하시던 말씀대로 맛나 유월절을 예비하라 ○ 저물때 예수가 열들을  
 十九 다리시고 와서 안져 음식 먹으시 예수 궤를 사되 내가 진실노 너희게  
 二十 다했노니 너희중에 한 사람이 나를 잡아주리니 곳나와 함께 먹는 자라 하시  
 二十一 디 너희들이 근심하야 하나식 하나식 엿조와 글으되 내니 잇가 날으샤되  
 二十二 열들 중에 하나이니 그릇에 나와 함께 손 넷는 자니라 인즈는 성경에  
 二十三 귀록한대로 가거니와 인즈를 잡아 주는 자는 화가 잇스리니 그 사람이 나지  
 二十四 아니하였더면 도흐변하였다 하시되 ○ 먹을 때에 예수가 떡을 가지샤  
 二十五 축샤하시고 쟈여 주시며 글으샤되 밧으라 이거지 내 몸이라 하시고  
 二十六 또 잔을 가지샤 샤례하시고 너희게 주시니 다 마시는지라 또 글으샤되 이  
 二十七 거슨 언약하는 내 피니 여러 사람을 위하야 흘림이니라 내가 진실노 너희게  
 二十八 날으노니 포도즙을 하는 님 나라 예셔 새 거스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

二十九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되 ○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  
 三十 예수가 데즈들드려 날으샤되 너희가 다 나를 슬허브리리니 귀록하였스되  
 三十一 내가 목자를 치매 양들이 스면으로 흐히지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三十二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엿조  
 三十三 오디 다 슬허브릴지라도 나는 그러케 안젓습니이다 예수 궤를 사되 내가  
 三十四 진실노 너희게 날으노니 오늘 곳이 밤에 돌이 두번 올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三十五 모른다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미우 근절히 말하되 내가 쥬와 함께  
 三十六 죽을지언딩 모른다 하시니 안젓습니이다 하고 모든 데즈들도 또 혼이와 못치  
 三十七 말하더라 ○ 또 몇세 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가 데즈들의게 날으샤되  
 三十八 너희는 내가 괴도홀 동안에 여러 안젓스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三十九 요한을 다리시고 가실시 심히 놀나시며 괴로와하샤 말씀하시되 내 믿음의  
 四十 심히 민망하야 죽게 되었스니 너희는 여러 머물너 처여잇스라 하시고  
 四十一 조곰 압흐로 나아가샤 때에 엽디여 괴도하시기를 할만하시거든 이 때를  
 四十二 면하게 하야 달나하야 글으샤되 야바아바지여 능치 못하시니 거시 엽스시니

내게서 이 잔을 쉰나케 음음쇼셔 그러나 내가 고교저하는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바지의 뜻대로 음음쇼셔 하시고 도라오샤 데즈들이 자는 거슬  
 보시고 베드로도 말슴하시되 시몬아 자는나 네가 일시 동안도 쉰여잇지  
 못하느냐 쉰여 기도하야 시험에 들지안케 하여라 믿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기도하시며 말슴하시기를 전과 같  
 하시고 도라와 보시니 너희가 자는 거슨 눈이 심히 피곤함일너라  
 쉰여 너희가 예수씨 무어스로 디답할줄을 아지 못하느니라 세번째 오시  
 디너 너희의게 닐으샤 디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일다 쉰여 온지라 인즈가  
 죄인의 손에 잡혀가리라 니러나 함씩 가자 나를 잡아줄쟈가 갓가히 왔다  
 하시더라 ○ 말슴하실쎄에 곧 열들중에 하나 유다가 환도와 몽치가진  
 무리를 다리고 제스제장과 서기관과 장로의게서 온지라 잡아준쟈가  
 임의 군호를 쉰 글으되 누구던지 내가 입맛초는쟈가 곧 그 사람이니  
 든든히 잡아가라 하고 니러러 곳 예수씨 나와 글으되 션성님이여 하고  
 입을 맛초니 무리가 손을 느러잡거늘 것행섯는이 중에 한 사람이 환도를

빼여 대제사장 의종을 쳐 그 귀를 짝근지라 예수가 무리의게 말슴하야  
 글으샤 디 너희가 강도잡는것 같치 환도와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  
 나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씩 성전에 잇서서 가르치되 나를 잡지아니  
 하였스나 오직 이러케 됨은 성경 말슴을 일우려 함이라 하시니 데즈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라나더라 ○ 한 쇼년이 버스 몸에 뵈호니 불을 두루고  
 예수를 쉰라 오더니 무리가 잡거늘 뵈호니 불을 버리고 별거벗고 다라나  
 니라 ○ 너희가 예수를 씌우고 대제사장의게 가니 거기 제스제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다 모혔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리 좃차 대제사장의 아문  
 안서지 드러가 관속과 같치 불을 쉰이라 제스제장과 원공회가 예수를  
 죽이라 고 증거를 차지되 엇지 못함은 거짓 증거하는쟈가 여러시 잇스나  
 너희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엇던 사물들이 니러나 거짓 증거를  
 하야 글으되 우리가 일족 그의 말을 드르니 손으로 지은이 성전은 내가  
 혈고 손으로 짓지아니호 다른 성전을 사할에 지으리라 하시더라 하시되  
 그 증거가 쉰호 서로 합하지 못하거늘 대제사장이 가온디 니러서서 예수드려



무려 글으되 너는 아모 되답도 업느나 이 사름들의 증거하는 거시 무어  
 시냐 할되 <sup>六二</sup> 좀잠하고 되답호시지안귀늘 대제스장이 다시 무려 글으되 너  
 가 찬송할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 예수ㅣ <sup>六三</sup> 빌으샤 되 내로다 인듯가 권능  
 잇는자의 우편에 안즌파 하날 구름을 등고 음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sup>六三</sup> 대제스장이 제 옷을 찌즈며 글으되 우리가 엿지 다른 증인을 쓰리오  
<sup>六四</sup> 그 촘람흔 말을 너희도 드릿스니 너희 뜻에는 엿더 호노하니 여러시 다  
 죽이는 거시 당연하다 호야 덩죄호고 <sup>六五</sup> 후이 춤도 비앗호며 그 얼골을  
 그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글으되 선지자 노릇을 호라 호고 관속들은 손바닥  
 으로 쓰리더라 ○ <sup>六六</sup> 베드로는 아래 마당에 잇더니 대제스장의 바즈 호나 이  
 와셔 <sup>六六</sup> 베드로가 불 썬임을 보고 글으되 너도 나 사렛 예수와 함씩흔자로다  
 호거늘 <sup>六六</sup> 베드로가 아니라 호야 글으되 나는 네 말호는 거슬 아지도 못호고  
 썬듯지도 못호겟노라 호며 압 마당으로 가니 <sup>六七</sup> 들이 우는지라 비즈가 썬  
 보고 <sup>六七</sup> 겹해 섰는 사름들드려 다시 빌으되 이 사름도 더 무리라 호되  
 썬아니라 호더니 <sup>六八</sup> 조곰잇다가 겹해 섰는 사름들이 다시 <sup>六九</sup> 베드로드려 말호되

十五

너는 <sup>七〇</sup> 빌나 사름이나 분명히 더 무리로다 호거늘 <sup>七一</sup> 베드로가 쳐주호며 밍제  
 호야 <sup>七一</sup> 글으되 너 말호는 이 사름을 아지 못호노라 하니 <sup>七二</sup> 들이 곧 두번째  
 을거늘 <sup>七二</sup> 베드로가 예수씩셔 저드려 말슴호샤 되 <sup>七三</sup> 들이 두번 올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 호리라 호심을 기억호야 생각호고 올더라  
 재벽에 제스제장이 장로와 서기관과 원 공회로 더 브러 의론호고 예수를  
<sup>七三</sup> 결박호야 쓰을어 빌나도의게 내여주니 빌나도가 무려 <sup>七四</sup> 글으되 네가 유대  
 인의왕이나 예수ㅣ 되답호야 <sup>七五</sup> 글으샤 되 네 말이 올도다 호시니 제스제장이  
 썬여러 가지로 송스호거늘 빌나도가 썬 무려 <sup>七六</sup> 글으되 더회가 여러 가지로  
 너를 송스호되 너는 아모 되답도 업느나 <sup>七七</sup> 호되 아모 말슴도 되답지  
 아니호시니 <sup>七八</sup> 그럼으로 빌나도가 괴이히 녀이더라 ○ <sup>七八</sup> 이 절귀를 당호면 감스  
 가 <sup>七八</sup> 비성의 구호는대로 죄인호나를 노하주는 전례가 잇더니 <sup>七九</sup> 란을 씌이  
 고 <sup>七八</sup> 란중에 살인죄인들과 함씩 결박을 당호는 바라바라 호는자가 잇는지라  
 무리가 <sup>七八</sup> 나아가 감스의게 전례대로 호야 주기를 구호니 <sup>八〇</sup> 빌나도ㅣ 되답호야  
 글으되 <sup>八〇</sup> 너희가 나드려 유대인의 왕을 노하달나 호느나 <sup>八一</sup> 흠은 제스제장

이 두기심으로 예수를 잡아온 줄을 알미러라 제스제장이 무리를 충동  
 하여 출하리 바라바를 노하달나라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  
 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었더케 하라 하니 너희가 다시  
 소리 질너 이르되 더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 이르되 었짐이  
 노 무슴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질너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거늘 빌라도가 무리를 안돈케 하고 저하여 바라바는 노하  
 주교 예수를 채찍질하고 내여 주어 십자가에 못박으라 하니라 ○ 군사들  
 이 예수를 쓰으고 마당 안에 드러가니 곳공소 마당이라 이에 원영문을  
 모호고 홍포를 남히고 가시 면류관을 여겨 씌우고 문안하여 이르되 유대  
 인의 왕이여 평안하냐 하고 갈디로 그 머리를 치며 춤도 비앗으며 쌀어  
 절하고 희롱하기를 다할 때 홍포를 벗기고 남엇던 옷을 남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라 고 쓰으러 가니라 ○ 구레네 시몬은 알내산대와 루포의 아비라  
 시골노셔 오는 길에 지나갈시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쓰으고  
 끌고 다라 하는 곳에 이르니 번역하면 희골 곳이라 포도주에 몰약을 띠서

주거늘 예수가 밋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박고 그 옷을 논홀시 뒤가  
 무어슬 었을가 하여 제비를 썩더라 십자가에 못박으니 새가 진시말이라  
 그우에 잇는 명패에 쓰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고 또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잇고 하나는 좌편에 잇더라  
 지나가는 자들도 희롱하고 머리를 흔들며 이르되 아하 성언을 헐고 사흘만에  
 짓갓다 하던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못치 제스제장과 서기관들도 희롱하며 서로 이르되 더가 다른 사람은 구원  
 하였스되 그의 몸은 구원치 못하느도다 이스라엘의 님군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하여곰 보고 밋게 하라 하고 함께 십자가  
 에 못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욱하더라 ○ 오시중으로 브터 미시말사지원  
 짜이 어둡더니 미시말에는 예수가 크게 소리 질너 이르되 엘니엘니라 마  
 사박다니 하시니 번역하면 곳나의 하는 님이여 나의 하는 님이여 었지  
 나를 브리시니 잇가 흠이라 것혜섯던 몇 사람이 듯고 이르되 엘니야를 부  
 른다 하니 하니 사람이 쉰니 가서 희응을 초에 적서서 갈대에 꿰여 마시우고



十二 더희가 슬퍼하고 울더니 예수가 살아서 이 녀인의게 보이셨다 흠을 듯고  
 十一 밋지안더라 ○ 그 후에 데즈중에 두사람이 거러서 촌으로 갈새 예수가  
 十 더희게 나타나 보이시니 그 사람들이 가서 늑은 데즈들의게 고하되 또  
 九 밋지안더라 ○ 그 후에 열한 데즈가 흠씩 음식 먹을 때에 예수가 또 더희  
 八 게 나타나 보이샤 더희들의 밋지아니함과 무음이 완악함을 꾸지지심은  
 七 더희가 예수나 다시 살아나신 후에 보았다 하는 사람을 밋지아닐니라  
 六 또 말삼하샤 되 너희는 원런하에 든니며 만민이게 복음을 전파하라  
 五 밋고 세례를 밋는 사람은 구원을 잇을 거시오 밋지안는 사람은 죄를 멸할  
 四 거시니 밋는 자의게는 이련이적이 잇서 쓰르리니 내 일함으로 더희가 샤귀를  
 三 쫓치며 새로히 방언을 말하며 비암을 집으며 독흔 거슬 마시되 결단코 샹  
 二 흠이 업스며 병든 사람의게 손을 언즌즉 나흐리라 하시더라 ○ 주예수가  
 一 말삼을 못초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샤 하느님 우편에 안져 계시니  
 二 데즈들이 나가 각처에 전파할시 주가 더희와 흠씩 일을 하샤 그 쓰르른  
 三 이적으로도 확실히 증거하시더라 아멘

누가 복음

누가의 기록한 대로 쓴 거시라

一 대개 여러시 붓을 들어 우리 중에 일운일노 글을 저술흔 거슨 처음부터  
 二 친히 보고 도의 일군 된자들이 우리의게 전하야준 거시라 나 도즈세히  
 三 근원을 밀위여 슬핌으로 차례로 써서 데오빌노 각하의게 보내는 거시  
 四 맛당할줄노 아노니 이는 너로하야곰 비흔바의 확실함을 알게함이라 ○  
 五 유대왕 헤롯새에 아비아 반렬의 제사장 하니 잇스니 일함은 사가랴오  
 六 그 안히는 아론의 조손이니 일함은 엘니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는  
 七 압헤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레절을 좇차 힘하야 흠이 업는지라 다만 무즈  
 八 흠은 엘니사벳이 슈티를 못함이니 두 사람의 나이 또흔 만더라 ○ 맛출  
 九 사가랴가 그 반렬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남 압헤 힘할시  
 十 제사장의 전례를 쓰라 제비를 씹아 주의 성소에 드러가 분향하더라 분향할  
 十一 시간에 모든 백성은 밋게서 기도하더니 주의 스자가 더의게 나타나 향단  
 十二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나며 무서워하거늘 련스가 닐너 글으되

三 本줄 안지라 더가 형용으로 뜻을 무르치고 못춤내 병어라 되더라 그 직분의  
 二 날이 다 되매 짐에 도라가니라 ○ 이 후에 그 안한 엘니사벳이 슈티하야  
 一 다숫 들 동안에 숨어 잇스며 그을 디 쥬씩셔 나를 도라보신 날에 인간에  
 二 내 붓크러움을 업게 하시랴고 이러케 힘하심이라 하더라 ○ 여섯재 들에  
 三 련스가 브리엘이 하는님의 보내심을 받드러 갈닐니 나사렛이란 읍뉘에  
 四 가서 다윗의 즈손 요셉이라 하는자의 영혼을 처녀의게 나르니 그 처녀의  
 五 일흠은 마리아라 련스가 마리아의게 드러가 그을 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  
 六 할지어다 쥬가 나와 혼가지로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듯고 놀나  
 七 이런 안스가 엇지 흠인고 생각할터 련스가 빌너 그을 디 마리아여 무셔워  
 八 말지어다 내가 임의 하는님께 은혜를 엇었는니라 불지어다 슈티하야  
 九 아들을 나흐리니 그 일흠을 예수라 하라 더가 크게 되고 지극히 높은이의  
 十 아들이라 빌너를 거시오 쥬하는님께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주시리니  
 十一 세계로 야곱의 집에 왕이 되샤 그 나라이 무궁하리라 하니 마리아가 련스  
 十二 들러 빌너 그을 디 나는 사나회를 아지 못하니 엇지 이일이 잇스리잇가  
 十三 함을 괴이히 녀이더니 나오매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묵시를

十四 사가랴여 무셔워 말나 너의 근구함을 드르신지라 내 안한 엘니사벳이  
 十五 아들을 내게 나하주리니 일흠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깃버하고 즐거워할  
 十六 거시오 그난 거슬 깃버할자가 만흐리니 대개 더가 쥬압해 큰자가 될  
 十七 거시오 포도쥬나 쇼쥬를 마시지아니하고 모티브러 성신의 충만함을  
 十八 엇어 이스라엘 즈손을 쥬곳 그 하는님께로 만히 도라오게 할 거시오  
 十九 또엘니야의 심정과 지능으로 쥬압해 하야 아비로 조식을 사랑케 하고  
 二十 거스린자로 하야 고퍀의인의 슬괴를 스모케 하야 쥬를 위하야 세운 백성을  
 二十一 예비하리라 하니 사가랴가 련스 드러 빌너 더가 이 거슬 엇지 알나오  
 二十二 내가 높고 안해도 나이 만흐니이다 하되 련스가 디답하야 그을 디 나는  
 二十三 이에 하는님 압해 섰는 가브리엘이니 이 도흔 쇼식을 전하야 네게 말하  
 二十四 라고 나를 보내셨는니라 불지어다 이일이 되는 날 쥬지 네가 병어리가  
 二十五 되여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맞지아니 흠이 나뉘가 나르면  
 二十六 내 말이 일우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성소 안에서 지체  
 二十七 함을 괴이히 녀이더니 나오매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묵시를

누가 일장

백륙십팔

三三 ㅎ거늘 三三 ㄹ스가 三三 ㄷ답호야 三三 ㄱ을 三三 ㄷ 성신이 三三 장초 三三 ㄴ에 三三 림호서 三三 ㄱ 지극히 三三 ㄴ옴호  
 三三 神이 三三 의 三三 능력이 三三 너를 三三 덥호서 三三 ㄹ니 三三 ㄴ이 三三 ㄹ음으로 三三 ㄴ나 三三 ㅅ일이 三三 ㄱ 거룩한 三三 ㅅ자요 三三 ㄴ하느 三三 ㄴ님의  
 三三 ㅅ아들 三三 ㄴ이라 三三 ㄴ닐 三三 ㄱ르리 三三 ㄴ라 三三 ㅅ노 볼지어다 三三 ㄴ네 三三 ㄴ천척 三三 ㄴ엘니 三三 ㅅ사벳이 三三 ㄴ혀서 三三 ㅅ아들을  
 三三 ㄴ비엿느 三三 ㄴ니 三三 ㄴ라 三三 ㄴ본리 三三 ㄴ슈티 三三 ㅎ지 三三 ㅅ못올다 三三 ㅎ던이 三三 ㄱ가 三三 ㄴ이제 三三 ㄴ임의 三三 ㅅ여 三三 ㅅㅅ들이 三三 ㄴ되엿  
 三三 ㅅ스니 三三 ㄴ대개 三三 ㄴ하느 三三 ㄴ님의 三三 ㅅ말씀은 三三 ㄴ능치 三三 ㅅ못호신 三三 ㄴ거 三三 ㅅㅅ업느 三三 ㄴ니 三三 ㄴ라 三三 ㄴ마리아 三三 ㄱ가 三三 ㄴ글을 三三 ㄴ  
 三三 ㅅ주 三三 의 三三 ㄴ계 三三 ㅅ집 三三 ㅅ중이 三三 ㄴ오니 三三 ㅅ말 三三 ㅅ슴 三三 ㄴ대 三三 ㄴ로 三三 ㄴ일 三三 ㅅ우 三三 ㄴ어 三三 ㄴ지 三三 ㄴ이다 三三 ㄴ호 三三 ㄴ디 三三 ㄴㄹ스 三三 ㄱ가 三三 ㅅ혀 三三 ㄴ나 三三 ㄱ가 三三 ㄴ니 三三 ㄴ라  
 三三 ㄴ이 三三 ㅅ때 三三 ㄴ에 三三 ㄴ마리아 三三 ㄱ가 三三 ㄴ니 三三 ㄴ러 三三 ㄴ나 三三 ㅅ쉴 三三 ㄴ니 三三 ㅅ산 三三 ㅅ중 三三 ㄴ에 三三 ㄴ가 三三 ㅅ셔 三三 ㄴ유 三三 ㄴ다 三三 ㅎ음 三三 ㄴ니 三三 ㄴ에 三三 ㄴ니 三三 ㄴ러 三三 ㄴ사 三三 ㄱ가 三三 ㄴ랴 三三 ㄴ의  
 三三 ㄴ집 三三 ㄴ에 三三 ㄴ드 三三 ㄴ러 三三 ㄴ가 三三 ㄴ엘 三三 ㄴ니 三三 ㅅ사 三三 ㅅ벳의 三三 ㄴ게 三三 ㄴ문 三三 ㄴ안 三三 ㅎ니 三三 ㄴ엘 三三 ㄴ니 三三 ㅅ사 三三 ㅅ벳이 三三 ㄴ마 三三 ㄴ리아 三三 ㄴ의 三三 ㄴ문 三三 ㄴ안 三三 ㅎ음 三三 을  
 三三 ㄴ드 三三 ㄴ르 三三 ㄴ매 三三 ㄴ이 三三 ㅎ이 三三 ㅎ가 三三 ㄴ복 三三 ㅅ중 三三 ㄴ에서 三三 ㅅ쉴 三三 ㄴ노 三三 ㄴ느 三三 ㄴ지 三三 ㄴ라 三三 ㄴ엘 三三 ㄴ니 三三 ㅅ사 三三 ㅅ벳이 三三 ㄴ성 三三 ㅅ신의 三三 ㄴ총 三三 ㅅ만 三三 ㅎ음 三三 을 三三 ㄴ엇 三三 ㄴ어  
 三三 ㄴ큰 三三 ㄴ소리 三三 ㄴ로 三三 ㄴ볼 三三 ㄴ니 三三 ㄴ글 三三 ㄴ을 三三 ㄴ디 三三 ㄴ모 三三 ㄴ든 三三 ㄴ녀 三三 ㄴ인 三三 ㅅ중 三三 ㄴ에 三三 ㄴ네 三三 ㄴ게 三三 ㄴ복 三三 ㄴ이 三三 ㄴ잇 三三 ㄴ스 三三 ㄴ며 三三 ㄴ네 三三 ㄴ가 三三 ㄴ빈 三三 ㄴ이 三三 ㅎ이 三三 ㅎ의  
 三三 ㄴ게 三三 ㄴ도 三三 ㄴ복 三三 ㄴ이 三三 ㄴ잇 三三 ㄴ느 三三 ㄴ니 三三 ㄴ라 三三 ㄴ우 三三 ㄴ리 三三 ㅅ주 三三 ㄴ의 三三 ㄴ모 三三 ㄴ친 三三 ㄴ이 三三 ㄴ내 三三 ㄴ게 三三 ㄴ나 三三 ㄴ아 三三 ㄴ오니 三三 ㄴ이 三三 ㄴ엇 三三 ㄴ지 三三 ㅎ은 三三 ㄴ일 三三 ㄴ인 三三 ㄴ교  
 三三 ㄴ볼 三三 ㄴ지 三三 ㄴ어 三三 ㄴ다 三三 ㄴ문 三三 ㄴ안 三三 ㅎ는 三三 ㄴ소리 三三 ㄴ가 三三 ㄴ내 三三 ㄴ귀 三三 ㄴ에 三三 ㄴ들 三三 ㄴ닐 三三 ㅅ때 三三 ㄴ에 三三 ㅎ이 三三 ㅎ가 三三 ㄴ복 三三 ㅅ중 三三 ㄴ에서 三三 ㄴ기 三三 ㅅ쁨 三三 ㄴ으로  
 三三 ㄴ쉴 三三 ㄴ노 三三 ㄴ느 三三 ㄴ도 三三 ㄴ다 三三 ㄴ밋 三三 ㄴ은 三三 ㄴ녀 三三 ㄴ인 三三 ㄴ의 三三 ㄴ게 三三 ㄴ복 三三 ㄴ이 三三 ㄴ잇 三三 ㄴ도 三三 ㄴ다 三三 ㄴ쥬 三三 ㅅ쉴 三三 ㄴ셔 三三 ㄴ그 三三 ㄴ의 三三 ㄴ게 三三 ㅎ은 三三 ㅅ신 三三 ㅅ말 三三 ㅅ슴 三三 ㄴ이 三三 ㄴ반 三三 ㄴ드 三三 ㄴ서  
 三三 ㄴ일 三三 ㄴ우 三三 ㄴ리 三三 ㄴ다 三三 ㅎ니 三三 ㄴ마 三三 ㄴ리아 三三 ㄴ가 三三 ㄴ글 三三 ㄴ을 三三 ㄴ디

三三 ㄴ내 三三 ㄴ령 三三 ㅎ은 三三 ㄴ이 三三 ㅅ주 三三 ㄴ를 三三 ㄴ찬 三三 ㅅ양 三三 ㅎ며 三三 ㄴ내 三三 ㄴㅅ 三三 ㅅ음 三三 ㄴ이 三三 ㅎ는 三三 ㄴ남 三三 ㄴ내 三三 ㄴ구 三三 ㅅ주 三三 ㄴ를 三三 ㄴ기 三三 ㅅ버 三三 ㅎ는 三三 ㄴ이다  
 三三 ㄴ그 三三 ㄴ계 三三 ㅅ집 三三 ㅅ중 三三 ㄴ의 三三 ㄴ노 三三 ㄴ고 三三 ㄴ천 三三 ㅎ음 三三 을 三三 ㄴ도 三三 ㄴ라 三三 ㄴ보 三三 ㄴ시 三三 ㄴ니 三三 ㄴ대 三三 ㄴ개 三三 ㄴ이 三三 ㄴ제 三三 ㄴ후 三三 ㄴ로는 三三 ㄴ만 三三 ㄴ세 三三 ㄴ에  
 三三 ㄴ나 三三 ㄴ를 三三 ㄴ복 三三 ㄴ이 三三 ㄴ잇 三三 ㄴ다 三三 ㄴ닐 三三 ㄱ르리 三三 ㄴ로 三三 ㄴ다 三三 ㄴ능 三三 ㅎ은 三三 ㅅ신이 三三 ㄴ가 三三 ㄴ내 三三 ㄴ게 三三 ㄴ큰 三三 ㄴ일 三三 ㅅ을 三三 ㄴ일 三三 ㅅ우 三三 ㅅ셨스 ㄴ니  
 三三 ㄴ그 三三 ㄴ일 三三 ㅎ음 三三 ㄴ이 三三 ㄴ거 三三 ㄴ룩 三三 ㅎ도 三三 ㅅ소 三三 ㄴ이다 三三 ㄴ공 三三 ㅎ을 三三 ㅎ은 三三 ㅅ심이 三三 ㄴ이 三三 ㄴ두 三三 ㄴ려 三三 ㄴ위 三三 ㅎ는 三三 ㄴ자 三三 ㄴ의 三三 ㄴ게 三三 ㄴ디 三三 ㄴ되 三三 ㄴ로  
 三三 ㄴ니 三三 ㄴ르 三三 ㄴ시 三三 ㄴ느 三三 ㄴ지 三三 ㄴ라 三三 ㄴ그 三三 ㄴ의 三三 ㄴ팔 三三 ㄴ노 三三 ㄴ힘 三三 ㅅ을 三三 ㄴ보 三三 ㄴ이 三三 ㅅ샤 三三 ㄴ의 三三 ㄴㅅ 三三 ㅅ음 三三 ㄴ의 三三 ㄴ성 三三 ㅅ각 三三 ㄴ에 三三 ㄴ교 三三 ㅅ만 三三 ㅎ은  
 三三 ㄴ자 三三 ㄴ를 三三 ㅎ은 三三 ㅎ으 三三 ㄴ셨고 三三 ㄴ권 三三 ㄴ이 三三 ㄴ잇 三三 ㄴ는 三三 ㄴ자 三三 ㄴ를 三三 ㄴ그 三三 ㄴ디 三三 ㄴ위 三三 ㄴ에서 三三 ㄴ느 三三 ㄴ리 三三 ㄴ치 三三 ㅅ셨스 ㄴ며 三三 ㄴ느 三三 ㄴ즌 三三 ㄴ자 三三 ㄴ를  
 三三 ㄴ을 三三 ㄴ니 三三 ㄴ치 三三 ㅅ셨고 三三 ㄴ주 三三 ㄴ리 三三 ㄴ는 三三 ㄴ자 三三 ㄴ를 三三 ㄴ표 三三 ㅎ은 三三 ㄴ거 三三 ㄴ스 ㄴ로 三三 ㄴ비 三三 ㄴ불 三三 ㄴ니 三三 ㅅ셨스 ㄴ며 三三 ㄴ부 三三 ㄴ자 三三 ㄴ를 三三 ㄴ공 三三 ㅅ유 三三 ㄴ로  
 三三 ㄴ보 三三 ㄴ내 三三 ㅅ셨고 三三 ㄴ그 三三 ㄴ중 三三 ㄴ이 三三 ㄴ스 ㄴ라 三三 ㄴ엘 三三 ㅅ음 三三 을 三三 ㄴ도 三三 ㄴ으 三三 ㅅ샤 三三 ㄴ공 三三 ㅎ을 三三 ㅎ이 三三 ㄴ니 三三 ㄴ시 三三 ㄴ고 三三 ㄴ괴 三三 ㅅ역 三三 ㅎ는 三三 ㄴ기 三三 ㄴ를  
 三三 ㄴ부 三三 ㄴ루 三三 ㄴ이 三三 ㄴ전 三三 ㄴ우 三三 ㄴ리 三三 ㄴ조 三三 ㅅ상의 三三 ㄴ게 三三 ㄴ말 三三 ㅅ슴 三三 ㅎ은 三三 ㅅ신 三三 ㄴ것 三三 ㅅ과 三三 ㄴ긋 三三 ㄴ치 三三 ㄴ아 三三 ㄴ브 三三 ㄴ라 三三 ㄴ함 三三 ㅅ과 三三 ㄴ밋 三三 ㄴ그 三三 ㄴ즈 三三 ㄴ손 三三 ㄴ의 三三 ㄴ게  
 三三 ㄴㅎ 三三 ㄴ더 三三 ㄴ라 三三 ㄴ마 三三 ㄴ리아 三三 ㄱ가 三三 ㄴㅅ 三三 ㅅ들 三三 ㅅ즘 三三 ㄴ긋 三三 ㄴ치 三三 ㄴ잇 三三 ㄴ다 三三 ㄴ가 三三 ㄴ본 三三 ㄴ집 三三 ㄴ으로 三三 ㄴ도 三三 ㄴ라 三三 ㄴ가 三三 ㄴ니 三三 ㄴ라 三三 ㄴ엘 三三 ㄴ니 三三 ㅅ사 三三 ㅅ벳이  
 三三 ㄴ히 三三 ㅅ산 三三 ㅎ을 三三 ㄴ괴 三三 ㅅ약 三三 ㄴ이 三三 ㄴ쳐 三三 ㅅ셔 三三 ㄴ이 三三 ㄴ에 三三 ㄴ아 三三 ㅅ들을 三三 ㄴ나 三三 ㅎ니 三三 ㄴ그 三三 ㄴ리 三三 ㄴ웃 三三 ㅅ과 三三 ㄴ천 三三 ㅅ척 三三 ㄴ이 三三 ㅅ주 三三 ㄴ가 三三 ㄴ크 三三 ㄴ게 三三 ㄴ공 三三 ㅎ을  
 三三 ㄴ히 三三 ㄴ녀 三三 ㄴ이 三三 ㅅ성 三三 ㅅ을 三三 ㄴ듯 三三 ㄴ고 三三 ㄴ긋 三三 ㄴ치 三三 ㄴ즐 三三 ㄴ거 三三 ㄴ위 三三 ㅎ는 三三 ㄴ디 三三 ㄴ니 三三 ㄴ팔 三三 ㄴ일이 三三 ㄴ되 三三 ㄴ매 三三 ㄴ이 三三 ㅎ이 三三 ㅎ을 三三 ㄴ할 三三 ㄴ래 三三 ㅎ려 三三 ㅎ려 三三 ㄴ와 三三 ㄴ셔  
 三三 ㄴ부 三三 ㄴ친 三三 ㄴ의 三三 ㄴ일 三三 ㅎ음 三三 ㅅ을 三三 ㄴ쓰 ㄴ라 三三 ㄴ사 三三 ㄴ가 三三 ㄴ랴 三三 ㄴ라 三三 ㅎ고 三三 ㅅ져 三三 ㅎ는 三三 ㄴ디 三三 ㄴ니 三三 ㄴ모 三三 ㄴ친 三三 ㄴ이 三三 ㄴ디 三三 ㄴ답 三三 ㅎ는 三三 ㄴ디 三三 ㄴ그러 三三 ㄴ치

누가 일장

빅철십

六二 아니나다 요한이라 할 거사라 하니 무리가 글으되 네 족속 중에 이 일흠으로  
 六三 일흠이 가 업다 하고 형용하야 그 부친씩 무어스로 일흠을 거슬 무르니  
 六四 그 부친이 서판을 달나하야 써서 글으되 그 일흠을 요한이라 하니 사림이  
 六五 다 괴이히 녀이더라 그 입이 곳 열니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야 하는님을  
 六六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놀나고 이 말이 원 유대 산중 고을에  
 六七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믿음에 두어 글으되 이 회가 장차  
 六八 었더 할고 하더라 또 유대 손의 흠씩 하시다 그 부친사가 란가 성신의  
 六九 총만 흠을 었어 예언하야 글으되 후 나스로 일흠이 잇스라 부친을 동수로  
 七〇 찬송하리로다 주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빅성을 도라보샤 속량  
 七一 하시고 우리를 위하야 구원할 썰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나게 하섯스니  
 七二 이는 주씩셔 네로브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바와 같  
 七三 원슈와 우리를 위하야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심이라  
 七四 우리 조상을 긍휼히 녀이시고 거룩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니 곳 우리  
 七五 조상 아브라함의게 빙세하신 명제라 우리를 원슈의 손에서 건지샤



七六 두러움이 업시 종신도록 주의 압해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七七 하시리로다 이 회여 너를 지극히 높으신이의 선지자라 닐코르리니  
 七八 네가 주압해 몬져 가서 그 길을 예비하고 죄를 사함심으로 빅성의게  
 七九 구원음을 알게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시니 믿음으로 인함  
 八〇 이라 이로써 듣는 회가 우으로브터 우리에게 림하야 어두움과 죽음의  
 八一 그늘에 안즌 자의게 빛치고 우리 말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八二 하더라 이 회가 점점 자라매 정신이 강건하야 이스라엘 빅성의게 나  
 八三 나는 날까지 뵈들에서 거처하더라  
 八四 맛춤이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령을 내려 림하로 하여곰 다 호적하라  
 八五 하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감스 되었슬 때에 첫번흔 거사라 모든  
 八六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제 성으로 도라갈식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인코로  
 八七 갈닐니 나사렛 성으로브터 유대에 올라가 다윗의 성에 니르니 일흠은  
 八八 벳을네헬이라 디오흔 안히 마리아와 혼가지로 호적하러 갈식 때에 마리아가  
 八九 임의 잉태하였더니 맛춤 거과 잇서 희산할 괴약이 니르러 맛아들을

나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사관에 용납할 곳이 없습이라 ○  
 그디경에 목자들이 밧게서 밤에 그 양의 무리를 직히더니 주의 사자가  
 꺾혀서 그 주의 영광이 너희를 두루 빛치매 크게 무서워하거늘 텨스가  
 빌너 글으되 무서워말나 내가 너희게 크게 깃버할 아람다운 소식을 가져  
 오니 이는 만민의게 밧출지니라 ○오늘날 다윗의 성에 너희를 위하야 할  
 구유가 나셨스니 곳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시 표적이니 너희는 가서  
 할 아기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인 거슬 보리라 하니 홀연히 허다할  
 하날 군수가 텨스와 곳치 잇서 하는님을 찬송하야 글으되  
 지극히 높흔 곳에셔는 하는님씩 영화를 돌녀 보내고 싸에셔는 깃버  
 하심을 넘은 사른들이 평안할지어다  
 하더라 ○ 밧츨 텨스가 썩나 하날노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벳을네헨서지 가서 이 일일 우선 거슬 보자 곳유가 우리의게 보이신바라  
 하고 썩나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차져서 보매 텨스가  
 저희게 이 아기를 그르쳐 말은 거슬 전파하니 텨는 자가 다 목자의 고하는

일을 괴이히 녀이되 오직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직히여 믿음에 샅이더라  
 목자가 도라가 그 텨고 본 거시 다 빌으던바와 곳흠으로써 하는님씩 영화를  
 돌녀 보내고 찬송하더라 ○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일흠을 예수라 빌  
 르니 곳 슈티하기 전에 텨스의 빌긔른바라 ○ 모세의 법대로 열례의  
 날이 임의 츄매 아기를 다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씩 밧치려하니  
 이는 주의 룰법에 쓴 것과 곳흔지라 빌넷스되 처음으로 텨칭한 남자 마다  
 주의 거룩한바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룰법에 말습하신대로 비뉘이  
 흘쌍이나 혹 어린 반구 들노 제스하려하더라 예루살렘에 혼 사름이  
 잇스니 일흠은 시므온이라 이 사름이 의롭고 성심이 잇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드리는자러니 또 할 성신이 그 우에 계신지라 더가 임의 성신의  
 무시를 밧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성신의  
 감동함으로써 성던에 드러가매 밧츨 부모가 룰법의 전례대로 행하교져  
 하야 아기를 예수를 다리고 올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는님을 찬송  
 하야 글으되



누가 이장

빅철십삼

二九

三〇

三一

三二

三三

三四

三五

三六

三七

三八

三九

주지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 <sup>三九</sup> 좋은 평안히 노하주시는도다 <sup>三三</sup> 대개 내  
 눈이 주의 구원하기를 보았는이다 이는 만민압헤 예비하신 거시니  
<sup>三三</sup> 이방을 빛치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화가 되는이다  
<sup>三三</sup>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를 말하느니 거슬러 이히 녀이느니라 시므온이 더히를  
 위하야 복을 빌고 그 모친 마리아도 이르러 닐너 곁으되 불지어다 이 회를  
 세워 이스라엘 사람을 만히 패하고 흥하게 하며 육을 만히 밧을 정조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 <sup>三五</sup> 장차 갈이네 믿음은 썬드듯할 거시오 여러 사람의  
 믿음의 생각을 드러내리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이는 선지자이니 그 나이 임의 늙은지라 동정녀로 식집가셔 닐곱히 동안  
 지아비와 못치 살교 파부 되지 팔십스년이라이 사람이 성년을 썬나지아  
 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주야에 섬기더니 <sup>三八</sup> 맛춤이 때에 압헤 와서  
 하는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하기를 바라던 모든 사람의게 이  
 아기를 말하더라 <sup>三九</sup> 주의 룰법을 좃차 임의 다함때 갈닐니로 도라가 본성  
 나사렛에 나르니라 ○ 아기가 점점 자라매 강건하여 지고 지혜가 총족하며

四一

四二

四三

四四

四五

四六

四七

四八

四九

五〇

五一

五二

五三

五四

하는님의 은혜가 그 우에 잇더라 ○ 그 부모가 허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sup>四二</sup> 예수가 열두살 될 때에 더히가 이 절의 전례를  
 좃차 올라가다가 <sup>四三</sup> 외한이 쳐서 도라올시 회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므섯  
 더니 그 부모는 아지 못하고 <sup>四四</sup> 동행 중에 잇는줄노 알고 호로 길을 행하야  
 이에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sup>四五</sup> 차지되 맛나지 못함때 차지라고 예루살렘에  
 도라가는지라 <sup>四六</sup> 맛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맛나니 선형들 중에 안스샤 더히게  
 듯기도 하시며 못기도 하시니 <sup>四七</sup> 듯는자가 다 그 지혜와 티답함을 놀나  
 다라고 부모가 보고 괴이히 녀이느니 그 모친은 곁으되 회야 엇지하야  
 우리에게 이라케 하였느냐 네 아바지와 내가 근심하야 너를 차졌다 하니  
<sup>四九</sup> 예수 곁으샤 티 엇지하야 나를 차지섯는잇가 내가 아바지 집에 잇서야  
 쓸줄을 아지 못하였는잇가 하시니 <sup>五〇</sup> 랑천이 그 호신 말씀을 썬드지 못하더라  
<sup>五一</sup> 예수가 호가지로 내려가샤 나사렛에 나르러 <sup>五二</sup> 순종하야 밧드니 오직 그  
 모친은 이 모든 일을 믿음에 두더라 ○ <sup>五三</sup> 예수 지혜가 더하고 키가 자라매  
 더욱 하는님과 사람의게 고임을 보시더라

디베료 가이사 위에 잇는지 열다섯 히에 본되오 빌나도가 유대의  
 감스가 되고 헤롯이 갈릴나의 분봉왕이 되고 그 동생 빌립은 이 두래와  
 드라고넛 지방의 분봉왕이 되고 루사니아는 아빌네네의 분봉왕이 되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뵤들에서 하는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의게 임하니라 요한이 요단강 각처에 와서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말씀과  
 못흐니 빌립스디

광야에 소리 잇서 웨쳐 글으디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첩경을 못게  
 하라 각 골짜기가 메여지고 각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거시  
 못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하여질 거시오 모든 사람이 하는님의 구원  
 호심을 보리라

호였더라 ○ 그런고로 요한이 세례 받으려 온 무리드려 빌너 글으디 독사의  
 종류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리의 노호심을 피하라 하더냐 그런  
 고로 회개함에 합당호 열미를 밋고 속으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말나 내가 너희게 빌노니 하는님이 능히 이 돌노도  
 아브라함의 조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독괴를 나무 썩리에 노했스니  
 도흔 열미 밋지아니하는 나무는 다 썩어 불에 던져라 하니 무리들이  
 무리 글으디 그러하면 우리가 무어슬 할리잇가 디답호야 글으디 옷 두벌  
 잇는자는 옷업는자의게 줄 거시오 먹을 거시 잇는자도 그러케 할 거시  
 니라 하니 세리들도 세례를 밋고져 하여서 무리 글으디 스승이여 우리는  
 무어슬 할리잇가 글으디 영호세 외에는 특징치말나 하니 군스들도 또  
 무리 글으디 우리는 무어슬 할리잇가 글으디 사람의게 강포하지말며  
 무소하지말고 밋는 료를 족호줄노알어라 ○ 백성들이 브라고기드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의게  
 빌너 글으디 나는 물노써 세례를 주거니와 오직 나보다 능력이 만호신  
 이가 오시리니 나는 그 신신 풀기도 감당치못호겟노라 그는 성신과 불노  
 너희게 세례를 주실 거시오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호게 호샤  
 알곡은 모하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새지지안는 불에 터우시리라 ○

18 또 다른 여러 가지 권함으로 빅성의게 복된 쇼식을 전할서 오직 헤롯왕이  
 그 동성의 안히 헤로디아의 일과 모든 악한 일을 인양야 요한의게 척망을  
 19 밧고 이 외에 할 가지 악을 더 할야 요한을 옥에 가도니라 ○ 여러 빅성이  
 다 세례를 밧으며 예수가 또 할 세례를 밧으시고 기도할 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신이 형태로 비림이 오치 그 우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노서 소리  
 20 잇서 글으샤 되 너는 내 사랑한는 아들이오 내 깃버한는 자라 하시더라 ○  
 21 예수가 큰 치심을 시작할 때에 겨우 삼십세 되신지라 사를들이 알기  
 22 에는 요세브의 아들이니 요세브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맛닷이오 그  
 23 이상은 레위오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얀나오 그 이상은 요셉이오  
 24 그 이상은 맛다디아오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흠이오 그 이상은  
 25 에슬니오 그 이상은 낙개요 그 이상은 마앗이오 그 이상은 맛다디아오  
 26 그 이상은 서머인이오 그 이상은 요세이오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27 요아난이오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오 그 이상은 스알디  
 28 엘이오 그 이상은 베리오 그 이상은 멜기오 그 이상은 앳디오 그 이상은

29 고삼이오 그 이상은 엘마담이오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30 이상은 엘나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오 그 이상은 맛닷이오 그 이상은  
 31 레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오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오 그  
 32 이상은 요남이오 그 이상은 엘니아김이오 그 이상은 멜네야오 그 이상은  
 33 멘나요 그 이상은 맛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오 그 이상은 다윗이오 그  
 34 이상은 이새요 그 이상은 오벳이오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  
 35 이오 그 이상은 나손이오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오 그 이상은 아나요 그  
 36 이상은 헤스론이오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  
 37 이오 그 이상은 이삭이오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오 그 이상은 데라요 그  
 38 이상은 나홀이오 그 이상은 스투이오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네  
 39 이오 그 이상은 헤베요 그 이상은 살나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오 그 이상은  
 40 아박삿이오 그 이상은 셈이오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벳이오  
 41 그 이상은 므두셀나요 그 이상은 에녹이오 그 이상은 야렛이오 그 이상은  
 42 마할날엘이오 그 이상은 가이난이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

四

一 이 오 그 이상은 아담이 오 그 이상은 하는님이시니라  
 二 예수가 성신의 충만함을 낚여 요단에서 도라오샤 성신의 인도함심으로  
 三 스십일을 광야에 든니시며 마귀의 계 시험을 밧으시고 이 모든 날에 아모  
 四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이 다갈매 주리시더니 마귀가 날너 글으되  
 五 네가 만일 하는님의 아들이어든 이들을 두려워하여 되라 하시니 예수 대답  
 六 하시되 기록하였스되 사람이 석으로만 살거시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시  
 七 는 마귀가 또 인도하여 높히 올라가서 순식간에 던하 만국으로 보이며  
 八 날너 글으되 이 모든 권제와 밧그 영화를 내가 네게 주리니 이거든 다  
 九 내가 맛할스며 나의 높고저하는 대로 곳 줄 거시라 그런코로 내가 만일  
 十 내게 절하면 다 네 거시 되리라 예수 대답하시되 기록하였스되  
 十一 주 너의 하는님씩 경배하고 홀노 그를 섬기라 하였다 하시니 또 인도하여  
 十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년 십다이에 세우고 글으되 네가 만일 하는님의  
 十三 아들이어든 여의셔 뛰어느리라 대개 기록하였스되

호엿고 쓰호

더희 손으로 너를 밧드러 발이 들에 부디치지안케 하시리라

一 호엿다 하니 예수 대답하시되 글으샤 되 말슴하였스되 주 너의 하는님을  
 二 시험치말나 호엿다 호신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호고 이에 얼마 동안  
 三 떠나니라 예수가 성신의 권능으로 갈닐니로 도라가시니 그 소문이 스방  
 四 에 퍼져거늘 백성의 회당에서 큰치시니 못사람이 영화를 돌너더라  
 五 예수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샤 안식일에 그의 규례를 쓰라  
 六 회당에 드러가샤 성경을 낚고져하시시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니  
 七 책을 퍼 기록하되를 차지시매 날넛스되  
 八 주의 성신이 내게 림하시간난호자외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九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샤 사로잡힌자로 다시 노히코 눈먼자로  
 十 다시 보게 한다 흠을 전파하고 높인자로 쥬유케 호고 주의 복된히를  
 十一 전파하게 호셨다  
 十二 호시고 책을 덮혀 집스를 주시고 안즈시니 회당에 잇는자들이 다 주목

三 ㅎ야 보더라 예수가 무리의게 말씀하야 글으샤디 이 글을 너희 귀로  
 三 드렸스니 오늘 응하엿다 하시거늘 못사름들이 다 증거하교 그 입으로  
 三 나온바은혜로운말을괴이히 녀역글으디이사람이 요셉의아들이아니냐  
 三 하니 예수가 더희게 낄으샤디 너희가 필경 이런속담으로내게말하  
 三 리니 의원아 네 병을 곳치라 가버나움에 칭호를 거슬 우리가 드렸스니  
 三 그대로여기 고향에서도 칭호라 하시고 또 글으샤디내가진실노  
 三 너희게 낄으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디점을 밧은자가 업느니라 내가  
 三 촌으로 너희게 낄으노니 이전엘니야새에하늘이세히여섯들을닷치여  
 三 윈샤이큰홍년이 들매 이스라엘에 과부가 만흐되 엘니야가 보내심을  
 三 밧드러 그중에 하나님의게도 가지안코 오직 시돈새에 잇는 사렘다 고을  
 三 혼과부의게만갓고 또 선지자엘니야새에 이스라엘에 문둥이가 만흐되  
 三 색긋흙을 엮은 사람이 그중에 하나님의게도 업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三 썸이나라 하시니 회당에 잇는자들이 이 거슬듯고 다 심히 노하야 니러나  
 三 성 밧그로 쫓차 스을고 그 성싸흔산랑떠러지에 니르러 밀쳐느리치고

三 저하되 오직 그 가운데로 지나 가지니라 ○ 갈릴리가버나움성에 니르러  
 三 안식일에 마르처시니 그 마르침을이상히녀이논거슨그말씀이권제가  
 三 잇슴이러라 회당에흔사람이 잇서 더러온 샤귀가 들녀 크게 소리질녀  
 三 글으디이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너로 더브러 무슨상관이 잇는뇨  
 三 우리를멸하러 왔는뇨나는네가 누구인줄을아노니 하는님의 거룩한자  
 三 니라 하거늘 예수가 썩지져 글으샤디 입을 봉하교 그 사람의게셔 나오  
 三 니라 하시니 샤귀가 그사람을 무리중에 너머더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三 상하지아니흔지라 모든사람이 놀나 서로 말하야 글으디이엇더흔말씀  
 三 인고 대개 권세와 능력으로셔 더러온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니  
 三 소문이 그 근처스방에 퍼지더라 ○ 니러나 회당에서 나가샤 시몬의 집에  
 三 드러가시니 시몬의장모가 심흔 열병이 든지라 사람이 예수씩 더를위하야  
 三 구하니 예수가 갓가히 서서 열병을 썩지신디 병이 물너가니 곳니러나  
 三 더희의게 슈종드더라 ○ 히절적에 각척 병으로 알는차 잇는 사람들을이  
 三 병인을 다리고 예수씩 나아오니 예수가 일일히 그 우에 손을 얹지샤

곳치시니 여러 사람의 게서 샴기들이 나가며 소리질너 글으되 너는 하는 님  
 의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가 썩지져 말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저기를 그리스도신줄을 알미러라 ○ 뵈으매 예수가 나오샤 한적흔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맛나져 저희게서 썩나시지못하게 만류하라 하니  
 예수닐샤되 내가 다른 고을에서도 하는 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겟노라 대개 이 일노 나를 보내셨는니라 하시고 이에 도를 갈닐니  
 회당에서 전파하시더라

무리가 응위하야 하는 님의 말씀을 드를치 예수가 케네사렛 호슈가에서서  
 호슈가에 잇는 두 벼를 보시니 어부들은 썩나 그물을 씻거늘 예수가  
 벼에 오르시니 그 벼는 시몬의 벼라 언덕에 조곰 썩이기를 청하시고  
 안즈샤 벼에서 무리를 무르치시고 말씀을 못초시고 시몬드려 님샤되  
 갑흔 디로 가서 그물을 느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시몬이 되답하야  
 글으되 스승이여 우리들이 밤이 못도록 슈고를 하되 얻은 거시 업겟마는  
 말씀하시니 그물을 느리리이다 하고 그리흔즉 고기를 에운 거시 심히

만하 그물이 썩여지게 되엿거늘 이에 다른 벼에 잇는 동모를 손쫓하야  
 와서 도아달나하니 너희가 와서 두 벼에 처우매 장춍 짐기게 된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릅아래 업되여 글으되 주여 나를  
 썩나쇼셔 나는 죄인이로쇼이다 하니 이와 밋흔 썩 잇는 사람들을 고기  
 잡은 거슬 보고 놀나고 시몬의 동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나니 예수가 시몬의게 님네 글으샤되 무셔위말나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너희가 벼를 언덕에 대이고 모든 거슬 버리고  
 예수를 좃치니라 ○ 맛츨흔 성에 게실 때에 온 몸에 문동병들닌 사람이  
 잇서 예수를 보고 곳 업되여 구하야 글으되 주여 만일 하고저하시면  
 나를 썩곳하게 하시리이다 하니 예수가 손을 퍼셔 문지시며 글으샤되  
 내가 하고저하노니 썩곳하라 하시니 문동병이 곳 업서지니라 예수가 더를  
 경계하야 글으샤되 사람의게 님의 지말고 다만 가서 제장스의게 몸을  
 보이고 또 네 썩곳함을 인하야 모세의 명흔 대로 례물을 드러 너희게 증거  
 하라 하섯더니 그 소문이 이에 더욱 드러나매 허다흔 무리들이 말씀도

누가 오장

빅팔십륙

十六 듯고 저희 병도 나음을 엇고져야 모혀 오나 예수가 물너가샤 들에  
 十七 니르러 기도하시니라 ○ 맛춤 호로는 큰치실시 같닐니 각 촌과 유대와  
 十八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교인과 교법사들이 잇서 께해 안즈니 병을  
 十九 곳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씨 잇더라 또 환반신불슈된자를 사를들이 상에  
 二十 메고 와서 예수 압헤 드러노코져하나 사를이 만흠으로 메고 드러가는  
 二十一 길을 엇지못할매 이에 집웅에 올라가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상에 누이고  
 二十二 그 가온뒤로 예수 압헤 달아느리니 예수가 너희 밋음을 보시고 병인의게  
 二十三 닐샤디이사름아네 죄를 사하엿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밋바리새  
 二十四 교인들이 의론하야 그르디이 츠람흔 말을 하는자가 뉘뇨 오직 하는님  
 二十五 외에는 뉘가 능히 죄를 사하겟느나 예수가 그의론을 알으시고 곳닐너  
 二十六 골샤디너희 믿음에 무슴 의론을 하는나네 죄를 사하엿다 하는 말과  
 二十七 니러나둔니라 하는말이 어는 거시 쉽겟느나 인자가 싸에서 죄를 사하는  
 二十八 권제가 잇는줄을 너희게 알게 하리라 하시고 반신불슈드려 말슴하샤디  
 二十九 내가 메고 닐노니 니러나게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를이

三十 너희 압헤서 곳니러나 누엇던 거슬 가지고 그 집으로 도라가며 영화를  
 三十一 하는님씨 돌너보내니 모든 사를들이 놀나 영화를 하는님씨 돌너보내며  
 三十二 심히 두려워하야 그르디 오늘날에 괴이흔 일을 보앗다 하더라 ○ 그 후에  
 三十三 나가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안즌 거슬 보시고 닐샤디 나를  
 三十四 좃치라 하시니 드디여 모든 거슬 버리고 니러나 좃치니라 레위가 예수를  
 三十五 위하야 제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를이 만히 참여하더라  
 三十六 또 바리새교인과 밋바리새교인들이 그 데즈를 비방하야 그르디 너희가  
 三十七 엇지하야 세리와 죄인으로 더브러 먹고 마시느나 하시니 예수 디답하야  
 三十八 골샤디 성흔 사를은 의원이 쓸디 업고 병든 사를이라야 쓰느니 내가  
 三十九 의인을 부르러 온 거시 아니오 다만 죄인을 불러 회기 식히러 왔노라  
 四十 하시니 너희가 예수씨 닐너 그르디 요한의 데즈는 자조 금식하며 기도  
 四十一 하고 바리새교인의 데즈들도 또 그리하되 오직 너의 데즈는 먹고 마시는  
 四十二 도다 하시니 예수가 너희드려 닐샤디 혼인 처하간 사를이 신랑과 흠씨  
 四十三 잇슬 때에 엇지 금식하게 하리오 오직 그 날이 니르러 신랑이 리별홀터

이니 그 때에는 금식할 거시니라 하시고 또 비유야 날으샤 디새 옷에서  
 흰 조각을 찢겨 현 옷을 입는 자가 업느니라 그러케 하면 새 옷을 찢질 뿐이오  
 또 새 옷에서 찢진 조각이 현 거세 합지 아니하리라 또 흰 새 술을 밍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업느니라 그러케 하면 새 술이 부대를 뚫쳐 술이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리니 오직 새 술은 새 부대에 너허야 할 거시니라  
 묵은 술을 마시고 새 술을 마시고 심은 자가 업는 거슨 묵은 거시 또 타  
 함이니라

맛춤 할 안식일에 예수가 밀밭 스이로 가실적 데즈들이 밀이삭을 잘나  
 손으로 부벼여 먹으니 었던 바리새교인들이 날으 디 안식일에 당치 못하  
 일을 었지 행하는 요한 거늘 예수 디 답하야 글으샤 디 다윗과 밋그 함씩  
 흘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는님의 면에  
 드러가 진설할 썩을 집어 먹고 또 함씩 흘자를 주엇는디 이 썩은 채스장  
 외에는 먹기가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며 또 글으샤 디 인즈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느니라 하시더라 ○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가 회당에 드러가샤

六

그 큰치실적 을흔 손 으른 사름이 잇는지라 서괴관과 바리새교인들이  
 안식일에 예수가 곳치나 었보아 책잡아 송스하랴하니 예수가 그 쏫을  
 알으시고 손 으른 사름 드러 날으샤 디 너러나 할가온 디서라 하시니 드디여  
 너러나 서거늘 예수가 더희 드러 날으샤 디 내가 너희게 무르리라 안식일에  
 션을 행하겠느냐 악을 행하겠느냐 성명을 구하겠느냐 죽이겠느냐 어는  
 거시 맛당하냐 하시고 드디여 무리를 둘러 보시며 그 사름 드러 날으샤 디  
 네 손을 펴라 하시니 이에 그리함매 그 손이 다시 완전호지라 무리가  
 분흔 무음이 그득하야 예수를 었더케 쳐치할 거슬 서로 의론호더라 ○  
 이 때에 예수가 산으로 가샤 괴도할실적 밤이 밋도록 하는님씩 괴도하시교  
 북으매 그 데즈를 부르샤 그 중에서 열들을 택하야 스도라 칭하시니  
 베드로라고도 하시니 시몬과 밋그 동성 안드레와 야고보와 밋 요한과  
 빌립과 밋 바돌로미와 마태와 밋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밋 예열  
 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잡아줄자더라 예수가 더희와 할가지로 산에서 느리샤 평디에 서시니 그



허다흐 데즈의 여러 무리와 만흔 빅성들이 유대 스방과 예루살넝과 밧  
 두로와 시돈바다가 으르브터와셔 말슴도 듯고 썩흔 저희 병도 나음을  
 엇고져 하니 더러온 귀신의게 고난 밧는 자가 다 나음을 엇은 지라 윈 무리가  
 예수를 먼저 고져 함은 능력이 예수 색로 나셔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 러라 ○  
 예수가 눈을 들어 데즈를 보시고 글으샤 되 너희 간난한 자가 복이 잇도다  
 하느님의 나라이 너희 거시오 너희 이제 비곱흔 자가 복이 잇도다 너희가  
 비부름을 엇을 거시오 너희 이제 우는 자가 복이 잇도다 너희가 우슬  
 거시오 인즈를 인샤 사름이 너희를 위워 하며 멀니 하고 육하고 너희 일홈  
 을 악하다 하야 빌릴 때에 너희가 복이 잇도다 당일에 깃버하고 뛰놀나  
 하늘에서 너희가 상 밧을 거시 크리라 대개 그 조상이 선지자의게 이와  
 못치 하였느니라 오직 화 잇슬진더 너희 부요흔 자여 너희가 위로 함을  
 임의 엇엇도다 화 잇슬진더 너희 이제 비부른 자여 너희가 비곱흐리로다  
 화 잇슬진더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이 통하며 울니로다 화 잇슬진더  
 너희 모든 사름의게 칭찬 밧는 자여 그 조상이 거웃 선지자의게 이와 못치

하였도다 ○ 오직 너희 듯는 자의게 내가 밧으노니 너희 윈슈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워 하는 사름의게 선디 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야 복을  
 빌며 너희게 하디 하는 자를 위하야 괴도 하며 내 이 썩을 처는 자의게 더  
 썩을 돌너 대며 내 것웃을 빼앗는 자의게 속웃서지 금하지 말나 무릇 내게  
 구하는 자의게 주며 내 물건을 가져가는 자의게 다시 달나지 말며 너희는  
 남의게 디접을 밧고져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디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 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어시 고맙다 하리오 대개 죄인도 사랑 하는  
 자를 사랑 하는 나라 너희가 만일 선디 하는 자를 선디 하면 무어시 고맙다  
 하리오 대개 죄인도 썩흔 이레케 하는 나라 너희가 밧기를 브라고 사름  
 의게 빌나면 무어시 고맙다 하리오 대개 죄인도 썩흔 죄인의게 빌니고  
 의수히 밧고져 하는 나라 오직 너희는 윈슈를 사랑하고 선디 하며 빌니고  
 다시 브라고 말나 못 너희 상이 크고 지극히 높흐신이의 조녀가 되리나  
 대개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의게 인조함심을 배프시느니라 그런  
 코로 긍휼히 녀이기를 너희 아버지가 긍휼히 녀이심 못치 하라 남을 평론

三八 처말나 또흔 너희가 평론을 보지아닐 거시오 남을 영되하지말나 또흔  
 너희가 영되함을 밧지아닐 거시오 남을 용서하라 또흔 너희가 용서함을  
 三九 밧지시오 남의게 주라 또흔 너희게 줄 거시니 곳큰 말노 누르고 혼드러  
 밧과 넘치도록 너희게 안겨 주리라 대개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헤아림  
 으로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밧을 거시니라 ○ 또흔 비유를 베프러  
 四〇 닐으샤 디 소경이 능히 소경을 인도하느냐 그러면들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아니  
 四一 하겠느냐 데즈가 그 스승 보다 돕지못하나 그러나 데즈 마다 온전히  
 四二 혼자면 그 스승과 못흐리라 엇지 하야 동성의 눈속에 잇는 티는 보고네  
 四三 눈속에 잇는 들보는 쳐듯지 못하느냐 또 너는 네 눈에 잇는 들보를 보지  
 四四 못하면서 엇지 하야 동성드려 능히 말하기를 동성아 네 눈에 잇는 티를  
 四五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몬져 네 눈에 잇는 들보를 빼여라 그  
 후에는 동성의 눈에 잇는 티를 밝히 보고 빼리라 못된 열미 밧는 도흔  
 四六 나무가 업고 또 도흔 열미 밧는 못된 나무가 업느냐 대개 나무마다 그  
 四七 열미로써 아느냐 가시에서 무화과를 싸지 못하고 썩네에서 포도를 싸지



四八 못하느냐 선호 사람은 믿음에 싸흔 선으로 말미암아 선을 말하고 악호  
 四九 사람은 믿음에 싸흔 악으로 말미암아 악을 말함은 믿음에 그득흔 거슬  
 五〇 입으로 말함이니라 ○ 너는 엇지 하야 나를 불너 주여 주면서도 내가  
 五一 말하논 거슬 형치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듯고 형하논 자마다  
 五二 누구와 못흔 거슬 너희게 보이라 짐짓는 사람과 못흐니 파기를 겁히  
 五三 하고 주초를 반석 우에 두매 큰 물이 나서 물결이 다 질녀도 능히 요동케  
 五四 못함은 잘 지은 연교요 오직 듯고 형치아니하논 자는 주초 업시 흙 우에  
 五五 짐짓는 사람과 못흐니 물결이 다 질녀서 집이 곳문혀져 해 됨이 크니라  
 五六 하시더라

예수가 이 모든 말씀으로써 빅성의게 듯게 하시고 임의 못초시매 곳  
 가버나움으로 드러가시니라 ○ 엇던 빅부장의 사랑하논 종이 병드러 죽게  
 五七 되니라 예수의 소문을 듯고 곳 유대인의 장로 두어 사람을 보내여 오서서  
 五八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니 장로가 예수씨 나아와 근절이 구하야 글으되  
 五九 이 일을 베프시는 거시 이 사람의게는 맛당하니다 더가 우리 빅성을

六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야 회당을 지었는이다 하니 예수가 한가지로  
 가실식이에 그집이 멀지아니하야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여 골오디 쥬여  
 七 슈고하시지마옵쇼셔 내집에 림하시기를 내가 감당치못하고 내가 쥬씩  
 나아가기도 감당치못할줄을 알았는이다 오직 한말씀만 하옵쇼셔 그리  
 八 하면 내종이 낫겠는이다 저도 남의 슈하에 든사람이오 제 아래도 군스가  
 잇스니 이드려 가라 하면 가고 더드려 오라 하면 오코 제 좋드려이거늘  
 九 할라 하면 행하느이다 하니 예수가 드르시고 괴이히녀여 도리키샤 좃는  
 무리의게 날오샤디 내가 너희드려 날노니 이스라엘 중에 혼변도이  
 十 못흔밋음을 맛나 보지못하였노라 하시니 보내엿던사람이 집으로 도라가  
 十一 보매 종이 입의 성하더라 ○ 수일 후에 예수가 나인이란 성에 드러가실시  
 十二 데즈와 허다한 무리가 함씩 행하더니 성문에 갓가히 오실 때에 사람이  
 十三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매 이는 그 어미의 독즈니 어미는 과부라 그 성  
 十四 밧성들이 만히 한가지로 나오거늘 쥬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녀이샤  
 十五 날오샤디 을지말나 하시고 갓가히 오샤 그 상여를 받지시니 맨자가 서는

十六 지라 예수 | 골오샤디 요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라나라 하시니  
 十七 죽엇던자가 못나려안고 또 말하거늘 예수가 그 아들을 어미의게 주신다  
 十八 모든사람이 놀나 영화를 하는 님씩 돌려 보내여 골오디 큰 선지자가 우리  
 十九 가온디 나라 제사다 하고 또 하는 님씩서 이제 밧성을 도라보신다 하더라  
 二十 이 소문이 원 유대와 스방에 두루 퍼지니라 ○ 요한의 데즈들이 이 일을  
 二十一 다 고하니 요한이 데즈들을 불너 쥬씩 보내여 골오디 오실이가 선성님이  
 二十二 오닛가 우리가 다른이를 기드리오릿가 하라 두 사람이 예수씩 나아가  
 二十三 골오디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여 선성 님씩 말하기를 오실이가 선성님  
 二十四 이오닛가 우리가 다른이를 기드리오릿가 하디이다 하니 곳그 시에 예수  
 二十五 가 알는 것과 질병과 악귀들닌 사람을 만히 못치시고 또 만흔 소경을 보게  
 二十六 하신지라 디 답하야 골오샤디 너희는 가서 보고 드론 거스로 요한의게 고하디  
 二十七 소경이 보며 안존방이가 거르며 문둥이가 색긋하며 귀머리가 드르며  
 二十八 죽은이가 살아나며 간난한자의게 복음을 전한다 하라 누구던지 나를  
 二十九 슬허브리지아니하는자는 복이 잇도다 하시더라 ○ 요한의 보내자가 떠난

후에 예수가 무리의게 요한을 가르쳐 말씀하야 글썽디 너희가 무어슬  
 보라고 들에 나갓디냐 바람에 움직이느 갈대냐 또 너희가 무어슬 보라고  
 나갓디냐 아름다운 옷 남은 사람이냐 영화로운 옷 남고 잔치에 호화롭게  
 지내는자는 대궐에 잇는니라 너희가 무어슬 보라고 나갓디냐 선지자냐  
 올라 내가 너희게 낚으노니 이 사람은 선지자보다 나흐니라 이 사람을  
 가르쳐 기록하였스디

예비하시라

볼지어다 내가 내 스자를 네 압해 보내노니 더가 네 길을 네 압해  
 하엿는니라 내가 너희드려 말하노니 너희가 나흔 사람 중에는 요한보다  
 큰이가 업스나 그러나 하는님의 나라에셔는 지극히 적은자라도 더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제리들은 임의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듯고 하는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교인과 교법스는 그 세례를  
 밧지아 나흐지라 스스로 하는님의 뜻을 저버리더라 또 글썽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어스로 비유하고 무엇과 갓흔고 비유컨대 회가 장터

에 안져 서로 불너 글썽디 우리가 너희를 향하야 피리를 불여도 너희가  
 좃추지 안코 우리가 슬픈 소리를 향여도 너희가 울지아나 하엿다 함과  
 갓도다 대개 세례 요한이 와서 썩도 먹지아나 하며 술도 마시지아나 하며  
 너희 말이 샐귀가 들녘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또 말하  
 기를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느 사람이 오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다만 지혜는 지혜 잇는 모든 사람을 인하야 율음을 나타내느니라  
 ○  
 한바리새교인이 예수께 한가지로 잡수시기를 청하느니 드디여 바리새교인의  
 집에 드러가사 잡수실시 그성에 한녀인이 잇스니 죄인이라 바리새교인의  
 집에서 잡수심을 알고 향기로온 기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 뒤에서 발  
 껏헤 서서 눈물을 흘녀 눈물노써 그 발을 적시여 머리털노 씻고 그 발에  
 입을 맛초고 향기로온 기름으로써 부으니 예수를 청하느니 바리새교인이 이  
 거슬 보고 모음에 낚으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더 어로만지는이가  
 누구며 엇더하녀인 곳 죄인인줄을 알앗스리라 하거늘 예수 디 답하야  
 글썽디 시몬아 내가 네게 낚으 말을 잇다 하시니 더가 글썽디 스승이여

말씀하시소서 <sup>四二</sup>골으샤디 빗주는 사람의게 빗진자가 둘이 잇스니 하나는  
<sup>四三</sup>오십량을 젖고 하나는 오십량을 진지라 갑홀 거시 업거늘 둘다 량감하야  
<sup>四四</sup>주었서니 두 사람중에 어느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야  
<sup>四五</sup>골으디 제 생각에는 만히 량감을 받았은자니이다 골으샤디 네 소견이  
<sup>四六</sup>올타하시코 드디여 네인음을 도라보시며 시몬드려 빌너 골으샤디 이녀인을  
<sup>四七</sup>보는나 내가 네집에 드러오매 너는 내발을 썬슬 물을 주지아니하되 오직  
<sup>四八</sup>이녀인은 눈물노써 내발을 적시우고 머리 털노써스며 너는 나를  
<sup>四九</sup>입맛초지아니하되 너는 내가 드러올때로 드러내발을 입맛초기를 굿치지아  
<sup>五〇</sup>나하며 너는 기름으로써 내머리에 붓지아니하되 너는 향기로온 기름  
<sup>五一</sup>으로써 내발에 붓는지라 이런고로 내가 너드려 말하노니 너의 만흔 죄를  
<sup>五二</sup>사하엿스니 이는 그 사랑함이 만홀이 오직 사함을 적게 밧는자는 적게  
<sup>五三</sup>사랑하느니라 이에 네인드려 빌너 골으샤디 네 죄 사함을 엇엇다 하시니  
<sup>五四</sup>흔가지로 먹는자가 서로 말하야 골으디 이 엇던 사람이 완대 죄를 사하느냐  
<sup>五五</sup>하시 예수가 네인드려 빌너 골으샤디 네 밧음이 너를 구원하엿스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sup>一</sup>이후에는 예수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는님의 나라의 복음을  
<sup>二</sup>전파하실적 열두 데즈가 흔가지로 하고 또흔 악귀를 쫓차내시며 병을  
<sup>三</sup>긋쳐주신 두어녀인이 잇스니 곳닐곰샤귀가 나간막달나 마리아와 또흔  
<sup>四</sup>혜롯의 청적이 구사의 안히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녀인이라 너희가  
<sup>五</sup>잇는 저물노써 슈종드더라 ○ 허다흔 무리가 모혀 모든 성으로브러  
<sup>六</sup>예수께 나아오니 비유를 베프러 골으샤디 씨를 썬리는 사람이 그 씨를  
<sup>七</sup>뿌리러 나가서 썬릴적 더러는 길가에 썬러지매 뽕히며 공중애 새가 주어  
<sup>八</sup>먹고 더러는 바회우에 썬러지매 나셔 곳모르는 거슨 출축함이 업슴이오  
<sup>九</sup>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썬러지매 가시가 굿치 자라셔 괴운이 막히고  
<sup>十</sup>또 더러는 옥토에 썬러지매 나셔 결실함이 빅비나 된다 하시고 이 말씀을  
<sup>十一</sup>밧초시며 빌너 골으샤디 귀잇서 드를자는 드를지어다 ○ 데즈가 비유의  
<sup>十二</sup>뜻을 무르니 골으샤디 하느님의 나라의 오묘흔 거슬 너희게는 알게  
<sup>十三</sup>하되 오직 남의게 비유로 베플문 너희가 보아도 보지못하코 드러도 썬듯

1 지못하게 흠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쓰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2 있는자는 말씀을 드른자니 마귀가 곳와서 믿음에 말씀을 빼아서서 더희가  
 3 밋고 구원을 엿지 못하게 흠이오 또 바회우에 있는자는 임의 말씀을 듯고  
 4 곳 깃브게 밋는자니 썩리가 업서 잠간 밋다가 시험을 밋을 때에 비반흠  
 5 이오 가시덤불속에 썩러진 거슨 말씀을 드른자니 가다가 이 제상의 넘어와  
 6 저물과 일락에 괴운이 막혀 온전이 결실치 못함이오 오직 옥도에 있는  
 7 거슨 착하고 도흔 믿음으로써 말씀을 듯고 직히여 인내로 결실하는자  
 8 니라 ○ 사름이 등불을 께서 그릇으로 덮지도 아니하고 평상 아래 놓치도  
 9 아니하고 다만 등경우에 놓하 드러가는자로 하여곰 그 빛출 보게 하는니  
 10 대개 숨은 거시 장춧 나타나지 아니할 거시 업스며 금초인 거시 장춧알고  
 11 밝게 드러나지 아닐 거시 업는니라 그러코로 엿더케 드는 거슬 삼가라  
 12 대개 있는자의게는 주고 업는자의게는 곳잇는 줄노 아는 것치 빼아스  
 13 리라 하시더라 ○ 예수의 모친과 그 동성들이 이르러 사름이 만흠으로  
 14 맛가히 오지 못하니 흑이 고야 곁으되 당신의 모친과 동성들이 밋게

15 서서 보고져 하는 이다 하니 예수 대답하야 곁으샤 되 내 모친과 내 동성  
 16 들은 곳하느님의 말씀을 듯고 행하는 자니라 하시더라 ○ 향로는 데즈와  
 17 혼가지로 비에 오르샤 빌너 곁으샤 되 우리가 호슈 더 현으로 건너가자  
 18 하시고 드되여 썩나매 행할 때에 예수가 잠이 드르셨더니 맛츄 광풍이  
 19 호슈로 나리치매 물이 비에 그득하게 되니 심히 위티흔지라 문도가 나아  
 20 와 썩워 곁으되 선성님이여 선성님이여 우리가 죽겠는 이다 하니 예수가  
 21 잠을 썩샤 바람과 놀을 썩지 지시니 곳곳저 잔잔흔지라 문도드러닐으샤 되  
 22 너희 밋음이 어되 잇는냐 하시니 너희가 놀나고 또 괴이히 녀여 서로 말하되  
 23 더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할 때 순종하는고 하더라 ○ 갈닐니 마즌  
 24 현 거라사 사름의 싸에 니르러 못헤느리시매 그 성에서 살다가 샤귀들을  
 25 들닌자 하니 예수를 맛나니 이 사름이 오래 옷을 닦지 아니하고 집에  
 26 살지 아니하고 다만 무덤에서 사는 자라 예수를 보고 곳 소리질너 그  
 27 압헤 엎드려 큰 소리로 불너 곁으되 지금히 놓흐신하는님의 아 들 예수여  
 28 내가 너와 무슴 상관이 잇는뇨 베게 근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말으쇼셔

三九 흠은 예수가 임의 더러운 귀신을 명함샤 이 사람의게서 나오라 함심이라  
 이 샤귀가 작금이 사람을 붙잡고 잇스니 쇠사슬과 고랑으로써 미여  
 三〇 직히되 못된 거슬 쓴코 샤귀의게 쫓겨 빈들노 나갓더라 예수가 무려  
 三一 골으샤되 네 일홈이 무어시나 하시니 골으되 군되라 하니 대개 들닌  
 샤귀가 만흠이러라 무더함으로드러가라 함지마시기를 무후하더니 맛춤거의  
 三二 만흔 도야지 썰가 산에서 먹거늘 샤귀가 그 도야지의게로 드러가게  
 허락함심을 무후하니 이에 허락함신되 샤귀가 그 사람의게서 나와셔 도야지  
 三三 의게로 드러가니 그 썰가 빛탈노느리다라 호슈에 드러가 몰스함거늘  
 三四 처던자가 이레케된 거슬 보고 다라나 성과 촌에 고하니 여러 사람이  
 무어슬 함였는가 보러 나와셔 예수씨느리니 샤귀들이 나간 사람이 옷을  
 三五 님고 정신이 성함야 예수의 발아래 안즌 거슬 맛나 보고 못두려워함거늘  
 三六 본자가 샤귀 들녘던 사람의 엇더케 성함을 빌으매 거라사 사람의 짜근방  
 三七 모든 빌성이 크게 두려워함으로 떠나시기를 구하되 예수가 비에 올라  
 도라가질새 샤귀가 떠나간 사람이 흠이 잇기를 구하거늘 예수가 보게

三九 골으샤되 집으로 도라가하는님이 내게 엇더케 큰 일함함을 니야기 할라  
 하시니 더가 드되여 가서 예수카 조의를 위함샤 엇더케 큰 일 함신 거슬  
 四〇 원성에 전파하더라 예수가 도라오시매 무리가 영접호니 대개 다기 드림  
 이리라 썰하야이로라 함은 사람이 나아오니 회당 어른이라 예수의 발  
 四一 아래 엽되여 제집에 오시기를 간구함은 제게 열두절 먹은 쌀 하나만  
 四二 잇는디 죽어감이라 예수가 행함실새 무리들이 응위하더라 열두희를  
 四三 혈루증 잇는 녀인의 의원의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함였스되 능히 못치  
 四四 못함였거늘 예수의 뒤를 좃차와셔 그 옷가를 먼저 취하니 혈루증이 즉시  
 四五 곳치라 예수니 골으샤되 나를 문진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모른다 할  
 四六 세에 베드로와 밋호가 저로 잇는자가 골으되 천성님이여 무리들이 응위  
 四七 함야 미는이다 하시니 예수니 골으샤되 나를 문진자가 잇스니 대개 대개셔  
 四八 능력이 나간 거슬 아노라 함신되 녀인이 숨기지 못함함을 알고 션며 나아와  
 엽되여 문진 연교와 다 못엇더케 못나온 거슬 모든 빌성 압헤셔 고하니  
 예수니 빌으샤되 쌀아 네 밋음이 너를 성함게 함였스니 평안히 가라

八九 ㅎ시더라 ○ 맛츨 말슴ㅎ실 때에 회당 어룬의 집에서 누가 와서 말ㅎ되네  
 五〇 ㅅ들이 죽엇스니 스승을 괴롭게 말으쇼셔 ㅎ거늘 예수가 드르시고 글으샤되  
 五二 두러위ㅎ지 말고 오직 밋으라 그리ㅎ면 ㅅ들이 성하게 되리라 ㅎ시고 집에  
 五三 니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제집으회의 부모 외에는 흠씩 드러가  
 五四 기를 허락지 아니ㅎ신지라 무리가 회를 위ㅎ야 다 울며 이 통ㅎ니 예수  
 五五 닐으샤되 울지 마라 죽은 거시 아니라 잔다 ㅎ시니 너희가 그 죽은 거슬  
 五六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가 회의 손을 잡고 불너 글으샤되 회야 니러  
 五七 나라 ㅎ시니 그 령혼이 다시 도라오니 곳 니러나거늘 예수가 먹을 거슬  
 五八 주라 명ㅎ시매 그 부모가 놀나느니라 예수가 경계ㅎ샤 ㅎ혼 일을 사롬의  
 五九 깨 말ㅎ지 말나 ㅎ시니라  
 六〇 예수가 열 두 데즈를 모호샤 모든 샤귀를 제어ㅎ고 병을 곳치는 능력과  
 六一 권제를 주시고 보내샤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ㅎ고 알는 자를 낮게 ㅎ게  
 六二 ㅎ시고 닐으샤되 길에 쓸 거슬 가지 말나 집힘이던지 전디던지 량식  
 六三 이던지 돈이던지 옷 두벌을 가지 말 거시오 어는 집이던지 드러가거든

九

六四 거긔셔 류ㅎ다가 거긔셔 ㅅ나라 누구던지 너희를 디접지 아니ㅎ거든 그  
 六五 성에서 ㅅ날 때에 너희 말에 묻지도 ㅅ러 브러 너희의게 증거를 삼으라  
 六六 ㅎ시니 데즈가 나가 각 촌에 두루 ㅎㅎ야 스방에 복음을 전ㅎ며 병을  
 六七 곳치더라 ○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ㅎㅎ신 모든 일을 듯고 심히 의심ㅎ은  
 六八 ㅎ이 요한이 죽은 가온디셔 살아났다고도 ㅎㅎ ㅎ이 엘니야가 나타났다  
 六九 고도 ㅎㅎ ㅎ이 이전 선지자 ㅎ나 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흠이라 헤롯이  
 七〇 글으되 요한을 내가 목을 버헿거늘 이제 이런 일을 드르니 이 사람이 누구고  
 七一 ㅎ며 미우 보고져ㅎ더라 ○ 스도가 도라와 ㅎㅎ 거슬 예수씩 고ㅎ니  
 七二 다리시고 ㅅ로 베택다 고을에 가계시니 무리들이 알고 곳 ㅅ라가거늘  
 七三 예수가 무리를 접디ㅎ샤 더 브러 하느님의 나라를 강론ㅎ시고 병 곳치기를  
 七四 기드리는 자는 곳치시디니 닐이 저물어가매 열 두 스도가 나와 엿조오디  
 七五 무리를 보내여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자고 먹을 거슬 엿게 ㅎ쇼셔 대개  
 七六 우리 잇는 여긔가 빈들이 니이다 ㅎ니 예수 닐으샤되 너희가 먹을  
 七七 거슬 주어라 ㅎ시니 엿조오디 우리의게 ㅅ 다스덩이와 물고기 두마리



밧게 업스니 만일이 모든 사람을 위하야 먹을 거슬 사지 아니하코는 홀수  
 업습는이다 하니 대개 사나 회가 오천명이나 되는지라 예수가 데즈드려  
 14 날의 사디 떼를 지어 오십명씩 안치라 하시니 데즈가 이리케 힘하야 곳  
 15 다 안치매 예수가 떡 다섯덩이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16 축사하시교 떼여 데즈를 주어 무리 압해 늦게 하시니 먹고 다 비부른지라  
 17 그 남은 부스러기를 주으니 열두 광주리가 되더라 ○ 예수가 홀노기도  
 18 하실시 데즈가 홀가지로 잇더니 예수가 무려 글썽샤디 무리들이나를 누구  
 19 라고 하더냐 하시니 디답하야 글썽샤디 세례 요한이라 하코 더러는 엘니야  
 20 라 하코 또 더러는 이전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살아 낫다 하더이다 하니  
 21 예수니 날의 사디 너희는 나를 뉘라 하는나 베드로가 디답하야 글썽샤  
 22 디는님의 그리스도시나이다 하거늘 경배하샤 이 말을 아모 사람의게도 빌으  
 23 지말나 명하시교 또 글썽샤디 인지가 반드시 고난을 만히 밧고 장로와  
 24 제스제장과 서기관이게 벌림이 되여 죽임을 당하코 셋째 날에 다시 살니라

25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좃치라 대개 누구던지 제 목숨을 구원코져  
 26 하노자는 일흔 거시오 오직 누구던지 나를 위하야 제 목숨을 일노자는  
 27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련하를 엇고도 제 목숨을 일코망하면 무어세  
 28 유익하리오 대개 나와 내 도를 밧그려워하는자는 인지도 지기와 아바치와  
 29 거룩한 연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또 홀반드시 그 사람을 밧그려워하리라  
 30 내가 참으로 너희드려 날의 노니 여의섯는 사람 중에 몇치 하는님의 나라  
 31 홀보기 전에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 이 말씀을 하신 후 거의  
 32 팔일이 되매 예수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다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33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를 변화하시교 그 옷이 희여 광채가 나더라  
 34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홀가지로 말하니 곳 모세와 엘니야라 영광 중에  
 35 나타나서 예수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제할 거슬 말씀하니 베드로와 밧  
 36 홀가지로 잇는자가 곧 하야 조을다가 아조셔여 예수의 영광과 두 사람이  
 37 홀가지로 선 거슬 보더니 밧참그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38 엇조오티 션성님이여 우리가 여의 잇는 거시 뉘스오니 우리가 장막 세슬

누가 구장

이백팔

지어 하나흔 주를 계시게 하고 하나흔 모세를 계시게 하고 하나흔 엘나야  
 를 계시게 하리이다 하되 그의 하나흔 말을 저도 아지 못하더라 이 말할  
 때에 구름이 와서 마리아는 지라 구름 속으로 드러갈 때에 데즈들이 무셔워  
 하더니 소리가 구름 속에서 나서 글으샤디 이는 내 아들이오 내 령할  
 바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드르라 하시거늘 소리가 곳치매 예수가 홀노 계시  
 지라 데즈들이 잠잠하야 저희 모든 본거슬 그 때에는 사람의게 낯으  
 아니하시라 맛춤잇흔 날에 산에 나시니 허다한 무리가 마질석 그 중에  
 혼 사람이 불너 글으디 선성님이여 내 아들을 보아 주시기를 구하노이다  
 이는 내 외아들인디 귀신이 잡으니 홀디에 부르지 지는 지라 몸을 오구러  
 더리고 춤을 홀니게 하며 쉽게 쟈나지도 아니하야 미우 상하게 하노이다  
 데즈의게 쫓차 주기를 구하엿더니 너희가 능히 못하엿노이다 하시거늘  
 예수 디 답하야 글으샤디 믿음의 업고 패역흔 세디여 내가 열마나 너희  
 와 곳치 잇스며 너희를 춤으리 오네 아들을 다리고 오라 하시니 오다가  
 사귀가 엿구러 더리고 심히 오구러치니 예수가 그 더러운 귀신을 쫓지

시고 그 회를 낮게 하샤 그 아버지 도로 주시니 너희가 다 하는님의  
 위임을 놀나더라 너희가 다 그 형하신 모든 일을 귀히 녀알샤 예수가  
 데즈더러 낯으샤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대개 인지를 장차 사람의  
 손에 내여 주리라 하시되 너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함은 그 뜻을 숨겨 쟈  
 지 못하게 함이니 너희가 또 이 말씀을 못기도 두려워하더라 데즈 중에  
 누가 크나 하나흔 변론이 나니 예수가 그 믿음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 회  
 하나를 다려다가 껏헤 두시고 너희더러 낯으샤디 누구던지 내 일함으로  
 이어 린 회를 영접하면 곳을 영접함이니 대개 너희 여럿 중에 마장 적은 자가 곳  
 나 보내신 이를 곳 영접함이니 대개 너희 여럿 중에 마장 적은 자가 곳  
 큰자니라 요한이 엿오디 선성님이여 우리가 보니 하나 사람이 주의  
 일함으로 사귀를 내여 쫓거늘 그가 우리를 쟈르지 아니하냐 연고로 우리가  
 금하엿노이다 하니 예수 글으샤디 금하지 말나 대개 너희를 거역지 아니  
 하는자는 너희를 곳 위하노자라 하시더라 맛춤 예수가 승현하실  
 귀약이 초가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야 가기로 작명하샤 스자를 압호로

누가 구장

이십십

보내시매 너희가 사마리아 혼촌에 드러가서 예비하라 너희 사람이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보고 드리지 아니하는지라 데즈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곧 길의 두 여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좃차 내려 너희를 멸하라 하니기를 원하시는 잇가 하니 예수가 도라보시며  
 부치지사 고함씩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 길에 행할 때에 흑이 엿자와  
 길의 두 여우로 가시던지 저는 좃차리이다 하니 예수가 곧 사탄 여호도  
 굴이 잇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어 잇스되 오직 인자는 머리를 들 곳이  
 업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내려 빌사 탄 나를 좃차라 하시니 그가 곧  
 두 여우를 용납하사 묻져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길의 사탄 죽은 자들은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는 너의  
 나라의 도를 천과하라 하니 또 다른 사람이 곧 두 여우가 좃차 오니  
 다만 나를 용납하사 묻져 도라가 내 집안 사람을 작별케 하소서 하니  
 예수가 빌너 곧 사탄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도라보는 자는 하는 너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十一

이 후에 누가 또 혼별달나 칠십인을 세우고 들식 들식 압호로 보내실서  
 그가 시고져 하는 모든 성과 모든 디방으로 드러가게 하시고 이에 빌사 탄  
 추슈홀 거슨 만흐되 일군이 적으니 그럼으로 추슈홀은 유인의게 구하여  
 일군을 보내여 추슈홀게 하여 주쇼셔 하라 갈져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의  
 양을 일화 가온디 드러 보낸과 못하니 전디와 주머니와 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사람의게 안부를 못지 말며 어느 집에 드러가던지 묻져 말하디 이  
 집이 평안할지이다 하라 만일 디의 평안을 엿을 사람이 잇스면 너희  
 구하는 평안이 디의 잇슬 거시오 그러치 아니면 곧 너희게로 도라가리라  
 그 집에 류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실 거시니 삼군이 그 삭을 엿는 거시  
 맛당하니라 이 집에서 더 집으로 옮기지 말고 어느 성에 드러가던지 너희  
 를 더 접하거든 너희 압해 배픈 것을 먹고 거의 잇는 병든 자를 못치고 또  
 말하기를 하는 너의 나라이 너희게 갓가하 왔다 하라 어느 성에 드러가던지  
 너희를 더 접지 아니하거든 곧 거기리로 나와서 곧 두 여우가 성에 묻져도  
 우리의게 못은 것을 우리가 너희게 썩려 버리나 그러나 너희가 하는 너의

누가십장

이십삼이

나라이 너희게 갓가히 온줄을 알나 하라 내가 너희드려 말하노니 심판날  
 에 서돔도 그 성보다 형벌을 견디기가 쉬우리라 화잇슬진더 고라신이  
 화잇슬진더 벅새다야 너희게서 형훈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형훈  
 었더면 더희가 말셔 뵈웃을 님고 지에 안져 희기하엿스리라 그러나 심판  
 날에 니르러 두로와 시돈의 형벌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가버나움  
 아네가 하늘에 오를듯심흐나 음부에 썩러지게 하리라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곳내 말을 듣는 사람이오 너희를 막는 사람은 곳나를 막는 사람  
 이오 나를 막는 사람은 나 보내신이를 막는 사람이니라 하시더라 ○ 철십  
 인이 깃버 도라와 골으디 주여 주의 일홈으로 사귀도 우리의게 항복하더  
 이다 예수닐으샤디 사단이 하늘노셔 번기 궤쳐 썩러지는 거슬 내가  
 보앗스니 내가 너희게 권을 주어 가히 비암과 전갈을 뵈으며 원슈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게 하리니 너희를 해하게 할자가 결단코 업스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게 항복할 거스로 깃버하지 말고 너희 일홈이 하늘에 기록  
 함으로 깃버하라 하시니라 ○ 이때에 예수가 성신으로 깃버하샤 골으샤디

아바지여 런디의 주지시니 이 일을 지혜 잇고 통달한이의게는 숨기시고  
 어린의회의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오니 을소이다 아바지 보시기에 이  
 거시 합의하니이다 모든 거슬 아바지가 내게 주셨스니 아바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논이가 업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무르천자 외에는  
 아바지가 누군지 아논이가 업노이다 하시고 데즈를 도라보시며 무만히  
 빌으샤디 너희가 보는 거슬 보는 눈은 복이 잇도다 대개 내가 너희게 말  
 하노니 여러 선지자와 님군이 너희 보는바를 보고저하되 보지못하엿스며  
 너희듯는바를 듣고저하되 듣지못하엿스니라 ○ 맛초 었던 교법스가 너러나  
 시험하야 골으디 선성님이여 내가 무어슬 하여야 영성을 얻으리잇가  
 하니 예수닐으샤디 룰법에 기록한바가 무어시며 네가 었더케 너었느냐  
 하시니 디답하야 골으디 네 믿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야 주네 하는님을 사랑하고 썩흔네 리웃을 네 몸과 궤쳐 사랑  
 하라 하엿스니이다 하시니 오직 이 사람이 조그를 올타하고저하야 예수씨  
 형훈죽 살니라 하시니 오직 이 사람이 조그를 올타하고저하야 예수씨

엿즈와 글으 디 누가 내 리웃이 되는 잇가 하니 예수 디 답하야 글으 샤디  
 엿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브티여 리고로 가다가 불한당을 만나 매 그 옷을  
 벗기고 또 싸려려 거의 죽게 하고 브라고 갓는지라 맛츨흔 제사장 이 그 길로  
 느려가다가 보고 그져 지나가고 또 레위 사람도 이와 못치 그 곳에 나르러  
 보고 그져 지나가되 오직 엿던 사마리아 사람은 행하다가 거의 나르러  
 보고 민망히 녀여 압흐로 갓가히 가서 기름과 술노 그 상흔 디를 바로  
 싸미여 그의 등던 짐승을 띠우고 잇선려 유막에 니르러 보아 주고 잇흔날에  
 돈 두량을 내여 유막 주인을 주어 글으 디 이 사람을 도라 보라 또  
 부비가 더 만흐면 내가 도라올 때에 갓흐리라 하였스니 네 뜻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도적 맞난자의 리웃이 되겟느냐 하시디 글으 디 구제하차  
 니이다 하니 예수 니일으 샤디 너도 가서 이 일을 본밧아 행하라 하시  
 니라 ○ 더화가 행할 때에 예수가 흔춘에 드러가시매 마르다라 일흠흔  
 흔녀인이 그 집으로 영접하니 동행 마리아라 하니 이가 잇서 예수 말  
 아 래 안져 하시느 말을 들으고 마르다는 슈종하느 일이 만흠으로 분주호

十一

저라 예수께 나아가 글으 디 유여대 동행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느 거슬  
 청각자 아나하시니 잇가 대를 명하샤 나를 도와주라 하시샤 하니 유가  
 디 답하야 글으 샤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만흔 일노 녀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부족흔 거서 하나히 잇도다 마리아는 이 선흔 직분을 띠고 엿스나  
 배앗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예수 가흔 곳에서 기도하시교 임의 못초시매 데즈 중 하나 이 엿즈 오디  
 유여 요한이 그 데즈의게 기도를 마르쳐 줌과 못치 우리의게도 기도를  
 마르쳐 쇼셔 하니 예수 니일으 샤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러케 하라 야바지여  
 일흠흔 거름하게 응음시며 나라이 렴응음시며 우리의게 날마다 일  
 용흔 양식을 주옵시교 우리 죄를 샤하야 주옵쇼셔 대개 우리도 우리게  
 죄 지은 사람을 다 샤하야 주었스니 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말게 응음쇼셔  
 하라 하시더라 ○ 또 빌으 샤디 너희 중에 혹 벗이 잇는디 내가 밤중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썩새 덩이를 내게 빌니라 대개 내가 벗이 길에서  
 깨워왔스나 내가 떠날 거시 업노라 하면 더가 안에서 디 답하야 니일으 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나 문이 임의 닷쳤고 의회들이 나와 혼가지로 누엇스니  
 8 니러나 네게 줄수가 업노라 하였스니 내가 너희드려 말하노니 비록  
 9 벗으로 인하여서는 니러나 주지 아니하니 그 근절히 구함을 인하여 니러나  
 10 그 쓰라는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드려 빌노니 구하라 또 혼 주실 거시  
 11 오 차자보아라 또 혼 맛날 거시오 문을 두드리라 또 혼 열어 주실 거시  
 12 구하는이 마다 엿을 거시오 차자보는이가 맛날 거시오 문을 두드리는이  
 13 의게 열어 주시리라 너희들중에 아비 된이가 아들이 셔을 달나 하면 들을  
 14 주며 성션을 달나 하면 비암을 주며 알을 달나 하면 전갈을 주겟스나 너희가  
 15 악할지라도 요흔 거스로 조식을 줄줄을 알거든 함몰며 너희던부가 구하  
 16 는이의게 더욱 성신을 주시지 안겟스나 하시더라 예수가 혼 병어리  
 17 샤귀를 쫓치시니 샤귀가 임의 나가 매 병어리가 말하거늘 무리들이 괴이  
 18 히녀이나 더러는 말하기를 더가 샤귀의 왕 바알세뵘을 힘납어 샤귀를  
 19 쫓는다 하고 또 더러는 시험하여 하눌노브러 나타나는 징조를 구하니  
 20 예수가 그 뜻을 알으시고 빌노샤 더나라 마다 스스로 분정하면 멸망할

거시오 집이 스스로 분정하면 문히질 거시오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정하면  
 21 그 나라이 엿지 서리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뵘을 힘납어 샤귀를 쫓는다  
 22 하니 내가 바알세뵘을 힘납어 샤귀를 쫓치면 너희 조데는 누구를 힘납어  
 23 쫓차내겟스나 그런고로 너희가 너희 법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24 하는님의 손을 힘납어 샤귀를 쫓차내엇스면 하는님의 나라이 너희게 림하  
 25 엿스리라 대개 힘센 사람이 갑쥬를 넘고 그 궁을 직현쥬 잇는 거시 다  
 26 무스고되 오직 더 힘센자가 니르러 이기면 곳 그 밋던 갑쥬를 빼앗고 그  
 27 저물을 논호리니 나와 흠씩 아니하는자는 나를 거역하고 나와 흠씩 거두  
 28 지아니하는자는 헛치스니라 더러온 귀신이 임의 사람의게서 나가 물업는  
 29 싸으로 든다가 쉬기를 구하되 엿지 못하고 이에 글으되 내가 나온 집으로  
 30 도라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을 쓸고 슈리하엿거늘 곳가서 전보다  
 31 더욱 악한 귀신닐굽을 다리고 드러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후환이 저보다  
 32 더욱 심하다 하시더라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중에서 혼녀인이 소리를  
 33 질너 글으되 너를 빌 티와 너를 먹인 져이 복이 잇도다 하니 예수가

누가 십일장

이십삼팔

三九 글으샤되 오히려 하는님의 말씀을 듣고 직히는자는 복이 앳다 하시더라  
 三九 무리들이 모혔을 때에 예수가 말씀하시야 글으샤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三九 이적을 구하니 요나의 이적 밧게는 보일 거시 업느니라 대개 요나가 나느웨  
 三九 사람의 배 이적이 됨과 못치 안즈가 썩은 이 세대에 이적이 되리라 심판  
 三九 할제 남방녀왕이 나타나 이 세대 사람을 영회하리니 이는 그녀왕이 썩  
 三九 닳해서 와서 솔노몬의 지혜로운 말을 드름이 어니와 솔노몬보다 더 큰이가  
 三九 여과 잇스며 심판할제 나느웨 사람이 나타나 이 세대 사람을 영회하리니  
 三九 이는 너희가 요나의 전도를 듯고 회개함이 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이가  
 三九 여과 잇느니라 ○ 썩은 사람이 등불을 꺼서 은말한 곳이나 말아래 두는  
 三九 이가 업고 이에 등명우에 노하드러가는자로 하여곰 그 빛출 보게 하는  
 三九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만일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거시오 만일 네  
 三九 눈이 흐리면 온 몸이 어두우리라 그러코로 네 속에 잇는 밧쳐 어두어질가  
 三九 삼가라 네 전신이 밧쳐 잇서 렬섯 만치도 어두은 거시 도모지 업스죽 그  
 三九 밧게 온전동 밧게 온전 동관 불관 못치 너를 밧치리라 하시더라 ○ 예수가

三九 말씀하시실 때에 바리새교인이 잇서 예수께 호가지로 먹기를 청할 때에 예수가  
 三九 드러가샤 잡수시려 하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심을 바리새교인이  
 三九 보고 이상히 여기거늘 유가닐으샤되 너희 바리새교인이 지금 잔과 소반  
 三九 밧글 세긋하시나 너희 속인즉 토석하는 것과 악독할 거시 마드항도다  
 三九 어리석은 자여 밧글 문드신이가 속도 문들지 아니하시더냐 오직 그 안에  
 三九 잇는 거스로써 구제하면 모든 거시 너희게 세긋하리라 ○ 화 잇슬진더 너희  
 三九 바리새교인이여 너희가 밧하와 유향과 모든 처소의 십일도를 드리되  
 三九 오직 공의와 하는님의 사랑은 버린지라 그러나 이 거슨 너희가 맛당히  
 三九 행할 거시오 더 것도 버릴 거슨 아니니라 화 잇슬진더 너희 바리새교인  
 三九 이여 너희가 회당에 놓은 자리와 저저에서 문안 밧는 거슬 깃버하는도다  
 三九 화 잇슬진더 너희여 너희는 평도장한 무덤又如야 그 우를 밧는 사람이  
 三九 아지못하는니라 ○ 훈 교법사가 예수께 답하시야 글으샤되 스승이여 이러케  
 三九 말씀하시니 썩은 우리를 썩지심이로다 하시니 글으샤되 화 잇슬진더 또  
 三九 너희 교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너희가 사람의게 지우되 너희는 혼손가

락으로도 대지안는자로다 화 잇슬진더 너희여 너희가 선지자의 무덤을  
 씻는다 마는 너희 조상이 죽엿도다 이럼으로써 너희가 너희 조상의 혼 일  
 을 증거하야 을케 녀임이니 너희는 선지자를 죽이고 너희는 그 무덤을  
 씻는니라 이럼으로 하는님의 지혜가 널넛스되 내가 선지자와 스도를  
 너희게 보내리니 너희가 더러는 죽이고 핍박하리라 하엿스니 세상 창조함  
 으로브러 모든 선지자의 피를 흘린 죄를 다 이 세티로 담당하게 하되  
 곳 아벨의 피로브러 제단과 성년 스이에서 죽인 스가라의 피까지라 내가  
 진실노 너희게 널은노니 반드시 이 세티로 담당하게 하리라 화 잇슬진더  
 너희 교법스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아셔 너희도 드러가지아니 하교도  
 드러가고져하는자도 막앗는니라 하시다라 ○ 거괴셔나 오실때에 서괴관과  
 바리새 교인들이 심히 되덕하고 겨동하야 여러 가지 일을 말하게 하교  
 그만히 보아 그 입에서 나는 말을 척잡고져 하더라 예수가 묻져 데즈의게 말  
 그 동안에 무리 수만명이 모히여 서로 뵈거늘 예수가 묻져 데즈의게 말

四七

四八

四九

五〇

五一

五二

五三

五四

五五

거슬 드러내지못할 거시 업고 숨은 거슬 아지못할 거시 업는니 이럼으로  
 너희가 어두은 되셔 말할 거시 반드시 밝은 뒤에 들나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할 거시 반드시 집 우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  
 의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할수 업는자를 두려워하  
 지마라 오직 내가 너희의 맛당히 두려워할자를 보이리니 곳 죽인 후에  
 또 홀 디옥에 던지는 권세 잇는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드려 널은노니  
 맛당히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참새 다섯이 돈 두푼에 팔니는 거시 아니냐  
 그러나 하는님은 그 하나도 너져 버리심이 업스시고 곳 너희 머리털도 다  
 헤시는니 그런코로 두려워하지마라 너희가 참새여러 마리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 할 너희드려 말하노니 누구던지 사름 압헤셔 나를 아노라 하면  
 인즈도 하는님의 스자 압헤셔 더를 아노라 할 거시오 누가 사름 압헤셔  
 나를 아지 못하노라 하면 하는님의 스자 압헤셔 더를 아지 못하노라 하리라  
 누구던지 말노인즈를 거역하면 사하시려니와 오직 누가 성신을 웨방하면  
 사하시지아니 하리라 사름이 너희를 잇살고 회당과 정스 잡은이와 권세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누가 십이장

이십이십이

잇논이 압해 니르거든 엇더케 알외며 무어스로 디답호며 무어슬 말할  
 거슬 녀려치말지니 곳<sup>十一</sup> 그 때에 성신이 맛당호게 말할 거슬 너희의게 그르  
 처서리라 호시더라 ○ 무리 중에 호는 사람이 널<sup>十二</sup>으 디 스승이여 내 동침을  
 명호야 유업을 논호게 호쇼셔 하니 널<sup>十三</sup>너 글<sup>十四</sup>으 샤디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 우에 범관과 물건 논호는자로 삼았느냐 호시고 무리드려 널<sup>十五</sup>으 샤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니치라 대개 사람의 사는거시 그 가산이 너너호디  
 잇지아니호니라 호시고 또 비유를 베프러 무리드려 널<sup>十六</sup>너 글<sup>十七</sup>으 샤디 호  
 부자의 밧해 소출이 풍성호매 심중에 생각호야 글<sup>十八</sup>으 디 내가 곡식 싸하들  
 곳이 업스니 엇지호요 호고 또 글<sup>十九</sup>으 디 내가 이러케 호리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케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괴 싸하두리라 호고 또 내가 내 령호  
 의게 널<sup>二十</sup>으 디 령호야 물건이 만하 여러 험쓸 거슬 싸하두엇스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호자 호되 오직 하는님은 널<sup>二十一</sup>으 샤디 어 리셔은자여  
 오늘밤에 네 령호을 도로 차진즉 네 예비호는 거시 뒤 거시 되겟느냐 호섯  
 스니 호의를 위호야 지물을 싸하 부자가 되고 하는님을 위호지아니호호

자가 이와 호호니라 ○ 또 데즈드려 널<sup>二十二</sup>으 샤디 그런고로 내가 너희가 널<sup>二十三</sup>  
 노니 너희 목숨을 위호야 무어슬 먹을까 몸을 위호야 무어슬 입을가 녀려  
 호지말나 목숨이 음식보다 중호고 몸이 의복보다 중호니라 가마귀를  
 생각호라 심으지도아니호고 거두지도아니호며 창도 업고 곡간도 업스되  
 하는님이 가르시는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호지안겟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녀려함으로 목숨을 일각이나 더호겟느냐 너희가 지극히 적은  
 거시로되 오히려 능히 못호거든 호물며 그 높아지야 엇지 녀려호겟느냐  
 비합화가 엇더케 자라는가 생각호야 보아라 슈고도아니호고 길삼도아니  
 호는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게 말호노니 솔노몬의 지극한 영광으로도 너는  
 거시이 셋호나 만호지 못호엿는니라 적게 밋는이들아 오늘 잇다가 리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를도 하는님이 이러케 넘히시거든 호물며 너희싸보냐  
 너희는 무어슬 먹고 무어슬 마실 거슬 구호지말며 또 호은근심호지도 말나  
 대개 이 모든 거슬 세상 비성들이 구호는 거시니 이 거슬 너희 아바지싸서  
 너희 쓸 거신줄을 아시는나라 오직 너희는 그 나라를 구호라 또 호는 이 모든

三三 거슬 너희게 더하시리니 <sup>三三</sup>적은 무리여 무셔위말나 대개 너희 아바지씨서  
 三三 나라를 너희게 주시기를 깃버하시느니라 너희 잇는 거슬 팔아 구제하시야  
 三三 남아 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예비하라 곧 하늘에서 다하시 아니하는 보물  
 三三 이 오거의 도적도 아니 오고 졸도 먹지 아니하는 대개 너희 보물 잇는  
 三三 곳에는 너의 믿음도 쏘흔 잇스리라 ○ 허리에 씨를 씨고 등불을 켜고 잇서  
 三三 사람이 그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도라오기를 기다림과 못치하라 와서  
 三三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줄지니라 <sup>三三</sup>주인이 와서 종이 씨여 잇슴을 보면  
 三三 그 종이 복이 잇스리로다 내가 전설노 너희드려 <sup>三三</sup>닐으노니 <sup>三三</sup>주인이 씨를  
 三三 씨고 종을 자리에 안치고 압혀서 슈종하리라 <sup>三三</sup>혹이 경에 이르거나 <sup>三三</sup>혹삼경  
 三三 에 이르러 종이 이 못치하는 거슬 보면 그 종이 복이 잇스리로다 그러나  
 三三 너희도 아는바니 <sup>三三</sup>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때에 나를 졸 알앗다면 씨여 그  
 三三 집을 쏘치 못하게 하였스리라 <sup>三三</sup>이럼으로 너희도 예비하라 대개 생각지  
 三三 아니할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더라 ○ 베드로가 엿조오되 <sup>三三</sup>유가 이 비유를  
 三三

四二 잇고 진실한 청직이가 되여 그 <sup>四二</sup>주인의게 그 집 사람을 맛하 거느려 씨를  
 四二 씨라 양식을 <sup>四二</sup>눈화줄자가 누구냐 <sup>四二</sup>주인이 나를 때에 그 종이 이러케 함을  
 四二 보면 그 종이 복이 잇스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게 <sup>四二</sup>닐으노니 <sup>四二</sup>주인이 그  
 四二 잇는바를 다 맛기리라 만일 그 종이 믿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sup>四二</sup>주인이 더디  
 四二 오리라 하시야 노비를 씨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다가 <sup>四二</sup>생각지 아난 날과 아자  
 四二 못할 때에 이 <sup>四二</sup>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씨리고 <sup>四二</sup>신실치 아니한 자의 류에  
 四二 처하시니 <sup>四二</sup>주인의 뜻을 알고 도예비치 아니하고 그 <sup>四二</sup>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四二 만히 마즐 거시오 아자 못하고 마즐 일을 행한 <sup>四二</sup>종은 저게 마즈리니 대개  
 四二 내가 불을 때에 던지려 왔노니 내 소원이 <sup>四二</sup>무어신고 불이 <sup>四二</sup>입의 붓혔더면  
 四二 도 흘번 하였도다 내가 <sup>四二</sup>맛당히 <sup>四二</sup>밭을 세례가 잇스니 <sup>四二</sup>밭을 때 썩지 나의 답답  
 四二 흙이 엿더 갖겠느냐 너희는 내가 <sup>四二</sup>화평함을 세상에 베풀너 온 줄 노야느냐  
 四二 내가 너희게 <sup>四二</sup>닐으노니 <sup>四二</sup>아니라 <sup>四二</sup>도로혀 <sup>四二</sup>분정케 하라 함이니 <sup>四二</sup>이 후에는  
 四二 집에 잇는 다섯 사람이 <sup>四二</sup>분정하시 세 사람들이 <sup>四二</sup>치고 둘이 <sup>四二</sup>세슬 치되 <sup>四二</sup>아비가

누가 십이장

이방이 십륙

아들을 치며 아들이 아버지를 치고 어머니가 딸을 치며 딸이 어머니를 치고 식어  
 미가 머는 리를 치며 머는 리가 식어미를 치리라 하시더라 ○ 또 무리드러  
 날으샤 뒤 구름이 서으로브러 내려남을 보고 너희가 말하기를 소낙이가  
 오리라 하시니 과연 그러하고 바람이 남으로 불을 보고 너희가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시니 또 흐르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런디 괴상은  
 분변을 줄을 알고 엿지 능히 이 시되는 분변을 줄을 모르며 또 엿지하야  
 을흔 거스스스로 판단치 아니하시나 내가 너를 송스함이와 함씩 관장의게  
 갈새에 길에서 맞당히 힘을 다하야 모면할지니 너를 법관의게 식을어  
 가고 법관이 너를 관속의게 내어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가 넘려하라 내가  
 너드러 날으노니 호리라도 감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더디셔나 오지 못하  
 리라 하시더라

그 때에 두어 사람이 잇서 갈닐니 사람의 일노 예수께 고하니 이는 빌라도  
 가 그 사람의 피로 제물에 섞근 일이라 디답하야 글으샤 뒤 너희 뜻에 이

三

잇는 줄아는 나 내가 너희게 날으노니 아니라 오직 너희가 만일 회기치  
 아니하면 다 이와 못치 망하리라 전에 실노암에서 탐이 문혀져 처여 죽은  
 열여덟사람이 너희 뜻에는 못예루살렘에 거주사름보다 죄거더 잇는 줄노  
 아느냐 내가 너희게 날으노니 아니라 오직 너희가 만일 회기치 아니하면  
 다 이와 못치 망하리라 하시더라 ○ 이에 비유를 베프러 글으샤 뒤 혼사름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시 잇더니 와서 그 열미를 구하다가  
 엿지 못하리라 과연 적이 드려 날니 글으샤 뒤 내가 삼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엿지 못하니 썩을지라 엿지 썩만 폐하리오 하시  
 디답하야 글으샤 뒤 주인아 을만 또 용납하쇼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만일 실과가 열면 또코 아니 열면 썩으쇼셔 하시더라 ○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더니 한 여인이 귀신들녀 알는지 열여덟이라 품으  
 러져서 능히 퍼지 못하거늘 예수가 보시고 불너 날으샤 뒤 여인이 네가  
 네 병에서 노혔다 하시고 두손을 언저시매 여인이 곳 퍼고하는 님씩 영화  
 를 돌녀 보내는지라 회당 어른이 예수가 안식일에 병 곳치시는 거슬 분내여

四 三 二 一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누가 십삼장

이 백이 십팔

무리드려 날너 글으되 맛당히 일할 날이 옛시가 잇스니 그 동안에 와서  
 15 꾀쳐달나 흘거시오 안식일에는 흘거시 아니라 흥거늘 주디답흥야  
 16 글으샤디 외식흥는쟈여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소나 라귀나 마구에서 푸러  
 내여 잇셀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 흥겠느냐 흥물며 이 너 인은 아브라함의  
 17 자손이어늘 사단의게 미인마가 되지 십팔년이니 안식일에 이 미인거슬  
 푸는 거시 합당치아니냐 예수가 이 말슴을 흥시매 모든 디덕흥는쟈  
 18 들은 붓그려 워흥고 무리들은 그 흥흥시는 모든 영화로운 일을 보고 깃버  
 흥더라 예수가 쏘 글으샤디 하는님의 나라이 무엇과 흥흥며 무어스로  
 19 비유흥고 비견대 겨즈씨 흥알파 흥흥니 사름이 갖다가 제 밧해 던지며  
 20 꽃자라 나무가 되여 공중에 새가 그 가지에 깃드리는니라 흥서교  
 쏘 글으샤디 내가 하는님의 나라를 엿더케 비유흥고 비견대 너인이 누룩을  
 21 가지교 가로서 말속에 너허 누룩이 다 퍼지게 흥는것과 흥흥니라 흥서  
 22 더라 예수가 성과 촌으로 든니시며 마르치실시 예루살렘으로 향흥야  
 흥흥시니 흥이 옛자와 글으되 주여 구원을 엿는쟈가 적으니 잇가 흥거늘

무리의게 날샤디 줄은 문으로 드러가기를 힘쓰라 대개 내가 너희드려  
 23 날노니 드러가기를 구흥여도 못흥는쟈가 만흥니라 집 주인이 나리나  
 24 문을 흥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밧게 서서 문을 두드려 글으되 주여 우리를  
 25 위흥야 열으쇼서 흥면더가 디답흥야 글으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써 오는자  
 26 아지 못흥다 흥리나 너희가 말흥디 우리는 주압해서 먹고 마섯스며 주는  
 27 쏘흥 우리 길거리에서 마르치섯다 흥리나 더가 글으되 내가 너희게  
 28 날노니 너희가 어디로써 오는지 내가 모르노니 흥악흥는 모든쟈들아 나를  
 29 쏘나 가라 흥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쟈가 하는  
 30 나라에 잇고 오직 너희는 밧게 쏘겨난 거슬 불썬에 거괴서 슬피 울고  
 31 나를 갈나라 사름이 동셔남북으로 브터와서 하는님의 나라에 안즈리니  
 32 대개 나 흥잇는쟈가 몬져 될쟈도 잇고 몬져 된쟈가 나 흥될쟈도 잇는니라  
 33 흥시더라 꽃그시로 엿던 바라식교인들이 나르려 날으되 여괴를 쏘나  
 34 나 갈져어다 대개 헤롯이 죽이교져흥는이다 흥니 글으샤디 가서 더 여호  
 35 의게 교흥야 날으되 오늘과 리일 내가 샤귀를 쏘치며 병을 낫게 흥다가

누가 십삼장

이십삼십

三三 데삼일에는 내가 완전하리라 비록 그러나 오늘과 리일과 밋 모레는 내가  
 맛당히 형을 거시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밋게서는 망을자가 업는니라  
 三三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보낸자들을 돌노치는  
 三三 도다 내가 너의 자녀 모호기를 알들이 병아리를 놀지 아래 모호 못치  
 三三 여러번 하랴 되니 너희가 원치 아니하니 너희집이 너희게 러만 남으리라 내  
 三三 가 너희드러 낼노니 너희가 주의 일함으로 오시는이가 복이 잇다 말함  
 三三 때서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三三 맛춤 안식일에 예수가 온 바리새 교장의 집에 드러가샤 잡수실새 무리가  
 三三 었보니 그 압해 교창병든 사람이 잇는지라 예수가 교법스와 바리새 교인  
 三三 의게 빌너 글샤디 안식일에 병 곳쳐주는 거시 합당하냐 아니하냐 하시니  
 三三 무리가 잠잠하거늘 예수가 그 사람을 곳쳐 보내시교 또 무리드러 빌노샤디  
 三三 너희 중에 혹 소나 라귀나 우물에 빠져스면 누가 안식일이라고 곳  
 三三 쓰을어 내지안겠느냐 하시니 너희가 다시 답지 못하더라 ○ 청혼 사람이  
 三三 상화 된함을 보시교 곳그와게 비유를 배프러 글샤디 사람이 나를 혼인

十四

三三 잔치에 청하거든 슈석에 안지말나 너보다 더 높흔 사람을 청하엿스면  
 三三 나와 더 사람을 청하자가 나와 너드려 말하기를 자리를 내여 이 사람  
 三三 의게 주라 할가 녀려하노니 네가 붓그러워 말척으로 가리라 오직 청하  
 三三 때에 가서 말척에 안즈라 또 혼녀를 청하 사람이 나와 내게 빌너 글샤디  
 三三 벗아 올라 안즈라 하면 곳쳐가지로 안즌자 압해 영화가 잇스리라 대개  
 三三 스스로 높히는자 마다 는저지고 스스로 낮초는자 마다 높하지리라 ○  
 三三 또 즈그를 청하자의게 빌노샤디 네가 덤심이나 저녀이나 배플거든 벗과  
 三三 동성과 친척과 부흔 리웃을 청하지말나 그 사람이 또 디신녀를 청하리니  
 三三 네가 갑함을 밋을가 녀려하라 오직 잔치를 비설을 때에 간난한자와 병신과  
 三三 저는자와 소경을 청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잇스리니 대개 너희가 능히  
 三三 갑지 못하교 의인이 부활할 때에 내가 갑함을 밋으리라 하시더라 ○  
 三三 흠씩 먹는 사람 중에 하나 이 말을 듯고 빌노샤디 하는님의 나라에서 썩을  
 三三 먹는이가 복이 잇도다 하시니 빌노샤디 혹이 큰 잔치를 비설할 때 청하자가  
 三三 만흔지라 잔치할 때에 종을 보내여 청하이의게 고하야 글샤디 오쇼셔

누가 십사장

이백삼십이

八 비물을 다 못 초앗는이다 할거늘 다 일제히 스양하니 나는 글은디 나는  
 九 밧출 샷스매 불가불 가보야 할겟스니 청컨대 내가 스양하는이다 할고  
 十 또 나는 글은디 나는 소다섯 거리를 샷스매 가서 시험코져하니 청컨대  
 十一 내가 스양하는이다 할고 또 나는 글은디 나는 창가드러스니 가지못  
 十二 할겟는이다 할거늘 그종이 도라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그집 주인이  
 十三 드디여 노하야 그종의게 날은디 쉼니가 성중에 거리와 골목에 잇는간난  
 十四 할자와 병든자와 소경과 저는자를 다려오라 할디라 종이 글은디 주인  
 十五 이여 명하신대로 할엿스되 오히려 늙은자리가 잇는이다 할거늘 주인이  
 十六 좋드려 날은디 나가서 길과 산을가에 든니며 사람을 강권하야 다려다가  
 十七 내 짐을 치우라 대개 너희드려 말하노니 전에 청한 사람은 하나도내  
 十八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 허다한 무리가 할가지로 흥홀서  
 十九 예수가 도리키샤 날은샤디 무릇내게 오는 사람은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二十 지미와 밋즈의 목숨보다 나를더 사랑치아니하면 능히 나의데즈가 되지  
 二十一 못하교 누구던지 제 십사장을 지고 나를 좃지안는자는 또한 능히 나의

壹

二 데즈가 되지 못하리니 대개 너희 중에 누가 답을 세우고져 할진대 묻져  
 三 안져 그 쓸거시 일우기에 족할년지예 산하지아니 할겟는나 그러를 잡고  
 四 능히 일우지 못하면 보는자가 다우셔 글은디 이 사람이 역스를 시작하교  
 五 능히 일우지 못하다 할가 녀려하노라 또 너는 님군이 다른 님군이로더 브러  
 六 싸흠하러 갈 때에 묻져 안져 능히 일만으로써 이만을가지고 오는자를  
 七 디덕할가의 론치아니 할겟는나 그리치아니 하면더가 아직 멀니 잇슬 때에  
 八 스신을 보내여 화천을 청하리니 이와 못치 너희 중에 누구던지 잇는바를  
 九 다 버리지아니 하면 능히 내 데즈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도커니와 그  
 十 맛을 일헛스면 엿지써다시 짜게 하리오 밧해도 쓸디 업고 거름에도 쓸디  
 十一 업고 오직 버릴지니 귀가 잇서 드를차는 드를지어다 하시더라  
 十二 모든 제리와 죄인이 말숨을 드르러 갓가히 나아오니 바리새교인과  
 十三 서기관들이 원망하야 글은디 이 사람이 죄인을 디접하교 음식을 못치  
 十四 먹는다 할디라 ○ 예수가 너희게이 비유로써 날은샤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十五 양 일빅마리 중에 하나를 일호면 아흔아홉마리를 들에 두고 그 일흔 거슬

누가 심오장

이벽삼십사

五 ㅅ라 찻도록 아니 하겠느냐 ㅅ라 차 존즉 즐거워 엇기에 메고 집에 니르러  
 그 벗과 리웃을 모호고 티하야 말하디 나와 ㅅ치 즐기자 내가 일흔 양을  
 八 차졌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드려 닐노니 이와 ㅅ치 죄인 하나이 회기  
 七 하면 하늘에서 깃버하기를 회기할 것업는 아흔 아홉의 인을 인하야 깃버  
 九 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 어느 녀인이 은돈 열립에서 하나를 일흐면 불을  
 十 켜며 집을 쓸며 엇도록 부즈런히 찾지 아니 하겠느냐 ㅅ라 차 존즉 벗과 리웃  
 을 불너 모호고 말하디 나와 ㅅ치 즐기자 일흔 돈을 차졌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드려 닐노니 이와 ㅅ치 죄인 하나이 회기하면 하는님의 스자 압해  
 十一 깃봄이 되리라 하시더라 ○ ㅅ라 글으샤디 엇던 사람이 두 아들이 잇는디  
 十二 그 말재 아들이 아비게 말하야 글으디 아바지여 산업을 논화 주엇더니 그 후 몇철이  
 十三 엇을 거슬 내게 주쇼셔 하거늘 아비가 산업을 논화 주엇더니 그 후 몇철이  
 十四 못되여 말재 아들이 저을을 다 모화 가지고 멀리 다른 디방에 가 놀며  
 十五 거괴서 허랑방탕하야 그 산업을 허비하야 다 업시 하엿더니 그 ㅅ에 크게  
 흉년이 든지라 비로소 궁핍하매 곳그 디방을 백성의게 가서 분쳐 사니

十六 들노 보내여 도야지를 치라 하엿는디 먹이는 사람이 업스매 도야지 먹는  
 十七 팻쌈질노 충복하 고져하다가 ㅅ라 글으디 내 부친의 품군이 만코그  
 十八 량식이 너너하야 넘으되 나는 주려 죽겟도다 내가 니러나서 부친씩  
 十九 도라가 닐기를 부친이여 내가 하늘과 부친씩 죄를 엇엇스매 지금브러는  
 二十 감히 아들이라 닐겠지 못하리니 나를 품군에 하나으로 보쇼셔 하리라 하고  
 二十一 이에 니러나서 부친씩 도라갈식 상거가 오히려 머나 부친이 보고 이에  
 二十二 측은히녀여 다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맛초니 아들이 닐으디 부친이여 내가  
 二十三 하늘과 부친씩 죄를 엇엇스니 지금브러는 감히 아들이라 닐겠지 못하겟  
 二十四 는이다 하니 부친이 모든 종의게 명하야 데일도 혼 옷을 내여다가 닐히고  
 二十五 손에 가락지를 새우고 신을 신기고 ㅅ라 살진 송아지를 쓰을어다가 잡으라  
 二十六 우리가 먹고 즐길지니 대개 내 아들은 죽엇다가 다시 살아났스며 일헛다가  
 二十七 다시 엇엇노라 하매 무리가 흠씩 즐기더니 맛아들이 밧헤 잇다가 도라  
 와 집에 갓가히 올시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듯고 혼 종을 불너 이 무슴  
 ㅅ독인가 무른디 디답하디 네 동성이 도라왔스매 부친이 그 병 업시 성호

누가 심오장

三六 몸으로 맛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는이다 하니 곳 노하여 드러  
 三九 가기를 즐겨아니 할거늘 부친이 나와서 권하되 부친의 말하여 글으되 내가  
 三二 여러 희를 섬기매 명을 어필이 업스되 염소 삼기 하나를 내게 주샤 나와  
 三三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거시 한 번도 업더니 오직 이 아들은 의입힘으로  
 三二 부친의 산업을 다 허미하였거늘 더가 나르매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는이다  
 三三 하니 부친이 닐으되 아들이 너는 홍상나와 혼가지로 잇섯스니 내게 잇는  
 三三 거시 다 네 거시로되 오직 네 동성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스며 일헛다가  
 三三 또 혼엇거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깃버하노거시 맛당하다 하더라  
 三三 또 혼 데즈드려 닐으샤 되었던 부자의게 청적이 가 잇스니 누가 쥬인의게  
 三三 고하되 쥬인의 산업을 허비하였다 하거늘 이에 불너 글으되 내가 이 말을  
 三三 드렸스니 엇짐이뇨 네 보던 일을 세뎡라 다시 청적이 가 되지 못하리라  
 三三 하니 청적이 가속으로 칭각하되 내 쥬인이 내 직분을 빼아스니 내가 무어슬  
 三三 할리오 싸를 파자니 힘이 업고 빌어 먹자니 붓그러온지라 내가 엇더케  
 三三 할지 슬장명호호나 직분을 빼앗긴 후에 너희들이 나를 집에 되접하케

六

三三 ㅎ리라 하고 드되여 쥬인의 빚진자를 낫낫치 불너와 문져 온자의게 닐너  
 三三 글으되 네가 우리 쥬인의게 얼마나 졌는뇨 하니 말하되 기름 빚말이라 하니  
 三三 글으되 네 문서를 가지고 썰니 안져 오십말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이 드려  
 三三 닐으되 너는 얼마나 졌는뇨 하니 글으되 밀 빚말이라 하니 너는 닐으되 네  
 三三 문서를 가지고 팔십말이라 쓰라 하니 쥬인이 이 올치 아닌 청적이 가 지혜  
 三三 잇게 일을 험함으로 칭찬하였스니 대개 이 세상 사람이 이 세대에 잇서서는  
 三三 광명흔 사람보다 더 지혜 잇는 나라 내가 너희게 말하노니 불의의 저물노  
 三三 천구를 파괴라 업서질 때에는 너희가 영원흔 집에 너희를 되접하리라  
 三三 지극히 적은 되 총성 잇는자는 큰 되도 총성이 잇고 지극히 적은 되  
 三三 불의흔자는 큰 되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의 저물노 총성치아니면  
 三三 누가 총된거스로 너희게 맞기리오 만일 너희가 남의 거세 총성치아니하면  
 三三 누가 너희의 거슬 너희의게 주겠느냐 짐하인이 두 쥬인을 섬기지 못하  
 三三 거시니 후이를 뉘워하며 더를 사랑하거나 후이를 중히 녀이며 더를  
 三三 경히 녀이리니 너희가 능히 하느니라



누가 십육장

이십삼십팔

14 바리새 교인들은 돈을 도화하는 자라 이 모든 말들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  
 15 닐샤 너희가 사름 압헤서 스스로 올타하나 오직 너희 마음은 하는 님이셔  
 16 아시는니 대개 사름이 높히는바는 하는 님의 위위하시는바니라 룰법과  
 17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 니른지라 그 후에 하는 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니  
 18 사름마다 힘써 드러가느니라 텨디가 업서집이 법에 혼획 업서집보다 더  
 19 쉬으리라 무릇 그 안히를 버리고 다른 디 장가 드는 자도 간음을 범함이니라 하시더라 ○ 혼 부자가  
 20 무릇 브렌이의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을 범함이니라 하시더라 ○ 혼 부자가  
 21 잇서 홍포와 교흔 뵈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히 연락하고 쏘 혼 거지가  
 22 잇스니 일흠은 라사로 라원 몸에 헌디가 잇거늘 부자의 문에 두어 부자의  
 23 상에서 썩러 지는 부스럭이로 비불니려 하더니 개도 와서 그 헌디를 핥는지라  
 24 맛춤 거지가 죽거늘 텨디스가 밧드려 아브라함 품에 두고 부자도 쏘 혼 죽어  
 25 장스스매 음부에 잇서 고통을 썩에 눈을 드러 멀니 아브라함과 그 품에  
 26 잇는 라사로를 보고 불너 글으디 아바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이 녀어  
 27 라사로를 보내여 손가락 핏헤 물을 짜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쇼셔 대개

눅

2 내가 불췌가온디 잇서 괴로움이 심하니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글으디  
 3 아들이 너는 살았슬 썩에 네 요흔 거슬 밧았고 라사로는 어려움을 밧았스나  
 4 이거슬 괴역하라 이제 더는 위로함을 엇고 너는 교난을 밧느니라 다못  
 5 이뿐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굴형으로 한덩하야 여괴셔 너희가  
 6 언더가고져하되 능히 못하고 더괴셔 우리게 언더오고져하되 능히 못하니라  
 7 글으디 그러하면 구하노니 아바지여 라사로를 내 부친의 집에 보내쇼셔  
 8 내형대 다스이 잇스니 너희게 증거 하게 하야 너희로 하여곰이 고통하는  
 9 곳에 오가를 면케 하쇼셔 하거늘 아브라함이 글으디 너희게 모세와  
 10 선지자가 잇스니 드를지니라 하니 글으디 그러치아니하니이다 아바지  
 11 아브라함이여 만일 사름이 죽은 가온디셔 나와셔 너희게 가면 너희가  
 12 회기하리이다 하니 글으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듯지아니하면 비록  
 13 사름이 죽은 가온디셔 살아날지라도 권함을 밧지아니하니라 하시더라  
 14 예수가 데즈드려 닐샤 디 범죄케 하는 거시 업슬 수는 업스나 오직 범죄  
 15 게 하는 자는 화를 밧으리라 이적은 자 중에 하나를 범죄케 할진대 출하리

누가 십칠장

이백사십

돌매를 그 목에 미고 바다에 던지는 거시 나으리니 맛당히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든 책망하고 회개하거나 든 사하라 만일  
 호로닐곱번에게 죄를 엮고닐곱번도리켜 너를 향하여 굴으되 내가 회개  
 하였다 하였거든 너는 곳 사하라 하시더라 ○ 스도가 유색 엮조오되 우리  
 밋음을 더하게 하였사 하니 유가 굴으샤 되 너희 밋음이 거저싸 할알 만콤  
 잇섯더면 곳이 쌓나 무를 명하여 색리를 빼여 바다에 심기라 할지라도 너희  
 말을 순종하였스리라 너희들 중에 누가 종이 잇서 그 종이 밋출 같고 후  
 양을 기르다가 밋혀서 도라오면 명하여 곳 와서 안져 먹으라 하였느냐  
 잇지 명하여 내 먹을 거슬 예비하고 색를 띄고 나를 섬기다가 내가 먹고  
 마신 후에 내가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 하였느냐 종이 명하되 대로 행할 거슬  
 사레 하겠느냐 이와 같지 너희게 명할 거슬 너희가 다 행하되 곳닐으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 라 맛당히 행할 거슬 행하였다 할 거시니라 하시더라 ○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니가 온도로 지나실새  
 열둘이 드러가서나 문동병은자 열명이 예수를 맛나 말나 서서 소리를

높혀 굴으되 예수 선성님이여 우리를 긍휼이 녀이 쇼셔 하니 보시고 굴으  
 사다가서 재스장의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너희가 가다가 곳 색곳을  
 지라 그 중에 하나이 그 나음을 세우고 도라와 크게 소리하여 영화를  
 하는 님씩 돌려 보내고 예수 말아래 엮되 사레 하나 디는 사마리아 사람  
 이라 예수 말삼하여 굴으샤 되 열 사람이 다 색곳하여 저지 아니 하였느냐  
 그 아흠은 어티 잇느냐 이 이방 사람의 예는 도라와 영화를 하는 님씩 돌려  
 보내는 자가 엮느냐 하시고 곳 그 사람 드러닐으샤 되 니러나 도라가라 네  
 밋음이 임의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 바리새 교인이 하는 님 나라  
 이어는 때에 림호 오릿가 못거늘 예수 디 답하여 굴으샤 되 하는 님 나라  
 이 림흠은 볼 수 엮고 여긔 잇다 더긔 잇다 못하리니 대개 하는 님의 나라  
 이 너희 안에 잇느냐라 하시더라 ○ 또 데즈드려 님으샤 되 색가 니르니  
 너희가 인조의 날하나를 보고 저하되 보지 못하리라 후이 너희게 말하여  
 굴으되 보라 더긔 잇다 보라 여긔 잇다 하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좃지도  
 말나 대개 번개가 하늘 아래 이 곳에 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더 곳서 지 밋최

누가 심철장

이릭스십이

三三 三二 三十一 三〇 二九 二八 二七 二六 二五 二四 二三 二二 二一 二〇 一九 一八 一七 一六 一五 一四 一三 一二 一一 一〇 〇九 〇八 〇七 〇六 〇五 〇四 〇三 〇二 〇一  
 너니 인즈가 니르느 날에 또호 이와 又호리라 그러나 몬져 고난을 만히  
 밋아 이세티에 브린바 될지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又치 인즈의 때에 또호  
 그러호리라 노아가 방류에 오르는 날까지 사룸이 먹고 마시고 식집가고  
 장가가더니 홍슈가 니르러 다 멸호엿고 또 룯의 때와 又호니 사룸이 먹고  
 마시고 사교 팔고 심으고 집을 짓다가 룯이 서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눌노  
 브터 불과 류황이 비 오듯하야 멸호엿스니 인즈가 나타나느 날에 또호  
 이와 又호리라 그 날에 짐웅우에 잇는자는 세간이 집에 잇서도 느려와  
 취호지 말며 밋해 잇는자도 도라오지 말료 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누구던지  
 그 목숨을 구호고져호는자는 일호를 거시오 오직 그 목숨을 일호고져호는자는  
 보전호리라 내가 너희드려 날노니 그 밤에 두 사룸이 호 자리에 누엇  
 는티 호나는 다려가고 호나는 브려두리라 호시니 무리가 엿저와 글으디 주여 어디  
 오닛가 디답하야 글으샤티 죽엄 잇는 곳에는 독슈리가 모히느니라 호시  
 디라

六

三三 三二 三十一 三〇 二九 二八 二七 二六 二五 二四 二三 二二 二一 二〇 一九 一八 一七 一六 一五 一四 一三 一二 一一 一〇 〇九 〇八 〇七 〇六 〇五 〇四 〇三 〇二 〇一  
 사룸들노 호여곰 호상 괴도호고 게으르지 말나 호야 또 비유를 베프샤  
 글으샤티 엿던성에 호 법관이 잇서 하는님을 두려워아니호고 사룸의게  
 무례호더니 그 성에 호 과부가 잇서 자조와셔 글으디 내원슈를 갑하주쇼셔  
 호되 오래 허락지아니호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호디 내가 비록 하는님을  
 두려워호지아니호고 사룸의게 레를아니호나 다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호게  
 호니 내가 반드시 그 원슈를 갑하줄 거슨 늘와셔 내게 괴롭게 호가  
 두려워함이로다 주가 또 글으샤티 불의호 법관의 말을 드르라 호물며  
 하는님씩셔 그 덕호신자들이 밤낮 비는디 비록 오래 참으시나 못참내  
 갑하주지아니호시겟느냐 내가 너희드려 날노니 속히 갑하주시리라  
 비록 그러나 인즈가 나를 때에 세상에 밋는 거슬 보겟느냐 호시더라  
 스스로 밋어 더히가 올흔줄 알고 다른 사룸을 다 멸시호는자의게 이 비유를  
 베퍼 글으샤티 두 사룸이 성면에 올라가 괴도호시 호나는 바리시교인이오  
 호나는 세리라 바리시교인이 서셔 스스로 괴도호야 글으디 하는님이여  
 내가 감사호옵기는 나는 다른 사룸과 又치 도적호고 불의호고 음란호지

三 아나 하고 또 하니 세리와 못지도 아니함이니이다 나는 날헤에 두번식  
 三 금식하고 또 었는 거세 십일도를 드리느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三 감히 눈을 드러 하늘을 우러러 보지못하고 다만 가슴을 쳐 글으되  
 三 하느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여이쇼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내가  
 三 너희드려 날노니 이 사람은 더보다 의롭다 함심을 었어 집에 도라가느니라  
 三 대개 저의를 높히 는자는 반드시 저질 거시오 저의를 높초는자는  
 三 높하지리라 하시더라 ○ 사름들이 너희어린 회를 다리고 예수씨 나아와  
 三 묻지시게 할려하니 데즈가 보고 썩짓거늘 예수가 불너다가 날샤디  
 三 어련 회가 내게 오는 거슬 용납하고 금하지말나 대개 하는님 나라에  
 三 잇는자가 이와 못하니라 내가 진실노 너희게 날노니 누구던지 하는님  
 三 나라 받들기를 이어 린 회와 못치 받들지안는자는 결단코 드러가지  
 三 못하리라 하시더라 ○ 었던 법관이 무려 글으되 착훈 선성님이여 제가  
 三 무슨 일을 할여야 영성을 었으리잇가 하니 예수 날샤디 네가 었지 할야  
 三 나를 착훈야 할것은냐 하는님 회에는 착훈이가 하나도 업느니라 제가

三 계명을 아느니 간음하지말며 살인하지말며 도적질 말며 거짓 증거 말며  
 三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느니라 었조오디 이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三 직히었는이다 하시늘 예수가 이 말을 드르시고 날샤디 내가 오히려  
 三 혼가지 부족함이 잇스니 잇는 거슬 다 팔아 간난한자의게 은화주라  
 三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잇슬 거시오 또 와서 나를 좃치라 하시니 그  
 三 사름이 이 말씀을 듯고 심히 근심함은 큰 부자인연고라 예수가 보시고  
 三 곳골샤디 저물이 잇는자는 하는님의나라에 드러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三 약디가 바늘구멍으로 드러가는 거시 부자가 하는님의나라에 드러가는것  
 三 보다 쉬우리라 하시디 뜻는자가 글으되 그런즉 누가 능히 구원을 었으리잇가  
 三 하니 글샤디 사름의게는 능치못할 거시 하는님씨는 능하시니라 하시니  
 三 베드로가 었조오디 보옵쇼셔 우리가 우리 잇는 거슬 버리고 쥬를 좃찬는이다  
 三 하니 날샤디 내가 진실노 너희게 날노니 하는님의 나라를 위하야  
 三 집이나 처나 형제나 부모나 저녀를 떠난자는 금세에도 여러 비를 었고  
 三 후세에도 영성을 었지못할자가 업느니라 하시더라 ○ 예수가 열두 데즈를

다리시고 날으샤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선지자로 기록한 바가 다 인조의게 응하니 장차 인조를 이방 사람의게 잡아준즉 너희가 희롱하고 풍욕하고 춤비웃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거시니 삼일만에 다시 살어나리라 하시되 그 데즈가 이 말을 하나도 서듯 못하니 그 말씀을 은밀하야 너희가 그 날은 신바를 아지 못하더라 ○ 예리고에 갓가히 오실 때에 혼 소경이 길가에 안져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듯고 그 연고를 무른뒤 너희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불너 콜으되 다윗의 조손 예수여 저를 긍휼히 녀이쇼셔 하시거늘 압서가는 자가 썩지져 잠잠하라 조손 예수여 저를 긍휼히 녀이쇼셔 하시거늘 다윗의 조손이여 나를 긍휼히 하되 더가 더욱 심히 소리질너 콜으되 오라 하시니 갓가히 오매 녀이쇼셔 예수가 머물너 서서 명하야 다려 오라 하시니 쥬여 보게 무려 콜으샤되 네가 나드려 무어슬 하야 달나느냐 콜으되 쥬여 보게 하야 주쇼셔 예수 닐으샤되 곳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성하게 하였다 하시니 곳보고 하는 닐외 영화를 돌녀 보내며 예수를 좃치니 모든 백성이 이 거슬 보고 하는 닐을 찬양하더라

九

예수가 예리고로 드러가 지나가실적 삭개오라 일흠 흥는자가 잇서 세리장이 오또흔 부흔지라 예수가 었더흔 사람인가 보고져 하되 귀가 적고 사람이 만하 볼수 업서 압호로 나아가 썩나 무에 올라가셔 보라 흥은 예수가 그리로 지나가심이라 예수가 그 곳에 니르샤 우러러 보시고 닐으샤되 삭개오야 속히 느러오라 내가 오늘네 집에 머물너야 하겟다 하시니 급히 느러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원망하야 콜으되 더가 죄인의게 가서 류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쥬외 었조오되 쥬여 보시옵쇼셔 내가 잇는 거세 반을 간난한자의게 주고 또흔 혹 뉘 거슬 도석하엿스면 스비나 갑겟는이다 하니 예수 닐으샤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니르럭스니 대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조손이 됴이로다 인조가 일허버린자를 차자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더라 ○ 너희가 이 말씀을 드를제 예수가 예루살렘에 갓가 오시고 못 사람의 뜻에 하는 닐나라이 곳나타날줄노 아노고로 예수가 비유를 베프러 콜으샤되 었던 귀인이 먼디 방에 가서 나라 봉음을 밧고 도라오려하야 그 종 열을 불너 은 열근을 주며 닐으되 내가 도라오기 석지

누가 십구장

이릭스십팔

14 장스하라호지라 그 나라 백성은 위위하야 스자를 뒤으로 보내여 글으되  
 15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게 왕 노릇함을 슬허하노라 하니 봉음을 맞고  
 16 도라와 온 준종을 불러다가 장스하야 얼마나 남겼는지 알고져하니 그첫재가  
 17 니르러 글으되 주인이여 주인의 은 혼근으로 열근을 더 남겼는이다  
 18 주인이 닐으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적은 거세 충성하니 열근  
 19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니르러 글으되 주인이여 주인의 은 혼근  
 20 이 닷근이 되었는이다 하니 주인이 닐으되 너도 또한 다스 고을을 차지  
 21 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니르러 글으되 주인이여 보쇼셔 주인의 은 혼근  
 22 이여과 잇스니 내가 슈건으로 싸 두었는이다 대개 내가 주인을 무셔워  
 23 하느거든 업한 사람이라 두지아닌 거슬 취하고 심으지아닌 거슬  
 24 니이다 하거늘 주인이 닐으되 악한 종이여 내가 네 말노 너를 판단하노니  
 25 네가 나를 업한 사람이라 하야 두지아닌 거슬 취하고 심으지아닌 거슬  
 26 거두는줄을 알았슬진대 엇지 내 은을 은행소에 두어 내가 올때에 그 변리  
 27 자를 명하야 가지게 아니하였는나 드되여 것헤 섰는이를 명하야 그 혼근

28 을 빼아셔 열근 잇는자의게 주라 하니 너희가 글으되 주인이여 너의게  
 29 임의 열근이 잇는이다 하니 주인이 글으되 내가 너희드려 말하노니 무릇  
 30 잇는자의게는 주고 오직 업는자의게는 잇는 것도 빼아슬 거시오 나의  
 31 원슈가 되여 나의 왕 노릇함을 슬허하던 너희를 스을어 내 압헤서 죽이라  
 32 하니라 하시더라 예수가 말씀을 못초시고 압흐로 행하샤 예루살렘으로  
 33 올라가실시 맞춤 감람산이라 하는 산에 잇는 벳바게와 벳아니에 갓가히  
 34 가샤 두 데즈를 보내시며 닐으샤 너희 압헤 보이는 마을에 가서 드러갈  
 35 때에 막인라귀 삭기를 만나리니 아직 아작아모도 듣 사람이 업스리라 풀어  
 36 스을고 오니라 만일 누가 엇지하야 푸느냐 못거든 되답하기를 쥬씩셔  
 37 쓰신다하라하시며 보내신자가 가서 과연 말씀하신대로 맞난지라 라귀를  
 38 풀때에 그 님자가 닐으되 라귀를 엇지하야 푸느냐 하거늘 되답하되 쥬씩  
 39 셔 쓰시갓다 하고 스을고 예수씩나아와 저희 옷을 라귀 우에 낫코 예수를  
 40 티우니 행하실 때에 너희가 제 옷을 길에 퍼더라 임의 예루살렘에 갓가히  
 41 니르러 감람산에서 내려가실시 모든 데즈의 무리가 모든 권능을 본코로

누가 십구장

이 빅오십

三六 깃버하야 큰 소리로 하는님을 찬양하야 <sup>三六</sup>글으되 주의 일흠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잇도다 하늘에서 화평함이 잇고 지구히 높흔 티 영화가 잇슬지  
 三九 어다 하니 무리 중에 바리새 교인 두어 사람이 엿조오되 <sup>三九</sup>선성이여 데즈를  
 四〇 칭망하쇼셔 하니 <sup>四〇</sup>티답하야 <sup>四〇</sup>글으샤되 내가 너희게 말하노니 만일이  
 四一 사름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sup>四一</sup>하시더라 <sup>四一</sup>갓가히 와서 성을  
 四二 보고 울며 <sup>四二</sup>글으샤되 이제라도 내가 평안한 일을 알앗더면 다히하러  
 四三 나와 오직 네 눈에 숨겼스니 <sup>四三</sup>날이 장축 니를지라 네 원슈도 도성을 싹코  
 四四 너를 들너 스면으로 에워싸고 <sup>四四</sup>또 나와 밋그 가온디 잇는 조식을 싸에  
 四五 내여 던지며 <sup>四五</sup>돌 하나도 돌우에 텨노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하시는  
 四六 날을 <sup>四六</sup>네가 아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sup>四六</sup>성년예 드러가샤 매미는 자를 쫓치  
 四七 시며 <sup>四七</sup>닐으샤되 기록하였스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스나 오직  
 四八 너희는 <sup>四八</sup>강도의 굴혈을 문드렷다 하시더라 <sup>四八</sup>예수가 날 마다 성년에서  
 四九 나르치시니 <sup>四九</sup>제스제장과 서기관과 빅성 중 두목이 썩하야 죽이 고져하되

누

一 호로는 예수가 성년에서 빅성을 나르치 복음을 전하실시 제스제장과  
 二 서기관들이 장로와 나치 나와 말하야 <sup>二</sup>글으되 네가 무승권제로 이 일을  
 三 행하며 이 권세를 준이가 누구인가 우리의게 말하라 <sup>三</sup>티답하야 <sup>三</sup>글으샤되  
 四 나도 <sup>四</sup>흔말을 너희게 무르리니 내게 고하라 <sup>四</sup>요한의 제례가 하늘노 좃차  
 五 왔느냐 사름으로 좃차 왔느냐 하시되 <sup>五</sup>더희가 서로의론하야 <sup>五</sup>글으되 하늘노  
 六 좃차 왔다 하면 엿지 더를 밋지 안느냐 <sup>六</sup>할거시오 사름으로 좃차 왔다 하면  
 七 모든 빅성이 돌노 우리를 철거시니 <sup>七</sup>대개 빅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국케  
 八 밋음이라 하고 어되로 좃차 온지 아지 못하도 <sup>八</sup>티답하니 예수ㅣ <sup>八</sup>닐으샤되  
 九 나도 무승 권제로 이 일 행함을 너희게 <sup>九</sup>닐으지아나하리라 하시더라 <sup>九</sup>  
 一〇 이 비유로 무리의게 <sup>一〇</sup>말씀하샤되 <sup>一〇</sup>흔 사름이 포도원을 문드러 농부의게  
 一一 제로 주고 이에 타국에 가서 <sup>一一</sup>오래 잇다가 <sup>一一</sup>과약이 나르매 <sup>一一</sup>종을 농부의게  
 一二 보내여 포도원 싹과를 밋치라 <sup>一二</sup>하니 농부가 <sup>一二</sup>종을 싹리며 <sup>一二</sup>그저 보내거늘  
 一三 보낸디 이 사름도 상하게 하야 <sup>一三</sup>내여 쫓거늘 <sup>一三</sup>포도원 주인이 <sup>一三</sup>글으되 엿저 할고

누가 이십장

이 렷오십이

내 사랑은 아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보면 응당 공경하라 하였더니  
 농부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유업을 엮을 자니 죽어 자  
 그 유업이 우리 거시 되리라 하고 포도원 밭으로 내어 쫓고 죽였스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엮더게 하였는도 반드시 이르러 농부를 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의게 맡기리라 하시니 듣는 자가 이르되 이러치안카를  
 원하옵나이 다 하거늘 너희를 보시고 이르되 사디 이 기록한 거시 엇짐이나  
 장인의 브린들이 집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 되었다  
 하였스니 무릇 이들 우에 썩러지는 자는 썩어지고 이 돌이 그 우에 썩러  
 지는 자는 가로가 되어 후히 지리라 하시니라 ○ 이 세에 서기관과 제사장도  
 예수가 이 비유로 저희를 그 큰 처신 줄을 알고 죽시 잡고져 하되 비성을  
 두려워하더라 너희가 엇보고 탐지군을 보내여 올흔 사람을 데우고 그  
 말을 취잡아 감소의 법률과 권제 아래 붓치고져 하야 드디어 무리 곧 디  
 선생님이여 말씀하시는 것과 무치시는 거시 올흔시며 모양으로 사람을  
 취잡아 내어지고 오직 참됨으로 하는 님의 도를 무치시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가이사의게 제를 받치는 거시 맞당하오닛가 맞당치아나 하오닛가  
 하니 예수가 그 계교를 아시고 곧 사디 돈헌품을 내게 보이라 이 화상과  
 글이 뉘거시나 하시니 디답하되 가이사의 거시니이다 곧 사디 그런즉  
 가이사의 거손 가이사의게 돌려 보내고 하는 님의 거손 하는 님씩 돌려  
 보낼지니라 하시니 탐지군이 비성 압헤셔 그 말을 취잡지못하고 또 그  
 디답을 괴이히 녀여 즐잡하더라 ○ 부활이 엮다 하는 사 두리 교인 몇치와셔  
 무리 곧 디 선생님이여 모세가 글노 우리의게 보였스디 사람의 형이  
 죽고 안히는 잇스되 죽식이 엮거든 그 동성이 그 안히를 취하야 형을  
 위하야 죽식을 나흐라 하였스니 칠형데가 잇는디 맛이 안히를 취하엿다가  
 죽식이 엮시 죽으매 그 둘째와 그 셋째가 취하엿다가 날곱이 다 그리하야  
 죽식 엮시 죽고 그 후에 네인이 또 죽엇는지라 날곱 사람이 다 취하엿스니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뉘 안히가 되리잇가 예수 님이 사디 이 세상 사람은  
 장가도 가고 식집도가 되 오직 더 세상과 밋죽은 가온디셔 부활 엮을 만  
 할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식집도 아니가며 또 능히 다시 죽지도 아니



누가 이십장

이십오십소

三六 ㅎ느니 대개 련스와 동등이 오또 부활할자니 ㅎ느님의 아들이니라 오직  
 三九 죽은자가 다시 살 거슬 의론할진대 모세도 형극편에 불히 보였스티 쥬를  
 三九 날크러 아브라함의 ㅎ느님이오 이삭의 ㅎ느님이오 야곱의 ㅎ느님이니 대개  
 三九 ㅎ였느니 ㅎ느님은 죽은자의 ㅎ느님이 아니오 산자의 ㅎ느님이니 대개  
 三九 모든 사람이 ㅎ느님씩 의지하야 다 살미니라 ㅎ느니 서기관 두어 사람이  
 三九 잇서 글으되 선성이여 말씀이 올흐니이다 ㅎ교 후에 감히 다시 못지못  
 三九 ㅎ더라 예수가 무리드려 날으샤되 사람이 었지하야 그리스도가 다윗의  
 三九 즈손이라 ㅎ느니 시편칙에 다윗이 천히 말ㅎ였스티  
 三九 쥬씩셔내 쥬씩 날으샤되 내가 내 올흔편에 안져 내가 네 원슈를 네  
 三九 발등상 되게 할 썸썸지기드리라 ㅎ섯다  
 三九 ㅎ였스니 그런즉 다윗은 그리스도를 쥬라 날크렸스니 었지 즈손이 되리오  
 三九 ㅎ시더라 모든 백성들이 드를 썸에 예수가 그 데즈의게 날으샤되  
 三九 서기관을 삼가라 더희는 긴 옷을 남고 든니기를 원ㅎ며 저저에서 문안 밧는  
 三九 것파 회당 상좌와 잔취에 올흔 자리를 도화ㅎ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三

三 거짓 거스로 길게 기도ㅎ느니 이런 무리는 죄덩흠이 더욱 크리라  
 三 예수가 눈을 드러 부자가 연보께에 연보던짐을 보시고 또 었던 간난흔  
 三 과부가 적은 돈 두푼 던짐을 보시고 글으샤되 내가 참으로 너희게 말  
 三 ㅎ노니 이 간난흔 과부가 못사름보다 더 만히 던졌도다 대개 더 무리는  
 三 쓰고 늙은중에서 던졌거니와 오직이 과부는 구차흔중에서 저의잇는바  
 三 연명할 거슬 다 던졌다 ㅎ시더라 호이 성덜을 크게 말ㅎ되 이 갓흔  
 三 미석과 레물을 가지고 씌이였다 ㅎ거늘 예수 글으샤되 너희 보논이  
 三 거시 날이 니르면 돌 ㅎ나도 돌우에 텡노히지안코다 문혀저리라 ㅎ시  
 三 거늘 너희가 무리 글으되 선성님이여 어느 썸에 이 일이 잇스며 이 일이  
 三 일을썸에 무슨 징조가 잇스오리잇가 ㅎ니 글으샤되 조심하야 늙의 마혹에  
 三 들지말나 대개 여러 사람이 내 일흠으로 와서 날으되 내가 그리스도라  
 三 ㅎ며 썸가 갓가왔다 ㅎ여도 너희는 좃지말고 너희는 란리와 요란흠을  
 三 드러도 두려워마라 이 일이 반드시 문져 잇스되 오직 뜻촌 아적 되지  
 三 아니하니라 ㅎ시더라 또 날으샤되 백성이 니러나 백성을 치며 나라이

누가 이심일장

이 빌 오심록

12 내려나 나라를 치고 각처에 큰 디동과 흥년과 온역이 잇스며 또 하늘노셔  
 13 무셔온 것과 큰 징조가 잇슬 거시니 이 모든 일이 되기 전에 사람이 내  
 14 일음을 인하여 너희를 잡아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가도며 선을어 님군과  
 15 감스 압헤 니를저니 이 일이 너희게 증거가 되리라 그런고로 너희가 믿음  
 16 을 영하여 엇더케 디답할 거슬 미리 생각지말나 내가 너희게 구제와 저해  
 17 를 주어 너희를 디덕하는자로 하여곰 결우어 변박지못하게 할지니 장차  
 18 부모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내어주어 너희 중에 몇출 죽이게 하고  
 19 또 너희가 내 일음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게 위위함을 밧을 거시나 그러나  
 20 너희 머리 락하나 도상치아닐지니 너희가 인내로 령혼을 보존하라  
 21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스의게 에워싸인거슬 보거든 그 멸망이 갓가온줄을  
 22 알나 그 때에 유대에 잇는 사람은 맛당히 산으로 도망할 거시오 그 가온디  
 23 잇는 사람은 썬날 거시오 초에 잇는자는 드러가지말지어다 대개 이 여러  
 24 날은 별 주시는 날들이니 괴록할 거시다 응하게 흠이나라 그 때에 너희  
 25 빌자와 절망이는 내인의게 화가 잇스리니 이는 싸에서 큰 지앙이 잇고

26 노후심이 이 박성의게 밋침이라 너희가 장차 팔날에 죽으며 모든 나라에  
 27 사로잡혀 가고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의게 뵈헌바가 되여 이방 사람의  
 28 괴약이 출뎌서지니 르리라 일월성신에서는 징조가 잇고 싸에서는 박성  
 29 들이 곧고하고 바다 물결이 울매 엇지할줄을 아지못하라 세상에 림할  
 30 일을 사름들이 무셔워하고 념려함으로 락담하리니 대개 하느권세들이  
 31 혼들닐 거시오 썬흔 그 때에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구름을 두르고 림  
 32 함을 보리니 이런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구속함이 갓가오니 내려나  
 33 머리를 들나 하시더라 ○ 이에 비유를 배퍼닐샤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34 나무를 보라 썬이 나면 너희가 보고 념름이 임의 갓가온줄을 즈연히  
 35 알지니 이와 못치 너희가 이일이 나느거슬 보거든 하느님의나라이 갓가  
 36 온줄을 알나 내가 진실노 너희게 말하노니 이 세디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37 일이 다 일우리니 련디는 업서질지언딩 내 말은 업서지지아니하라 ○  
 38 너희가 맛당히 조심하야 방랑음과 술취함과 세상 거정에 믿음의 놀니이  
 39 지말고 그 날이 갑작이 그몰 못치 너희게 림함을 면하라 반드시오 디구

누가 이십일장

이십오십팔

三六 상에 거는 모든 사람의게 그 날이 이러케 림하시니 이럼으로 너희는  
 三六 홍상 서여잇서 괴도하기를 너희로 능히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三七 인조 압해 서게 하옵쇼셔 하라 하시더라 ○ 예수가 낮이면 성전에서  
 三八 이르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산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一 일즉 성전에 나아가서 듯더라

二 누룩 업는 떡 먹는 절기가 갓가오니 일홈은 유월절이라 제스제장과  
 三 서기관들이 백성을 무셔워하야 회회를 차차 엇더케 예수를 죽일고 하더라 ○  
 四 사단이 가룟 유다라 하는 자의게 드러가니 이는 곳 열둘 중에 하나이라  
 五 이에 가서 제스제장과 령관으로 더브러 엇더케 예수를 잡아 주기를 의론  
 六 할때 너희가 깃버하야 돈을 주기를 언약하니 유다가 허락하고 이에 회의를  
 七 차자 무리가 업슬 때에 잡아 주라 하더라 ○ 누룩 업는 떡 먹는 날이니 르니  
 八 유월절 양을 잡는 때라 예수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샤 골사닥 가셔  
 九 우리를 위하야 유월절을 예비하야 우리가 먹게 하라 하시니 엇조오디  
 十 우리로 하여곰 어디 가서 예비하라 하옵는 잇가 날사닥 너희가 성에

로

十一 드러갈 때에 물훈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너희가 르라  
 十二 그 드러가는 짐으로 드러가 그 짐 주인드려 날스디 전성님의 말씀이 내가  
 十三 데즈와 흠씩 유월절을 먹을 사처방이 어디 잇는뇨 하라 그리하면 더가  
 十四 비설흔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시디 데즈들이 나가 하시던  
 十五 말씀대로 맛나 유월절 잔치를 예비하라 ○ 새가 니르매 예수가 스도들과  
 十六 흠씩 자리에 안조샤 날스디 내가 해를 밟기 전에 너희와 함께 하기로 이  
 十七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대개 내가 너희드려 날스디 이  
 十八 유월절이 하는님 나라에서 일우기까지 다시 먹지아나 하리라 하시고  
 十九 이에 잔을 밟으시고 축샤하신 후에 골사닥이 거슬 갓다가 너희 세리  
 二十 는호라 내가 너희드려 날스디 내가 이후에는 하는님 나라이 림하기 전에  
 二十一 시다 포도즙을 마시지아나 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축샤하시고 떡여  
 二十二 주시며 골사닥이 거시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야 준거시니 너희는 이 거슬  
 二十三 행하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잔을 가져 또 이와 못치 하샤  
 二十四 골사닥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야 흘닌 거시

라 그러나 나를 잡아 줄 자의 손이 나로 더 브러 상에 잇는 지라 인<sup>三</sup>즈는 임의  
 작<sup>三</sup>당하신대로 가려니와 오직 잡아 주는 자는 화가 잇스리라 하시니 너희가  
 서로 무르디 이 일을 우리 중에 누가 행할고 하더라 ○ 또 너희 중에 누가  
 크나 하느 다름이 나거든 예수<sup>二五</sup> 닐<sup>二五</sup>샤디 이방 사람의 님군이 너희를  
 주<sup>三</sup>관할 때 권세를 잡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자라 하나 오직 너희는 그러치  
 아닐 거시니 다만 너희 중에 큰 자는 소년과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고  
 지니 음식 먹는 자가 크나 섬기는 자가 크나 음식 먹는 자가 크지 아니 하나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잇서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내가 시험 당할 동안에  
 너희가 할 가지로 하였스니 내가 나라고 너희를 봉<sup>三六</sup>하디 내 아바지 씨서  
 나를 봉<sup>三六</sup>함과 같치 하나 너희로 하여곰 내 나라에 잇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구하야 었어 밀사 브르는 것과 같치 너희를 사 브르  
 하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야 괴도하야 네 밋음으로 하여곰 업서 지  
 제<sup>三三</sup>안게 하노니 너는 도리킨 후에 내 형대를 갖게 하라 하시니 닐<sup>三三</sup>샤디 주여

내가 주로 더 브러 옥에도 같치 하고 죽기도 같치 하기를 영<sup>三三</sup>하였는 이다  
 하니 닐<sup>三三</sup>샤디 베드로야 내가 너더러 말하노니 오늘 돌이 울지아나 하여서  
 세<sup>三五</sup>번 나를 모른다 하시라 하시더라 ○ 또 너희게 닐<sup>三五</sup>샤디 내가 너희를  
 주<sup>三五</sup>머니도 업고 전<sup>三五</sup>디도 업고 신도 업시 보내엿을 때에 부족할 거사 잇더냐  
 글<sup>三五</sup>샤디 업더이다 닐<sup>三五</sup>샤디 이제는 주머니 잇는 자는 가지고 전<sup>三五</sup>디 잇는 자도  
 또 할 그리하고 환도 업는 자는 옷을 팔아 환도를 살지어다 내가 너희더러  
 말하노니 괴록 할바 사람이 죄인의 동류로 녀엿다 하는 말이 반드시 내게  
 응<sup>三八</sup>하리니 나를 부르친 말씀이 일우리라 하시니 너희가 엿조오디 주여  
 여<sup>三八</sup>기 환도들이 잇는 이다 디 답<sup>三八</sup>샤디 좃<sup>三八</sup>하니라 하시더라 ○ 예수가 나가샤  
 그의 규례를 좃<sup>三八</sup>차 감람산에 가실시 데<sup>三八</sup>조도 좃<sup>三八</sup>차가니 그곳에 이르러  
 닐<sup>三八</sup>샤디 시험에 들지 안기를 괴도하라 하시고 돌던질 만<sup>三八</sup>처가셔 쌀고 밧어  
 글<sup>三八</sup>샤디 아바지여 만일 즐기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떠나게 하쇼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처분대로 하옵쇼셔 하시니 스<sup>三八</sup>자가 하느  
 노 브러 와서 예수 씨 나타나 힘을 주매 예수가 힘쓰고 이 씨 괴도하시기를

누가 이십이장

이십륙십이

四四 더옥 근절허 하시니 짐 흐르는 거시 큰 피방울이 흘러 싸에 쪼러지는 것  
 四五 못다라 피도하시기를 못초시고 니러나 데즈들의게 가 보시니 근심 중에  
 四六 자거늘 빌으샤디 엇지하시야 자는냐 니러나 시험에 들지안키를 기도하라  
 四七 하시더라 ○ 맛춤 말씀하시실 때에 할 무리가 니르니 열들 중에 하나 유다라  
 四八 하는자가 무리 압해 헝하시야 예수께 나아와 입을 맛초라 하시니 유다라  
 四九 빌으샤디 유다야 네가 입맛춤으로 인즈를 잡아주라는냐 하시니 좌우가  
 五〇 그 될 일을 보고 곳엿자와 글으디 주여 우리들이 칼노 처리잇가 하시니  
 五一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스장의 종을 쳐그 을흔편 귀를 썩근지라 예수  
 五二 닐너 글으샤디 이것저지 춤으라 하시고 드디여 그 귀를 어로문져 낮게  
 五三 하시더라 예수가 그 잡으려 온 제스장과 성년애 령관과 장들러 빌으샤디  
 五四 너희가 강도 잡는 것 및 환도와 몽치를 가지고 왔는냐 내가 날마다  
 五五 너희와 흠뻑성년에 잇슬 때에 내게 손을 대지아니 하였스나 그러나 이제  
 五六 짐으로 갈시 베드로가 말니 왜라 하시니 사람들이 마당가온디 불을 피우고

五七 및치 안젓거늘 베드로도 그 가온디 안젓더니 한 계집종이 베드로가 불을  
 五八 향하야 안즌 거슬 보고 주목하시야 글으디 이 사람이 그와 한가지로 든닌  
 五九 사람이라 하시니 베드로가 아니라 하시야 글으디 이녀인이 내가 더를아지못  
 六〇 하시니라 하시니 왜 조곰 잇다가 다른 사람이 보고 글으디 너도그 당이라  
 六一 하시니 베드로가 글으디 이 사람이 나는 아니로라 하시니 한시 즘 잇다가  
 六二 다시 한 사람이 잇서 분명히 말하시야 글으디 이 사람이 춤으로 그와 한가  
 六三 지로든닌 사람이니 대개 같닐니 사람이라 하시니 베드로가 글으디 이 사람이  
 六四 너 하는 말을 내가 아지못하시니라 하시니 말을 때에 늬이 곳 우는지라  
 六五 유가 도리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드디여 주의 말씀에 오늘 늬을기  
 六六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 하시니라 하시니 피역하고 곳 밧게 나가셔  
 六七 심히 통곡하시니라 ○ 예수를 못잡은 사람들이 희롱하고 찌리며 그 눈을  
 六八 마리오고 무리 글으디 네가 선지자라 하시니 너를 치는자가 누구냐 하고  
 六九 쓰여러 가지 훼방하는 말도 육하시니라 ○ 날이 새매 빌성의 장로된 제스장과  
 七〇 파서기관들이 다 모히여 예수를 석을고 공회에 니르러 글으디 네가

누가 이십이장

이십륙십사

그리스도여든 우리게 낄으라 디 답하샤 디 내가 너희게 낄을지라도 밋지  
 아니 할 거시오 내가 너희게 무려도 디 답지 아니 할 리니 이후로 브터 인조가  
 하느님의 큰 권제 우편에 안져 잇스리라 하시니 다 글으 디 그러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냐 하거늘 디 답하샤 디 너희 말이 올도다 하시니 무리가  
 글으 디 엇지 다른 증거를 쓰리오 그 입에서 친히 드렸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니려나 빌나도의게 쓰을고 가서 송스 하야 글으 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빙성을 미혹하교 가이사에게 제 밧치는 거슬 금하며  
 조청 님군 그리스도라 하디이다 하니 빌나도가 무려 글으 디 네가 유대인  
 의 왕이냐 디 답하야 글으 디 네 말이 올도다 하시니 빌나도가 제스제장과  
 무리들드려 낄으 디 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죄가 업도다 하시니 무리가 더욱  
 썩내여 글으 디 더가 빙성을 요동케 하교 원 유대에 교를 두루 전하교  
 갈닐니로 브터 여괴 쓰지 니 르렸느이다 하니 빌나도가 듯고 무르 디 더가  
 갈닐니 사람이냐 하야 헤롯의 권제에 속흔 줄을 알고 곧 헤롯의게 보내니  
 세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잇는지라 ○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대개 임의 소문을 드름으로 보고져 혼자 오래고 쓰흔 그 혼이 쳐 흥하심  
 보기를 바람이라 여려 말노 무르나 아보 말도 디 답지 아니 하시니 제스제장과  
 서기관이 서셔 송스 하거늘 힘쓰거늘 헤롯이 그 군스들과 못치 예수  
 를 업수히 녀여 희롱하교 처석 웃을 넘혀 빌나도의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나도가 전에 원슈가 되엿다가 당일에서로 친구가 되니라 ○ 빌나도가  
 제스제장과 관원과 빙성을 모호고 낄으 디 너희가 이 사람이 빙성을 미혹  
 한다 하야 내게 쓰을어 오니 내가 곧 너희 송스 하는 일노 너희 압해 사실  
 하 디 그 죄 잇는 거슬 보지 못하엿고 헤롯이 쓰흔 그 러케 하야 우리게 도로  
 보내엿스니 더의 흥흔 거시 죽일 일이 업는지라 그 런고로 쓰려 못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너 글으 디 이 사람을 죽여 버리고 바라바를 놓아 주쇼셔  
 하니 이는 성중에서 란을 짓고 살인함으로 옥에 갓친자라 빌나도는  
 예수를 놓코져 하는고로 다시 무리의게 말하되 오직 무리는 소리 질너  
 글으 디 십자가에 못박게 하쇼셔 십자가에 못박게 하쇼셔 하거늘 빌나도가  
 세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엿느냐 나는 그 죽일 사들

누가 이십삼장

이백륙십륙

三三 잇는 거슬 보지 못하였는니 싸려셔나 노흐리라 호되 무리가 더욱 소리를  
 三四 높혀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무리의 소리가 이권지라 이에 빌나도가  
 三五 그 구하는대로 결안호고 란을 짓고 살인함으로 옥에 갓천자를 노흐니 곳  
 三六 무리의 구하는바라이에 예수를 무리의게 내여 주어 그 뜻대로 하게 하더라  
 三七 예수를 신을고 갈 때에 구레네 시몬이 식골노셔 오거늘 무리가 잡아  
 三八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좃게 하더라 허다한 백성들과 밧가슴을 치며 이 통  
 三九 호는 부녀들이 싸라 오거늘 예수가 도리켜 향하여 골사되 예루살렘의  
 四〇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나 날이  
 四一 너르면 사람이 반드시 말할기를 슈티못호는 이와 호변도 희산호지 못호는  
 四二 와 호변도 젖 먹이지 못호는 복이 있다 호리라 그 때에 사람이 산을  
 四三 더하여 날이 우리 우에 문혀지라 호며 언덕을 더하여 날이 우리를 구리  
 四四 우라 호리니 푸른 나무에도 이 못치호든 무른 나무에는 엇더케 호리  
 四五 호시더라 또 두 죄인을 신을어 내어 예수와 호가지로 죽이고져 호시  
 四六 호리라 호는 곳에 나르러 가리 심자가 못박고 두 죄인도 호호 그 러게

四七 호니 호나는 우편에 잇고 호나는 좌편에 잇더라 예수 사되 아바지여  
 四八 이 무리를 사하여 주옵쇼셔 더화가 저희의 호는 거슬 아지 못호미니이다  
 四九 호시니 이에 그 옷을 논화 제비쌌더라 백성이 서셔 불셔 관원도 비우셔  
 五〇 골이 더가 다른 사람을 구호였스니 만일 하는님의 덕호신 그리스도여든  
 五一 스스로 구원하라 호고 군수도 호호 압호로 나와 희롱호고 초를 드리며  
 五二 골이 더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 어든 네가 너를 구하라 호며 그 우에 쓴  
 五三 명패가 잇서 골이 더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호였더라 ○ 달난 죄인 호나는  
 五四 회방호야 골이 더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못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호되  
 五五 호나는 그 사람을 더하여 쓰지져 골이 더가 호가지로 죄를 밧아도  
 五六 오히려 하는님을 두려워아니 호는냐 우리는 이에 맞당호니 대개 우리 밧는  
 五七 거슨 우리 호호는 거세 합당호거니와 오직 이 사람의 호호는 거슨 을치아닌  
 五八 거시 업는니라 호고 이에 예수드려 날이 더 예수여 나라에 림호실 때에  
 五九 나를 생각호쇼셔 호니 예수 사되 내가 진실노 너드려 날이 노니  
 六〇 오늘 내가 반드시 나와 호가지로 락원에 잇스리라 호시더라 ○ 때가 오져

누가 아십삼장

이 비록 십팔

四五 즘 되여 원싸이 다 미시 말사지 어 두어 <sup>四四</sup>히 빗치 감감하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온티가 썩여 지는지라 <sup>四六</sup>예수가 크게 소리 질너 불너 <sup>四七</sup>글은 샤 디 아바지여  
 내 령혼을 아바지 손에 부탁하느이다 <sup>四八</sup>하야 말씀을 못초시고 <sup>四九</sup>운명하사 내  
<sup>四七</sup>빅부장이 이리함을 보고 <sup>四八</sup>곳영화를 하는 님새 돌녀 보내여 <sup>四九</sup>글은 디 이 는  
<sup>四七</sup>당녕의 인이로다 <sup>四八</sup>하고 <sup>四九</sup>모히여 구경하는 무리들이 그 일운 거슬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sup>四九</sup>도라가고 <sup>五〇</sup>예수를 아논이와 갈닐너로 브러 혼가지로 쓰라온  
<sup>五〇</sup>녀인들이 다 멀니 서서 이 일을 보니라 ○ <sup>五一</sup>요셉이라 하는 혼 사람이 잇스니  
<sup>五一</sup>공회의 관원이 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니 <sup>五二</sup>관원들의 썩고 행하는 일이  
 불가하다 혼지라 이는 <sup>五三</sup>유대인의 고을 아리마대 사람이 오 본리 하는 님  
 나라를 기드리는 자러니 <sup>五四</sup>빌나도의 게가셔 예수의 시테를 달나 하야 <sup>五五</sup>이에 느려  
<sup>五五</sup>되로 싸고 바회를 파서 <sup>五六</sup>모든 무덤 속에 되셔 두너 아직 사람을 장스  
<sup>五六</sup>치 아니 혼 디라 이 <sup>五六</sup>새는 예비하는 날이니 <sup>五六</sup>안식일이 거의 된지라 <sup>五六</sup>갈닐너  
<sup>五六</sup>로 브러 예수와 함께 온 부녀들이 뒤를 좃차 그 무덤파 시테를 엿더게 들

좃차 쉬더라

三 칠일 첫날 새벽에 이 녀인들이 예비 혼 향을 가지고 무덤에 이르러 돌이  
 四 발서 무덤에서 굴너 <sup>四</sup>옴겨 노힌 거슬 보고 <sup>五</sup>드러가셔 예수의 시테를 보지 못  
 五 혼지라 <sup>六</sup>맛춤 쥬져 혼 새에 <sup>七</sup>든 두 사람이 찬란 혼 옷을 입고 <sup>八</sup>겻헤 섰거늘  
 六 녀인이 놀나 <sup>六</sup>싸에 업디니 <sup>七</sup>두 사람이 <sup>八</sup>닐너 <sup>九</sup>글은 디 <sup>一〇</sup>엇지 산자를 죽은 자가 온  
 七 디서 <sup>八</sup>찾느냐 <sup>九</sup>여기 <sup>一〇</sup>게시지 아니하시교 <sup>一一</sup>임의 살아나 셧느니 <sup>一二</sup>갈닐너에 <sup>一三</sup>게 실  
 八 새에 <sup>九</sup>너희게 <sup>一〇</sup>닐은 <sup>一一</sup>신 말씀을 <sup>一二</sup>괴역하라 <sup>一三</sup>닐은 <sup>一四</sup>시기를 <sup>一五</sup>인즈가 <sup>一六</sup>반드사 <sup>一七</sup>죄인의  
 九 손에 <sup>一〇</sup>잡혀 <sup>一一</sup>십즈가에 <sup>一二</sup>못박히고 <sup>一三</sup>데삼일에 <sup>一四</sup>다시 <sup>一五</sup>살아나리라 <sup>一六</sup>하 셧다 <sup>一七</sup>하  
 一〇 너희가 그 말씀을 <sup>一一</sup>괴역하고 <sup>一二</sup>무덤에서 <sup>一三</sup>도라가 <sup>一四</sup>열흔 <sup>一五</sup>스도와 <sup>一六</sup>모든 <sup>一七</sup>다른 <sup>一八</sup>이의  
 一一 게이 <sup>一二</sup>거슬 <sup>一三</sup>다 <sup>一四</sup>교하 <sup>一五</sup>니 <sup>一六</sup>스도의 <sup>一七</sup>게 <sup>一八</sup>닐은 <sup>一九</sup>자는 <sup>二〇</sup>막달나 <sup>二一</sup>마리아와 <sup>二二</sup>요안나와  
 一二 야교보의 <sup>一三</sup>모친 <sup>一四</sup>마리아와 <sup>一五</sup>밋흔가 <sup>一六</sup>지로 <sup>一七</sup>간 <sup>一八</sup>다른 <sup>一九</sup>녀인들이라 <sup>二〇</sup>스도가 <sup>二一</sup>보기에  
 一三 그 말이 <sup>二四</sup>허탄 혼 듯하야 <sup>二五</sup>밋지 아니하나 <sup>二六</sup>베드로는 <sup>二七</sup>나러나 <sup>二八</sup>달녀가 <sup>二九</sup>무덤에  
 一四 니르러 <sup>三五</sup>굽흐려 <sup>三六</sup>드려 <sup>三七</sup>다 보니 <sup>三八</sup>되 옷만 보이는지라 <sup>三九</sup>이에 <sup>四〇</sup>일운 일을 <sup>四一</sup>괴이 <sup>四二</sup>히 녀이며  
 一五 짐에 <sup>四三</sup>도라가 <sup>四四</sup>더라 ○ <sup>四五</sup>맛춤 그 날에 <sup>四六</sup>데즈 <sup>四七</sup>중들이 <sup>四八</sup>엠마오라 <sup>四九</sup>하는 <sup>五〇</sup>촌에 가니





누가 이십소장

이십칠십

여귀는 예루살렘에서 이십오리 즈이라 이 모든 일 된 것을 서로 의론  
 할더니 <sup>十五</sup>맛춤서로 의론하야 무를 때에 예수 가가히 니르샤 혼자 지로 형  
 하시나 <sup>十六</sup>두 데즈의 눈을 희미케 하야 알아 보지 못하거늘 예수 니르샤 되  
 너희 형을 때에 서로 무슴 일노 의론하였느냐 하시니 두 사람이 머물너  
 서서 슬픈 빛치 잇더라 <sup>十八</sup>하나의 일음은 글노파라 되 답하야 글으되 네가  
 예루살렘에 혼즈 류함으로 근일 소정을 아지 못하느뇨 글으샤 되 무슴 일이  
<sup>十九</sup>노 글으되 하느님과 모든 백성 압혀서 말과 일노 권능이 만흐신 선지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sup>二十</sup>우리 제사장 과 관원이 죽이기로 결단하야 내여 주어  
 십자가에 못박은지라 <sup>二十一</sup>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가 되기를  
 바라더니 비단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운지 임의 사흘이 오 쓰흔 우리 중에  
 었던 너인이 우리로 하여곰 놀나게 하였스니 <sup>二十二</sup>대개 너희가 재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sup>二十三</sup>닐으되 임의 사르셨다 하는 연스가  
 나 타남을 보았다 <sup>二十四</sup>하고 쓰흔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부녀의  
<sup>二十五</sup>말을 듣고 오고 오라 예수는 맛나 지 못하였다 하시니 글으샤 되

<sup>二十六</sup>미련한 자여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로다 그리스도가  
 이런 해를 밧고 영화를 었는 거시 맛당치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sup>二十七</sup>선지자로 브러 시작하야 성경에 쓴 바 조귀를 무르친 것을 다 조제히 북히  
 시는지라 <sup>二十八</sup>더희가 가려하는 촌에 갔가히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조제  
<sup>二十九</sup>하시니 두 사람이 만류하야 글으되 우리의 흠씩 류하샤이다 때가 저물어  
<sup>三十</sup>가고 날이 임의 기우렸스옵느이다 하시니 이에 흠씩 류하러 드러가시니라  
<sup>三十一</sup>맛춤 흠씩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샤 축샤 하시고 떡여 주시매 두  
<sup>三十二</sup>사람의 눈이 곳 북아 알아 보더니 홀연히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서로 말  
<sup>三十三</sup>하되 길에서 우리로 더브러 말하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sup>三十四</sup>쓰겁지 아니하시나 하고 웃고 웃고 서로 니러나 예루살렘에 도라가 열흔 스도  
<sup>三十五</sup>와 그 흠씩 잇는 사람이 모힌 것을 보니 <sup>三十六</sup>더희도 말하기를 누가 과연 살아  
 나시고 시몬의게도 나타나셨다 하거늘 두 사람이 쓰흔 길에서 맛난 바와  
 떡을 씨심으로 예수 신줄 안 일을 닐으더라 <sup>三十七</sup>이 말을 흘 때에 예수가 천히  
 그 가온디 서서 <sup>三十八</sup>글으샤 되 너희게 평안함이 잇슬지어다 하시니 <sup>三十九</sup>더희가

三八

三九

四〇

四一

四二

四三

四四

四五

四六

四七

四八

놀나고 무셔 위하야 령을 본줄 노알거늘 예수<sup>三八</sup> 이르샤 디엇지 두려워하며  
 믿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나<sup>三九</sup> 또 나를 문져 보라 령은  
 썩어 살이 엮스되 너희가 나를 본즉 잇는니라 이<sup>四〇</sup> 말씀을 하시며 슈족을  
 보이시니 데즈가 너무 깃버함으로 밋지 못하교 괴이히 녀일 때에 널<sup>四一</sup> 샤디  
 여의 먹을 거사 잇느냐 하시니 이에 구은 성션<sup>四二</sup> 흐로 막을 드리매 예수가  
 밋으샤 그 압해서 잡수시더라 ○ 널<sup>四三</sup> 샤디 내근본 너희와 할가지로 잇슬  
 때에 너희게 말하바가 이거시니 곳 모세의 룰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그르쳐 기록한 거사 다 마자야 하갯다흐 말슴이라 하시교 이에 그 총명을  
 열어 모든 성경을 세듯게 하시교 또 널<sup>四四</sup> 샤디 임의 이러케 기록하였스티  
 그리스도가 해를 밋고 데삼일에 죽은 가온디셔 살아난다 하였고 또 희기함과  
 죄 사함을 그 일함으로 만방에 베프디 예루살넴부터 시작한다 하였스니  
 너희 무리는 이 일에 증인이라 불지어다 내 아버지의 허락하신 거슬  
 너희게 주리니 너희가 예루살넴에 거하야 우으므로 권능을 느려 남히시  
 기를 기대리라 하시더라 ○ 예수가 잇스리 때이니 마즌 편에 이르샤 손을

四九

五〇

드러 너희를 위하야 복을 비실시 맛춤 비실 때에 무리를 쥘나 하느노을나  
 가시니 무리가 경박하고 심히 깃버하야 예루살넴에 도라가<sup>五〇</sup> 늘 성던에  
 잇셔 하느님을 찬송하더라

드러 너희를 위하야 복을 비실시 맛춤 비실 때에 무리를 쥘나 하느노을나  
 가시니 무리가 경박하고 심히 깃버하야 예루살넴에 도라가<sup>五〇</sup> 늘 성던에  
 잇셔 하느님을 찬송하더라